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2004~2013] 수립 연구

제 출 문

밀양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연 구 진 ◆

유	승	우	연구총괄, 발전구상,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수립
김	수	석	인력육성, 생산기반, 투융자계획
김	병	률	발전구상, 지역특화품목개발, 유통개선
송	미	령	그린투어리즘 및 도농교류, 농촌생활환경
박	경	철	농업·농촌 여건분석, 개발수요조사

목 차

서장 계획수립의 개요	1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3절 연구 범위	3
제4절 연구 방법	3
제5절 연구 추진 일정	5
제6절 연구 추진 체계(단계)	6
 제 I 편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 구상	7
제1장 계획 수립의 전제	9
제1절 밀양시의 주요 농정시책	9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1
제3절 국내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16
제2장 밀양시 농업·농촌의 현황과 특징	25
제1절 밀양시의 일반 현황	25
제2절 농업·농촌의 특성	34
제3절 주민의 개발수요	51
제4절 밀양시 농업·농촌의 SWOT 분석	57
제3장 밀양시 농업·농촌 비전과 미래상	63
제1절 밀양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추진전략	63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65
제3절 밀양시 농업·농촌의 미래상	68
제4절 2013년 밀양농업 발전지표	70
 제 II 편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71
제4장 농업개발 권역별 전략 수립	73
제1절 농업개발권역 설정	73
제2절 권역별 농업발전 전략	75
제5장 지역특화농업 개발 및 육성	81
제1절 밀양시 지역특화농업 현황	81
제2절 밀양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시장 평가	88
제3절 밀양시 지역특화품목 개발 전략	95
제4절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	104
제6장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개선과 수출촉진	113
제1절 밀양시 농산물 유통 개선	113

제2절 농특산물 가공 개선	126
제3절 수출 촉진	130
제7장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활성화	135
제1절 밀양 관광의 현황	135
제2절 밀양 관광의 문제점	137
제3절 여건 변화 추세 및 밀양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	138
제4절 밀양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SWOT	143
제5절 잠재적인 투자사업 제안	144
제8장 농업인력 및 생산기반 정비	165
제1절 농업인력 육성	165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172
제9장 농촌 생활복지환경 개선	181
제1절 생활환경 현황	181
제2절 생활환경 정비의 방향	184
제3절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184
 제Ⅲ편 농림부문 투융자 계획	 189
제10장 투융자 계획 수립	191
제1절 밀양시 재정분석 및 평가	191
제2절 농업·농촌 투융자 분석	194
제3절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수립	198
제4절 계획의 추진체계	203
 abstract	 205
참고자료	209
 부 록	 213
1.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수요조사	215
2. 외국의 농업·농촌개발 우수사례 현지조사(일본)	277
3. 읍면동별 개발수요 조사 및 최종보고회 결과	292
4. 품목별 소비지 평가 결과	312

표 목 차

제1장

<표 1- 1>	주요 과일·과채류의 수입금지품목, 지역, 병해충	18
<표 1- 2>	사과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 영향	19
<표 1- 3>	배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 영향	19
<표 1- 4>	포도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 영향	20
<표 1- 5>	단감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 영향	20
<표 1- 6>	딸기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 영향	20

제2장

<표 2- 1>	밀양시 읍면별 인구현황(2001년)	28
<표 2- 2>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산업비율	30
<표 2- 3>	밀양지역의 공업 유형별 업체 현황, 2001년 현황	30
<표 2- 4>	밀양의 자연관광자원	31
<표 2- 5>	밀양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	32
<표 2- 6>	밀양시 주요 민속문화축제	33
<표 2- 7>	마을의 최근 3년동안 농가 및 비농가 인구 변화 설문조사	35
<표 2- 8>	전국, 경남 및 밀양시 전·겸업별 농가 수 및 비율	36
<표 2- 9>	전국, 경남 및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2001년	36
<표 2-10>	밀양지역 각 읍면별 경지율 및 답률	37
<표 2-11>	밀양 농업시험장 및 연구소 현황	39
<표 2-12>	최근 밀양지역 농축산물 생산 증감 현황	41
<표 2-13>	밀양 주산품목의 지역집중성 현황, 2003년	46
<표 2-14>	각 읍면동별 주요 농산물 생산 면적	46
<표 2-15>	각 읍면동별 주요 축산물 사육 현황	48
<표 2-16>	주요 농산물 특화계수 현황	50
<표 2-17>	밀양시 임야 면적	51
<표 2-18>	밀양시 농업·농촌 설문조사 응답자 구분	52
<표 2-19>	농산물 생산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2가지 순서대로 선택)	53
<표 2-20>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 읍면별 역점 사업 우선순위	56

제3장

<표 3- 1>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분야 (2가지 순서대로 선택)	66
<표 3- 2>	2013년 밀양시 농업 발전지표	70

제4장

<표 4- 1>	경지율, 답률에 의한 지대구분	73
----------	------------------------	----

제5장

<표 5- 1>	주요 품목별 주산지 분포	82
<표 5- 2>	읍면별 주·부작목 현황(개발수요자 결과)	82
<표 5- 3>	밀양시 가축사육 현황, 2002년말 기준	87
<표 5- 4>	밀양 깻잎의 소비지시장 평가	89
<표 5- 5>	밀양 청양고추의 소비지시장 평가	91
<표 5- 6>	밀양 파리고추의 소비지시장 평가	92
<표 5- 7>	밀양 딸기의 소비지시장 평가	93
<표 5- 8>	밀양 단감의 소비지시장 평가	94
<표 5- 9>	밀양 얼음골사과의 소비지시장 평가	95
<표 5-10>	향후 경쟁가능하거나 전망있는 품목 순위(설문조사 결과)	97
<표 5-11>	권역 및 지역 특화품목과 보완품목	98
<표 5-12>	“시설원예 메카 만들기” 투융자계획	102
<표 5-13>	“4명 운동”추진 투융자계획	103
<표 5-14>	축산발전 지원계획	103
<표 5-15>	민간목장의 마필 생산두수 및 생산율	104
<표 5-16>	연도별 지원내역	108
<표 5-17>	공동육성장 조성을 위한 주체간 역할	111

제6장

<표 6- 1>	밀양의 농산물 출하방법(설문조사)	113
<표 6- 2>	농산물 출하시 애로사항(설문조사)	114
<표 6- 3>	밀양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현황	115
<표 6- 4>	얼음골유통영농법인의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116
<표 6- 5>	읍면별 농산물선별장 설치현황	117
<표 6- 6>	시설채소 “공공소유-민간운영” 산지유통센터 설치	122
<표 6- 7>	공동선별장 추가 설치 및 시설보완 지원	123
<표 6- 8>	RPC 위성 건조·저장시설 설립 투융자계획	124
<표 6- 9>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	125
<표 6-10>	소비지 판촉 및 매체광고 지원계획	125
<표 6-11>	밀양시 농산물 가공업체 설립현황	126
<표 6-12>	밀양시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실체	128
<표 6-13>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130
<표 6-14>	주요 농산물 수출국 및 수출현황	131
<표 6-15>	밀양시 농산물 수출농단 현황	132

<표 6-16>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133
----------------------------	-----

제7장

<표 7- 1> 부처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일람	141
<표 7- 2> 그린투어리즘 목적과 추진방향	145
<표 7- 3> 그린투어리즘 단계별 소요예산 추정	161

제8장

<표 8- 1> 밀양시의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165
<표 8- 2> 2003년도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173
<표 8- 3> 농업생산기반조성 중장기계획(2002~2011)	175
<표 8- 4> 수자원 수급 전망, 2001~2011	176

제9장

<표 9- 1>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	182
<표 9- 2> 마을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사업 두 가지	183
<표 9- 3> 읍면별 생활환경 정비수요	183
<표 9- 4> 단계별 투자 계획	188

제10장

<표 10-1> 2003년도 밀양시 예산	191
<표 10-2> 밀양시의 재정자립도	192
<표 10-3> 투자비 비중	192
<표 10-4>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193
<표 10-5> 일반회계 세출 구성	193
<표 10-6>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93
<표 10-7> 밀양시 농림업예산 구성비율	194
<표 10-8> 2003년도 농림업 예산	195
<표 10-9> 농림업예산의 투자비 비중	195
<표 10-10>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비중	196
<표 10-11> 2003년도 사업별 농림업 예산	197
<표 10-12>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199
<표 10-13> 2004~2013년 밀양시 농림업예산 규모	199
<표 10-14> 2004~2013년 농림업 분야별 예산비중	201
<표 10-15> 2004~2013년 농림업 분야별 예산규모	201
<표 10-16> 사업별 투융자 소요액	202
<표 10-17> 실무추진단 구성	204

그 립 목 차

제1장

<그림 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밀양시의 위치	11
--	----

제2장

<그림 2- 1> 전국과 경남에서 밀양의 위치	26
<그림 2- 2> 밀양지역의 표고별 분포	27
<그림 2- 3> 산업별 구조	30
<그림 2- 4> 2003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행사 내용	33
<그림 2- 5> 밀양지역 관광객 이동 현황	34
<그림 2- 6> 밀양시 농가형태 변화	35
<그림 2- 7> 밀양시 농업진흥구역 현황	37
<그림 2- 8> 밀양시 각 읍면별 경지면적	38
<그림 2- 9> 밀양시 주요 농산물 생산면적 추이	45
<그림 2-10> 밀양시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48

제3장

<그림 3- 1> 밀양시 농업·농촌의 미래상(2013년)	69
---------------------------------------	----

제4장

<그림 4- 1> 밀양지역 농업개발권역 구분	75
--------------------------------	----

제5장

<그림 5- 1> 밀양시 특화농업단지 배치도	99
<그림 5- 2> 마필의 생산 및 유통흐름도	105
<그림 5- 3> 국내 경주마 생산 활성화 방안흐름도	110

제7장

<그림 7- 1> 고례리 개발계획도	155
<그림 7- 2> 비지터스의 역할	159

제10장

<그림 10-1>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추진 체계도	204
--------------------------------------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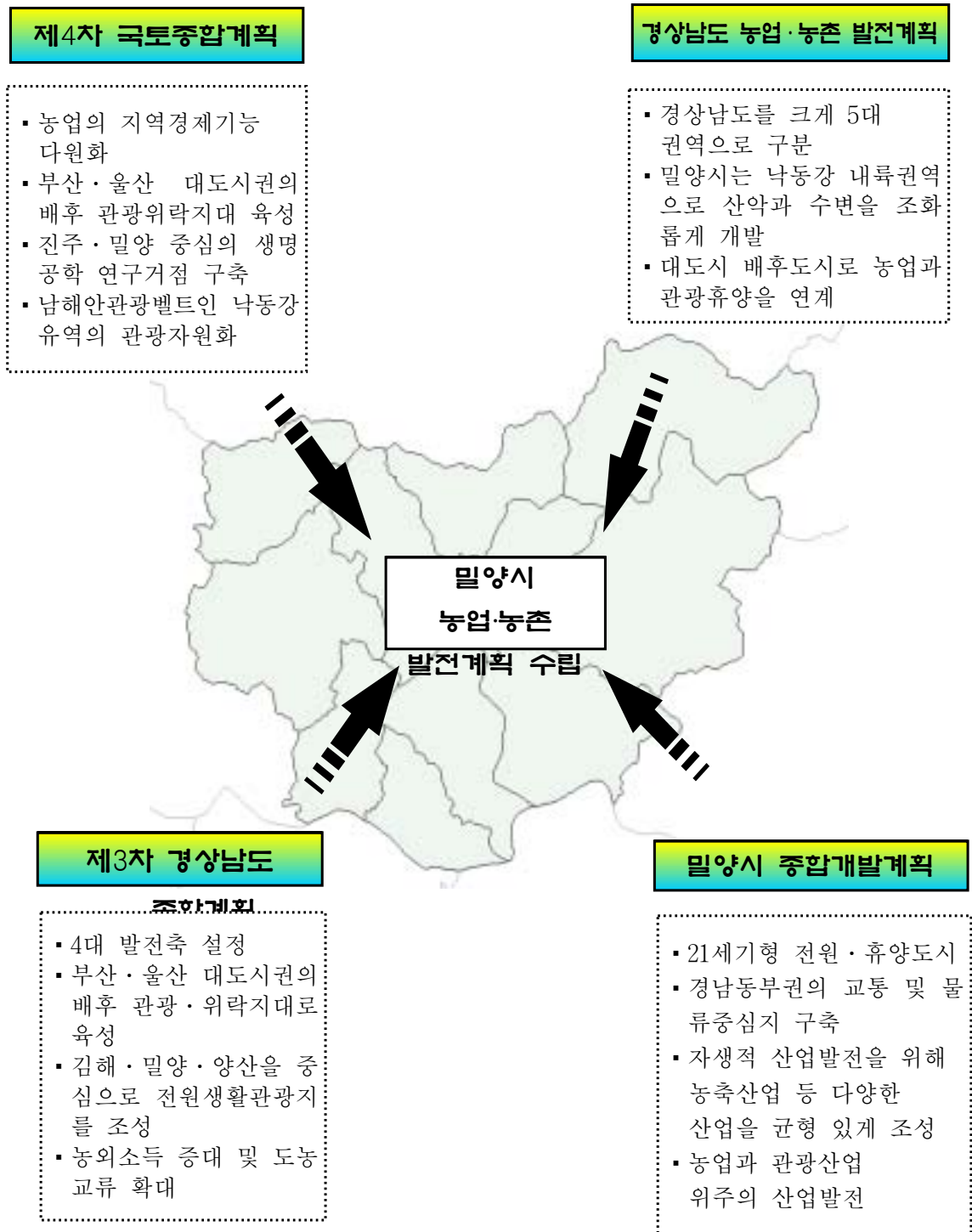
1. 계획 수립의 목적

- 이 연구는 도·농 통합시인 밀양시 농업·농촌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밀양시의 미래 지향적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밀양시 농업·농촌의 부존자원 등 현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밀양시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와 아이디어를 발굴함.
- 둘째, 밀양시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 소득증대 방안 등 구체적인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 투융자 계획을 수립함.
- 셋째, 부문별 과제와 투융자 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인 투융자 지원 방향을 제시함.

2. 계획의 위상과 관련 계획 검토

- 이 계획은 정부의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성격을 지니며,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법적 성격을 부여 받음.
- 이 계획과 관련한 상위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0~2010)」, 「경상남도 농업·농촌 발전계획」(1999~2004), 「밀양시 종합개발계획」(2001~2016) 등이 있음.

<그림 1> 관련 상위계획 체계도



3. 국내외 농업 · 농촌 여건 변화 전망과 시사점

□ 기술농업, 정보화 시대의 농업

- 생명공학(Bio-tech), 전자공학, 정보기술 등 혁신기술이 주축이 된 제3차 농업기술혁명 진전
-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접목으로 농업생산, 가공, 경영 및 유통, 판매 기술의 혁신 촉발
 - ➡ 신지식농업인 육성 요구, 원예농업 중요성 증대, 농업인의 국제화, 정보화 추구

□ WTO/DDA 농산물협상과 농산물 수입증가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생강 등 관세감축 영향 클 전망
- 사과, 포도, 배, 단감 등 과일과 딸기 등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대상 품목, 수입허용시 영향 클 전망
 - ➡ 직접적 피해는 적으나, 피해예상품목 지역, 농가의 시설원예, 과일 집 중시 과잉 우려

□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 친환경농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최근 경기도 양평, 안성, 강원도 원주, 전남 함평, 전북 무주 등 일부 지자체와 강원도, 충북 등 도 단위 지자체에서 환경농업에 관심 고조
 - ➡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밀양농산물의 친환경 이미지 각인

□ 주5일근무제와 관광의 패턴 변화

-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숙박형 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박, 펜션 등 가족 단위 저비용 체류형 휴가시설 수요 증가 예상
- ➡ 가족 단위 체험관광형 관광 수요와 문화예술과 접목된 관광 추진

□ 직접지불제 도입확대와 농업정책 변화

- WTO/DDA협상, FTA 체결, 쌀 재협상 등으로 수입개방 확대, 농산물가격 하락 예상
 - 미곡수매 감축 및 폐지
- 이에 따라 최소한의 쌀농업 유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확대 시행
- ➡ 쌀 시장가격 하락과 재배면적 감소, 고품질쌀 생산 선택, 논의 대체작목 개발 시급

□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저가농산물이 수입되고 과잉생산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에 근접하는 저가격현상 지속으로 농업소득 증대 한계
- 농업소득 의존도가 20%도 안되는 일본,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는 60%에 달해, 농업소득의 한계는 농가소득 정체, 농가경제 침체 유발
- ➡ 농산물시장 개방화시대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외취업, 농가부업,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필요

□ 수입농산물 증가와 산지간 경쟁 심화

- 수입농산물, 국내 농산물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품질의 차별성을 높이면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야 함.
- 품질의 차별화(내용)를 브랜드 형성(형식)으로 확립
 -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염두에 둘 때 표준화, 등급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품목별, 생산자단체별 브랜드화 중요
- ➡ 수출농업, 생산이력제, 원산지표기, 브랜드화로 밀양농산물 차별화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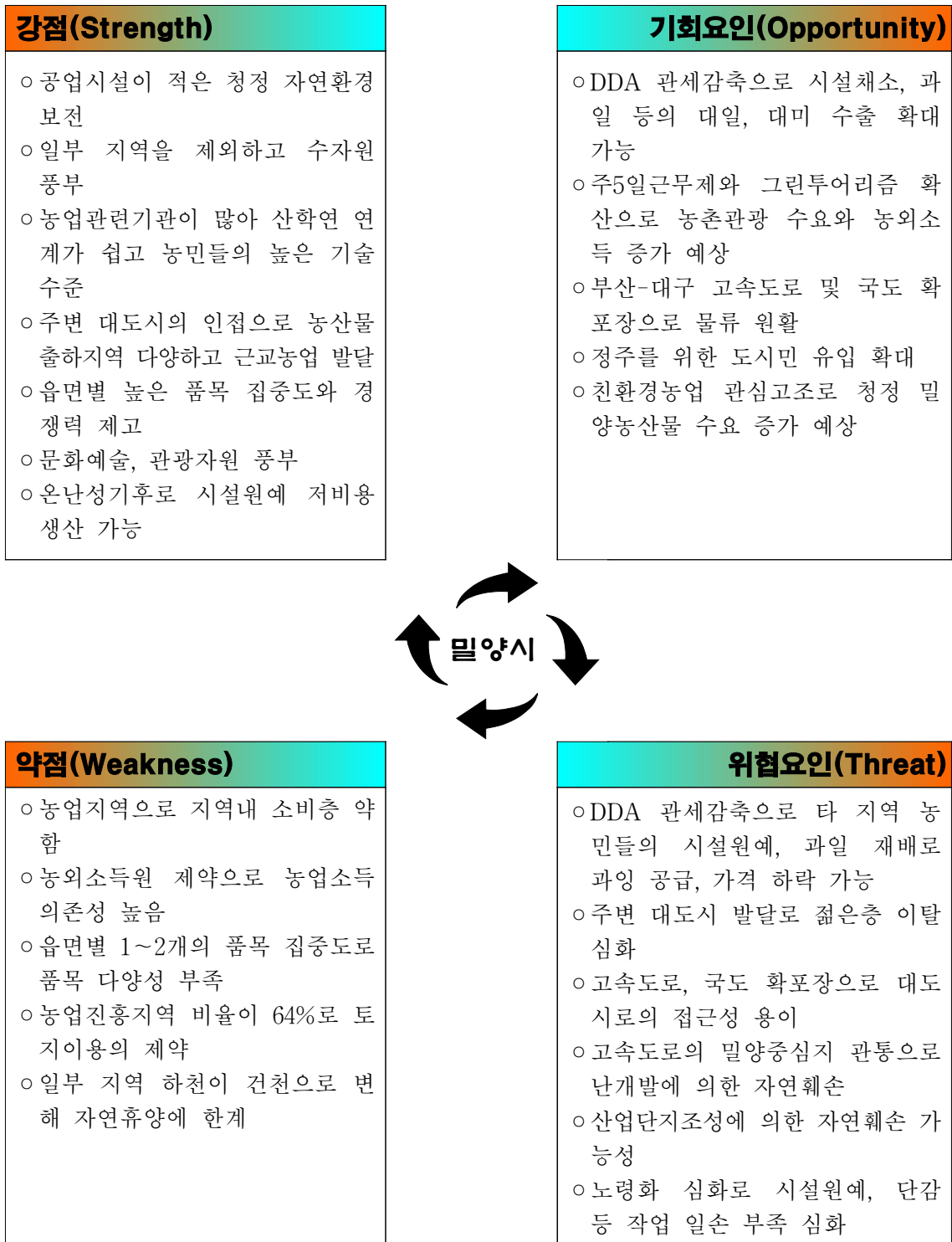
□ 고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

- 농가인구 지속 감소, 고령화와 부녀화 심화로 영농후계문제 심각, 영농의 질적 수준 저하
- 농업인력의 고령화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고령화에 대응한 안전농사, 후계농업인력 확보와 고령농민 복지대책 필요

□ 중앙정부 역할 축소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통과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구를 선정해 집중 지원
- ➡ 지방정부 특화사업 지속 개발과 추진 체계 정비, 생산자단체 육성

4. 밀양시 농업의 SWOT 분석



5. 밀양시 농업 · 농촌의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

1) 21세기 밀양시 농업 · 농촌의 비전과 추진 과제

<i>Vision 1</i>	시설원예, 과일, 축산의 규모화, 전문화로 전국 최고의 전업농 농업소득 달성
-----------------	---

III ➡ 추진전략

- 가족농 중심으로 파종, 수확 일부 작업 고용노동력 활용
시 전업규모를 현재 평균 1,000~1,500평 온실면적과 축
산 사육두수를 2배로 확대
 - 이를 위해 전업농 규모화사업 추진
- 전업농 교육, 연수 기회 확대로 최고 수준의 기술, 정보
화 농민 육성

<i>Vision 2</i>	채소박람회 개최, 시험장 연구 강화로 “한국의 시설농업 메카”로 위치
-----------------	---

III ➡ 추진전략

- 시설채소박물관 건립, 국제채소박람회 개최, 딸기·깻잎
등 품목연구소 설치, 영남농업연구소와 협동연구 강화
로 “시설채소의 고향”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국의 시
설농업 메카”로 자리매김 (사례 : 중국 산둥성 수광시
“시설채소의 고향”)

Vision 3

읍면별 품목특화와 보완품목 개발, 마케팅 강화로
전국제일의 지역품목 성과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화


추진전략

- 현재의 읍면별 특화품목 생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 고급화, 규모화를 달성하여 전국 제일의 성과 달성
- 읍면별 1~3개 특화품목으로는 가격등락에 따라 농가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새로운 보완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소득불안정 완화
- 선별, 저장 등 수확후 상품화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브랜드화,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실시로 기존의 “생산·판매 위주”에서 “상품화·마케팅 위주”로 전환 추진
- “4명운동”(명인, 명소, 명품, 명조직) 추진

Vision 4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외소득
증대


추진전략

- 다양한 역사 및 자연관광,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수확체험, 농가민박 육성으로 그린투어리즘 확대
- 생산자조직, 민간의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확대

Vision 5

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농촌 가꾸기

III ➡ 추진전략

- 청정한 자연 유지, 보전, 복원
-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고 문화활동을 적극 육성
- 주요 거점마을에 소공원, 체육공원, 의료시설, 건강관리실, 정보화카페 등 다목적 오락,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생활공동체 형성
- 밀양시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도시·농촌 개발
 - 권역별 여건에 상응하는 그린투어리즘 개발

2) 권역별 발전 전략

서부준산간지역 : 청도, 무안, 초동

- 순수 준산간 농촌지역으로 시설원예(청양, 파리고추), 축산 전문단지화 추진
- 권역명품 : 청양고추, 파리고추, 축산(한육우, 돼지, 닭), 단감
- 소득안정화 보완품목으로 특수가축(경주마), 가시오가피 등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단감가공사업 추진
- 표충비각, 사명대사생가지, 영산정사, 와불, 미리벌박물관, 체험농업 등을 잇는 그린투어 패키지상품 개발

중북부준산간지역 : 부북, 상동 산외, 밀양시내

- 밀양시 근교권으로 접근성을 잇점으로 한 전원주택단지 개발
- 밀양강 주변의 화훼, 갯잎 등 단지화 추진

- 권역명품 : 포도, 깻잎, 반시감
- 소득안정화 보완품목으로 화훼, 녹차단지 개발

동부산간지역 : 산내, 단장

- 관광휴양지로 집중 개발, 농산물판매와 연계한 그린투어 패키지코스 개발
- 얼음골사과 고품질 성가 유지를 위한 재배지 관리, 선별포장, 품질관리 철저 시행
- 얼음골사과축제, 메뚜기축제 등 활성화
- 권역명품 : 얼음골사과, 단장대추
- 소득안정화 보완품목으로 축산(돼지), 표고버섯, 약초, 밤 등

남부평야지역 : 삼랑진, 상남, 하남

- 낙동강변과 인접한 대규모 평야지역으로 친환경 벼농사 추진, 친환경 채소재배단지(미나리 등) 육성
- 농산물 집산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물류센터 등 건립
- 딸기, 단감, 감자 등 가공산업 집중 육성
- 딸기 시배지를 소재로 한 대규모 딸기축제 추진
- 권역명품 : 딸기, 단감, 감자
- 다양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안정화 보완품목은 크게 없으나 친환경재배로 인한 고품질 농산물재배단지 육성

3) 권역별 지역특화 품목 개발

① 밀양시 지역특화농업 방향

- 지역적, 농업인 특성상 읍면별로 주산품목이 명확히 구분, 품목별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임.

- 읍면별 지역특화전략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여 전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인지도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읍면별 특화품목은 시장개방 확대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희망적임.
- 따라서 지역특화품목 전략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시설포도 등 일부 품목은 대체품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주산품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품목을 육성함.

<표 1> 권역 및 지역 특화품목과 보완품목

권역	읍면	권역명품 (틈새품목)	특화품목	보완품목	비 고
서부 준산간	무안	청양고추, 단감, 축산(가시오가피, 특수가축)	청양고추, 단감, 축산	특수가축	표충비각, 사명대사생가지
	청도		풋고추, 반시감	가시오가피	
	초동		단감, 청양고추	특수가축	
동부산간	산내	얼음골사과, 단장 대추, 농촌관광 (표고, 약초)	얼음골사과	매실, 취나물, 표고, 약초	얼음골, 호박소, 가인예술촌
	단장		대추, 파리고추, 축산	사과, 표고, 약초, 밤	표충사, 사자평, 밀양댐
중북부 준산간	부북	포도, 깻잎, 반시감 (화훼, 녹차)	포도, 배, 파리고추, 대추	표고	산업단지, 밀양연극촌
	상동		반시감	화훼	
	산외		깻잎, 파리고추, 대추	녹차	
남부평야	삼랑진	딸기, 단감, 감자, 친환경쌀 (수박, 친환경채소)	딸기, 단감, 복숭아		딸기시배지
	상남		딸기, 청양고추, 깻잎, 단감, 쌀	미나리, 맥문 동	시설채소박물관, 박람회 등
	하남		딸기, 감자, 수박, 쌀	친환경채소	

2 지역특화농업 중점추진방안

<품목 일반>

- 시설채소, 축산 규모화 사업 추진 ⇒ 전업농 소득 증대
- 四名운동 추진
 - 명인, 명소, 명품, 명조직 선발 및 지원과 활용
- 1품목 1특화사업 추진
 - 특화품목에 따라 품목을 대표 또는 홍보할 수 있는 1특화사업 추진
- 가공품 개발 및 생산자단체 가공공장 설립
 - 연구소, 박물관, 대형산지유통센터 설립
 - 소비자 직판장, 노변직판장 설치
- 축산물,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유통이력제(Traceability) 추진

<시설채소>

- “시설원에 메카” 만들기 사업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및 본 사업 추진(“시설원에 메카” 원년선포)
 - 세부사업 : 시설원예박물관 설치, 시설채소국제박람회 개최, 시설원예 연구소 개설(품목연구소 집합), 품목별 시설원예연구회 구성 및 사업 내실화 등
- 시설채소 특구 신청
 - “시설채소의 고향”, “시설원에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
 - 밀양 시설농업지역을 시설채소 특구로 선정되도록 신청
- 시설채소 보완품목 개발
 - 시설채소 보완품목으로 지역별 과채류, 엽채류의 계획적 시험재배를 실시할 지역단위의 적합한 보완품목 개발(토마토, 화훼, 시금치, 상추, 양채류, 무공해 봄미나리)
- 주요 품목별 개선과제

- 껏응 : 브랜드 개발, 표준규격박스 사용, 공동선별 또는 농가단위 선별 기준 엄격 적용으로 금산 껏응에 가격경쟁력 열위 극복
- 청양고추 : 포장디자인 개발, 무안 청양고추 대표브랜드 개발
- 파리고추 :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밀양산 파리고추 브랜드 통합
- 딸기 : 규격포장, 엄격한 선별등급,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대도시 도매시장 공동출하로 밀양 딸기 인식 제고와 시장점유율 제고, 딸기 생산농민 선진지 작목반,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소매유통업체 등 견학 및 교육, 생산자조직 육성

<과수>

- 얼음골사과 브랜드 성과 유지
 - 생산자조직(작목반)의 통합
 - 공동선별출하, 공동계산제 실시로 선별, 포장 개선
 - 직거래, 도매시장 출하 등 출하창구 일원화
 - 생산자단체를 통해 상품성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저품질 판매 지양
 - 자조금제도 실시로 얼음골사과 홍보 및 축제 지원
 - 밀양얼음골 사과를 지리적표시로 등록
- 단감
 -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공동선별 출하, 포장상자 보완(부유), 완숙과 출하 유도(서촌조생)
- 배
 - 브랜드 개발, 소포장재 개발, 선별표준화 유도(공동선별 등)
- 대추
 - 브랜드화
 -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구성으로 체계적 유통 및 관리

<축산>

- 축산단지화 추진(무안, 초동, 청도, 단장 등 산간 또는 준산간 지역 중심)

- 기존 축사의 외장 개보수로 친환경적, 친관광적인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추진
- ‘얼음골한우’ 등 공동 브랜드 개발과 적극적 홍보를 통한 밀양특화 브랜드 축산 추진
- 경주마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적극 육성
 - 생산목표 : 5두(현재) ⇒ 40두(2006년) ⇒ 100두(2008년)
 - 생산농가의 집중화로 생산단지 구축
 - 정부의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활용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
 - 종빈마 전문관리기관과 연계하여 우수마 육성
 - 말사육을 교과과정으로 하는 직업훈련학교를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 경주마의 2단계사업으로 경주마 육성목장, 승마장 및 아마추어 경마장을 설치

4)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개선과제

① 농산물 유통개선

□ 브랜드화

- 밀양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 도매시장 평가 결과 유명브랜드, 공동브랜드 개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
- 밀양시 공동브랜드, 공동로고 등 재검토 연구 추진
- 밀양시 대표 색깔, 로고, 브랜드 글자체 등 C.I.P. 사업 추진
- 밀양시는 1980년대에 공동브랜드마크 “밀양 영남루”를 개발하여 1996. 12. 16일에 상표등록을 하였으나, 현재 이 마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 2001년에는 밀양시 공동로고 “햇살과 물이 좋은 밀양”을 개발하여 2003. 5. 21에 상표등록을 하여 갯잎, 단감, 표고, 딸기, 풋고추 등에 사용
- 얼음골 사과를 “밀양얼음골 사과”로 표기해 지리적표시로 등록출원함.

- 지리적표시의 등록 효과로는 타 지역에서 얼음골 사과 브랜드 사용 방지
- 얼음골 사과 생산지역을 한정하여 고품질 브랜드 유지 효과
-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한 브랜드 홍보 효과

□ 산지유통시설 확충

- 공동선별장
 - 시 지원 공동선별장의 주산지 추가 설치 지원 확대
 - 기존 선별장의 상품취급 수준을 평가해 시설 확대 지원
- 산지유통센터(APC)
 - 얼음골유통영농법인(사과) 이외에 삼랑진농협(딸기), 부북농협(파리고추), 무안농협(청양고추) 등 추가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유치
 - 기존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에 시설을 확충하여 산지유통센터로 발전
- 예냉시설, 선별포장시설 등 수확후 상품화시설 추가 설치 지원
 - 시설채소 선도유지에 중요한 예냉, 선별포장시설을 공동선별장, 집하장, APC 등 기존의 시설원에 산지유통시설에 추가 설치
- RPC 추가 설치
 - 현재 하남면 대사리 밀양제일영농, 산동농협(산외면 금천리)에 설치되어 있으나, 상남면에 추가 설치 추진

□ 공동계산제 실시 확대

- 품목별 회원제 공동계산제, 점수제 도입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계산제 추진

□ 지역내 판로 확보

- 지역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지역농산물 우선구매협약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농산물, 지역농업 사랑운동 추진

②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밀양농산물 원료를 이용한 가공공장 육성
 - 단감, 반시곶감, 딸기, 대추, 사과, 풋고추(부북), 깻잎, 감자(하남,상남), 배, 포도(부북) 등
- 밀양을 대표하는 밀양 특산주 개발
- 필요에 따라 현재 설치, 운영중인 선별장, 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 개조로 단순가공품 생산
- 영세 가공공장 판매를 전담하는 가공식품판매전담기구 설립(가공공장 출자회사)으로 유통전문가에 의한 가공품 전문판매체계 구축
- 1차적으로 주변 대도시를 1차상권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수립, 성과 및 판매능력을 평가한 후 상권 확대 추진

③ 친환경농업 육성

-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
- 밀양 특화품목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품목별로 일정 지역을 친환경 실천지구로 지정하여 지원
- 친환경 품질인증 품목 확대

5) 그린투어리즘 추진 과제

□ 중점추진과제

- 그린투어리즘 거점시설, “대규모 농업공원(theme park) 조성
 - 생산, 가공, 판매,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시설 집중 배치
 - 품목공원 : 과일, 화훼, 약초, 목장공원 등
 - 시유지 활용, 제3섹타 방식 재원조달 및 관리
- 그린투어 패키지코스 개발

- 체류휴양형 펜션, 농가민박 - 농사체험 - 관광지 코스
- 농가민박 - 축제 - 농산물 판매 등
- 농용 저수지 활용 수면골프연습장 조성
 - 수면골프연습장(저수지), 미니골프연습장, 레스토랑, 오수처리시설 등
 - 민자유치
 - 주변농가들 중심의 마을 민박,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반 확충
- 밀양보리 이용 브랜드맥주 제조 및 맥주축제 개최
 - 맥주보리 생산, 전량 구매, 시험 제조, 기존 맥주업체와 제휴, 맥주축제
 - 초기에는 밀양문화제, 밀양연극제, 얼음골사과축제 등과 연계
- 소농원, 펜션 조성사업
-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사업
 - 아름다운마을가꾸기경연대회(가칭) 개최, 우수마을 포상
- 주민 교육 및 참여의 “밀양포럼”(가칭) 설치, 운영사업
- 관광도로변 특색있는 농산물가판대 설치사업
- 밀양 비지터스센터 조성사업

6) 인력 및 생산기반 정비

- 선도농업인 육성과 명인제도 실시
 - 작목별 우수 농업인은 선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교육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의 영농직업훈련의 강사로 활용
- 인근 도시 은퇴자들의 주거정착 및 노후취업을 위한 “실버부업농 육성프로그램”을 개발
 - 주거정착을 위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
- 영농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 센터를 설치·운영
 - 취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과정과 영농종사자의 평생교육을 위한 수시과정으로 이원화

- 정규과정에서는 밀양시가 필요로 하는 특수과목(경주마 사육, 양조)을 일반과목과 함께 이수하게 함.
- 노동부에 등록된 취업훈련기관으로 운영(국비 보조 가능)
- 영농규모화 사업 강화
 - 정부의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상응하여 전업농에 대한 영농규모화 확대
 -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우수농업인에게 집중 지원
- 농업생산기반 관리의 일원화
 - 현재 밀양시와 농업기반공사(밀양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함.
 - 대신 밀양시는 농업기반공사에 생산기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7) 농촌 생활복지환경 개선

- 소생활권 단위로 거점마을에 건강 및 여가 관련시설 확충
 - 주요 거점마을에 찜질방,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보화 카페 등 설치
- 각종 특색마을 가꾸기 개발사업의 적극 유치로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 산촌종합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
- 아름다운 공원 조성
 -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등에 대비
-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실버 부업농 육성과 연계하는 실버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 도시민, 외지인을 위한 주거용 전원주택단지 조성
 - 대구, 김해, 마산, 부산, 창원, 진주 등 주변 대도시 직장인들의 전원주택 베드타운 조성
- 쓰레기 수집 및 수거 체계 구축

6. 밀양시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수립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전략사업은 총 33개로서 계획기간 중 전략사업의 총 소요액은 887억인데, 제1단계 사업기간에 422억원, 제2단계 사업기간에 465억원이 소요됨.

○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50.8%로 제일 많고 시비가 25.5%임.

- 시비 부담액은 계획기간 중 227억원임.

<표 2> 사업별 투융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단계별	1단계(2004~2008)					2단계(2009~2013)					사업비 합 계
		소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소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시설원예박물관 건립		10,000	7,500	2,500			10,000	7,500	2,500			20,000
시설채소국제박람회		2,000	1,500	500			4,000	3,000	1,000			6,000
4명운동 추진		500		500			500		500			1,000
축산단지화 사업		2,000	500	500	1,000		3,000	500	1,000	1,500		5,000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600		300	300		600		300	300		1,200
축산농가 생산지원		1,200	300	300	600		1,200	300	300	600		2,400
경주마 사육 육성사업		4,000	800	800	800	1,600	2,000	400	400	400	800	6,000
경주마 공동육성장 설치							2,400	1,200			1,200	2,400
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		2		1	1							2
산지유통센터 설치		2,000	1,500	500			2,000	1,500	500			4,000
공동선별장 설치·확대		1,000	200	400	400		1,300	300	600	400		2,300
RPC위성건조시설 설치		700	210	70	420							700
직판장 설치사업		140		86	54		140		86	54		280
소비자 관측지원사업		430		430			430		430			860
가공공장 운영지원		500				500	500				500	1,000
가공식품 연구개발		500	250	250			500	250	250			1,000
농산물수출촉진사업		750	250	500			750	250	500			1,500
농업공원 조성		1,800		600		1,200						1,800
수면골프연습장 조성							2,200		200	2,000		2,200
맥주축제 개최		250		150	100		500	150	150	200		750
소농원 및 펜션 조성		380	150	150	80		380	150	150	80		760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		1,800	1,320	480			1,800	1,320	480			3,600
가판대 설치사업		200		100	100		200		100	100		400
비지터스센터 조성사업		50	25	25			50	25	25			100
선도농업인 육성		1,500	1,000	500			1,500	1000	500			3,000
실버 부업농 육성		2,000	250	250		1,500	2,000	250	250		1,500	4,000
신규취농귀농자 지원		1,450	250	200		1,000	1,450	250	200		1,000	2,900
직업훈련센터 운영		1,500	1,500				1,500	1,500				3,000
실버문화마을 조성사업		1,800	1,200	300		300	2,400	1,600	400		400	4,200
건강여가시설 확충사업		2,900	2,450	450			2,900	2,450	450			5,800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200		200			200		200			400
아름다운 공원 조성사업		25		25	노동		25		25	노동		50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50		50			50		50			100
계		42,227	21,155	11,117	3,855	6,100	46,475	23,895	11,546	5,634	5,400	88,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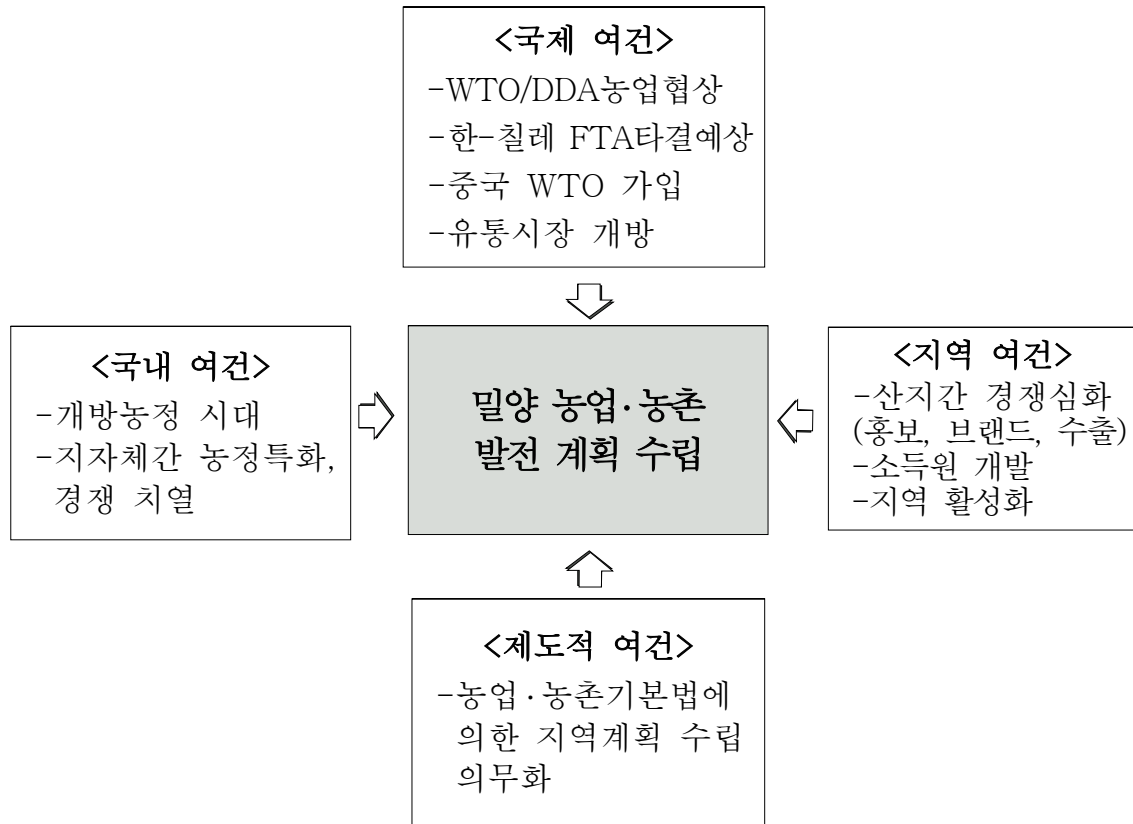
서 장

계획 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1993년말 UR 농산물협상 타결과 WTO/DDA 농업협상에 의한 농산물시장 및 유통시장의 개방,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입 영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변화 등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는 국내의 농업·농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의 농업·농정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됨.
-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따라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별 농산물의 경쟁력 수준, 농가의 소득 수준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지역농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차별화전략이 지역에 따라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브랜드화, 각종 C.I.사업 추진에 의한 지역 이미지 창출, 심지어 지역별 수출시장 개척 등으로 산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편 2000년 1월 1일자로 농업기본법이 폐지되고 농업·농촌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러한 여건 아래에 밀양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 농업,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농촌의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개념도: 밀양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의 제반 여건>



2.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도·농통합시인 밀양시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하에서 시 전체 및 각 읍·면이 처한 농업·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제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밀양시의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 시점에서의 농업과 농촌의 부존자원 등 현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밀양시 농업·농촌의 비전 제시, 중점추진과제와 아이디어 발굴
 - 둘째, 밀양시의 부존자원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 소득증대 방안 등 구체적인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 투융자 계획을 수립

- 셋째, 부문별 과제와 투융자 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인 투융자 지원 방향을 제시

3.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밀양시 전지역 - 2읍, 9개면, 2개동(삼문, 가곡, 내이동 제외)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2년
 - 계획기간 : 2004~2013년 (2004년, 2008년, 2013년 지표 추정)
- 내용적 범위
 - 지역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방향과 비전
 - 부문별, 지역 특성별, 단계별 계획
 - 계획의 집행과 관리 방안(투자계획 포함)

4. 연구 방법

① 주민 참여형 계획

- 지역부존자원조사 및 개발수요조사
 - 관련 공무원(시청, 농업기술센터, 읍면 공무원), 이장, 농협·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민회, 농업경영인 등 농정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조사(2003년 3~8월)
- 주민공청회 및 읍면별 설명회 개최
 - 읍·면별로 공무원, 농민, 여론지도자, 마을대표 등을 초청하여 연구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읍면별 설명회 개최(2003. 5월)
 - 연구사업 최종보고 전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 생산자단체 대표, 농정단체 대표, 독농가 등 지역의 농민지도자와 여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개최(2003년 12월)
- 밀양시 지역농업투융자에 대한 수요조사

- 델파이(Delphi)법에 의한 농업투융자 수요조사
 - 조사기간: 2003년 10월
 - 조사대상: 시농정담당자, 농업유관기관(농협, 농업기반공사)의 농정관련자
- 밀양시 농업투융자의 우선순위 조정
- 연구자문회의 실시
 - 관련공무원, 학계, 농민단체 등 밀양시 계획 관련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실시

② 밀양지역 농산물의 소비지 조사

- 대상 품목: 파리고추, 청양고추, 깻잎, 감자, 얼음골사과, 단감, 배, 포도, 딸기
- 조사내용: 품질, 가격, 브랜드파워, 선별포장상태, 종합적 경쟁력 등
- 조사기간: 2003. 10. 27~11. 5
- 조사기관 및 대상: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서울청과(딸기, 단감, 얼음골사과, 배), 중앙청과(딸기), 동화청과(파리고추, 청양고추, 깻잎), 농협공판장, 한국청과, 법인, 경매상, 중매인

③ SWOT 분석

- 부문별, 지역별(읍면별), 품목부류별로 부존자원 및 현상이 가지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도출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전망이 밀양시 전체, 각 지역(읍면), 부문, 품목에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위협요인(Threat)으로 작용하는가를 구분함.
 - 밀양시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SWOT 분석
 - 2읍, 9개 면, 2개 동별 농업·농촌에 대한 SWOT 분석
 - 품목별 생산, 유통에 대한 SWOT 분석
 - 부문별 현황 및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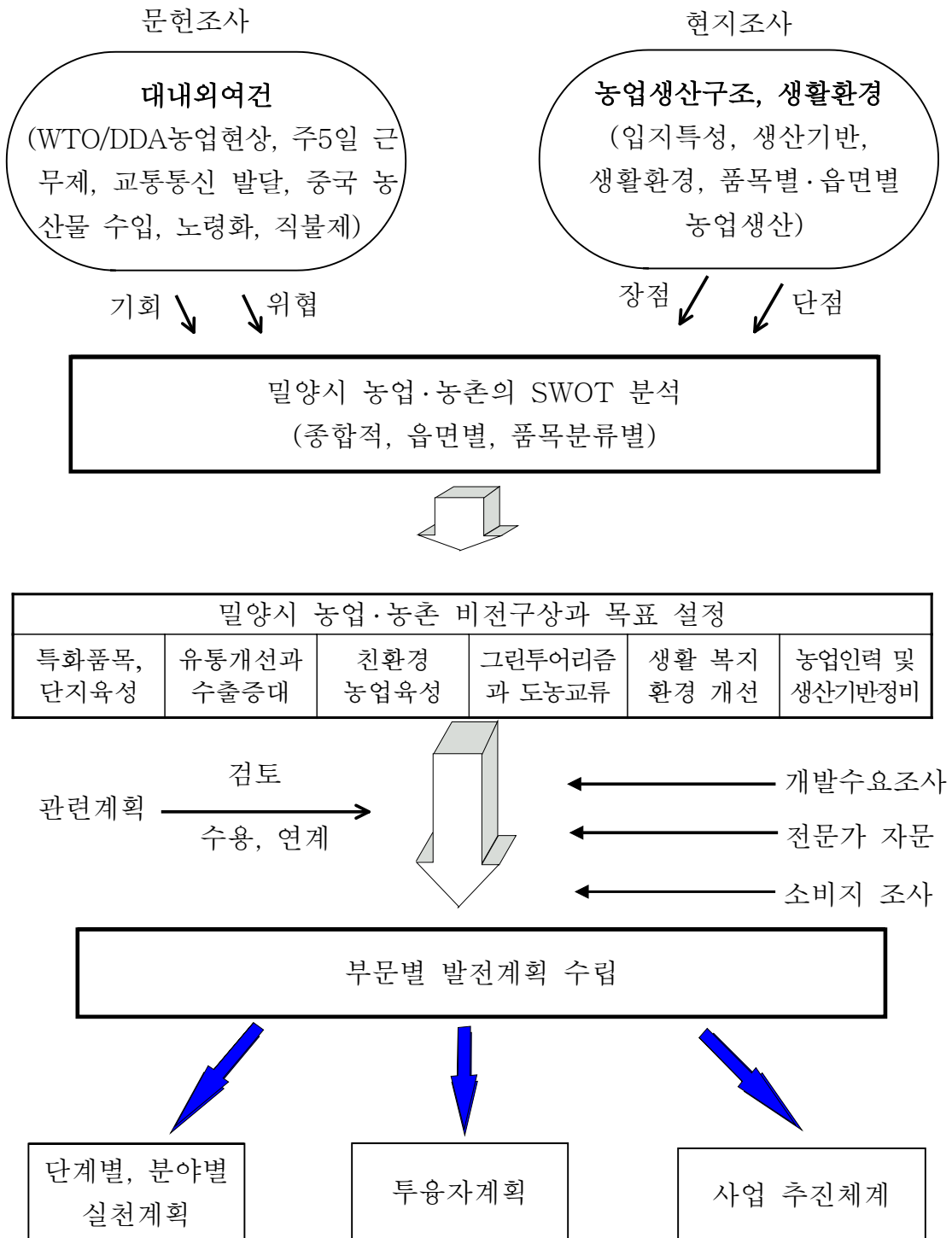
④ 외국의 지역농업·농촌개발 사례 벤치마킹

- 지역 중심의 농업·농촌개발의 외국사례로 일본의 중산간지역 농업 개발계획 수립 사례를 조사·검토하여 벤치마킹을 시도함

5. 연구 추진 일정

■ 연구용역계약 체결, 연구 착수	2003. 2월초
■ 시 농정 현황 파악 및 연구추진 방향 설정	2003. 2~3월
■ 지역 및 품목별, 분야별 조사	2003. 3~10월(수시)
■ 지역부존자원 조사(마을별 및 분야별 조사) - 관련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지역 농협, 농민(단체), 전문가 등 협조	2003. 3~8월
■ 개발수요 조사(마을별 및 분야별 조사)	2003. 5월
■ 중간 보고	2003. 11월 13일
■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2003. 12월 18일
■ 장단기 추진전략, 단계별, 분야별 투융자 계획 수립	2003. 10~ 2004. 01월
■ 최종보고서 제출	2004. 01월 30일

6. 연구 추진 체계(단계)



제 1 편

밀양시 농업 · 농촌 발전 구상



제1장 계획 수립의 전제

제2장 밀양시 농업 · 농촌의 현황과 특징

제3장 밀양시 농업 · 농촌 비전과 미래상

제 1 장

계획 수립의 전제

제1절 밀양시의 주요 농정시책

- 밀양시 농정시책은 기본적으로 농림부의 농정시책 기조와 같음. 1970~'80년대 녹색혁명에 의한 식량증산시책 일환으로 보은못자리 보급, 통일벼 재배확대, 객토를 이용한 토양개량 등으로 쌀 자급과 맥류(보리) 확대재배 등 식량자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1990년대의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따라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1992~'98년), 1993년 7월 신농정 5개년 계획수립, 특히 UR 타결 직후인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에 따른 15조 농어촌특별세사업(1994~2004년)으로 농업기반과 농촌지역하부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밀양시에서도 정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각종 농산물유통시설, 농산물 가공산업,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수출농단),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등 하부구조 중심의 투융자사업이 방대하게 시행되었으나, 사업자 선정과 사업기간 등에서 충분한 검증절차가 부족하여 일부시설 등은 활용되지 못하는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주의 경영능력과 자금조달능력의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융자사업들이 1990년대 중후반의 짧은 기간동안 추진되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기반시설, 생산시설, 유통가공시설들이 농촌지역에 설치됨으로 외형적으로

는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생산기반확대로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을 초래하여 지원수혜농가의 부채가 큰 이슈로 대두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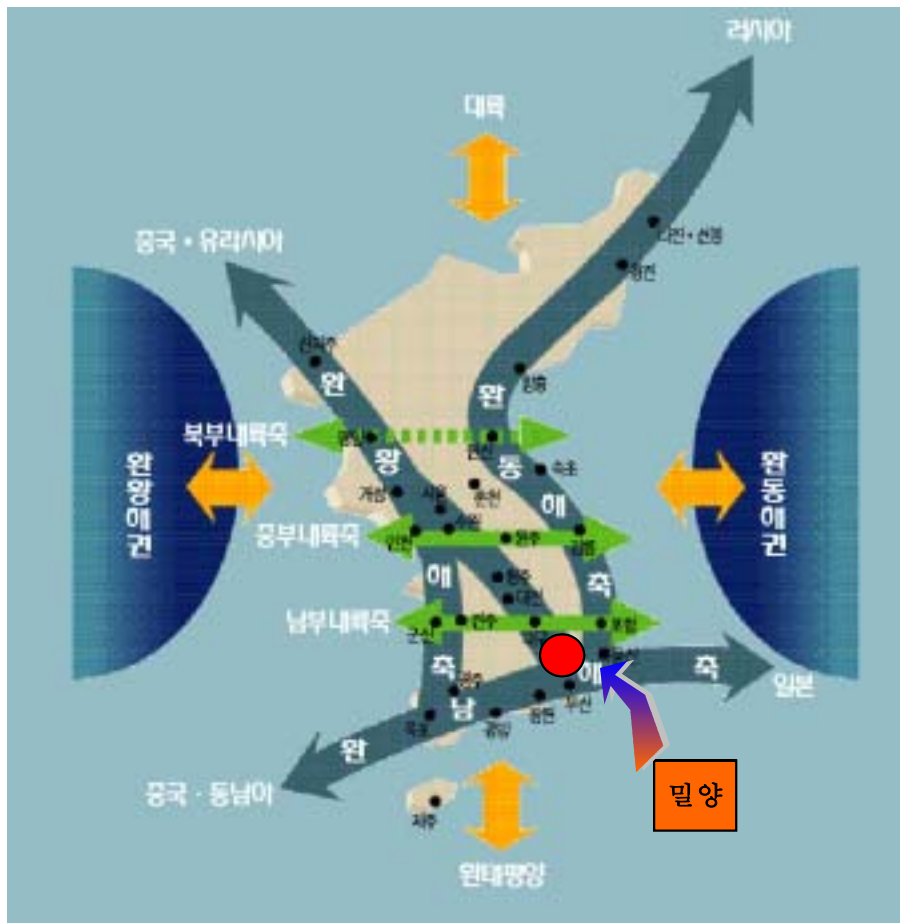
- 따라서 밀양시에서는 지역특산물(얼음골사과)을 선정하여 중점육성(사과축제)한 결과 우수농산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시설채소의 단지화를 통해 들깨잎(전국 점유율 약 70%)을 비롯하여 고추, 딸기 등은 전국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밀양아리랑쌀과 친환경오리쌀도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해 관광농업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FTA 비준 시 밀양시는 농산물수입개방과 대규모의 시설채소단지 및 대단위 과수재배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1999년 (주)밀양무역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밀양지역의 농·수·축·임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담당하여 왔음. 또한 수출뿐만 아니라 밀양농산물의 높은 전국점유율을 통해 국내외 유통에서의 밀양시 생산 농산물의 종합물류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이러한 많은 시책 개발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밀양의 농업, 농촌은 시장개방의 확대, 교통·통신의 발달,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고조, 주5일근무제에 의한 가족단위 체류형 농촌관광의 확산전망,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이농현상 등 커다란 대내외 여건변화에 좀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인 지역농업, 농업발전 전략이 부족한 실정임.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밀양시가 속하는 경상남도는 『環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과 『環남해축』(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의 교차지점에, 좌우 권역별 발전축에서는 남부내륙축에, 국가 10대 광역권 개발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포항권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1-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밀양시의 위치



자료: http://www.moct.go.kr/DH/mct_hpg/mcthpg_gp/vision2020/page7.html, 재구성

- 이 계획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발전 기본 방향은 첨단기계산업과 문화관광 선도지역으로의 육성이며 그 기본 목표와 세부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지식·정보기반에 의한 첨단기계산업의 메카 육성

- 기계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창원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벨트에 연구·창업보육시설과 전문생산기능을 육성
 - 항공·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며, 사천과 진주를 항공·우주산업기반을 구축
- 특화기술과 잠재력 기반에 의한 신산업의 육성
 - 진주·밀양을 중심으로 식물유전자 및 해양분야에 특화된 생명공학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통영·고성·거제는 복합해양수산업단지로 조성
 - 통신·멀티미디어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원~마산~김해 일대에 연구생산기반을, 거창은 반도체 및 컴퓨터산업을 육성
- 지방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방중심의 유연적 기술지원체제 및 전문인력공급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경남유치, 특성화한 도립과학기술대학 시스템 구축 등 21세기형 지방의 지식기반형 기술인력을 양성

② 국제교류의 전진기지 기반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부합하는 기간교통망 구축
 - 영·호남간의 교류를 위한 고속도로 연계와 경전선 철도의 보성~진주~마산간 복선화사업 추진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과 울산~부산~경남을 연결
 -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의 추진과 거제~부산간 연륙교의 건설
- 양항체제의 보조항 육성 및 지역거점공항의 국제화
 -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두보인 부산신항만의 진해용원항을 건설하여 국제물류거점으로 활용
- 지역정보화 기반의 획기적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 국가 초고속정보망과 연계한 지역정보센터를 위계별로 조성하고 마산

항 배후 텔리포트 건설로 국제정보네트워크를 확충

③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기반에 의한 문화생태형 관광거점 조성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 경남 전역에 걸쳐 분포된 가야문화권 복원 및 정비와 관광지 육성
 - 유교문화의 복원과 전통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 생태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
 - 온난한 기후와 수려한 자연을 기반으로 한 보양·휴양기지 조성
 - 남해안의 해양생태를 자원화한 남해안관광벨트권을 중심으로 내륙서북부 및 동부산악권의 산악생태와 낙동강유역의 내륙습지 및 수변생태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④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특화

- 권역별 공간구조의 기능 특화
 - 동·중부도시권은 기계·자동차·조선산업 등 특화산업을 첨단화·고도화시킬 수 있는 특화산업첨단축으로 발전유도
 - 서부도시권은 항공·우주산업과 생명공학 및 물류산업축으로 개발
 - 서북고원권은 관광·정보 및 물류산업축으로 발전하는 서북신산업축으로 육성
 - 남부해양권은 해양관광과 국내외교역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관광축과 국제물류축으로 유도
 - 낙동강유역권은 생물산업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축을 조성
- 이 계획을 종합해 보면, 경남은 環동해권과 環 남해권의 직각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원을 중심으로 한 메카트로닉스산업과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항만·물류산업, 그리고 진주와 밀양을 중심으로 한 남부내륙의 생물산업이 큰 축으로 구성됨. 특히 경남에서도 낙동강유역권에 속하는 밀양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과 대도시 배후의 문화·관광·휴양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음.

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0-2010년)

- 4대 발전축 설정
 - 경남을 크게 4개의 거대한 산업발전 벨트로 연결
 - Scenic Belt: 함양~거창~산청~합천~의령~창녕~밀양~양산(역사문화·자연관광산업·농림산업)
- 농어촌자원의 관광화
 - 경남의 서북부 산악지역을 인접지역과 공동개발하고,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배후 관광·위락지대로 육성
- 농어촌 농외소득원 확충
 - 관광농원 운영, 산림자원의 생산적 이용, 농공단지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하도록 함
- 전원생활 관광벨트
 - 부산·대구의 대도시권인 김해·밀양·양산을 중심으로 전원생활관광지를 조성하고 도심근교의 관광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 밀양시는 낙동강을 끼고 발달한 전통적인 농업지대로서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생명과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기능 강화와 함께 테크노농업단지를 조성하고, 특산단지 배후에 농촌정주생활권을 정비함
- 농외소득 증대 및 도농 교류확대
 - 농어촌의 부존자원·환경을 관광휴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도농 간 교류를 촉진함
 - 농업 관련 체험이벤트와 관광농원 운영으로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 이 계획에서 밀양시는 역사문화·자연관광산업·농림산업이 주축이 되는 Scenic Belt에 속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한 생태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의 발전, 주변 대도시를 활용한 근교농업의 발전과 도농교류의 확대, 그리고 풍부한 문화자원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3. 경상남도 농업·농촌 발전계획(1999-2004년)

-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 경남의 발전계획은 「21세기 경남비전(1998년, 경상남도)」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2년), 경상남도」상의 발전권역을 중심으로 구분함
 - 전체 경상남도를 크게 5대 권역으로 구분, 서부도시권, 중동부도시권, 서북고원권, 낙동강 내륙권, 남부해안권으로 나눔
 - 밀양시는 낙동강 내륙권으로 창녕, 의령, 함안군 등이 여기에 속함

4. 밀양시 종합개발계획(2001-2016년)

- 21세기형 전원·휴양도시
 - 산과 강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골고루 갖춘 밀양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전원·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짐
- 21세기형 관광도시
 -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역사자원 그리고 주변의 거대한 관광시장을 갖고 있어 21세기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음
- 경남동부권의 교통요충지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 고속전철 정차역 건설 등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 정비가 완료되면 주변 대도시로부터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 미래형 농업육성
 - 자생적 산업발전을 위해 농축산업, 공업, 유통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을 균형 있게 조성함
 - 전원·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농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발전을 유도함
- 농업발전 세부전략
 - 농업생산 기반조성
 - 경지정리 및 경지재정리 사업
 -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계화
 - 쌀생산비절감 시범사업
 - 우리밀 집단재배단지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과 특화
 - 권역별 특화작물 유도
 -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
 - 과수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 유기농법 추진, 버섯재배단지 육성
 - 농업생산 및 경영기술지원 강화
 -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 농업생산조직 및 농업인조직 활성화
 - 산지유통·가공산업육성
 - 농산물공판장 및 산지집하장 건립
 - 산지 가공산업 육성 및 판매전문회사 설립
- 이 계획에서 밀양시는 경남동부권의 교통요충지이자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등 대도시를 근거리에 두고 있어 관광·문화·휴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그래서 이러한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농녹색교류의 확대, 친환경농업의 육성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개선과 가까운 일본 등으로의 시설채소 수출 확대가 모색되고 있음.

제3절 국내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1. WTO/DDA 농산물협상과 농산물 수입증가

- 2004년까지 진행될 WTO 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 협상의 핵심
 - DDA 농산물무역협상에 따라 시장개방확대와 농업보조 감축폭 확대
- 농산물 수입 증가와 중국의 WTO 가입, 칠레와 FTA 체결 예상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채소 등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 전망
 - 중국으로부터 고추, 마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생강, 당근,

무, 배추 등 신선채소 수입 증가 추세

- 사과, 포도, 배, 단감 등 과일과 딸기 등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가 해제될 경우 국내 농업, 농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큼.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사과, 포도 가격하락, 국내농산물의 시장 축소

밀양지역에 직접적 피해는 적으나, 피해예상품
목의 지역 및 농가의 시설원예, 과일 집중 시 파
영 우려

<참고: 주요 농산물의 DDA 농업협상 관세감축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 밀양에서 주로 생산되는 사과, 배, 단감, 포도와 딸기를 대상으로 DDA 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상정하여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분석함.
 - 시나리오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최소감축률을 30% 수준으로 할 경우와 선진국 대우를 받고 평균감축률을 60% 수준으로 할 경우로 설정하였음. 일반적으로 개도국 유지시에는 관세감축 수준이 현재의 UR협상에 따른 관세감축 수준보다 약간 크나, 선진국 대우 시에는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이루어져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매우 큼.
 - 그러나 밀양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일과 과채류는 현재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되어 있는 병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중국은 과거보다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국가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DDA 농산물협상과정에서 또는 협상이 끝난 이후에 수입금지 해제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어 있는 과실파리로 인해 과일류, 과채류의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대부분 과일(감귤 144% 제외)에 대한 양허관세를 50% 이하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만일 수입금지가 해제된다면 관세인하보다 훨씬 큰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대부분의 중국산 과일과 과채류 가격은 국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롭게 수입이 허용된다면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 과일류 중에서 사과, 배, 포도, 단감의 관세율은 2004년 45%로 낮은 수준이나 중국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에

는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사과는 자체 소비감소로 이미 재배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DDA 관세감축의 영향으로 면적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시장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하고, 배는 DDA 관세감축 영향으로 생산액이 크게는 1/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표 1-1> 주요 과일·과채류의 수입금지품목, 지역, 병해충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 금지 병해충
과일류	사과, 배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배화상병, 사과빛자루병, 코드린나방
	포도	미국(하와이, 텍사스 제외), 일본,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복숭아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코드린나방, 복숭아뽕나방
	감귤	미국(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주 제외), 일본(규슈섬 이남 제외),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귤과실파리류
	단감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감	미국(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주 제외), 일본(규슈섬 이남 제외),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과채류	수박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참외	일본 및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딸기	일본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토마토	일본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토마토과실파리
	오이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오이과실파리
	호박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자료: 국립식물검역소

- 포도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가온재배하여 4월과 5월에 수확하는 초 조기가온 재배농가와 1~4월 하순까지 가온하여 5월 하순부터 수확하는 조기가온 시설포도 재배농가는 FTA협상에 따라 칠레산 포도 수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8~10월 기간에 수확하는 국내 노지포도 재배농가는 미국산 생과와 기타 수출국의 가공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DDA 관세감축영향으로 2015년도 생산액은 2004년 대비 6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1-2> 사과와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 영향

구분	연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출입량		자급률 (%)	생산액 (억원)
				수입량 (톤)	수출량 (톤)		
개도국 유지	2002	26,160	433,165	1,755	3,733	100.46	6,701
	2004	26,044	395,089	1,891	2,646	100.19	6,871
	2010	25,298	438,317	2,868	3,438	100.13	5,540
	2015	23,331	425,295	3,765	2,404	99.68	5,201
선진국 대우	2002	26,160	433,165	1,755	3,733	100.46	6,701
	2004	26,044	395,089	1,891	2,646	100.19	6,871
	2010	25,249	438,085	5,905	3,542	99.46	5,459
	2015	23,188	423,811	7,933	2,472	98.73	5,110

<표 1-3> 배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구분	연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출입량		자급률 (%)	생산액 (억원)
				수입량 (톤)	수출량 (톤)		
개도국 유지	2002	25,387	386,348	270	11,500	100.29	4,196
	2004	24,672	445,987	494	13,443	102.99	4,919
	2010	21,042	337,416	788	11,600	103.31	2,862
	2015	21,683	359,829	1,039	13,253	103.51	2,620
선진국 대우	2002	25,387	386,348	270	11,500	100.29	4,196
	2004	24,672	445,987	494	13,443	102.99	4,919
	2010	21,013	337,416	1,495	11,743	103.13	2,825
	2015	21,606	359,456	2,009	13,401	103.27	2,583

<표 1-4> 포도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구분	연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출입량		자급률 (%)	생산액 (억원)
				수입량 (톤)	수출량 (톤)		
개도국 유지	2002	26,007	386,348	23,047	-	94.37	3,175
	2004	24,234	338,748	27,524	-	92.49	2,499
	2010	21,949	378,938	55,186	-	87.29	2,137
	2015	21,145	405,733	77,778	-	83.91	1,823
선진국 대우	2002	26,007	386,348	23,047	-	94.37	3,175
	2004	24,234	338,748	27,524	-	92.49	2,499
	2010	21,946	378,920	60,712	-	86.19	2,131
	2015	21,134	405,579	85,334	-	82.62	1,816

<표 1-5> 단감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구분	연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출입량		자급률 (%)	생산액 (억원)
				수입량 (톤)	수출량 (톤)		
개도국 유지	2002	29,070	281,143	18	-	101.48	2,593
	2004	27,816	295,986	3	-	100.00	2,103
	2010	25,117	310,241	28	-	99.99	1,952
	2015	24,003	314,080	63	-	99.98	1,977
선진국 대우	2002	29,070	281,143	18	-	101.48	2,593
	2004	27,816	295,986	3	-	100.00	2,103
	2010	25,111	310,262	142	-	99.95	1,932
	2015	23,990	314,123	287	-	99.91	1,952

<표 1-6> 딸기의 시나리오별 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구분	연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수출입량		자급률 (%)	생산액 (억원)
				수입량 (톤)	수출량 (톤)		
개도국 유지	2002	7,816	209,938	2,280	2,860	100.28	3,529
	2004	7,846	209,012	2,371	3,019	100.31	3,471
	2010	8,062	220,866	3,993	1,385	98.66	4,010
	2015	8,255	231,817	5,650	771	97.77	4,548
선진국 대우	2002	7,816	209,938	2,280	2,860	100.28	3,529
	2004	7,846	209,012	2,371	3,019	100.31	3,471
	2010	8,060	220,827	4,037	1,385	98.64	4,004
	2015	8,252	231,746	5,698	771	97.75	4,540

- 과채류 중 딸기는 2004년 관세율이 45%로 낮고 소득탄력성이 큰 품목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있어 면적과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량의 3/4에 해당하는 냉동딸기의 경우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신선/냉장딸기는 일본품종의 로열티문제로 현재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 구체화

- 각국 정상간에 지구환경에 대한 기본규범에 합의('의제 21')
 - 기본철학: 환경과 개발의 조화 ➡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OECD, WTO에서 무역·환경 연계 논의(Green Round)
- codex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추진

□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농업정책

- 정부의 환경농업정책
 - '97년 친환경농업법 제정, '98년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가족농단지, 친환경농업마을 육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업은 아직 초보단계이나 최근 경기도 양평, 안성, 전남 함평, 전북 무주 등 일부 지자체와 강원도, 충북 등 도 단위 지자체에서 환경농업에 관심 고조
 -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시 차원의 대응이 늦을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 대열에서 소외되고 경쟁력 상실 우려

3. 주5일근무제와 관광의 패턴 변화

-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숙박형 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박 등

가족 단위 저비용 체재형 휴가시설 수요 급증 예상

○ 농업·농촌 부문은 도시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 수용 필요

- 안전 농산물 공급
- 자연친화적 경관의 유지를 통한 휴식과 안정
- 자연관찰, 농사체험을 통한 학습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 전통·개성적인 지역문화유산의 학습기회 제공 등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가족 단위 체험관광형 관광 수요와 문화예술과 접목된 관광 추진

4. 직접지불제 도입확대와 농업정책 변화

○ WTO/DDA협상, FTA 체결, 쌀 재협상 등으로 수입개방 확대, 농산물가격 하락 예상

- 미국수매 감축 및 폐지

○ 이에 따라 최소한의 쌀농업 유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실천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등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쌀 시장가격 하락과 재배면적 감소, 고품질쌀 생산 선택과 환경 및 경관 보전을 통한 직불제 대비

5.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저가농산물이 수입되고 과잉생산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근접하는 저가격현상 지속으로 농업소득 증대 한계

○ 농업소득 의존도가 20%도 안되는 일본,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는 60%에 달해, 농업소득의 한계는 농가소득 정체, 농가경제 침체 유발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농산물시장 개방화시대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외취업, 농가부업,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필요

6. 수입산과 경쟁, 산지간 경쟁 가열과 차별화 중시

- 수입농산물, 국내 농산물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품질의 차별성을 높이면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움
 - 궁극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정도의 경쟁력 획득이 필요
- 품질의 차별화(내용)를 브랜드 형성(형식)으로 확립하여야 함
 - 앞으로 브랜드화하지 않은 농산물은 제 값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염두에 둘 때 표준화, 등급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품목별, 생산자단체별 브랜드화 중요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생산이력제, 원산지표기, 브랜드화로 밀양농산물 차별화 전략 추진

7. 고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

- 농가인구 지속 감소, 고령화와 부녀화 심화로 영농후계문제 심각, 영농의 질적 수준 저하
- 농업인력의 고령화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영농기계화, 첨단화가 요구되나 고령농민의 기계 이용, 첨단농업 한계
 - 신영농기술 및 신품종 보급·수용의 한계
 - 고령화, 후계농업인력 부족으로 농경지유희지 급증 예상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고령화에 대응한 안전농사, 후계농업인력 확보와 고령농민 복지대책 필요

8. 중앙정부 역할 축소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통과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구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밀양에의 영향 및 대응 : 지방정부 특화사업 지속 개발과 추진 체계 정비, 생산자단체 육성

제 2 장

밀양시 농업·농촌의 현황과 특징

제1절 밀양시의 일반 현황

1. 입지적 특성

- 밀양시는 한반도 남단, 경상남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내륙도시로, 동쪽으로는 양산시·울산시, 남쪽으로 김해시·창원시, 서쪽으로는 창녕군, 북쪽으로는 경북 청도군과 인접하고 있음. 창원·마산과 약 45km, 대구와 65km, 울산·부산과 약 8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교통면에서는 경부선 철도가 시의 남북으로 관통하며 국도 24, 25호선이 시의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임.
- 특히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밀양시 중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도록 건설중에 있으며(2005년 완공 예정), 2004년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전철의 밀양정차역이 확정되어 교통망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대구 등 대도시와 시간, 거리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대도시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은 인구유출 등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동인구가 늘고 도시민들의 원거리 관광, 여가 및 자연 휴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관광, 휴양 수요 및 주거용 주택(전원주택)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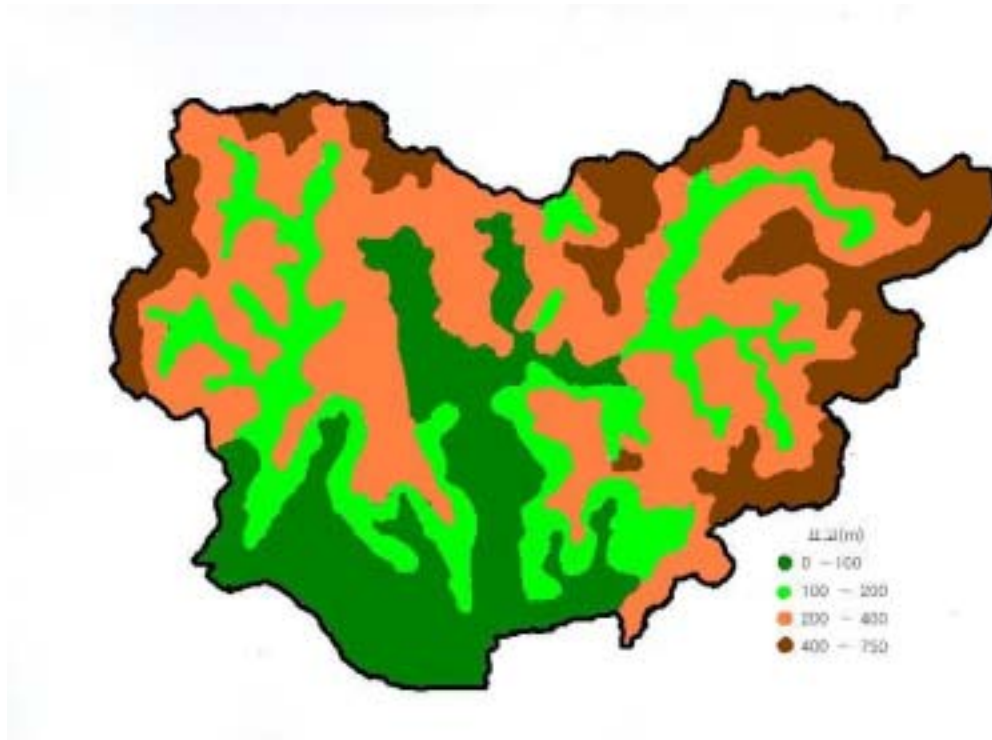
<그림 2-1> 전국과 경남에서 밀양의 위치



2. 지형지세 및 기후적 특성

- 밀양시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 북쪽에는 화악산·재약산·가지산·운문산으로 둘러싸여 산간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시내를 흐르는 밀양강이 남쪽의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낙동강·밀양강 유역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음.
- 수자원이 풍부하여 일찍이 섬유공업이 발달하였고, 밀양강의 연변에 휴양지가 많이 있으며, 입지적으로 보아 상공업의 발달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낙동강이 인접해 있어 지역개발에 하나의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밀양지역의 표고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고 100m 이하의 토지가 전체면적의 22.6%인 180.70km²를 차지하고, 표고 100~200m가 20.7%인 164.95km², 표고 200~400m가 38.9%인 311.05km², 표고 400m 이상이 17.8%인 142.30km²를 점유하고 있음.
- 경사 10% 미만의 토지는 전체면적의 32.1%인 256.59km²를 차지하며, 경사 30.0% 이상은 32.4%인 258.97km²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2-2> 밀양지역의 표고별 분포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륙성기후에 지배되고 있으나 밀양은 비교적 온난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밀양의 계절별 평균기온은 봄 12.1℃, 여름 24.0℃, 가을 14.0℃이며, 겨울철에도 평균 1.0℃로 비교적 온난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밀양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1,285.3mm로 우리나라의 기후 분류에 남부평지 다우형으로 우기 절인 6~8월에 651.1mm로서 51%가 내려 하절기 호우성 비가 많음.
- 이러한 지형지세 및 기후조건으로 인해 밀양은 비닐온실 난방비용이 적게 드는 저비용 시설원예의 최적지이며, 북부 및 동부지역의 산간지대는 산지자원을 이용한 과수 재배, 임산물 채취, 관광 개발의 적지임.

3. 인구적 특성

- 2002년 현재 밀양시 전체 인구는 120,808명으로 남자 59,700명, 여자 61,108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천4백명 정도 많음.

- 최근 밀양시 인구추이를 보면 1996년 129,744명을 최고로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그 중 농가인구는 2000년 현재 39,295명으로 1995년 45,519명보다 약 6천여명이 줄어들었음.
- 읍면별 농가인구분포를 보면, 하남읍이 4,211명, 상남면이 5,007명, 무안면이 4,251명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그 이하로 나타남.
- 밀양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시로서 시내 동지역과 삼랑진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지역으로서, 한편으로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생활문화권을 육성하여 읍면지역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밀양시내와 삼랑진읍 등 도심 을 주거지로 하여 농사를 직업으로 한 출퇴근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직업으로서 농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음.

<표 2-1> 밀양시 읍면별 인구 현황(2001년)

단위 : 명, %

전체	123,393	100
읍면지역	71,637	58
삼랑진읍	9,872	8
하남읍	10,490	9
부북면	7,762	6
상동면	3,784	3
산외면	3,424	3
산내면	4,591	4
단장면	4,766	4
상남면	12,641	10
초동면	4,585	4
무안면	7,237	6
청도면	2,485	2
동지역	51,756	42
내일동	5,570	5
내이동	10,132	8
교동	8,331	7
삼문동	16,542	13
가곡동	11,181	9

자료 : 밀양시, 통계연보, 2002.

4. 산업 · 경제적 특징

- 밀양시의 산업구조를 취업자수 비율로 보면, 1차, 2차, 3차산업이 각각 47%, 15%, 38%로 농림어업인 1차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제조업인 2차산업 비율이 1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비율은 경남도 전체의 1차산업 평균비율 24%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농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반면 2차 및 3차산업 비율은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말 현재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1개 업체에 304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고, 21인 이상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38개 업체에 2,141명,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기업은 185개 업체에 1,233명이 고용되어 있음.
- 농공단지현황을 보면 4개 농공단지에 210,588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가동업체가 55개 업체에 1,827명이 고용되어 있음.
- 인근 대·중소도시(김해, 창원, 함안)의 공장용지 부족, 경기지역의 기업체에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영남지역으로의 분공장 설립과 인근지역에 많은 부품공장 설립이 요구되는 자동차 공장의 설립으로 금속, 기계업종의 증가가 전망되고, 조성 중에 있는 초동 농공단지의 분양과 3개 농공지구 조성 완료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이전, 공장의 확장 등의 유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제조업의 유치노력과 함께 밀양은 타 지역보다 청정지역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의 난립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유치가 필요하며, 농공단지 등 공단 조성으로 취약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특히 밀양지역산 원료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표 2-2>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산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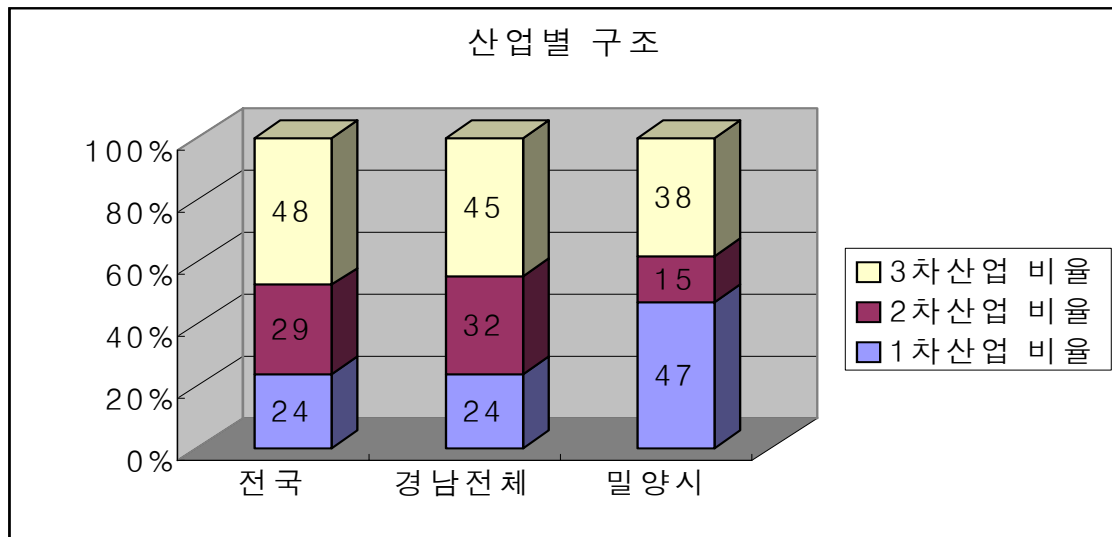
단위 : 명, 비율

시군	1차산업 취업자수	2차산업 취업자수	3차산업 취업자수	계	1차산업 비율	2차산업 비율	3차산업 비율
전국*	2,336,497	2,867,620	4,722,469	9,926,586	0.24	0.29	0.48
경남도	306,114	408,699	579,908	1,294,721	0.24	0.32	0.45
밀양시	25,093 (0.08)	7,788 (0.02)	20,498 (0.04)	53,379 (0.04)	0.47	0.15	0.38

주 : 전국데이터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수치임 (팔호안의 비율은 경남도에서 차지하는 밀양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3> 산업별 구조



<표 2-3> 밀양지역의 공업 유형별 업체 현황, 2001년말

단위 : 개소, 명, %

유형별	업 체 수			종업원	구성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225	1	223	3,678	100.0
금속, 기계	52	-	52	893	24.0
비금속광물	43	-	43	917	25.0
섬 유	35	1	34	752	20.0
기 타	94	-	94	1,116	31.0

5. 문화 · 관광적 특성

◆ 자연적 관광자원

- 밀양시는 북동의 산악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동쪽으로 재약산, 가지산, 만어산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운문산, 구만산, 철마산, 태봉산 등이 있음. 남쪽으로는 천태산, 종남산, 덕대산 등이 있으며 북으로는 화악산 등 산악자원이 풍부함.
- 또한 영남의 알프스라 일컫는 가지산, 재약산, 운문산과 백만 평에 이르는 사자평 억새군락, 얼음골, 표충사 층층폭포 등과 같은 많은 자연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레저활동의 증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음.

<표 2-4> 밀양의 자연관광자원

구 분	주 요 자 원
수변자원	■ 하천: 웅천, 내천천, 해양강, 월양강, 월영연, 자천, 유천, 용진, 마암연, 전천 ■ 유원지: 용두원 유원지, 기회송림, 삼문송림 ■ 그 외: 가산지, 빈지소, 단장숲 등
산악자원	■ 가지산(도립공원), 재약산, 화악산, (운문산, 설예산, 백운산, 천태산*), 아동산, 추화산, 만어산, 억산, 종남산, 구만산
기 타	■ 사자평 억새군락, 얼음골 등

주 : 천태산은 주봉이 밀양에 소재하지는 않음.

◆ 사회문화적 관광자원

- 밀양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은 밀양문화제와 얼음골 사과축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밀양연극제가 새로운 차원의 지역축제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음.
- 경상남도 대표 향토축제인 밀양문화제는 무형문화인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1957년 11월 밀양 종합문화제로 창시된 이래 1967년 밀양아리랑제로 통합하고 1997년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어 2000년부터는 행사명칭을 밀양문화제로 변경해 행사 개최됨. 밀양문화제는 밀양지역에 대한 지역적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화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제 때에는 중요무형문화재 68호로 지정된 밀양백중놀이를 비롯한 무안용호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범흥 상원놀이, 새터가을굿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져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중 밀양백중놀이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됨. 최근에는 밀양출신 작곡가인 박시춘을 기리기 위한 박시춘가요제가 개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밀양얼음골사과축제는 고품질 소량생산으로 명품화되고 있는 얼음골사과의 브랜드화를 더욱 높이고 있음.
- 밀양연극제는 극작 연출가 이윤택과 밀양 춤꾼 하용부가 연희 거리패와 함께 만든 지역예술축제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음.
- 밀양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도립공원 1개소(가지산)와 국민관광지 1개소(표충사)가 있어 산악 휴양을 즐길 수 있고, 조선시대의 3대 누각 중의 하나인 영남루, 삼북더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 그리고 유서 깊은 표충사, 만어사, 표충비각 등 있음.
- 밀양의 이러한 자연경관, 사회문화적, 역사적 관광자원은 타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소중한 자원으로서 미래산업인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으며, 이를 농사체험, 농특산물판매 등 농업과 연계한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2-5> 밀양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

구 분	주 요 자 원
주요 유형자원	■ 서원 및 향교: 표충서원, 예림서원, 혜산서원, 남계서원, 밀양서원 ■ 고가: 단장리 허씨 고가, 다죽리 손씨 고가, 교동 손씨 고가, 교동 손병준 고가 ■ 사찰: 표충사, 백운사, 만어사, 무봉사, 석골사, 대법사, 홍제사, 영산정사 ■ 유적: 영남루, 수산재, 사명대사생가, 표충비
무형자원	■ 백중놀이 ■ 무안용호놀이 ■ 감내게줄당기기 ■ 범흥상원놀이
기 타	■ 밀양연극촌 ■ 가인예술촌 ■ 미리벌민속박물관

<표 2-6> 밀양시 주요 민속문화축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삼랑진 딸기·벚꽃축제	매년 4월초(2일)	삼랑진읍 안테리 일원	풍년기원제 및 풍악놀이 한마당 딸기빨리먹기대회 및 직거래 장터
밀양문화제	매년 4월 말-5월 초 (3일)	삼문동 밀양강 둔치	아리랑의 밤, 민속축제 한마당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박시춘 가요제	매년 4월 말-5월 초	삼문동 밀양강 둔치	신인가수선발
백중놀이	음력 7월 15일(백중)	삼문동 밀양강 둔치	무형문화재 백중놀이 정기공연 주요민속놀이 초청공연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매년 7월 중순(17일)	문화체육관 밀양연극촌	연극캠프, 워크숍, 세미나 등
밀양예술제	10월 말-11월 초순 (2일)	문화체육관 밀양시 일원	음악, 국악, 무용, 연극발표, 미술, 사진, 시화 등 전시회
얼음골 사과축제	매년 10월 말-11월 초 (2일)	산내면 남명리, 송백리일원	우수사과품평회, 직거래장터 사과음식 전시 및 시식회, 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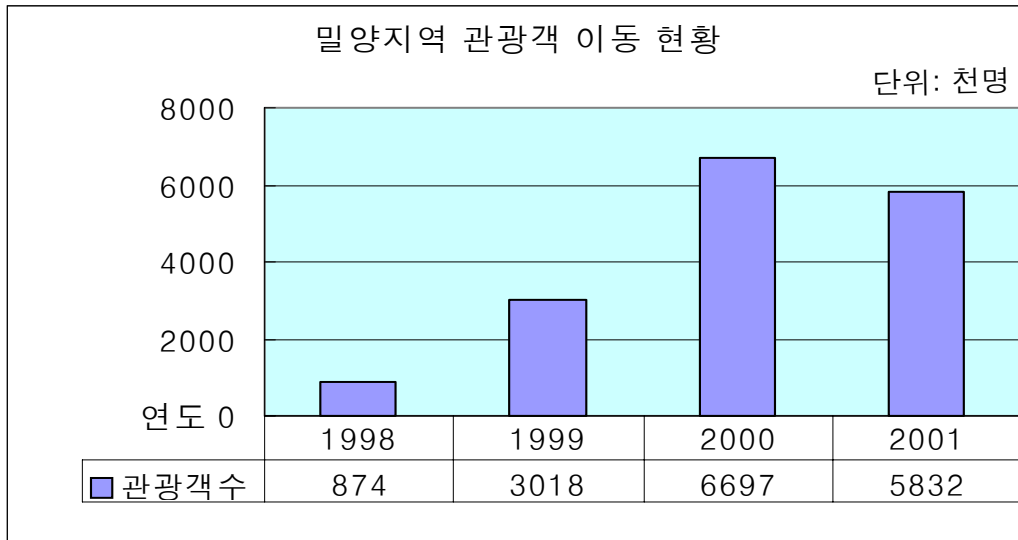
<그림 2-4> 2003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행사내용

2003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 **행사기간:** 7월 17일(목) ~ 31(목)
- **연출장소:** 연극실험실, 스튜디오극장,
게릴라천막극장, 숲의극장,
밀양문화체육관
- **테마:** 21세기 자연, 생명, 그리고 젊은 연극
- **연극내용**
 - 초청공연<해외극> 3편
 - 초청공연<한국의 젊은 연출가> 3편
 - 초청공연<어린이와 가족관객을 위한
기획공연> 6편
 - 젊은 연출가전<경연> 14편
 - 이윤택전 3편/ 대학극전 7편
 - 야외카페 부대공연-한 여름밤의 난장
 - 연기훈련 워크숍 4회
 - 연극세미나 4회/ 어린이연극캠프 2회

- 밀양시 관광객 이동현황을 보면 '98년 87.4만 명, '99년 302만 명, 2000년에는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670만 명으로 급증세를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로 2001년에는 583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2-5> 밀양지역 관광객 이동 현황



제2절 농업·농촌의 특성

1. 농가인구

- 밀양시 인구는 1996년 이후 매년 500~1,500명 정도씩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농가인구의 자연 감소와 이농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마을주민 개발수요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사대상자 390명 중 최근 3년간 마을의 농가인구와 비농가인구가 모두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나타났으며, 비농가인구는 증가하였으나 농가인구만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나타나 밀양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농가인구의 감소임.
- 특징적인 점은 농가인구는 감소하지만 전업농가수는 오히려 증가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242농가가 증가하였음. 이는 밀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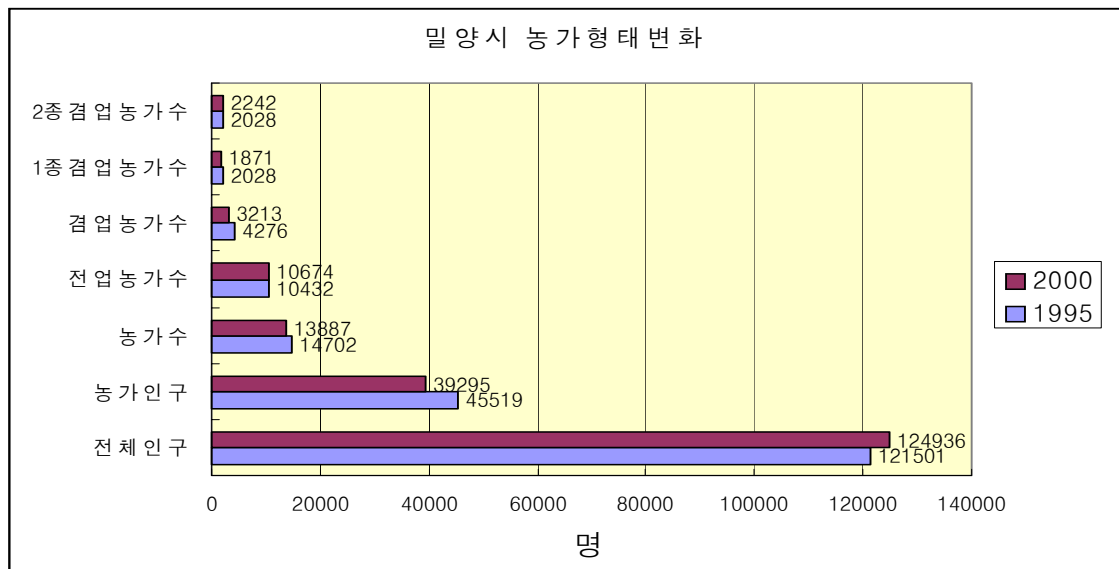
농업이 점차 전문화, 정예화되어감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밀양시 전업농가 비율이 77%로 전국 및 경남의 67%에 비해 높고 2종 겸업비율이 10%에 불과해 농가의 농사 전업이 강하며 농외소득기회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밀양시 농가는 농외취업기회가 적고 시설원예 등 전업농이 많아 농업소득 증대가 농가인구 유지에 핵심 요소임.

<표 2-7> 마을의 최근 3년동안 농가 및 비농가 인구 변화 설문조사

항 목	빈도(명)	비율(%)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감소	156	40.0
농가인구는 감소, 비농가인구는 증가	129	33.1
농가인구는 증가, 비농가인구는 감소	17	4.4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증가	16	4.1
별다른 변화 없음	67	17.2
기타(무응답 포함)	5	1.3
계	390	100.0

<그림 2-6> 밀양시 농가형태 변화



<표 2-8> 전국, 경남 및 밀양시 전·겸업별 농가 수 및 비율

단위 : 천호(전국), 호, %

	농가수	전업	겸업전체	1종겸업	2종겸업
전 국	1,280 (100.0)	884 (67.3)	418 (32.7)	162 (10.9)	279 (21.8)
경상남도	170,343 (100.0)	114,209 (67.05)	56,134 (32.95)	24,273 (14.25)	31,861 (18.7)
밀양시	13,887 (100.0)	10,674 (76.86)	3,213 (23.14)	1,871 (13.47)	1,342 (9.66)

자료 : 1) 농림부, 2002, 농림업주요통계
 2) 통계청, 2002, 농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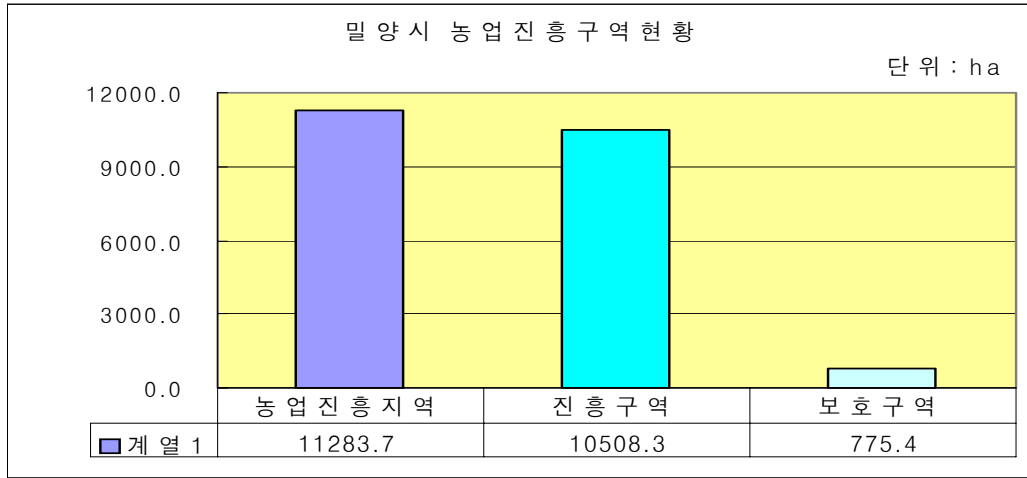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과 농업지대

- 밀양의 전체 면적은 2002년에 799.011km²이고 이 중 논, 밭 및 과수원 등 농경지는 17,763ha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전체 농경지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면적은 11,283.7ha로 전체 농경지의 63.5%에 해당됨. 이는 전국 61.7%, 경남 60.1%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경지면적은 1996년 16,191ha에서 2001년 15,706ha로 485ha로 줄었고 이 중 논이 185ha, 밭이 301ha가 줄었음. 1999년 이후에는 감소하지 않고 정체상태임.
- 각 읍면별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상남면이 전체의 13%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남읍 12%, 무안면 11%, 삼랑진읍, 부북면, 초동면이 10%를 차지하고 단장면과 산내면 8%, 상동면 6%, 청도면이 4%를 차지함.

<표 2-9> 전국, 경남 및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2001년

	농경지면적(ha)	농업진흥지역(ha)	비율(%)
전 국	1,862,622	1,149,251	61.7
경상남도	177,128	106,473	60.1
밀양시	17,763	11,284	63.5

<그림 2-7> 밀양시 농업진흥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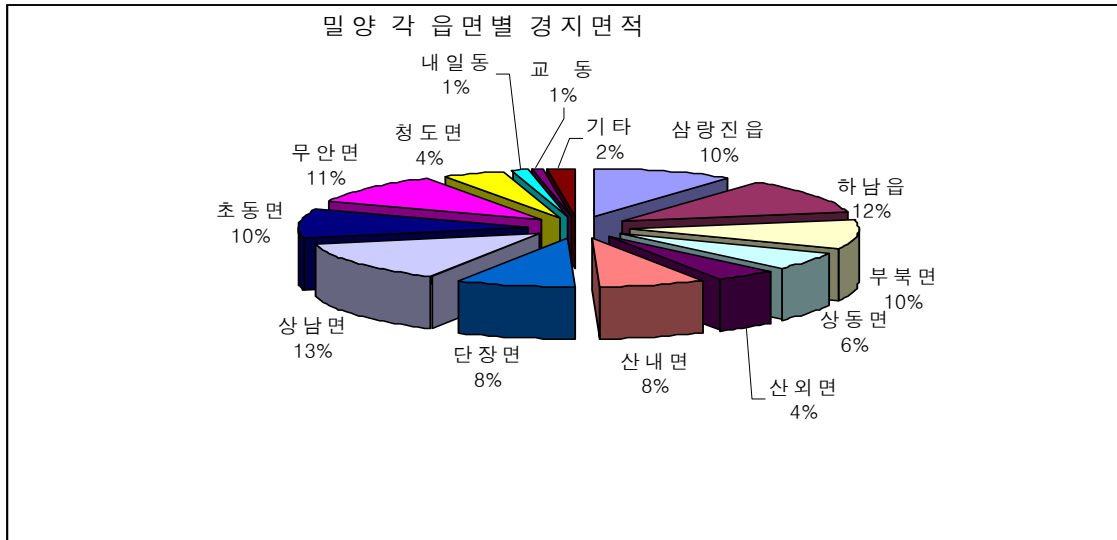
주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보호구역

<표 2-10> 밀양지역 각 읍면별 경지율 및 답률

단위 : ha, %

읍면동	총면적(A)	농경지				호당경지 면적	경지율(B/A)	답률(C/B)
		계(B)	답(C)	전	과수			
계	799,042	17,763	12,514	5,091	158	1.3	22.2	70.4
삼랑진읍	78,383	1,771	1,014	736	21	1.2	22.6	57.3
하남읍	37,032	2,110	1,688	416	6	1.4	57.0	80.0
부북면	55,317	1,725	1,402	320	3	1.3	31.2	81.3
상동면	52,013	1,034	677	348	9	1.2	19.9	65.5
산외면	35,415	795	571	200	24	1.3	22.5	71.8
산내면	107,495	1,362	871	483	8	1.3	12.7	64.0
단장면	142,100	1,494	904	556	34	1.4	10.5	60.5
상남면	56,169	2,382	1,729	649	4	1.4	42.4	72.6
초동면	48,470	1,738	1,311	415	12	1.6	35.9	75.4
무안면	100,334	1,866	1,434	415	17	1.2	18.6	76.8
청도면	57,440	784	564	200	20	1.2	13.6	71.9
내일동	12,070	217	96	121	-	0.9	18.0	44.2
교동	4,611	141	79	62	-	1	30.6	56.0

<그림 2-8> 밀양 각 읍면별 경지면적



3. 농업기술

- 밀양은 첨단농업기술의 주대상품목인 시설채소의 주산지이며, 영남작물시험장, 농산물원종장, 종자관리소, 농업중심의 밀양대학교 등 농업기술개발의 기반이 충족되어 있어, 시설원예농업 중심의 농업기술 메카라고 할 수 있음.
- 밀양의 농업관련 시험연구 수준은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으로, 밀양대학교·영남농업연구소·종자관리소·원종장 등 농업관련기관과의 손쉬운 『산·학·연』 연계 구축으로 밀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수준 높은 기술이 보급되고 있음.
 - 특히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시험장)는 이모작과 시설원예의 중심인 영남지역 여건에 알맞은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과 시설채소(들깨 잎, 풋고추) 및 화훼 등의 새로운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농업연구소임.
- 따라서 밀양을 한국의 ‘시설원예농업기술의 메카’로 홍보하고 이를 이용한 특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업기술박람회(또는 채소국제박람회), 시설원예 명인명장·명소·명품·명단체 육성제도를 추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 밀양농

업의 특성화 조성과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의 중심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음.

<표 2-11> 밀양 농업시험장 및 연구소 현황

	연혁	현황	주요 시험연구
작물과학원 영남농업 연구소	-1965. 4 영남작물시험장 설립 -1994.12 영남농업시험장 직제 개정(부산원예시험장 편입) -2004.1 작물과학원 영남 농업연구소 개칭	-인력:120명(연구 직89, 사무직31) -시설:연구실· 실험실3,086㎡, 온실25,600㎡, 시험포장 534,000㎡, 기타7,700㎡	-영남지역 적응 주곡 작물의 양질 안전 다수성 품종 육성 -남부 이모작지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질 시설원예작물의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영남지역 농업환경 보전 기술 개발 및 작물생산 환경 개선
국립종자관 리소 밀양지소	-1977. 10 국립종자공급소 밀양지소 발족 -1994.12 농촌진흥청 종자 공급소 밀양지소로 소속 변경 -1998. 2 종자관리소 밀양 지소로 명칭 변경 -2000. 8 농림부 국립종자 관리소 밀양지소로 소속 변경	-인력:20명(일반 직 6, 연구직3, 별정직1, 기능 직10)	-국가품종목록 등재작물 (벼, 보리, 콩, 감자) 종자 생산 공급 -종자의 품위 제고를 위한 정선 및 소독 -품종보호출원품종 및 기존품종의 특성조사 재배시험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기법연구·개발
경남농산물 원종장	-1918 경상남도 채종장설치 (진주) -1942 밀양시 내이동 이전 -1966 밀양시 상남면 이전 -1967 경상남도농산물원종장 개칭 -1998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개칭	-인력: 14명 (일반직 7, 연구직 1, 기능직 6) -토지: 56.17ha -건물: 20동 3,021㎡ -장비: 12종 45대	-주요농작물의 순도높은 우량종자생산 · 원종생산: 벼, 보리, 콩 등 9개곡종 27품종 · 보급종생산: 벼 2개품종 (종자관리소 위탁사업) -종자생산 보급체계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 농가 보급

4. 밀양시의 농산물 생산 특성

4.1. 밀양시 농산물 특성

- 밀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특성으로는 첫째, 밀양 지역은 읍면별로 1~2품목으로 명확한 품목 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황금분할).
- 읍면별로 집단 재배되는 품목은 비교적 소비지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 지역내 생산조절과 운송효율 등은 높으나 가격등락 위험이 높아 농가소득 변동이 심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특화품목을 강화하되 소득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품목을 개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소비지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산품목이 다수가 있음. 풋고추(청양, 파리고추), 깻잎, 대추, 얼음골사과, 딸기 등은 소비지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거나 대산지로 유명함.
- 따라서 품목 관련 특화사업, 예컨대 풋고추 박물관, 깻잎·딸기연구소, 고추·깻잎 가공품 개발 판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풋고추, 얼음골사과, 깻잎 등 소비지 브랜드파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품질화를 추진하여 성가를 유지하는 마케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장개방 영향이 거의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음. 풋고추, 깻잎, 딸기 등은 신선도 문제로 수입이 거의 없고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특화 재배되고 있으며, 포도, 대추를 제외한 사과, 배, 단감 등 과일과 딸기 등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임.
- 이들 특화품목들은 시장개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대체작목으로 밀양의 주산품목을 확대재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소비지시장에서의 품질차별화, 산지 재배기술 개발 및 보호 등으로 타지역산을 견제하여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밀양지역 농축산물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식량작물에서 쌀과 보리가 증가하고 있고, 원예·과수작물에서는 깻잎, 고추, 사과, 감이 증가하고 딸기, 포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축산에서는 돼지, 개 사육이 증가하고 한우, 젓소, 산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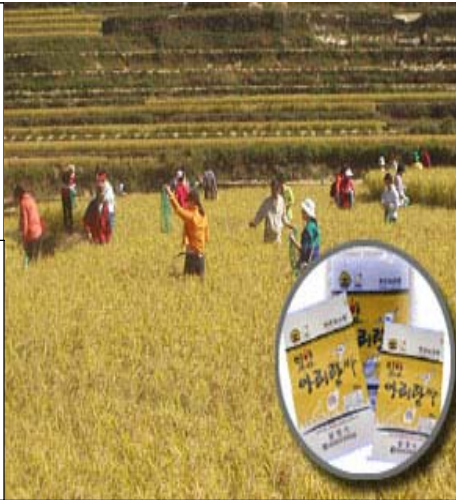
<표 2-12> 최근 밀양지역 농축산물 생산 증감 현황

단위 : ha, 두수

	증가품목	감소품목
식량작물	쌀, 보리	
원예·과수작물	깻잎, 고추, 사과, 감	딸기, 포도
축산	돼지, 개	한우, 젓소, 산양

- 밀양시의 농특산물 중에서 4대 유명 농산물은 다음과 같이 ‘밀양아리랑쌀’, ‘밀양들깻잎’, ‘밀양얼음골사과’, ‘밀양대추’(단장대추, 고례대추)임.

◆ 밀양아리랑쌀

주산지	단장면 감물리 상동면 도곡,오곡마을 산외면 희곡마을	
재배여건	밀양아리랑쌀은 밀양시에서 햇살과 물이 좋은 청정지역 (해발400m의 중산간지)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겨진 친환경 쌀임. 유기질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개울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벼 메뚜기가 뛰어 노는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토양에서 재배됨.	
특성	유기질 퇴비와 저질소비료 시용으로 질소 질비료를 감축시비하고 저농약재배를 추진하므로 추수기에 메뚜기가 많아 메뚜기잡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쌀의 질이 좋음.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번호 : 17-08-4-40	
생산 및 판매조직	밀양산동농협	

자료: <http://nongup.miryang.go.kr/main.html>

◆ 밀양들깨잎

주산지	산외면, 상남면, 상동면	
재배여건	온난한 기후와 맑고 깨끗한 청정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로 부드럽고 신선한 들깨잎을 생산함.	
특성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며 타지 생산품에 비해 잎뒷면의 적자색이 선명하고 페닐케톤 성분이 많아 독특한 향이 있으며, 잎이 두껍고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여 고기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생산 및 판매조직	밀양농협 산동원예영농조합법인 상동깨잎원예영농조합법인	

자료: <http://nongup.miryang.go.kr/main.html>

◆ 밀양얼음골 사과

주산지	산내면 얼음골지역	
기후조건	대륙성기후와 온난계절풍 지대의 분지형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얼음골의 특이한 기후 영향으로 주·야 온도교차가 심함	
특성	신맛이 적고 당도(17~18도)가 높은 꺾임사과로서 과즙이 많고 과육이 단단하여 저장력이 뛰어남. 매년 수요자들로부터 구매가 급증해 설이전에 이미 판매 완료됨. 1999년도에는 12월중순에 품질된바 있음.	
생산 및 판매조직	얼음골사과 자연농업법인 사과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사과작목회 산내과수영농조합

자료: <http://nongup.miryang.go.kr/main.html>

◆ 밀양대추

주산지	단장면	
재배여건	300여 년간 재배해온 전국 제일의 명산지로서 중산간지의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며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음.	
특성	과육이 많고 색택이 붉어 광택이 뛰어나며 1년 이상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지하 150m 암반수로 세척 후 자연건조하여 청결하고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음.	
	산동농업협동조합 고례대추작목반	

자료: <http://nongup.miryang.go.kr/main.html>

4.2. 주요 농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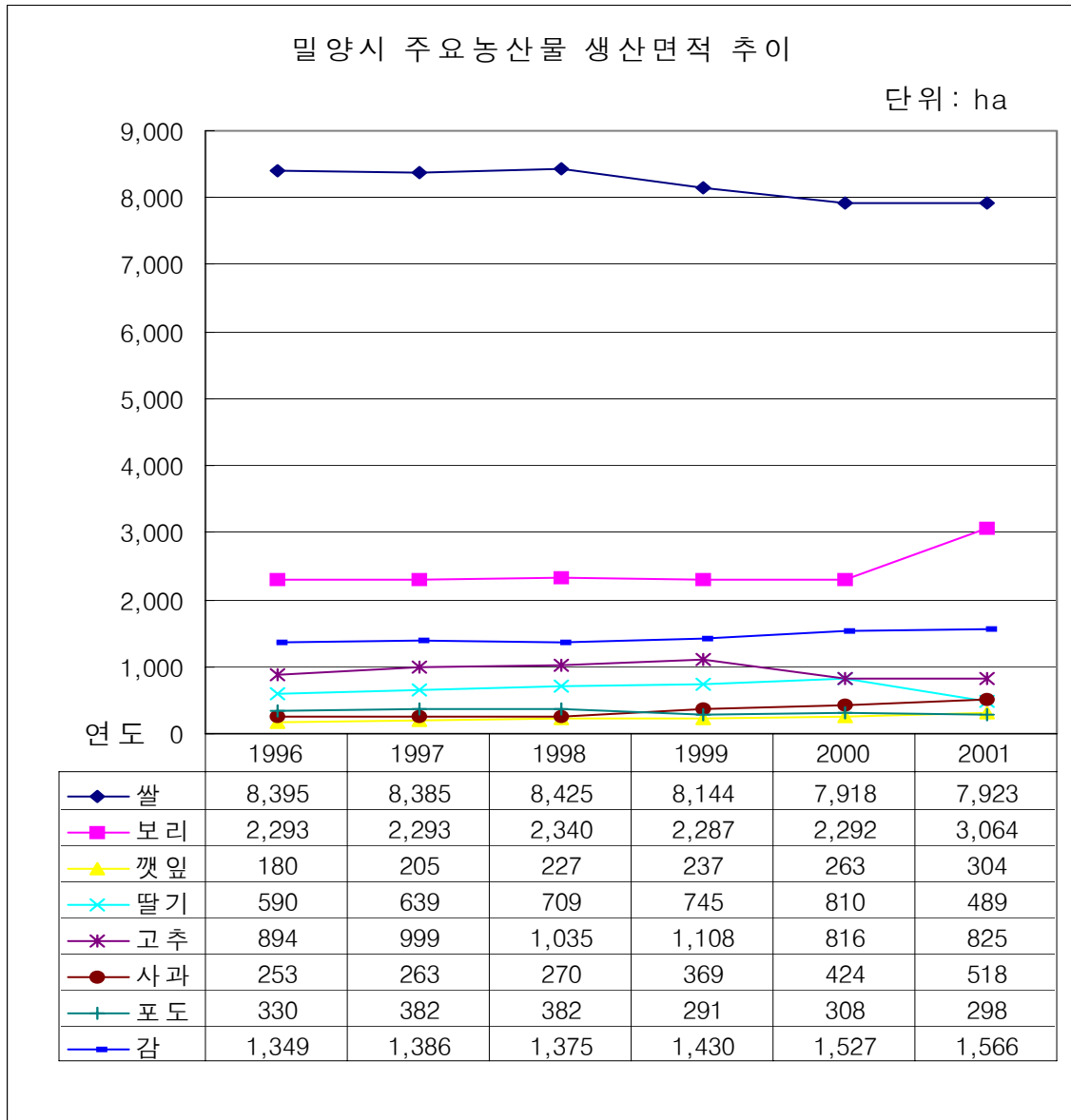
① 경종작물

- 벼 재배면적은 '90년 들어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소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리 면적은 '90년에 들어 정체 상태에 머물다 2001년에 전년대비 34%나 급증하였음.
- 최근 WTO/DDA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식량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2001년 현재까지 밀양지역의 벼 생산면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벼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쌀시장 개방으로 감소추세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밀양시에서 감소하는 벼 재배면적을 특히 시설작물을 비롯해 타작목으로 전용하는 계획을 시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원예작물

- 밀양시 경지면적은 2001, 02년 15,706ha로 주요 생산 농작물은 미곡, 단감, 풋고추, 들깨잎, 사과, 딸기, 대추, 포도임.
- 시설채소로는 풋고추가 711ha, 딸기 489ha, 들깨잎 217ha, 봄무, 42ha, 수박 82ha, 감자 450ha 등이 있음.
- 과수재배현황으로는 전체 약 3,000ha 중 단감이 가장 많은 1,359ha, 사과 518ha, 대추 467ha 등이 있음.
- 밀양시의 특산물인 깻잎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1년에는 전년에 비해 면적이 크게 늘어남. 이에 반해 주산품 중의 하나인 딸기는 2000년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 2001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이와 비슷하게 밀양시의 대표 작목 중의 하나인 고추도 1999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음.
- 밀양시의 대표 과일인 사과(주로 얼음골사과)의 생산면적은 최근 들어 브랜드가 점점 알려지면서 재배면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포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마지막으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감의 재배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9> 밀양시 주요 농산물 생산면적 추이



- 밀양지역 읍면동별 특화품목을 살펴보면, 삼랑진읍은 단감과 딸기, 하남읍은 쌀, 보리, 단감, 딸기, 미나리, 산외면은 들갯잎, 산내면은 사과, 단장면은 대추, 상남면은 쌀, 보리, 풋고추, 딸기, 미나리, 초동면은 쌀, 단감, 풋고추, 무안면 쌀, 보리, 풋고추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3> 밀양 주산품목의 지역집중성 현황, 2002년

품목	재배면적(ha)	주산읍면별 면적
꽃고추	625 청양 389 파리 136	청양고추: 무안 175, 초동 66, 상남 55, 청도 18 파리고추: 부북 43, 단장 29, 청도·산외 각 18
딸기	580	상남 196, 하남 164, 삼랑진 117
깻잎	206	산외 53, 상남 44, 부북 23
수박	140	하남 77
단감	1,366	초동 500, 무안 186, 삼랑진 184, 상남 172, 하남 127
반시감	211	상동 126, 청도 28, 산내 20
사과	526	산내 507, 단장 11
대추	471	단장 264, 부북 60, 산외 43, 무안 30
포도	296	부북 222, 삼랑진 41, 상남 26
배	94	부북 59, 상동 11
복숭아	46	삼랑진 34
매실	32	산내 17

<표 2-14> 각 읍면동별 주요 농산물 생산 면적

단위 : ha

	쌀	보리	감자	사과	단감	대추	꽃고추	딸기	들깻잎	미나리
계	7,668	1,917.3	360	525.9	1,366.1	471	625	580.1	206.1	3.9
삼랑진읍	602	61	0.7	0	184.4	4.2	23.8	117.2	0.2	0
하남읍	1,350	290	310	0	127.4	8	14.5	163.9	0	1.5
부북면	906	78.7	0	1.1	19.3	60	53.5	26.4	23.2	0.2
상동면	306	56	0	1.5	16	17	40.4	39.7	17.2	0.2
산외면	200	32	0	4.1	24.6	43.2	33.3	5.6	53.2	0
산내면	375	8	0	507.1	43.4	15.7	9.2	0.1	1.7	0
단장면	398	20	0	11.4	36.6	264	41	8.2	15.9	0
상남면	1,156	650	49.2	0	172	5.5	79.4	196.1	43.6	1.3
초동면	889	390	0	0	500	2	66.4	10.7	0	0
무안면	992	256.5	0	0	186	30	175.4	0	1.4	0
청도면	395	65.8	0	0	32	5.5	43.3	0	0	0
내일동	42	1.3	0	0.7	8.4	11.2	30	4.7	7.3	0
교동	17	3	0	0	1	3.7	7.3	0.6	9	0

자료 : 밀양시 농업·농촌 현황 자료(2003. 3)

③ 축산

- 밀양지역에는 한우가 2,808가구에서 16,860두, 젓소는 26가구에서 1,293두, 돼지는 114농가에서 68,050두, 닭은 435가구에서 575,000수가 사육되고 있음.
- 주요 가축의 사육 두수 추이를 살펴보면, 한우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1년에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젓소 또한 한우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음. 이와는 반대로 돼지의 사육 두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가축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육우: 두수 및 농가수 감소, 농가호당 6.5두로 전국 평균수준, 무안 두수 많으나 농가 영세(8두), 삼랑진의 축산농가 호당두수는 15두로 평균의 두 배 정도임.
 - 돼지: 두수는 증가하나 농가수가 감소하여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호당 585두로 전국평균 528두보다 많음). 단장, 상남, 초동면은 호당 1천두로 규모화 가능함.
 - 닭: 호당 1,951수로 전국평균 578수보다 규모화되고 있음. 무안, 초동, 상남면에 집중 사육되고 있음.
- 밀양지역 가축의 규모화 추세는 바람직하나 친환경적, 친관광적인 축산을 위해 단지화와 축사환경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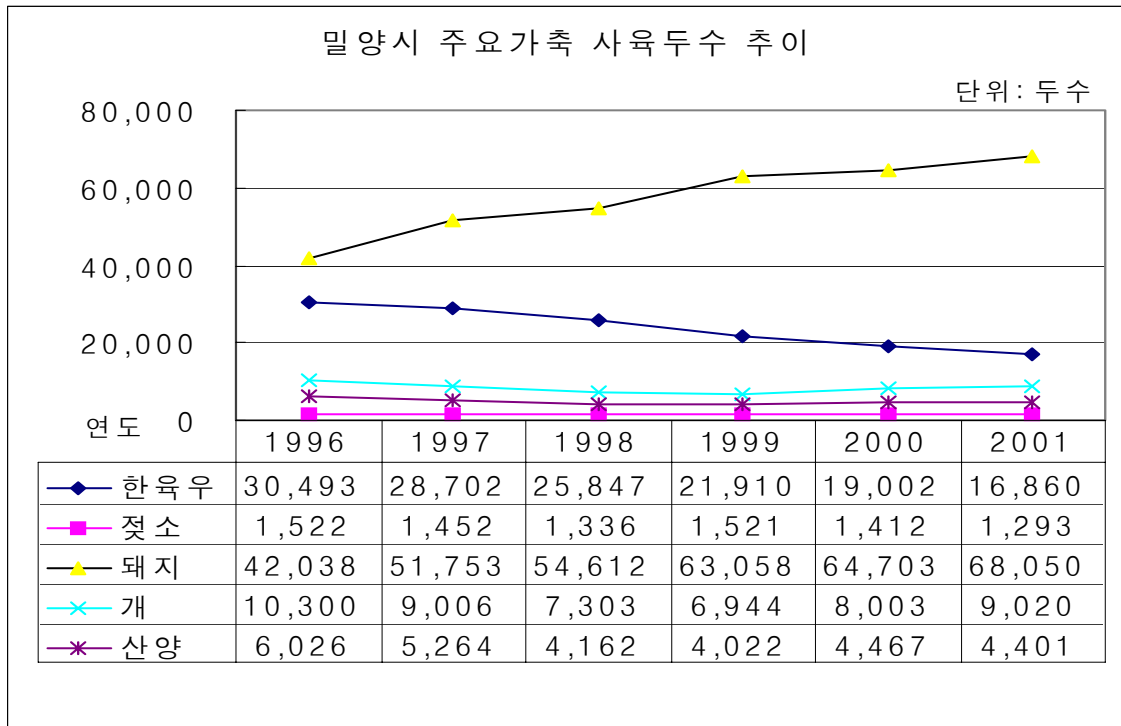
<표 2-15> 각 읍면동별 주요 축산물 사육 현황

단위 : ha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총계	2,625	17,045	23	1,395	109	63,805	322	628,258
삼랑진읍	140	2,133	-	-	4	1,771	35	1,029
하남읍	103	714	3	159	8	2,995	28	92,524
부북면	262	2,549	4	279	5	3,315	18	52,150
상동면	181	423	-	-	1	500	55	16,832
산외면	95	360	2	110	3	5,689	18	265
산내면	263	488	2	64	8	13,077	52	54,560
단장면	353	2,180	-	-	14	10,228	33	1,063
상남면	136	955	5	276	11	10,680	20	94,145
초동면	282	1,472	2	195	11	8,895	12	109,900
무안면	500	3,935	5	312	30	2,223	31	179,741
청도면	28	1,565	-	-	13	-	5	25,185
내일동	23	252	-	-	-	-	-	685
교 동	1	10	-	-	-	-	-	169

자료: 밀양시 농정과, 2002

<그림 2-10> 밀양시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5. 작물별 지역특화계수

- 특화계수(입지계수)는 특정 작목이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생산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밀양지역의 전국에서의 작물 집중 정도를 가늠하게 함.

- 특화계수 (LQ) 공식

$$LQ = \frac{X_{ij}/X_{it}}{X_{tj}/X_{tt}}$$

여기서 X_{ij} : i 지역의 j작목 식부면적 (또는 사육두수)

X_{it} : i 지역의 총식부면적 (또는 총농가호수)

X_{tj} : 전국의 j작목 식부면적(또는 사육두수)

X_{tt} : 전국의 총식부면적 (또는 총농가호수)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양시 주요 농산물 특화계수를 계산하면, 특화계수 10이상으로 비중이 큰 작목은 시설딸기 14.84, 시설풋고추 20.00, 대추 19.71로 이들 작목의 전국점유율은 각각 12.2%, 16.5%, 16.3%로 나타남. 그리고 특화계수가 1이상인 작목으로는 벼 1.02, 보리 5.33, 감자 1.39, 시설수박 1.25, 사과 1.43, 단감 9.24, 뽕은 감 7.28, 매실 3.69로 전국대비 밀양지역의 재배면적이 다소 높은 작목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주요 농산물 특화계수 현황

단위 : ha, %

	전국면적(ha)	밀양면적(ha)	전국점유율(%)	특화계수
경지면적	1,602,354	13,250	0.8	
벼	995,203	8,399	0.8	1.02
보리	60,661	2,675	4.4	5.33
옥수수	7,456	13	0.1	0.21
콩	60,671	245	0.4	0.48
팥	7,779	23	0.2	0.35
감자	27,507	318	1.1	1.39
고구마	17,828	17	0.1	0.11
김장무	21,400	71	0.3	0.40
김장배추	27,678	78	0.3	0.34
고추	86,747	115	0.1	0.16
양파	15,541	13	0.1	0.10
대파	9,517	5	0.1	0.06
마늘	38,645	36	0.1	0.11
참깨	31,233	77	0.2	0.29
시설토마토	3,179	11	0.3	0.41
시설딸기	5,499	675	12.2	14.84
시설수박	14,625	152	1.0	1.25
시설꽃고추	4,299	711	16.5	20.00
사과	30,421	362	1.2	1.43
배	24,784	77	0.3	0.37
복숭아	12,934	57	0.4	0.53
포도	21,260	19	0.1	0.10
단감	17,475	1,336	7.6	9.24
뽕은감	4,250	256	6.0	7.28
자두	3,548	20	0.6	0.68
대추	2,834	462	16.3	19.71
매실	1,114	34	3.1	3.69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

주 : 1) 진한 칸은 특화계수가 1 이상인 경우

2) 밀양지역의 절대적인 재배작목인 갯잎은 이 통계에서 빠짐.

6. 산림자원

- 밀양시의 전체 임야면적은 52,044ha이고 그 중 침엽수가 22,636ha, 활엽수가 15,773, 혼효림이 12,482ha임. 소유면적별 산림면적을 보면 국유림이 1,518ha, 사유림이 2,973ha, 사유림이 47,553ha로 대부분이 사유림임.
- 전체 산림면적에서 법적 제한림은 12,021ha로 도시구역이 1,066ha, 공원 1,312ha, 보안림 2,437ha, 문화재 보호구역 1,972ha, 사방지 235ha, 산림훼손 제한지 2ha, 채석허가 제한지 4,972ha가 있음.

<표 2-17> 밀양시 임야면적

단위 : ha

구분	총계	입목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소계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
면적	52,044	50,949	22,636	15,773	12,482	58	1,095	271		824

자료 : 밀양시청 산림녹지과, 2003

제3절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1. 개발수요 조사 개요

- 밀양시 농업·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읍·면장, 시의원, 공무원, 농협장, 농업경영인회장, 마을리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선도농가 등 밀양농업의 여론지도층과 선도농가 등 39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설문조사 방법은 ‘개발수요조사표’를 사전에 인쇄하여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통해 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설문을 받았으며 시내의 동 지역은 시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각 읍면별 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는 2003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농업생산 및 유통현황,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 농촌생활환경 현황 등임.

<표 2-18> 밀양시 농업·농촌 설문조사 응답자 구분

구 분	빈도(명)	비율(%)
이장 및 동장	192	49.2
마을 영농지도자 ¹⁾	67	17.2
농민/주민	102	26.2
시의원	6	1.6
농정전문가(공무원 등) ²⁾	23	5.9
계	390	100.0

주 : 1) 마을 영농지도자는 작목반장,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장, 부녀회장 등 농업관련 조직의 지도자를 말함.

2) 농정전문가는 각 읍면장, 시청 담당공무원, 농협조합장, 농업경영인회장 등 지역의 농정분야 전문가임.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전체 설문결과는 부록 참조)

- 조사대상을 통해 소속 마을의 주소득작목 10순위를 조사한 결과, 쌀이 가장 많았으며 풋고추, 깻잎, 사과, 대추, 단감/반시감 순으로 나타남.
- 실제로 밀양시의 주소득원은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식인 ① 쌀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② 풋고추, ③ 깻잎 등 시설채소와 ④ 사과, ⑤ 대추, ⑥ 단감 등 과일임. 2004년 WTO 쌀재협상을 통해 쌀이 관세화되거나 관세화 유예가 되더라도 관세율쿼터(TRQ)가 크게 증량되고 민간자율 동시입찰(SBS) 비율이 늘어나 식용 쌀에 대한 민간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밀양시 농가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논의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이 요청됨.
- 농산물 생산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① 유통문제와 가격불안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② 노임상승과 노동력 부족, ③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 ④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의 상승, ⑤ 전문기술 부족 순으로 나타남.

- 밀양 지역은 시설채소가 특화되어 유통과 생산가격 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중 적기에 수확해야 하는 시설채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밀양시 뿐만 아니라 주변 대도시로부터 원활한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요구됨.

<표 2-19> 농산물 생산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2가지 순서대로 선택)

단위 : 명, %

항목	첫번째		두번째		비율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통문제와 가격불안정	233	61.0	24	6.3	67.3
노임상승과 노동력 부족	59	15.4	131	34.3	49.7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안감	18	4.8	103	27.0	31.8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의 상승	33	8.6	38	9.9	18.5
전문기술 부족	23	6.0	29	7.6	13.6
행정기관의 정책부족	10	2.6	10	2.6	5.2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부족	4	1.0	18	4.7	5.7
농민들의 결손력 부족	1	.3	25	6.5	6.8
기타	1	.3	4	1.0	1.3
계	382	100.0	382	100.0	200.0

주 : 무응답 8명 제외

- 밀양시가 농업·농촌을 위해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분야로는 ① 소득작목 개발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② 농촌관광 육성, ③ 친환경농업 육성, ④ 농산물직거래 확대, ⑤ 농산물 차별화(브랜드화) 순으로 나타남.
- 밀양시는 다른 지역보다 갯잎, 풋고추 등 시설채소가 특화되었지만 몇 개의 품목이 집중 생산되고 있어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향후 농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품목과 다양한 보조품목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역점으로 둔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업을 통한 소득원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생산에 있어 행정 및 기술지원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는 ① 대체작목의 개발, ②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 ③ 농자재가격 하락, ④ 친환경기술의 보급 순으로 나타남.
- 밀양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산·학·연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농업협력기관들이 많음. 특히 농진청 산하인 영남농업연구소가 밀양에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 개발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국가 연구기관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특색 브랜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농산물 출하에서 가장 애로점으로는 ① 가격, 판로 등 정보가 부족하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② 도매시장 등 출하처가 한군데 집중된다, ③ 출하비용이 많이 든다, ④ 공동출하가 잘 안된다 순으로 나타남.
- 밀양시는 시설채소의 품목간 특화가 잘 되어 있고 영농법인, 농협 등이 산지출하를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자들은 여전히 유통에 관한 정보와 출하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향후 품목별, 지역별 유통개선과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요구를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 향후 가장 원하는 농산물 출하방법으로는 ① 농협 공동출하, ②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③ 소비자 직거래 순으로 나타남.
- 밀양지역의 농산물 출하에서 농협의 역할이 여전히 크고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민들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협 공동판매의 개선 방안과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밀양지역에서 향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농산물은 ① 풋고추가 가장 많았고 ② 사과, ③ 딸기, ④ 갯잎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깻잎은 향후 경쟁력 면에서 비교적 낮게 평가됐고, 반면 무안면과 초동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풋고추와 산내면 얼음골사과가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나타남. 청정이미지와 환경농업을 통한 명품농산물 생산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적극 요구됨.
- **필요한 농산물 유통 또는 가공시설**로는 ① 저온저장시설, ② 집하시설, ③ 선별시설로 나타남.
- 시설채소 재배가 많은 밀양에서 가장 필요한 농산물 시설로 저온저장시설 요구가 높다는 것은 홍수출하의 방지와 직거래의 확대, 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냄.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농가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거의 절반이 약간 있다고 했고 아주 많다가 13.1%, 별 관심 없다가 20.5%로 나타남.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최근 건강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밀양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의 대도시가 많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편임.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현재의 시설채소 생산에 그치지 않고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과 인간을 함께 살리는 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에 관한 계획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 읍면별 역점 사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읍면에서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대답했고, 그다음으로 소득작목 개발, 농산물차별화 시책, 친환경 농업 육성, 농촌관광 육성 등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특색에 따라 권역별, 품목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 시차원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20>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 읍면별 역점 사업 우선순위

지역 \ 항목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삼랑진읍	소득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직거래 확대
하남읍	농산물 직거래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소득작목 개발
부북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소득작목 개발	생활복지시설 확충
상동면	유통, 가공시설 확충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산물차별화 시책
산외면	소득작목 개발	농산물차별화 시책	농산물 직거래 확대
산내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촌관광 육성	농산물차별화 시책
단장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소득작목 개발	농촌관광 육성
상남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소득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초동면	농촌관광 육성	농산물 직거래 확대	소득작목 개발
무안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소득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청도면	소득작목 개발	농산물 차별화 시책	농산물 직거래 확대
내일동	소득작목 개발	농밀기술교육 확대	농촌관광 육성
교동	농밀기술교육 확대	농산물 직거래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농정전문가	농산물차별화 시책	친환경농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제4절 밀양시 농업·농촌의 SWOT 분석

1. 밀양시 전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 청정 자연환경 보전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자원 풍부 ○ 농업관련기관이 많아 산학연 연계가 쉽고 농민들의 높은 기술 수준 ○ 주변 대도시의 인접으로 농산물 출하지역 다양하고 근교농업 발달 ○ 읍면별 높은 품목 집중도와 경쟁력 ○ 문화예술, 관광자원 풍부 ○ 온난한 기후로 시설원예 저비용 생산 가능	○ DDA 관세감축으로 시설채소, 과일 등의 대일, 대미 수출 확대 가능 ○ 주5일근무제와 그린투어리즘 확산으로 농촌관광 수요와 농외소득 증가 예상 ○ 부산-대구 고속도로 및 국도 확포장으로 물류 원활 ○ 정주를 위한 도시민 유입 확대 ○ 친환경농업 관심고조로 청정 밀양농산물 수요 증가 예상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 농업지역으로 지역내 소비층 약함 ○ 농외소득원 제약으로 농업소득 의존성 높음 ○ 읍면별 1~2개의 품목 집중도로 품목 다양성 부족 ○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64%로 토지이용의 제약 ○ 일부 지역 하천이 건천으로 변해 자연휴양에 한계	○ DDA 관세감축으로 타 지역 농민들의 시설원예, 과일 재배로 과잉공급, 가격하락 가능 ○ 주변 대도시 발달로 젊은층 이탈 심화 ○ 고속도로, 국도 확포장으로 대도시로의 접근성 용이 ○ 고속도로가 밀양중심지 관통으로 난개발에 의한 자연훼손 ○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난개발로 자연훼손 가능성 ○ 노령화 심화로 시설원예, 단감 등 작업일손 부족 심화

2. 읍면별 SWOT 분석

□ 삼랑진읍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 철도교통의 발달 - 비교적 넓은 평야지 보유 - 부산, 양산, 김해와 접근성 높음 - 딸기 시배지	- 벚꽃축제, 딸기축제 활성화 - 청정미나리 재배 적합 - 계단식 논과 연계한 관광사업 활용 - 내수면 어업 활성화 -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 개발수요 증대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 낙동강변으로 저지대 홍수피해 빈발 - 농로, 용수로, 지하수 개발 부족	- 홍수시 침수피해 등 농업환경 열악

□ 하남읍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 소유 -소비지인 김해, 부산과 근접	-교통 발달 -낙동강 상류주변 수상관광 수요 증대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수리시설관리 소홀 -단감 재배농가 창고 건립 지원 지체	-인근도시로 인구유출이 많음 -벼, 감자 등 주곡작물의 가격 하락

□ 부북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밀양 시내와 근접 -밀양연극촌 연극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가산지남시터 유료화 방안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저온저장고, 선별장 부족 -배수로 및 배수장 시설 미비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청정이미지 훼손

□ 상동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밀양강 하천변 관광자원 풍부 -전통적인 반시감 생산 지역	-건조된 반시감 유통 -상동면소재지(안인리) 앞 체육시설, 미니 골프장, 경마연습장 개발 예정 -대구-부산, 상동-얼음골간 도로개통 -가곡리 일대 화훼단지 조성 계획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반시감은 유통이 잘 안됨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미비	-농지전용의 어려움 -도로개통시 인구 유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

□ 산외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청정하천, 자원풍부 -해산서원 등 전통문화 보존됨	-민박, 주말농장 활성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 -산외-단장의 단일 계획으로 관광사업 추진 -다죽리 등의 차밭조성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농산물 대형판매시설 부족 -소류지 부족으로 갈수기 시 물부족 -깻잎, 고추 등 가공시설 미비	-시설작물의 연작피해 -단감 등 농산물 과잉 생산 -상동농협의 가공사업 부진

□ 산내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얼음골 등 풍부한 관광자원 -얼음골사과의 이미지 확보 -얼음골사과 생산자가 가격 결정	-얼음골사과의 장기적 비전 제시 -얼음골사과 축제의 활성화 -산내면-울산간 도로 개통 -도로 개통시 신선채소 유통망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얼음골사과 이외 대체작목, 산촌마을, 관광마을사업 등 다른 사업 여력 없음 -음식 등 특화품이 없음 -얼음골사과 판매망의 한계	-인구유입의 불투명 -농장 및 마을관광의 어려움 -얼음골사과 조합간 불협 -청송 얼음골사과와 경쟁 -도로 개통시 베드타운화 우려 -도로 개통시 관광 및 자연자원 파손

□ 단장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표충사, 사자평 등의 관광자원 풍부 -대추의 주산지로 이미지 확보 -밀양댐 주변 환경여건 개선	-대추 공동판매장 건설 추진 -재약산 등지의 풍부한 산나물 -사자평 역사군락 관광수요 급증 -구천리 산촌개발 -밀양댐의 공원화 -감물리 아리랑쌀, 메뚜기쌀 축제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토양의 노후화로 염류집적 -딸기재배 농가의 예냉시설 부족 -단장대추의 브랜드화와 유통체계의 미비 -대추작목반의 미결성	-중국산 대추 수입 -다른 지역 대추와 경쟁

□ 상남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밀양시 인구의 10.3%와 가장 많은 농경지 -전형적인 도농복합단지 형성으로 인구유입	-감자가공공장 설치 건의 -새로운 국도 안쪽 용도지역변경 신청 -무공해 봄미나리 재배 확대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딸기 국산 품종 브랜드화 미비 -딸기 예냉시설 부족 -미곡종합처리장 미설치	-시설작물 난방연료비 상승 -대구획정리 후 용수관리에 문제 -보리 수매 점차 감소 -중국산 한약재 수입으로 맥문동 재배 농가 피해 -인건비 상승

□ 초동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꽃고추 재배단지 특산화	-와지에서 전사포간 도로 개설 -꽃고추축제 활성화와 판로 개척 -미리벌 민속박물관 운영 -덕산팜스테이마을, 장수촌 관광농원 활성화 -신호저수지를 수면골프장으로 활용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초동저수지 및 낙동강변이 하천법으로 규제 심함 -문화재보호구역 농민 규제 심함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기반정리, 농로 포장 취약	-단감 과잉 생산 -하천변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 무안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청양고추 특산화 -사명대사 생가지, 불교박물관, 표충비 등 관광자원 풍부	-사명대사 생가지 등 농촌관광과 연계한 개발 -인공계곡 또는 소류지(호수) 개발 필요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영농조합법인 미활용 -공동선별장의 규모 협소 -청양고추의 품질개선과 유통관리 개선 미흡	-면세유가격 상승 -짜리고추작업에 인력이 많이 들어감 -노동집약적 작업에 인력 부족

□ 청도면

강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밀양의 주산 화악산 위치 -청정 임야지역이 많음 -오지지역이나 수리시설 양호	-화악산 등 산촌개발 가능성 큼 -가시오가피 집단단지 조성 계획 -가시오가피나무 가공식품 개발 계획
약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축산브랜드가 없음 -건천으로 관광여건 불리	-반시감 약해 심하고 젊은 노동력 없음

제 3 장

밀양시 농업·농촌 비전과 미래상

제1절 밀양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추진전략

- 밀양시의 농업·농촌 비전은 밀양시민과 지자체가 요청하는 방향,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나가야 하는 방향,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갈 수 있는 방향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금후 10년 후의 이상적 모습을 나타냄.

Vision 1	시설원예, 과일, 축산의 규모화 및 전문화로 전국 최고의 전업농 농업소득 달성
----------	--

< 추진전략 >

- 가족농 중심으로 파종, 수확 일부 작업 고용노동력 활용시 전업규모를 현재 평균 1,000~1,500평 온실면적과 축산 사육두수를 2배로 확대함.
 - 이를 위해 전업농 규모화사업을 추진
- 전업농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육성함.

Vision 2	채소박람회 개최, 시험장 연구 강화로 “한국의 시설농업 메카”로 위치
----------	---

< 추진전략 >

- 시설채소박물관 건립, 국제채소박람회 개최, 딸기·깻잎 등 품목 연구소 운영, 영남농업연구소와 협동연구 강화 등으로 “시설채소의 고향”으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국의 시설농업 메카”로 자리매김 함.
- 사례, 중국 산둥성 수광시 “시설채소의 고향”

Vision 3	읍면별 품목특화와 보완품목 개발, 마케팅 강화로 전국제일의 지역품목 성가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화
----------	--

< 추진전략 >

- 현재의 읍면별 특화품목 생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전문화, 고급화, 규모화를 달성하여 전국 제일의 성가를 달성함.
- 읍면별 1~3개 특화품목으로는 가격등락에 따라 농가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새로운 보완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불안정을 완화시킴.
- 선별, 저장 등 수확후 상품화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브랜드화,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실시로 기존의 “생산·판매 위주”에서 “상품화·마케팅 위주”의 농업을 추진함.
- “4명운동”(명인, 명소, 명품, 명조직)을 추진함.

Vision 4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문화예술 및 관광 시너지효과 극대화
----------	---

< 추진전략 >

- 다양한 역사 및 자연관광,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수확체험, 농가민박 육성으로 그린투어리즘을 확대함.
- 생산자조직, 민간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확대함.
-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휴양의 도시라는 명성을 갖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

Vision 5	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농촌
----------	-----------------

< 추진전략 >

- 청정한 자연을 유지함.
- 역사적 전통을 보전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적극 육성함.
- 주요 거점마을에 소공원, 체육공원, 의료시설, 건강관리실, 정보화 카페 등 다목적 오락,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공동체 생활문화를 형성시킴.
- 밀양시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도시·농촌을 개발함.
 - 권역별 여건에 상응하는 그린투어리즘을 개발함.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 앞에서 제시한 5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밀양시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특히 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농민지도자들, 농

정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역점사업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밀양시 개발수요 조사 결과, 밀양시가 농업·농촌을 위해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분야로 첫째, 소득작목 개발을 들고 있어 주업인 농업부문의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있음. 둘째로는 농촌관광의 육성을 통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농외소득원 증대를 바라고 있으며, 셋째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밀양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려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자 요청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직거래 확대와 브랜드화를 통한 농산물 차별화를 역점사업으로 제시하여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표 3-1>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분야 (2가지 순서대로 선택)

단위 : 명, %

항목	첫번째		두번째		비율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작목 개발	114	29.7	27	7.2	36.9
친환경농업 육성	58	15.1	30	8.0	23.1
농촌관광육성(민박, 체험농장, 농장직판 등)	58	15.1	11	2.9	18.0
농산물직거래 확대	56	14.6	71	18.8	33.4
농산물 차별화(브랜드화 등)	36	9.4	49	13.0	22.4
유통, 가공시설 확충	18	4.7	40	10.6	15.3
생산기반정비(경지, 용수개발 등)	17	4.4	17	4.5	8.9
공판장 등 산지시장 건설	13	3.4	23	6.1	9.5
생활복지시설 확충	6	1.6	48	12.7	14.3
농민기술교육 확대	4	1.0	30	8.0	9.0
수출농업 육성	3	0.8	20	5.3	6.1
공동출하 확대	1	0.3	11	2.9	3.2
계	384	100.0	377	100.0	200.0

주 : 무응답 제외

- 따라서 이러한 밀양시 농업·농촌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밀양시 농업, 농촌에서 추구할 비전을 달성해야 함.

-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간 경쟁을 위해 읍·면 단위보다 권역 단위를 설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특화작목을 선정·육성함.
 - 자연, 토양, 지형, 생활권, 생산품목, 교통 등을 고려해 3~4개 읍면을 묶는 개발권역을 설정함.
- 권역별 명품 및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육성함.
 - 권역 명품, 읍면단위 특화품목을 재정립하여 명품과 특화품목을 육성함.
 - 명품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함.
- 유통효율 증진을 위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개선을 이룩함.
 - 각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된 가공공장을 육성함(사과, 포도, 대추, 딸기, 단감, 감자 등).
- 김해국제항공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를 활용한 수출물류체계를 확립하고, 공세적 수출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함.
- 생명공학, 전자공학, 정보기술 등 혁신기술에 대비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함.
- 문화유적지와 천혜관광지를 연계한 농업관광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농교류를 적극 추진함.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쌀, 풋고추, 들깨잎, 딸기, 사과 등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선정하여 육성함.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주권을 개발하고, 문화마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
- 밀양 농업·농촌 알리기운동을 전개함.
 - 지역축제 및 특산물축제를 강화하고, C.I. 사업을 추진함.

제3절 밀양시 농업·농촌의 미래상

① 농업

- 특화작목 중심으로 전국적,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산업으로 발전
- 품목별 생산, 유통, 가공이 연계되어 고품질 농산물은 전국적 명품브랜드 출하, 저품질 농산물은 브랜드 가공품으로 판매
- 6대 수출품목(딸기, 오이, 파리고추, 김치, 단감, 화훼) 중심의 수출확대와 김해국제공항을 수출전진기지로 한 일본 및 중국 수출 확대
- 친환경농업실천이 필요한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 농사체험, 특화단지 및 품목, 유명관광지, 밀양연극촌·가인예술촌·관광농원·민박촌을 연계한 다양한 그린투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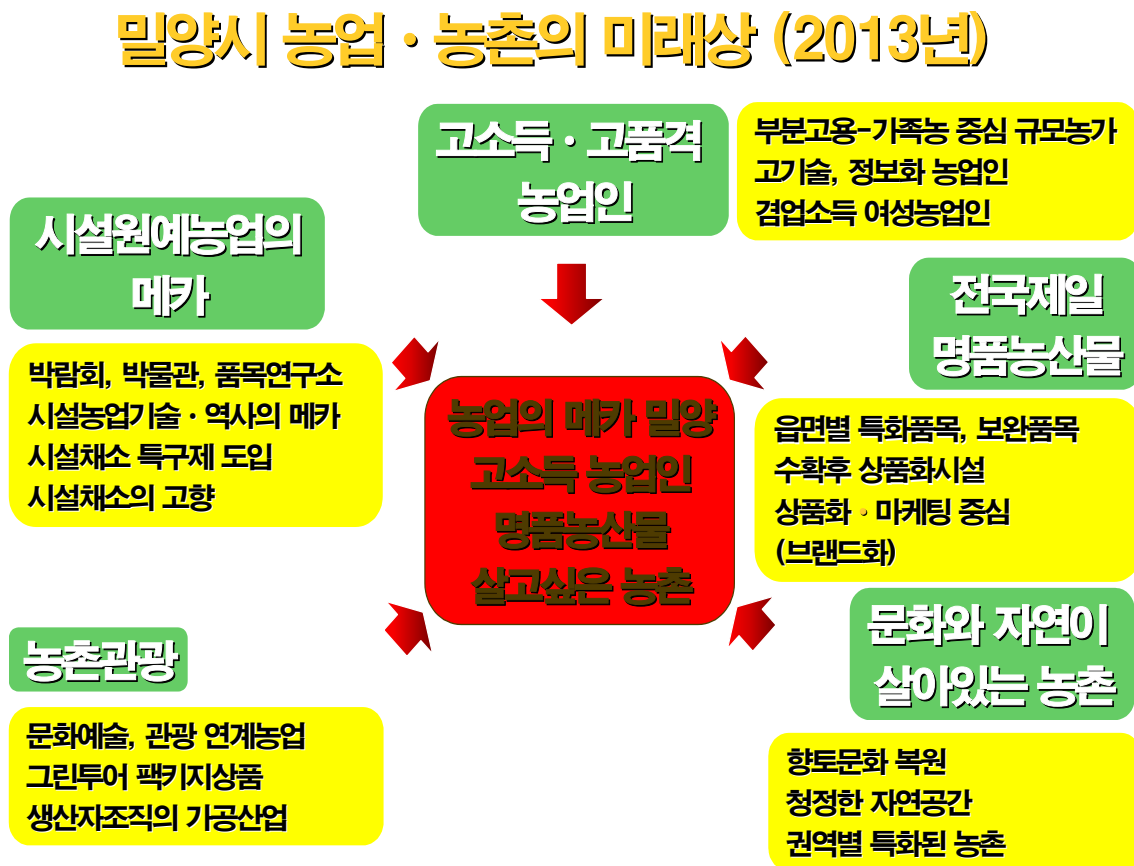
② 농촌

- 주택·문화·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생활환경에서 농가와 비농가가 공존하는 문화공동체 기반 완비
- 문화유적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얼음골, 표충사, 시례 호박소, 사명대사생가지 등)과 농업을 연계한 문화관광농촌 건설

③ 농민

- 신지식농업인 중심으로 “연구하는 농민”들의 품목연구회 활성화
- 선도농업인 육성과 평생교육 강화로 농업인의 자질 향상
- 남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여성들은 민박, 농가레스토랑 등 겸업소득원을 주업으로 하는 1가구 2산업 체제 확립

<그림 3-1> 밀양시 농업·농촌의 미래상(2013년)



제4절 2013년 밀양농업 발전지표

□ 밀양지역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지표를 농업, 주요 품목, 농업인, 친환경농업, 농촌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3-2> 2013년 밀양시 농업 발전지표

주요지표	2002	2004	2008	2013	연평균 증감률(%) (2002~2013)
농업					
- 총인구(명)	124,167	124,938	126,494	128,467	0.3
- 농가호수(호)	13,561	12,760	11,296	9,700	-3.0
- 농가인구(명)	36,811	34,612	30,599	26,232	-3.1
- 농가인구비중(%)	29.65	27.70	24.19	20.42	-3.4
- 경지면적(ha)	15,455	14,787	13,769	12,503	-1.9
논	9,629	9,434	8,757	7,683	-2.1
밭	5,826	5,352	5,012	4,820	-1.7
호당경지면적	1.14	1.16	1.22	1.29	1.1
주요품목					
쌀(ha)	7,668	7,506	7,039	6,259	-1.8
보리(ha)	1,917	1,884	1,604	1,190	-4.3
고추(ha)	841	708	624	500	-4.7
딸기(ha)	580	562	571	596	0.2
들깨잎(ha)	206	210	219	230	1.0
사과(ha)	526	542	575	619	1.5
감(ha)	1,577	1,455	1,333	1,315	-1.6
한우(두)	16,560	18,107	20,365	21,569	2.4
돼지(두)	69,150	71,422	76,044	80,086	1.3

제 II 편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제4장 농업개발 권역별 전략 수립

제5장 지역특화농업 개발 및 육성

제6장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출 증대

제7장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활성화

제8장 농업인력 및 생산기반 정비

제9장 농촌 생활복지환경 개선

제 4 장

농업개발 권역별 전략 수립

제1절 농업개발권역 설정

1. 농업지대 구분

- 밀양시의 읍·면별 경지율, 답률에 의해 농업지대를 구분해 보면, 상남면과 하남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지율이 낮아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준평야지대를 보여 주고 있음. 반면에 경지면적 중 답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하남읍, 산외면, 산내면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답작지대로 나타나고 있음.

<표 4-1> 경지율, 답률에 의한 지대구분

지대구분기준		지 대	해 당 읍면동
경지율	15% 미만	산간지대	단장면, 산내면, 청도면
	15~25% 미만	준산간지대	상동면, 산외면, 무안면
	25~40%	준평야지대	삼랑진읍, 내일동
	40% 이상	평야지대	부북면, 초동면, 교동 상남면, 하남읍
답률	40% 미만	전작지대	하남읍, 산외면, 산내면, 내일동, 교동 삼랑진읍, 상동면, 산내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40~70%	혼작지대	
	70% 이상	답작지대	

2. 농업개발권역 설정

- 자연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밀양지역의 농업 개발권역은 아래와 같이 동부산간지역, 중북부산간지역, 서부준산간지역, 남부평야지역의 4개 농업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각 권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동부산간지역(산내면 단장면)

-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얼음골, 시레호박소, 사자평 등)
- 일교차가 매우 큰 준고랭지지역으로 사과 등 과일의 당도가 높음
- 산내면 얼음골사과, 단장면 고례대추 지역특화됨
- 밀양-울산간 도로 개통으로 도시인구 유입가능
- 재약산주변 천마, 오가피나무, 헛개나무 주산지

② 중북부준산간지역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밀양시내)

- 밀양시 중심권으로 교통과 생활환경이 양호
- 부산-대구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과 농산물 물류의 중심지 예상
- 부북면 밀양연극촌, 예림서원 등 문화와 농업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촉진
- 상동면 밀양강 주변지역 화훼재배 적지

③ 서부준산간지역(청도면, 무안면, 초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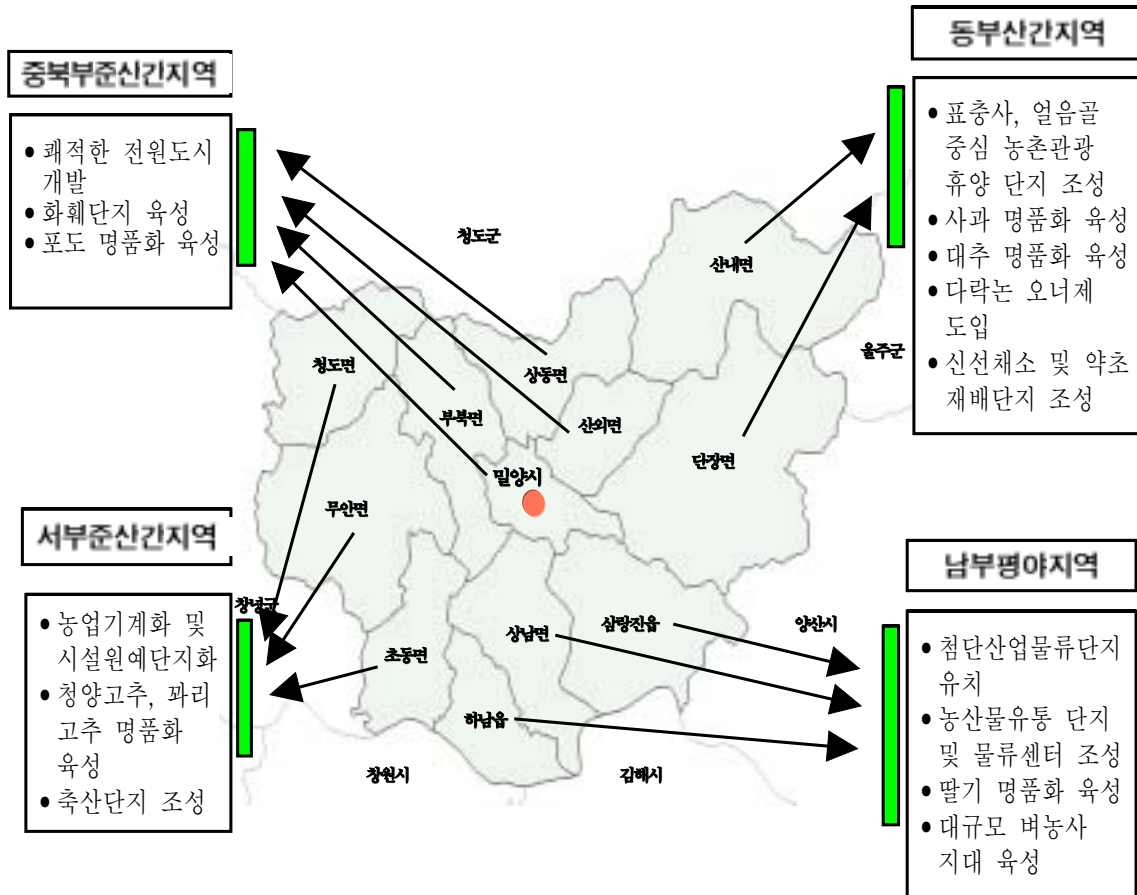
- 청정지역으로 풋고추(청양고추, 파리고추)의 전국 최대주산지
- 풋고추(청양고추, 파리고추)가 지역특화됨.
- 사명대사 생가지, 영산정사, 성보박물관, 땀나는 표충비 등 관광명소

④ 남부평야지역(삼랑진읍, 상남면, 하남읍)

- 밀양강과 낙동강 인접된 지역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음.
- 쌀, 보리, 감자, 딸기, 단감의 주산지

- 김해, 양산, 부산 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함

<그림4-1> 밀양지역 농업개발권역 구분



제2절 권역별 농업발전 전략

1. 동부산간지역(산내면, 단장면)

■ 권역전략

- 관광과 농업·농촌을 연계한 농촌관광특화지역으로 집중 육성
 -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재약산 주변 약초단지 개발, 육성
- 권역명품 : 1명품 얼음골 사과, 2명품 단장대추

■ 지역전략

○ 산내면

- 가지산도립공원, 시레호박소, 얼음골, 가인예술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코스와 농업자원, 농산물 판매를 연계한 농촌관광 추진과 농산물체험 수확코스를 개발하여 도농교류 추진
- 밀양 얼음골사과 명성 유지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강화(사과축제 적극 지원)
- 지역명품 : 밀양얼음골사과
- 지역특화품목 : 밀양얼음골사과, 매실

○ 단장면

- 표충사, 사자평 억세군락 등 유명관광자원이 풍부한 전형적 관광지역으로 관광과 농업의 연계로 농촌지역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 전국적으로 유명한 표충사 관광지 사업을 확대, 보완하여 농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민 주도의 민박마을 조성
- 다락논 오너제도 도입과 메뚜기축제 활성화로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 (감물리 일대)
- 「단장대추아가씨」 선발대회 추진으로 홍보강화
- 지역명품 : 단장대추
- 지역특화품목 : 대추, 한우, 밤나무, 표고버섯, 약초, 풋고추

2. 중북부준산간지역(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밀양시내)

■ 권역전략

- 쾌적한 문화중심의 전원도시 개발 적극추진
- 밀양강 주변 화훼단지 개발, 육성
- 권역명품 : 1명품 포도, 2명품 반시감, 3명품 들깨잎

■ 지역전략

○ 산외면

- 들깨잎의 최대산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저농약 재배)

- 지역명품 : 들깨잎
- 지역특화품목 : 들깨잎, 풋고추(파리고추), 대추
- 승마체험 관광단지 조성
- 상동면
 - 밀양강 주변 화훼단지 조성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화훼재배 적지)
 - 반시감(뽕은감)의 주산지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산지가공산
업 육성지원
 - 지역명품 : 반시감
 - 지역특화품목 : 반시감, 풋고추, 들깨잎, 화훼
- 부북면
 - 포도 명품화 육성지원 강화(비닐하우스 시설 보조)
 - 밀양연극촌과 예림서원 등 문화자원과 농업을 연계하는 도농교류 추진
확대
 - 고품질 브랜드쌀생산 시범단지 육성
 -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무연리)
 - 지역명품 : 포도, 풋고추(파리고추)
 - 지역특화품목 : 포도, 배, 풋고추, 들깨잎, 대추

3. 서부준산간지역(청도면, 무안면, 초동면)

■ 권역전략

- 농업기계화 및 시설원에 단지화 육성
- 농산물가공단지 육성
- 축산단지 조성
- 사명대사 생가지, 성보박물관, 표충비 등과 농업·농촌을 연계한
농촌관광 특화지역으로 집중육성
- 권역명품 : 풋고추(청양고추, 파리고추)

■ 지역전략

- 청도면
 - 파리고추의 주산지로서 신기술 도입 적극추진 및 수출장려지원 강화

- 지역명품 : 풋고추(파리고추)
- 지역특화품목 : 풋고추, 단감, 반시감

○ 무안면

- 풋고추(청양고추)의 최대산지로서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사업 적극지원 강화
- 축산단지 조성 추진(밀양한우 브랜드화 추진)
- 사명대사 생가지, 성보박물관, 표충비와 농업·농촌을 연계한 농촌관광 특화지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주변지역민 주도의 민박마을 조성
- 지역명품 : 풋고추(청양고추)
- 지역특화품목 : 풋고추, 한우, 양돈, 단감, 대추

○ 초동면

- 풋고추의 주산지로서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사업 적극 지원 강화
- 축산단지 조성 추진(밀양한우 브랜드화 추진)
- 단감의 주산지로서 산지가공산업 육성
- 고품질 브랜드쌀생산 시범단지 육성
- 지역명품 : 단감, 풋고추(청양고추)
- 지역특화품목 : 단감, 풋고추, 수박, 보리

4. 남부평야지역(삼랑진읍, 상남면, 하남읍)

■ 권역전략

- 낙동강변과 인접된 평야지대로서 대규모 벼농사지대 육성
- 고속도로건설과 연계한 대단위 첨단산업물류단지 유치
- 농축산물유통단지 및 물류센타 조성
- 삼랑진, 상남, 하남의 딸기 주산지로서 3개 지역을 연계한 각종 홍보사업 강화
- 권역명품 : 1명품 딸기, 2명품 단감

■ 지역전략

- 삼랑진
 - 밀양딸기 명성유지를 위해 삼랑진딸기축제 홍보강화

- 주변경관이 뛰어난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농사체험코스를 개발하여 도농교류 추진 확대
 - 딸기, 단감의 주산지로서 산지가공산업 지원 강화
 - 지역명품 : 딸기, 단감, 복숭아
 - 지역특화품목 : 딸기, 단감, 복숭아, 포도, 매실
- 상남면
- 쌀, 겉보리의 주산지로서 대규모 벼·보리농사지대 육성
 - 딸기, 단감 산지가공산업육성 지원
 - 종남산기슭 남산리일대 청정지역의 미나리재배 확대
 - 축산물유통단지 조성(밀양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인근)
 - 공동선별장 확대설치
 - 지역명품 : 딸기, 단감
 - 지역특화품목 : 쌀, 보리, 감자, 딸기, 단감, 포도
- 하남읍
-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조성사업 지원(남전리)
 - 쌀생산의 최대산지로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추진
 - 수박의 주산지로서 유통개선사업 지원
 - 감자 산지가공산업 육성지원
 - 지역명품 : 딸기, 수박
 - 지역특화품목 : 쌀, 보리, 감자, 딸기, 수박, 단감

제 5 장

지역특화농업 개발 및 육성

제1절 밀양시 지역특화농업 현황

1. 일반적 현황

- 밀양시는 시설채소의 전국적인 집산지로서 대표적인 품목은 깻잎(206ha), 풋고추(청양고추, 파리고추 등 625ha), 딸기(580ha), 수박(140ha) 등임.
- 또한 얼음골사과, 사포포도, 단장대추, 단감 등 과일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쌀은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주된 답작물이 되고 있으며, 그 밖에 하우스감자(수미)는 낙동강 유역의 하남읍과 상남면에 대규모 면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농가에 의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음.
- 축산은 경남지역에서 5~6위 정도의 사육두수이며, 무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음.
- 밀양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읍면별로 주산품목이 뚜렷하여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음.

<표 5-1> 주요 품목별 주산지 분포

단위 : ha

품목	밀양면적	주산지분포	주산지 읍면(면적)	기타주산지
깻잎	206	중북부 답작지역	산외(53), 상남(44)	부북, 삼문동
풋고추	625	전 지역 답작지	무안(175)	상남, 초동, 부북, 상동, 단장, 청도
딸기	580	남부 평야지	상남(196), 하남(164)	삼랑진
수박	140	남부 평야지	하남(77)	초동, 상남
사과	526	동북 산간지	산내(507)	단장
단감	1,366	남서부지역	초동(500)	무안, 삼랑진, 상남, 하남
반시감	211	북부 산간지	상동(126)	청도, 산내
포도	296		부북(222)	
대추	471	북부지역	단장(264)	부북, 산외, 무안

<표 5-2> 읍면별 주·부작목 현황 (개발수요조사 결과)

단위 : ha

읍면	설문응답수	주작목	부작목	기타 작목
삼랑진읍	32	딸기(12), 쌀(11)	단감(5)	복숭아(2)
하남읍	27	딸기(6), 쌀(7)	감자(5)	풋고추, 수박
부북면	33	쌀(21)	포도(4)	풋고추, 파리고추
상동면	30	단감(13)	풋고추(6)	쌀, 깻잎, 딸기, 화훼
산외면	37	쌀(17), 깻잎(10)	풋고추(5)	대추, 건고추
산내면	30	사과(21)	쌀(7)	-
단장면	26	대추(14)	쌀(8)	풋고추
상남면	31	쌀(16)	딸기(7)	풋고추, 딸기
초동면	30	풋고추(11), 쌀(11)	단감(6)	-
무안면	31	풋고추(22)	쌀(8)	-
청도면	30	파리고추(14)	풋고추(6), 단감(5), 쌀(5)	-
내일동	21	쌀(5), 대추(5)	깻잎(4), 풋고추(4)	건고추
교동	17	쌀(6)	깻잎(5), 풋고추(5)	-
계	383	쌀(125), 풋고추(76)	단감(31), 딸기(30), 깻잎(26), 대추(22), 사과(22)	파리고추(18)

주 : 1) 주작목은 읍면별 응답자수 중 상위 1~2개 품목, 부작목은 중위 품목, 기타 품목은 주, 부작목에 포함되지 않는 응답한 품목임(1명 이하 응답 품목 제외).

2) ()안은 응답자수

2. 시설채소

- 밀양시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2,068ha이며, 풋고추, 딸기, 깻잎, 수박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시설원에 품목은 거의 재배되지 않음.
- 특히 각 품목의 읍면 집중도가 극히 강하여 풋고추는 무안면(청양고추), 깻잎은 산외면, 상남면, 부북면, 딸기는 상남면, 하남면, 삼랑진읍 등에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음.

① 깻잎

- 밀양의 들깻잎은 전국 생산량의 75%, 가락동시장 반입비율의 70.5% (2001년)로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출하지로서, 중북부 답작지역인 산외면, 상남면, 부북면, 상동면, 삼문동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밀양의 들깻잎은 온난한 기후와 맑고 깨끗한 청정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로 부드럽고 신선함. 특히 밀양시에 소재한 영남작물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등의 품종 개발 보급 및 기술지도 등으로 타 지역산 깻잎과 달리 잎뒷면의 적자색이 선명하고 페닐케톤 성분이 많아 독특한 향이 있으며, 잎이 두껍고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고품질 깻잎을 생산하고 있음. 1.3kg(100속) 단위로 시장에 출하하며 10월~익년 6월이 주출하시기임.
- 생산자조직으로 산외면 산동원에영농조합법인, 상동면 상동원에영농법인, 상동푸른작목반, 상남면 예림원에 등이 있음.

② 풋고추

- 청양고추와 파리고추가 많이 재배되며, 특히 청양고추는 무안면에서 전국의 30% 이상을 생산, 공급하여 최대의 산지임(연간 7천여톤, 300억원). 청도면은 파리고추에 특화되어 있는 등 읍면별로 특수한 품목을 집중 재배함.
- 생산자조직으로 부북고추작목반, 상동고추작목반, 산내고추작목반, 상남면 밀양풋고추연합회, 초동시설원에연합회, 청도고추작목반 등이 있음.

③ 딸기

- 밀양의 삼랑진이 딸기의 시배지로 유명하며, 남부 평야지역인 상남, 하남, 삼랑진 등에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음. 주로 수막재배로 야간보온을 하고 있음. pH 6.0의 약산성의 양토 내지 식양토로 유기물이 풍부하며,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음.
- 신품종을 재배하며 비타민C가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 일본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일본 수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시장에 출하되는 포장단위는 1kg, 2kg, 8kg이며, 위탁상인들에게 많이 판매하고 가락시장 등 수도권 출하가 적고 부산, 경남지역 등 지역시장에 12월~익년 5월 사이 주로 판매함.
- 삼랑진, 밀양남부, 상남, 부북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산자조직으로 상남면 수출딸기연합회, 하남읍 대평딸기작목반, 부북면 감천작목반 등이 있음.

3. 과수

- 과일은 총 3,049ha('02)이며, 그 중에서도 단감 면적이 45%인 1,366ha를 차지하여 단감 주산지임. 그 밖에 사과(526ha, 대추(471ha), 포도(296ha), 뽕은감(211ha) 등이 재배되며, 이들 품목은 읍면 집중도가 매우 높음.

① 사과

- 산내면과 단장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산내면 얼음골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2002년 밀양시 사과면적 526ha 중에서 산내면이 507ha로 96.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산지역인 산내면의 사과농가는 694호이며, 산내면 중에서도 해발 250m 이상에 해당되는 얼음골을 중심으로 6개 부락에서 절반 정도인 250ha가 재배되고 있음.
- 주요 생산자조직으로는 주로 산내면에서 조직, 운영되는 얼음골 영농조합법인, 얼음골 사과작목회가 있으며, 인근 단장면에 구천

사과영농조합법인이 조직되어 있음(구천리 19호 11ha).

- 얼음골 사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수한 사과로 이 지역 생산자조직과 농가가 직접 소비지의 소비자, 도소매상 등 수요처와 직거래하거나 산지에서 노변직판 또는 농장판매하고 있어 도매시장 등 일반적인 유통경로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얼음골 사과는 전국의 사과산지 중 유일하게 생산자조직에서 농가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② 대추

- 밀양대추, 단장대추, 고례리대추 등으로 불리워지는 밀양대추는 단장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부북면, 산외면, 무안면 등에도 재배되고 있음.
- 밀양은 300여년간 대추를 재배해온 전국 제일의 명산지로서 중산간지의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며 주·야간의 온도교차가 심하여 대추 재배에 적합함. 과육이 많고 색택이 붉어 광택이 뛰어나며 1년 이상 장기 저장이 가능하여 연중 판매되고 있음.
 - 2002년 재배면적이 총 471ha로, 그 중 단장면에서 264ha, 부북면 60ha, 산외면 43ha, 무안면에서 30ha가 재배되고 있음.
- 1kg, 3kg, 5kg, 10kg, 15kg 등 포장판매되고 있으며, 생산자조직으로 산외면 산외대추영농조합법인, 단장면 고례대추작목반 등이 있음.

③ 단감

- 밀양시 남부 초동면을 중심으로 집중 재배되고 있으며, 인근 상동면, 삼랑진읍, 무안면, 하남읍, 상남면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음.
 - 2002년 총 1,366ha, 그 중에서 초동면 500ha, 무안면 186ha, 삼랑진읍 184ha, 상남면 172ha, 하남읍 127ha,
- 전국적인 단감 과잉생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단감 수확작업이 어려워지며 논에 재배된 단감이 제거되고 있음.

4. 반시감

- 밀양시 전체 211ha. 북부의 상동면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126ha), 인근의 청도면(28ha), 산내면(20ha)에서도 일부 재배됨.

5. 포도

- 흔히 사포포도라 불리워지며 부북면의 사포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음.
- 밀양시 전체 296ha, 그 중에서 부북면 사포지역에 75%인 222ha가 집중 재배되고 있음.
- 생산자조직으로 전사포포도작목반, 후사포포도작목반 등이 있음.

4. 감자

- 낙동강 유역인 하남읍과 상남면에서 대규모 재배농가에 의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음.
-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감자는 주로 시설봄감자로서(수미 품종) 시설감자의 전국 최대 산지임. 2000년에 385ha로 22.8%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2위 전북 김제 330ha), 2001년에는 365ha로 30.9%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음(2위 김제 357ha).
- 제주도 가을감자(대지)가 12월부터 출하되어 봄까지 출하되나 시설봄감자는 햇감자로 4월초에 출하되기 시작하여 5월까지 높은 수취가격을 받고 있어 농가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음. 4월 중순에 출하되는 전북 김제의 시설봄감자와 시장에서 주로 경쟁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03년 태풍 루사에 의한 시설하우스 소실과 낙동강 제방공사로 시설면적이 줄어들었음.
- 생산자조직으로 하남읍 백산감자작목반, 상남면 상남감자작목반 등이 있음.

5. 축산

- 밀양시의 한우, 돼지, 닭 사육규모는 경남지역에서 5~6위이며, 특히 무안면(한우, 젓소, 닭)과 단장면(돼지)을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음.
- 가축 중에서 돼지·개·사슴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는 감소, 젓소·산양은 정체되어 있음.
- 한육우 사육두수와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말 농가호당 6.5두로 전국 평균수준임. 무안면의 사육두수는 3,935두로 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나 농가호수가 500호로 비교적 영세함(농가호당 8두). 반면 삼랑진읍은 사육두수가 2,133두이나 농가호수가 140호로 호당 사육두수가 15두임.
- 돼지 사육두수는 2001년 68,050두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으나 2002년 63,805두로 감소하였음.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 농가호당 585두로 전국평균 528두보다 다소 많음. 단장, 상남, 초동면은 농가호당 1천두로 비교적 규모화되어 있음.
- 닭의 사육농가수는 계속 줄어들어 2002년 322호였으나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2년 62만 8천수가 되었음. 호당 1,951수로 전국평균 578수보다 3.4배나 많아 규모화가 상당수준 진전되고 있음. 무안, 초동, 상남면에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음.
- 축산사육의 규모화 진전은 효율면에서 바람직하나, 친환경적, 친환경적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화를 통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설현대화와 축산오폐수의 철저한 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5-3> 밀양시 가축사육 현황, 2002년말 기준

단위 : 호, 두(수)

	한육우		젓소		돼지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계	2,625	17,045	23	1,395	109	63,805	322	628,258
주산지역	무안, 단장, 부북, 삼랑진		무안, 부북, 상남		단장, 상남, 초동, 무안		무안, 초동, 상남, 하남	

제2절 밀양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시장 평가

1. 소비지시장 조사 개요

- 밀양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평가는 주로 출하되는 소비지 도매 시장에서 경쟁이 되는 타지역 농산물과 비교한 품질, 가격, 브랜드, 선별, 포장 수준을 시장관계인들 면접을 통해 직접 조사함으로써 밀양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수행되었음.
- 조사대상 품목
 - 조사대상 품목은 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한정하였으며, 이에는 깻잎, 청양고추, 파리고추, 딸기, 단감, 얼음골사과, 배가 포함됨.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품목별로 시장에 출하되는 경쟁 산지 출하 농산물과 비교한 품질(품위), 출하시기의 가격수준, 브랜드파워, 선별포장상태 등과 이들을 종합한 종합적인 경쟁력 수준도 조사하였음. 경쟁 농산물과의 비교는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최상위, 상위, 중위, 중하위, 하위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밀양 농산물의 품위, 가격 수준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조사하였음.
 - 이러한 평가와 함께 조사내용별로 밀양 농산물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과제까지 조사하였음.
- 조사기관 및 대상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동 도매시장내 서울청과(딸기, 단감, 얼음골사과, 배), 중앙청과(딸기), 동화청과(파리고추, 청양고추, 깻잎), 농협공판장 등 도매법인의 품목담당 이사,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동안 대표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일부 전화 설문조사를 하였음.

2. 조사 결과

① 깻잎

- 밀양의 들깻잎은 가락동시장 반입비율이 70.5%(2001년)로 전국 최대 출하지이자 시장가격을 주도함. 특히 동절기 가격은 밀양산동농협 출하 깻잎이 최고시세를 나타내고 있음.
- 1~4월동안 가락동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11월은 80%대, 나머지 기간은 40~70%를 점유하고 충남 금산의 추부깻잎과 일부 경합됨(18.4%).

<표 5-4> 밀양 깻잎의 소비지시장 평가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깻잎은 전국적으로 3대 주산지인 밀양, 금산, 대구지역 순으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음. ○ 품위는 계절적인 집중출하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 동절기에는 밀양산이 최고 시세를 형성하고, 하절기에는 금산산 최고 시세의 60% 정도에 그치고 있음(50% 미만도 나옴).	○ 동절기 최고 시세: 밀양산동농협 ○ 하절기 최고시세: 금산 추부깻잎
브랜드	○ 밀양 깻잎의 브랜드 개발은 금산지역보다 다소 뒤지는 경향이 있음. ○ 상품의 품질수준이 개인별, 출하작목반별로 차이가 많음. ○ 시장에 모든 출하지역의 깻잎이 출하되면 밀양산 깻잎은 유명 브랜드에 포함되지 못함.	
선별, 포장	○ 3kg포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끔 4kg포장도 출하되고 있음. 밀양지역은 거의 3kg으로 출하되고 있음. ○ 포장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바라깻잎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비표준규격 박스가 사용되고 있음.	○ 충남지역 바라깻잎은 8kg, 4kg로 구분된 규격박스 사용
종합적 경쟁력	○ 하절기에는 금산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동절기에는 밀양지역에서 많은 물량이 출하되어 전체적인 비교가 안되지만, 최고의 품질만 놓고 비교하면 품질이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동절기 밀양지역에서 출하되는 깻잎의 품질은 개인별, 작목반별 작업 차이로 인해 밀양지역내 지역별로 차이가 심함. ○ 따라서 지역별로 품질의 차이가 심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밀양 깻잎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동절기에는 밀양갯잎이 시장출하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타지역산과 경쟁이 안되지만, 하절기에는 충남 금산 추부갯잎, 대구 인삼골갯잎보다 품질과 브랜드면에서 뒤떨어져 낮은 가격을 수취하며, 출하 개인, 작목반별로 품질, 규격, 포장 수준의 차이가 심함.
- 따라서 밀양 갯잎의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공동선별, 포장으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풋고추(청양고추, 파리고추)

- 경남지역이 전국의 44%로 최대의 산지임. 강원도는 21%를 점유하며 주로 여름철 8~9월에 집중 출하됨. 청양고추는 경북 예천산과 경합하며, 파리고추는 주로 충남 금산과 서산산과 경합하고 있음.
- 밀양 풋고추는 전국의 24%를 점유하며(진주 12%, 충남 당진 6%, 강원 홍천, 평창 등 각각 5~6%), 한두 달을 제외하고 가락동시장에 매월 최대 물량을 출하함.
- 가락시장내에서 청양고추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 그러나 밀양지역내에서 브랜드와 홍보의 차이가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밀양의 청양고추는 최상급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써야 하며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파리고추는 품질면에서 상위 수준에 있으며 공동선별장에서 공동선별, 포장, 출하를 함으로써 품질이 뛰어나 소비지 인지도가 높음.
 - 따라서 파리고추의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과 공동선별 출하 등으로 상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5-5> 밀양 청양고추의 소비지시장 평가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시장내 5개 그룹 중 최상위 수준에 속하며, 선별, 중량 등 상품성이 뛰어나 상위수준의 가격(최상위의 80% 정도)을 받고 있음. ○ 현재 밀양지역 3개면에서 출하중이며 한국, 동화, 중앙, 서울청과, 공판장 등 대부분의 도매법인에 출하됨. -1그룹: 밀양남부농협 초동지소(한국, 동화, 중앙, 농협, 서울) -2그룹: 상남농협(한국, 동화, 서울) -3그룹: 무안농협(농협, 동화, 중앙, 한국)	○ 현재 시장에 출하되는 전라도 담양군 봉산농협과 비교할 때 품질면에서 우위 ○ 시즌 중 타지역 산과 비교할 때에도 품질면에서 우위를 차지
브랜드	○ 상품의 질과 수준이 뛰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브랜드가 많이 알려짐. ○ 밀양에서 출하되는 2,3그룹은 품질 면에서 밀양남부농협 초동지소와 차이는 없으나, 브랜드 및 홍보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선별, 포장	○ 10kg 포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나 2,3그룹은 중량미달 등 문제가 있음. ○ 박스의 재질이 튼튼하며 규격포장출하를 하고 있음. ○ 포장디자인은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요구됨.	
종합적 경쟁력	○ 브랜드 파워가 강하며 종합적 경쟁력은 최상위로 판단됨. ○ 그러나 브랜드 파워의 강화를 위하여 선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시장내 지배력과 시즌중 지속적인 출하를 통한 지지도 제고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표 5-6> 밀양 파리고추의 소비지시장 평가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시장내 3개 그룹 중 첫번째 그룹으로 상위 수준이며, 가격은 최상위의 80% 수준임. ○ 전라도 지역보다는 품질 면에서 우수하여 가락시장 겨울철 시세를 죄우하고 있음. ○ 밀양지역 5개 면에서 파리고추를 주로 출하하고 있음. 1그룹: 산동농협 단장지소(중앙), 청도농협(한국) 2그룹: 산동농협 안법지소(동화, 한국) 3그룹: 산동농협(동화), 부북농협(농협, 서울) ○ 품질이 뛰어나며 공동선별장 운영으로 선별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음.	
브랜드	○ 상품의 질은 우수하나 각 지역의 특색이 없고 브랜드 개발이 보통 수준으로 밀양지역 파리고추 브랜드 통합이 요구됨.	
선별, 포장	○ 대부분 4kg 소포장 규격출하하고 있으나 박스 통합이 필요하며, 시장상황에 대응한 대과 선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포장디자인은 뛰어난 편임.	
종합적 경쟁력	○ 종합적인 경쟁력은 상위 수준 ○ 시장점유율은 집중 출하시기인(11월~4월)에 높으나, 시즌 중에도 지속적인 출하를 통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 ○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로 시장 대응력 강화가 요구됨.	○ 4~8월: 충청도지역 면천, 고덕, 봉산 ○ 8~11월: 전라도지역 대촌, 평동, 삼도 ○ 틈새: 경기 지제, 양동

[3] 딸기

- 경남지역이 전국의 35%를 재배하여 전국 최대의 산지임(전남 31%, 충남 17%). 밀양 딸기는 상남, 하남, 삼랑진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산지이나 가락시장 출하는 미미한 수준이며 “다라”(20kg)로 위탁판매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품질은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포장 및 선별수준이 불량(속박이)하여 품위 수준은 “하”로 평가되고 있으며 알려진 브랜드가 없음.
- 따라서 전국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으로의 계통출하를 늘

리고, 산지에서 공동선별, 포장규격화, 브랜드 개발로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상위 경쟁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딸기 농민들을 딸기 출하 선진지인 담양, 산청, 논산 등지로 대대적인 견학,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5-7> 밀양 딸기의 소비지시장 평가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전국의 딸기 재배면적 1, 2위를 다룰 정도로 재배면적이 많으나, 가락시장 출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근래에 소량출하되고 있음. ○품질을 중상 수준이나, 포장 및 선별불량으로 품위수준이 “중하”로 평가되어 가격도 중하 수준을 받고 있음.	
브랜드	○가락시장에서 알려진 브랜드는 없음. ○상품의 질과 수준은 높는데 반해 계통출하 비율이 매우 낮고 위탁판매 성행으로 브랜드개발 의욕이 저조	○다라이(20kg) 위주 위탁판매
선별, 포장	○선별수준 아직 미흡(속박이 등) ○포장도 규격포장을 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 ○다라이(20kg) 작업에 익숙한 지역이라 종이상자 작업시 크기 및 선택 등 일률적인 정렬작업이 뒤떨어지고 포장디자인도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짐.	○계통출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다라이 작업에서 종이상자 작업으로 전환 노력 중임.
종합적 경쟁력	○가락시장 내 종합적 경쟁력은 중, 하 수준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라이(20kg) 위탁판매를 줄이고 대형도매시장으로의 계통출하를 늘려 시장내 물량지배력을 갖추어야 함. ○선별이 우수한 고품질 지역인 담양 및 산청지역 견학, 가락시장 견학 등으로 작업방법 및 포장 개선 요구됨.	○과거 논산지역의 경우 가락시장 출하가 미비하여 가격이 중하 수준이었으나, 현재 가락시장 출하량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가격도 중상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4 단감

- 경남지역에 전국의 75%를 점유하는 최대 신자이며, 밀양 단감은 경남 창원(21%), 진주(18%), 함안(14%), 창녕(9%)에 이어 5위의 출하지역임(4% 전후).
- 밀양 단감은 3~5월에 집중 출하되어 가락동 시장에서 이 기간 중 매월 2위의 출하비율을 차지함. 8월경에도 창녕, 서귀포에 이어 3위를 점유함.
- 품질이 양호하고 선별포장도 양호하여 시장내에서 중상의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시세에 따른 출하량 변동이 심하고 위탁판매 물량이 많아 지속적인 출하로 시장내 중도매인의 선호도가 낮음.
- 따라서 브랜드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 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출하로 중도매인들의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5-8> 밀양 단감의 소비지시장 평가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시장내 5개 그룹 중상위 수준. ○ 특히 밀양 산내지소 출하 단감은 재배 관리, 상품관리가 뛰어나 시장에서 상위수준 가격 받음(밀양 용전작목반) ○ 품질은 중상위 수준이나 포장 및 선별문제에 따라 중하위 시세	
브랜드	○ 상품의 질적 수준은 높으나 상응한 브랜드 개발이 미흡함. ○ 일부 “저농약 및 품질인증품”이 출하가 되고 있으나 당도 및 색상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지속적인 출하보다는 시세에 따른 출하로 중도매인 선호도가 약함.	
선별, 포장	○ 타 지역에 비해 깨끗이 작업함. ○ 서촌조생: 모양은 양호하나 수정이 되지 않는 단감이 많고 미숙과가 많음. ○ 부유: 선별포장은 양호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포장상자 보완이 필요함.	
종합적 경쟁력	○ 종합적 경쟁력은 중상 정도 수준 ○ 타 지역산보다 시세가 좋음. ○ 계통출하에 따른 지속적인 출하와 위탁상 거래 탈피가 필요함. ○ 도매시장의 잦은 방문에 따른 타 지역 포장재 및 선별, 비교 분석 필요	

5 사과

- 밀양 얼음골사과는 생산량이 많지 않고 직거래 물량이 많아 가락시장 출하량은 극히 적으나,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
- 얼음골사과 브랜드 이미지는 좋으나 선별 수준이 다소 떨어지고 지속적인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동선별출하와 도매시장 출하 확대가 요망됨.
- 특히 얼음골이라는 특수한 지역브랜드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소량 생산되는 고품질 명품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표 5-9> 밀양 얼음골사과의 소비지시장 평가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타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향이 좋아 소비자 호응도가 좋음. ○ 타 지역에 비해 5kg 포장시 2~3천원 높은 가격을 받음.	
브랜드	○ 밀양 얼음골사과는 유명브랜드는 가지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빈도가 낮아 시장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상품성화될 여지가 큰 지역임.	
선별, 포장	○ 선별은 포전 거래 및 지방 출하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짐. ○ 포장은 타 지역에 비해 5kg 포장으로 비교적 규격화 포장을 하고 있음.	
종합적 경쟁력	○ 얼음골 사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 선별 및 포장에 신경 쓰고 도매시장에 꾸준한 출하가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에서 타 지역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큼.	

제3절 밀양시 지역특화품목 개발 전략

1. 밀양시 지역특화농업 방향

- 밀양시는 지역적 특성, 농업인 특성상 읍면별로 주산품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품목별 생산기술도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읍면별 지역특화 경향으로 품목별로 대규모 생산, 출하가 이루어지게 되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높은 수취가격을 받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읍면별 특화품목은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수입 확대에 피해를 크게 입지 않는 시설채소와 과일 품목으로서 금후 밀양농업에 희망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열매과실인 과일과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가 되어 있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현재의 지역특화품목 전략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금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 등 일부 품목은 대체품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가격등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주산품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품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보완품목은 기존 품목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정도가 아니며, 소비자들의 건강지향, 친환경 지향, 기능성 식품 선호, 멋과 예술 지향 등 소비성향에 따라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수품목이 될 가능성이 큼.
- 개발수요조사 결과, 마을의 물리적인 농업생산여건(기후 및 토지 여건)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과 시장개방 등 대외여건을 고려할 경우 향후 전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을 응답자의 품목별 응답 비율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5-10>와 같음.
- 마을의 영농지도자들은 기존의 특화품목인 풋고추, 딸기, 사과, 갯잎, 대추를 제외하고(단감, 쌀, 건고추 등 제시는 의외임), 화훼, 한우(소), 약초 등과 버섯, 매실, 미나리, 산나물, 녹차, 양란 등 특수품목을 미래 경쟁 가능하거나 전망있는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5-10> 향후 경쟁가능하거나 전망있는 품목 순위 (설문조사 결과)

순위	항목1 (최근 생산 증가 또는 경쟁력 향상 품목)		항목2 (기후, 토지 등 생산여건 고려시 경쟁 가능 품목)		항목3 (개방 등 대외여건 고려시 전망있는 품목)	
	품목	비율	품목	비율	품목	비율
1	풋고추	47.6	풋고추	27.5	풋고추	19.9
2	깻잎	26.6	사과	10.3	사과	9.0
3	딸기	21.9	딸기	9.5	딸기	9.0
4	단감	15.9	대추	8.0	단감	6.6
5	대추	13.3	깻잎	6.1	화훼	6.2
6	소	10.6	파리고추	6.1	기타시설채소	5.7
7	사과	9.9	단감	5.3	깻잎	5.2
8	쌀	9.8	화훼	3.4	대추	5.2
9	파리고추	9.1	쌀	3.4	소	5.2
10	방울토마토	9.1	건고추	2.7	약초	4.7
11	건고추	8.1	소	2.3	파리고추	2.8
12	매실	3.7	포도	1.9	쌀	2.8
13	감자	3.1	감자	1.9	버섯	1.9
14	포도	2.3	수박	1.5	매실	1.9
15	수박	2.1	약초	1.1	배	1.4
16	화훼	2.0	매실	1.1	밤	1.4
17	배	1.7	미나리	0.8	수박, 미나리, 녹차, 자두, 산나물, 양란, 복숭아, 포도	각 0.9
18	약초	1.6	산나물	0.8		
19	버섯	1.4	보리	0.8		
20	미나리	1.1	기타	3.2		
21	오이	1.1	-	-	기타	3.5
22	기타	3.1	-	-	-	-
계		200.0		100.0		100.0

- 주 : 1) 각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 390명 중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비율임(응답자수: 항목1 - 305명, 항목2 - 262명, 항목3 - 211명)
- 2) 항목1의 계 200.0은 2품목 복수응답, 항목2와 3은 단수응답을 나타냄.
- 3) 항목1의 기타에는 기타시설채소, 산나물, 쪽파 포함.
- 4) 항목2의 기타에는 한명씩 응답한 8개 품목 포함(방울토마토, 오이, 밤, 복숭아, 배, 쪽파, 녹차, 흑염소)
- 5) 항목3의 기타에는 한명씩 응답한 7개 품목 포함(보리, 감자, 건고추, 오이, 무, 돼지, 흑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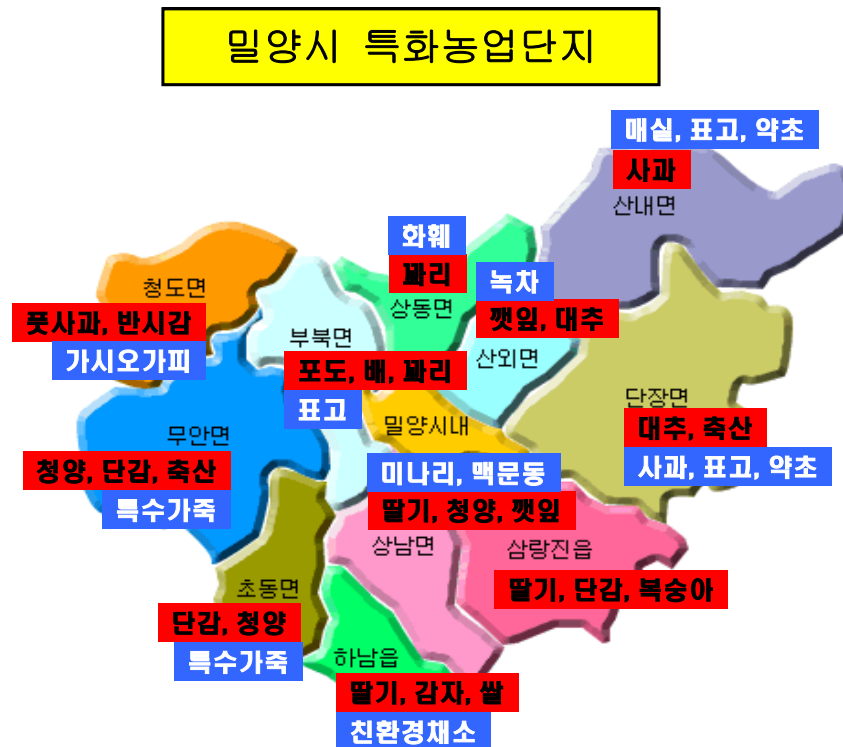
- 기존의 지역특화품목과 읍면별 설명회에서 제시된 특수품목, 마을별 개발수요조사에서 마을의 기후와 토지여건, 대외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되는 품목 등을 종합하여 권역 및 읍면별 명품, 지역특화품목, 보완품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11>와 <그림 5-1>와 같음.

<표 5-11> 권역 및 지역 특화품목과 보완품목

권역	읍면	권역명품 (특새품목)	특화품목	보완품목 (특새품목)	경쟁가능 품목 (영농지도자 설문조사)
서부 준산간	무안	청양고추, 단감, 축산 (가시오가피, 특수가축)	청양고추, 단감, 축산	특수가축	한우, 단감, 깻잎
	청도		풋고추, 반시감	가시오가피	단감, 쌀, 풋고추, 파리고추, 한우
	초동		단감, 청양고추	특수가축	단감, 풋고추, 수박, 한우, 매실
동부산간	산내	얼음골사과, 단장대추, 농촌관광 (표고, 약초)	얼음골사과	매실, 취나물, 표고, 약초	사과, 풋고추, 약초, 대추, 파리
	단장		대추, 파리고추, 축산	사과, 표고, 약초, 밤	대추, 깻잎, 풋고추
중북부 준산간	부북	포도, 깻잎, 반시감 (화훼, 녹차)	포도, 배, 파리고추, 대추	표고	깻잎, 풋고추, 파리고추, 포도
	상동		반시감	화훼	풋고추, 대추, 단감
	산외		깻잎, 파리고추, 대추	녹차	깻잎, 풋고추, 딸기
남부평야	삼랑진	딸기, 단감, 감자, 친환경쌀 (수박, 친환경채소)	딸기, 단감, 복숭아	-	풋고추, 딸기, 복숭아
	상남		딸기, 청양고추, 깻잎, 단감, 쌀	미나리, 맥문동	건고추, 깻잎, 풋고추
	하남		딸기, 감자, 수박, 쌀	친환경채소	수박, 딸기, 감자

주 : 경쟁가능품목은 읍면별로 25~37명의 영농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수요조사에서 각 읍면별 생산여건(기후, 토지)을 고려할 때 향후 경쟁가능한 품목중 2개 이상 지적된 품목임.

<그림 5-1> 밀양시 특화농업단지 배치도



주 : 읍면별 특화품목 중 상단 품목은 특화품목이며, 하단 품목은 보완품목

2. 밀양시 지역특화농업 중점추진과제

① 품목 일반

- 시설채소농가의 재배면적과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두수를 늘려 규모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업농 소득을 증대함.
- 『1품목 1특화사업』 추진
 - 특화품목에 따라 품목을 대표 또는 홍보할 수 있는 1특화사업을 추진함.
 - 1품목 1특화사업은 당해 품목의 생산, 가공, 마케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예컨대 가공품 개발 및 생산자단체 가공공장 설립, 연구소, 박물관, 공동계산제, 대형산지유통센터 설립, 소비지 직판장, 노변직판장 설치 등.
- 읍면별 『틈새품목사업』 추진

- 읍면별로 지역의 특화품목을 보완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틈새품목을 선정하여 지원 육성함.
- 四名운동 추진
 - 명인, 명소, 명품, 명조직을 선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업인, 관광명소, 명품농산물, 유명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역할을 담당케 하고 교육, 훈련, 연수, 도농교류 등에 적극 활용함.
- 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명품농산물에 대해 조속히 생산유통이력제(Traceability)를 추진

2 시설채소

- “시설원예 메카” 만들기 사업 추진
 -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설원예 메카” 원년을 선포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함.
 - 세부사업 : 시설원예박물관, 시설채소국제박람회 개최, 시설원예연구소 개설(품목연구소 집합), 품목별 시설원예연구회 구성 및 사업내실화 등
- 시설채소 특구 신청
 - “시설채소의 고향”, “시설원예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써, 밀양 시설농업지역이 시설채소 특구로 선정되도록 신청함.
- 시설채소 보완품목(틈새품목) 개발
 - 지역별로 기후 및 토양조건, 농가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시설채소 보완품목을 개발해 지역별로 과채류, 엽채류 등을 계획적으로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지역단위로 적합한 보완품목 선정(토마토, 화훼, 시금치, 상추, 양채류, 무공해 봄미나리 등)
- 주요 품목별 개선과제
 - 깻잎 : 브랜드 개발, 표준규격박스 사용, 공동선별 또는 농가단위 선별 기준 엄격 적용으로 금산 깻잎에 가격경쟁력 열위 극복
 - 청양고추 : 포장디자인 개발, 무안 청양고추 대표브랜드 개발
 - 파리고추 :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밀양산 파리고추 브랜드 통합
 - 딸기 : 규격포장, 엄격한 선별등급,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대도시 도매시장 공동출하로 밀양 딸기 인식 제고와 시장점유율 제고, 딸기 생

산농민의 선진지 작목반,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소매유통업체 등에 대한 견학 및 교육, 생산자조직 육성

③ 과수

- 얼음골사과 브랜드 성가 유지
 - 생산자조직(작목반)의 통합으로 얼음골사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 관리가 필요하며(상품성관리체계 구축) 도매시장 출하 및 직거래 등을 조정(직거래, 도매시장 출하 등 출하창구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으로 거래교섭력 제고가 필요함.
 -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실시로 선별, 포장을 개선하고 품질관리 강화
 - 출하박스별로 일정 비율(1% 정도)을 일괄 공제하여 자조금을 조성하여(자조금제도 실시) 얼음골사과의 홍보와 시장 개척 및 얼음골사과축제를 지원토록 함.
- 단감 및 배의 브랜드 개발과 공동선별
 - 단감: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공동선별 출하, 포장상자 보완(부유), 완숙과 출하 유도(서춘조생)
 - 배: 브랜드 개발, 소포장재 개발, 선별표준화 유도(공동선별 등)
- 대추 브랜드화와 유통관리
 -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구성으로 브랜드, 소포장 상품 개발 및 관리와 체계적인 유통 관리

④ 축산

- 축산단지화 추진
 - 무안, 초동, 청도, 단장면 등 산간 또는 준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축산단지화를 추진하여 친환경적, 친환경적 축산 지향
-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사업 추진
 - 기존 축사의 외장 개보수로 친환경적,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추진

3. 지역특화농업 육성 위한 투융자계획

가. “시설원예 메카 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추진

- 2004년중 “시설원예 메카 만들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연구용역), 2005년을 원년으로 선포하고, 박물관 건립, 국제박람회 개최 등 사업 추진.

<표 5-12> “시설원예 메카 만들기”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대상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마스터플랜 수립	-	국비	-	-	-	대학, 연구소
		지방비	100	-	100	
		자부담	-	-	-	
		계	100	-	100	
시설원예박 물관 건립	1개소	국비	5,000	5,000	5,000	지방비 시비에는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분담 포함
		지방비	도비 2,500 시비 2,500	도비 2,500 시비 2,500	도비 5,000 시비 5,000	
		자부담	-	-	-	
		계	10,000	10,000	20,000	
시설채소 국제박람회 개최	3년 1회	국비	1,000	2,000	3,000	밀양시
		지방비	도비 500 시비 500	도비 1,000 시비 1,000	도비 1,500 시비 1,500	
		자부담	-	-	-	
		계	2,000	4,000	6,000	

주 : 1) 시설원예 박물관 건립: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도 25, 시 25)

2) 시설채소국제박람회: 2007년부터 3년에 1회 개최

나. “4명 운동” 추진

- 명인, 명소, 명품, 명조직을 선발하여, 연구 개발 자금 지원, 교육 훈련, 연수 등 실시로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생산자조직으로 육성하고, 명품화, 명소화 사업 추진.

<표 5-13> “4명 운동”추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대상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4명 운동	-	국비	-	-	-	농업인, 관광문화명소, 농산물 및 가공 식품, 생산자조직,
		지방비	500	500	1,000	
		자부담	-	-	-	
		계	500	500	1,000	

다. 축산단지화 및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추진

- 권역별로 환경, 관광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축산단지로 지정하여 단지화 추진

<표 5-14> 축산발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축산단지화 사업	5개소	국비	-	-	-	축산단지
		지방비	1,000	1,500	2,500	
		자부담	1,000	1,500	2,500	
		계	2,000	3,000	5,000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40개	국비	-	-	-	축산농가
		지방비	300	300	600	
		자부담	300	300	600	
		계	600	600	1,200	
축산농가 생산 지원	연간 3억원	국비	300	300	600	축산농가
		지방비	300	300	600	
		자부담	600	600	1,200	
		계	1,200	1,200	2,400	

- 주 : 1) 축산단지화사업: 5개소(전반기 2개소, 후반기 3개소), 개소당 10개 축사, 10억원 기준(지방비 5억, 자부담 5억원)
- 2)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전반기 20개, 후반기 20개, 개소당 100평 기준 3,000만원, 시비 50%, 자담 50%
- 3) 축산농가 생산 지원: 연간 3억원 지원, 국비 25%, 지방비 25%, 자담 50%, 송아지생산안정제, 우수축 생산보상금, 한우거세지원, 조사료생산기반, 축산용기계, 가축방역, 분뇨처리시설 등

-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사업 추진
 - 축산단지화 사업과 별도로 단지화되지 않은 축사를 중심으로 축사 지붕 및 외장을 친환경적, 친환경적인 축사로 개조 및 도색
- 축산분뇨처리 및 퇴비화 시설(간이퇴비장) 설치 지원

제4절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

1. 국내산 경주마 생산 현황

- 마필의 생산두수는 1994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5,656두로서 교배대상 씨암말 두수 9,707두의 58% 정도에서 생산되고 있음. 내륙지방에서 생산되는 마필은 총 마필생산의 17%정도 차지하고 있음.
- 마필 생산량을 보면 제주, 내륙 지방 모두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내륙지방의 경우 생산량의 변화가 다소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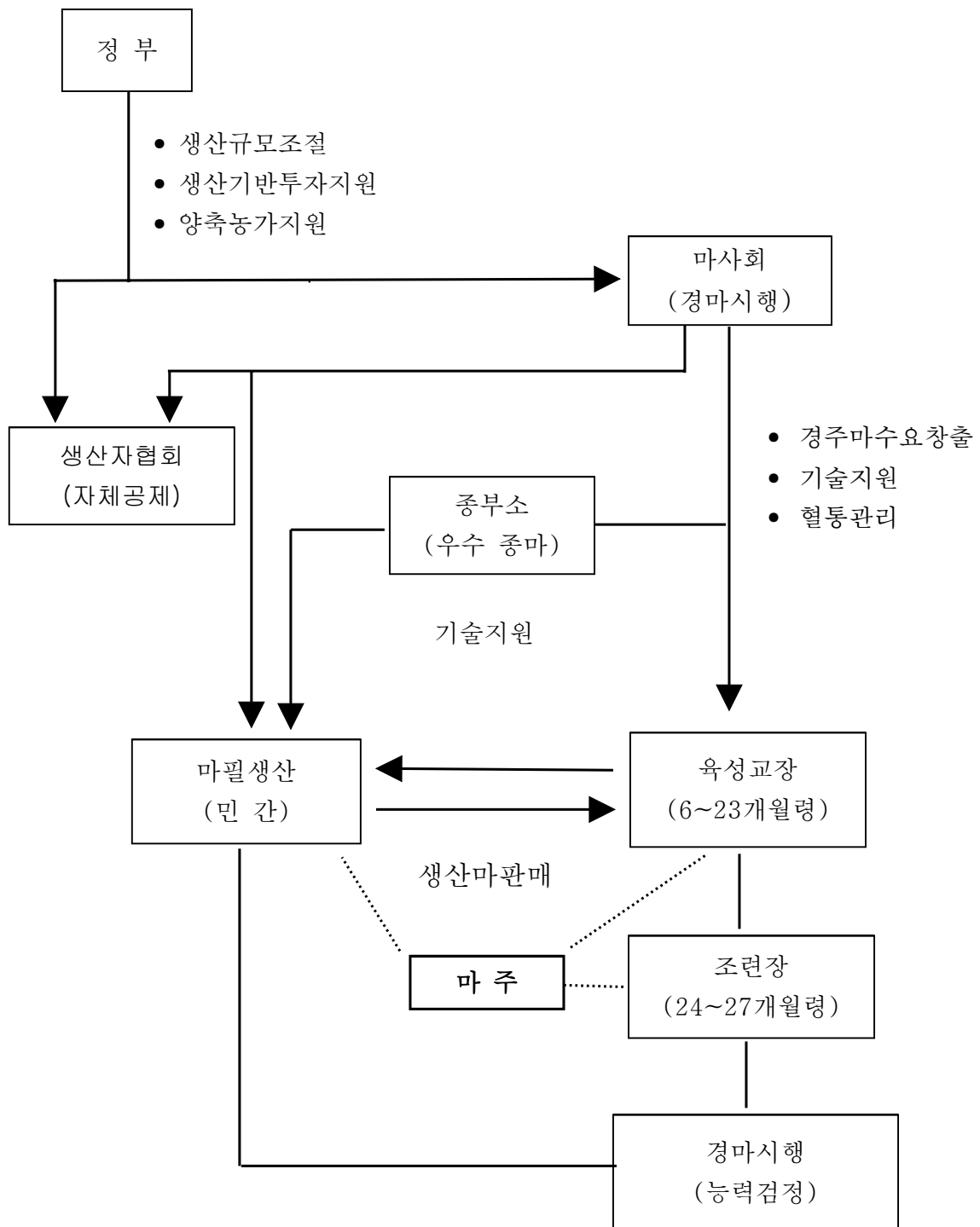
<표 5-15> 민간목장의 마필 생산두수 및 생산율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교배대상 씨암말두수	제 주	300	381	562	712	761	689	780	940	1044	1,155	7,886
	내 륵	원당	27	26								
		기타	14	15	38	81	104	145	194	264	357	1821
		소계	41	41								
	합 계	341	422	600	793	865	834	974	1,204	1,401	1,595	9,707
생산두수	제 주	107	180	262	363	469	518	486	594	703	804	4,682
	내 륵	원당	14	17	18							
		기타	1	11	12	24	54	60	106	141	212	974
		소계	15	28	30							
	합 계	122	208	292	387	523	578	592	735	915	1,053	5,656
생산율	제 주	53.8	60.0	68.8	64.6	65.9	68.1	71.9	70.5	74.8	77.0	68.0
	내 륵	45.5	68.3	73.2	63.2	66.7	57.7	73.6	73.1	80.3	69.7	67.0
	평 균	52.6	61.0	69.2	64.5	66.0	66.8	72.2	71.0	76.0	75.2	67.8

주 : 생산율= 생산두수/전년도 교배대상 씨암말수×100

자료 : 농림부 축산정책과

<그림 5-2> 마필의 생산 및 유통 흐름도



2. 국내산 경주마 생산의 필요성

□ 수입마 위주의 경마 시행

- 경주마 수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 낭비 초래
 - 홍콩 수준 마필 도입 전제시 연간 수입대체효과 : 약 600억원 추정
 - 단일경마장(서울경마장) : 360억원(연간 600두)
 - 지방경마장(1개소) : 240억원(연간 400두)
 - 연간 400~700두 규모의 외국산 마필을 수입, 경주마로 활용하였으나 외화낭비, 경마의 산업적 기반 취약, 승마투표(Betting) 위주의 기형적 성장 등 문제점 대두
 - ⇒ 경마의 산업화 정착 및 사회적 지지기반 확대
 - ⇒ 생산마 가계 축적 등 혈통 스포츠로의 본질적 경마 서비스 제공
 - ⇒ 국적있는 경마시행을 통한 한국경마의 국제경쟁력 제고

□ 경마의 산업화 및 국민경제 기여도 미흡

- 경주마 퇴역 후 번식, 생산에의 환류 및 자원재활용이 불가, 마필 생산을 통한 축산진흥과 마필 유통 및 경마시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산업화의 공공적 파급효과 미흡 및 사회발전에 기여 부족

□ 경마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증대

- 현재의 1개 과천경마장(제주 조랑말경마는 제외)운영체제에서는 재적두수 1,458두(2002년) 중 연간 도태되는 660두(도태율 45%)정도의 신규수요가 매년 창출됨.
- 2005년 부산경남 경마장 개장으로 경주마의 수요급증 예상
- 2001년 8월에 착공한 부산경남 경마장이 개장하는 200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약 1,000두 이상이 증가한 2,500두의 경주마가 레이스에 투입되게 됨. 태율을 45%로 잡았을 경우 연간 소요되는 신규마필은 약 1,120두 정도로 추산됨. 2002년에 비해 460두 증가
- 경마매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방화 시대의 성숙으로,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지방행정당국의 지방경마장 개설수요가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됨.

- 경마시행체(우리나라는 마사회)는 물론 경마를 통해 세수증대의 수혜를 받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반투자 지원 또는 특수형태의 장려상금 지급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외국의 경우에는 경주마의 혈통적 특성과 능력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발휘됨을 중시하여, 경주편성을 거리는 물론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거기다 성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경마발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경주편성이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주방식에 비해 적어도 60~80%이상의 추가적인 경주마가 필요함.

□ 생산자 마주제의 시행에 따른 수요 증대

- 생산자 마주제란 말생산자가 마주가 되는 제도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산해서 키워낸 경주마를 경마에 참가시켜 직접 상금을 획득하는 방식임. 대다수 마필선진국들에서 시행되는 제도임. 마주이자 경주마 생산자인 이들은 좀더 능력있는 경주마를 배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경마의 본질인 말 컨테스트 기능에 충실하게 됨. 그러는 과정에 잦은 경주마의 교체와 도태 등으로 마필의 수요는 증가하게 됨.
- 마사회 통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되고 나서 경주마 교체율이 약 15% 정도 증가했음. 마주들은 능력저조로 인한 손실발생 말 또는 손실발생 예정 말을 조기 도태시킴으로써 경주마의 신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함.

□ 국내산 경주마의 자급율 증가

- 정부의 경주마산업 육성정책으로 번식마의 보유두수 증가 등 경주마 생산기반이 확충된 결과 1998년을 기점으로 40%이상의 자급율 달성 (2005년 75% 목표)
- 신마인 2세마의 경우 외국산 경주마가 국내마보다 훨씬 고가임.
- 수입경주마의 60%이상이 현지에서 이미 능력검증이 끝나 하위마

나, 심지어 경주불용마로 판명 난 3세마 이상으로 국내경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확률이 희박함. 국내마가 외국마보다 혈통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우수종모마에 의한 종부). 그 동안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마사회 육성목장 배출마를 구입할 기회가 컸으나, 경매에 의한 판매가 정착됨에 따라 근래에는 실재가를 반영한 거래가 일반적임.

- 향후 부산경남 경마장의 개장으로 경주마수요가 급증할 경우, 세분화되고 양적으로도 증가할 국내 레이스에 적시적기에 충당할 외국마필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또한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큼.

□ 국내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WTO체제하의 축산농가 대체소득원 개발

3. 정부의 경주마육성사업 지원정책

□ 경주마 생산의 기본정책

- 국내산 말의 자급률 75% 목표(2005년)
- 생산자 마주제 시행(경쟁체제 도입)
-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호당 3억원 내외, 용자 중심)
 -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 : 6억원 이내 (보조 3억원, 용자 3억원)

<표 5-16>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2~97	1998	1999	2000	2001	2002~2004
사 업 량		721두	67	77	183	212	522
사업비	계	19,763	5,621	2,995	7,179	6,988	24,075
	용 자	13,833	3,935	2,365	4,941	4,967	14,325
	보조(국고)	-	-	-	300	221	600
	지 방 비	-	-	-	300	221	600
	자 부 담	5,930	1,686	630	1,638	1,579	8,550

□ 신청자격

- 종빈마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농·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 축종 사육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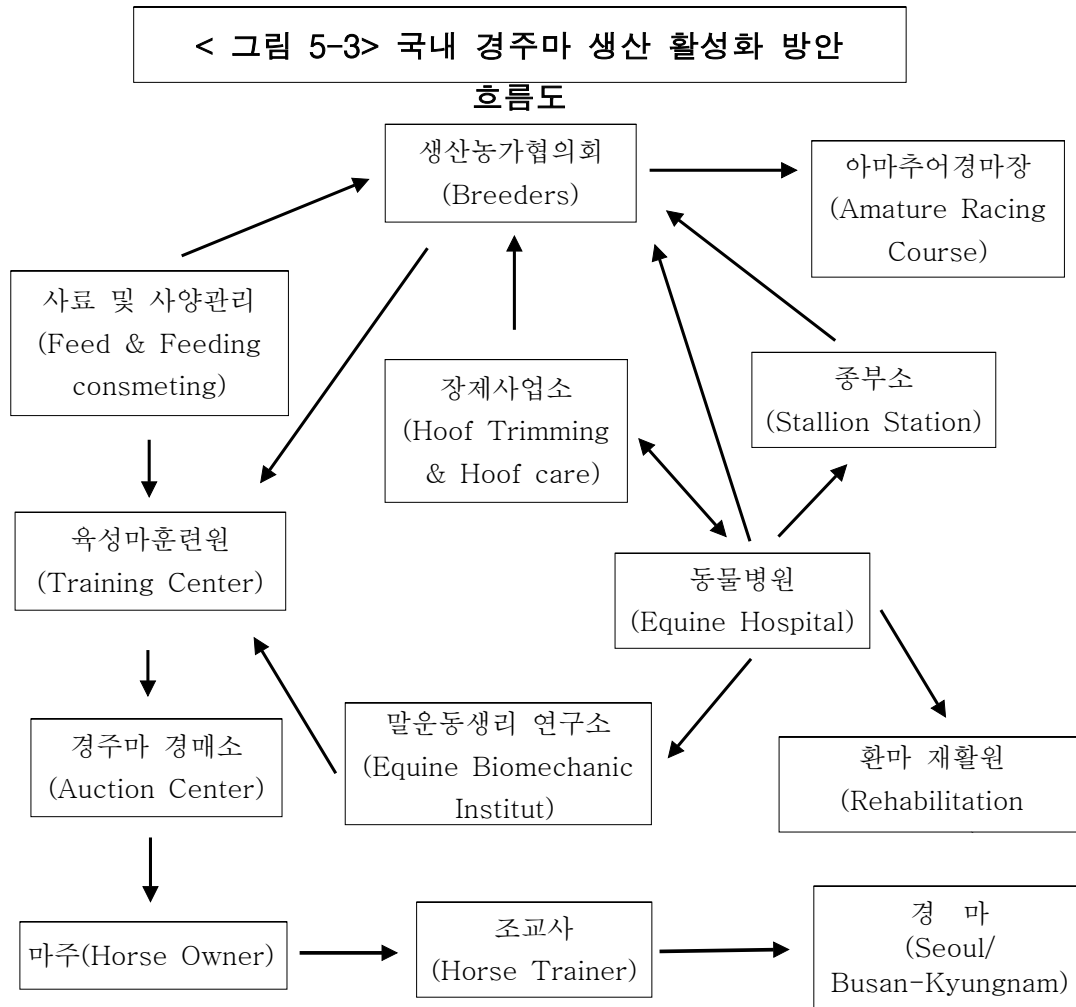
□ 선정 우선순위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의 중부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 방목장(600평 이상)을 많이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4.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방안(밀양시)

□ 경주마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적극 육성

- 생산목표 : 5두(현재) => 30두(2006년) => 100두(2008년)
- 생산농가의 집중화로 생산단지 구축
- 생산지원 : 119조 투융자계획을 활용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
 - 현재 밀양시의 지원방식 : 보조 40%, 융자40%, 자담 20%
- 종빈마 전문관리기관과 연계하여 우수마 육성관리
- 말사육을 교과과정으로 하는 직업훈련학교를 개설, 전문인력 양성
- 종부소 및 동물병원, 장제사업소를 운영하여 농가 지원
- 사양 및 질병관리 기술 지도
- 육성마 공동훈련원의 공동 운영



□ 생산자 공동육성장 설치 활성화 유도 방안(2단계 사업: 2009~2013년)

- 수 량 : 4개소
- 시설형태 : 간이 트레이닝 센터
- < 1개소당 규모 >
 - 총면적 : 1만평
 - 최대 수용능력 : 20두
 - 시설 : 마방, 주로 1개소(400~800m), 마장 2~4개소
 - 추정 시설비 : 6억원(지대 미포함)
- 설치 및 운영 : 생산자 단체, 사업목장
- 운영형태
 - 자가노동력을 이용한 협업 육성

- 육성조련사 등 외부 전문인력에 위탁 육성
- 설치 활성화 방안 : 정부, 지자체, 마사회, 생산자 공동 참여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 24억원(6억원×4개소)
 - 보조(국비) : 12억원
 - 용자 : 12억원

<표 5-17> 공동육성장 조성을 위한 주체간 역할

정 부 및 지 자 체	마 사 회	생 산 자
○ 시설비 부담(보조금형태)	○ 시설 및 경영기술자문	○ 시설 운영
○ 필요시 국공유지 할애	○ 장려상금 지원	○ 필요시 부지확보

제 6 장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개선과 수출촉진

제1절 밀양시 농산물 유통개선

1. 농산물 산지유통 현황

- 밀양의 농산물 출하는 주로 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해 가락동 도매 시장 등 원격지 계통출하가 40% 정도로 가장 많으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공동출하도 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에 생산농가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도 18% 정도에 이르며 소비자 직거래가 5%, 대형유통업체 직접출하가 2% 정도임.

<표 6-1> 밀양의 농산물 출하방법 (설문조사)

항목	빈도(명)	비율(%)
농협 계통출하	153	40.1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119	31.2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68	17.8
소비자 직판매 (농장직판, 택배)	19	5.0
대형유통업체	9	2.4
전자상거래	3	.8
기타	11	2.9
계	382	100.0

주 : 무응답 8명 제외

- 이와 같이 계통출하, 공동출하 비율이 전체의 71%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과 판로 등에 대한 정보가 매

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판로가 계통출하, 공동출하를 통해 도매시장에 집중되다보니 유통업체 직거래나 소비자 직거래 등 판로의 다양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 및 판로에 대한 정보를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26%정도 되고 있으나, 아직도 산지유통인(수집상)에게서 획득하는 경우도 25%에 달하고 있어 아직도 정보 수집의 전근대성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동선별장, 간이집하장 등이 있으나 시설채소 생산의 특성상 개별농가가 하우스 작업장에서 직접 선별, 등급하고 있어 소비지 시장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선별, 등급의 미흡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가들은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와 농장 및 산지에서의 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표 6-2> 농산물 출하시 애로사항(설문조사)

항목	빈도(명)	비율(%)
가격, 판로 등 정보가 부족	147	38.8
선별, 등급이 잘 안됨	71	18.7
도매시장 등 출하처가 한군데 집중됨	58	15.3
출하비용이 많이 듦	54	14.2
공동출하가 잘 안됨	43	11.3
기타	6	1.6
계	379	100.0

주 : 무응답 11명 제외

2.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과 문제

2.1.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밀양시의 유통시설은 산지유통센터 1개, 공판장 1개, 농산물 선별장 8개, 간이집하장 35개, 저온저장고 63동, 5,630평, 관내 농산물 직판장 1개로 전국의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6-3> 밀양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현황

유통시설	개소수	운영주체	비고
농산물 공판장	1	상남농협	정상 운영
산지유통센터(APC)	1	얼음골유통영농법인	정상 운영
미곡종합처리장(RPC)	2	신동농협(산외면), 밀양제일영농법인 (하남읍)	-
공동선별장	8	작목반	시 전액 지원
간이집하장	35	작목반(11개), 농협 및 영농법인 24개	-
저온저장고	63동, 5,630평	농협, 영농법인, 민간 등	-
농산물 직판장	1	밀양농협	내이동 소재

1) 농산물 공판장

- 상남농협에서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에 준공되었음(상남면 예림리).
- 1년중 180일 가동되며, 연간 3,800톤 처리(수탁 2,431톤, 위탁 1,322톤, 자체 48톤)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음.

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얼음골유통영농법인에서 사과와 저장, 선별포장을 위해 약 5억원의 사업비로 소형 산지유통센터(APC)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소형 산지유통센터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정상운영되고 있음.
 - 2002년 매출액 42억원, 2001.5~12월 1,132톤, 2002.1~6월 1,082톤
 - 판매처 : 택배(60톤), LG유통(350톤), E-mart(472톤), 우체국택배(422톤)

<표 6-4> 얼음골유통영농법인의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내용	비고
사업비	4억7천만원	
부지	1,330평	
시설	(기존) 집하장 200평, 저온저장고 100평 (신규지원) 저온저장고 120평, 선별장 86평, 선별기 6천만원	
회원	137명(그중 51명 정조합원)	
면적	590ha중 118ha	

3) 농산물 공동선별장

- 밀양시는 시설원에 주산지로서 1읍면 1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건축비와 시설에 대해 100% 보조하는 선별장을 건립, 운영중임. 부지는 농협 등 생산자조직 자체로 마련하고 선별기계 등 기계는 물류표준화사업이나 지역농협 등에서 지원받아 설치하였음. 이러한 보조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지원사업임.
- 1읍면 1특화 품목 육성에 따라 읍면당 1개소, 100평을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8개 읍면에 설치, 운영중에 있음. 2003년에는 산내면(사과), 산외면(갯잎)에 설치할 예정임.
- 작목반별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선별장을 이용한 선별 및 공동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양재동·대전 등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에 계약에 의한 납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밀양시의 농산물 선별장은 주로 연중 생산, 출하되는 풋고추와 갯잎을 중심으로 선별, 출하하고 있어 선별장 활용도가 높음.

4) 농산물 간이집하장

- 작목반 11개,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24개, 총 35개

<표 6-5> 읍면별 농산물선별장 설치현황

읍면	조직	품목	참여 농가	지원 년도	지원금액	시설	부지
삼랑진읍	미전딸기작목반	딸기 (단감)	13	2001	132,258	저장,예냉	자체구입
부북면	부북고추작목 연합회	풋고추	25	2001	108,968	콘베어, 지게차	농협제공
무안면	무안면풋고추작 목회	풋고추 (청양)	35	2001	109,559	선별기, 콘베어, 지게차, 팔레트	농협제공
상동면	상동깻잎원예 영농조합법인	깻잎	67	2001	120,180	-	자체구입
하남읍	하남읍농업 경영인회	딸기, 감자 (단감)	278	2002	139,700	저온, 예냉	자체구입
청도면	청도고추작목회	풋고추, 단감	120	2002	108,880	선별기, 콘베어, 팔레트	농협제공
단장면	단장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	고추, 단감 (대추)	19	2002	135,000	-	자체구입
초동면	무지개작목반	풋고추, 단감	21	2002	135,000	-	자체구입
산내면	가원사과작목반	사과, 고추	143	2003	120,000	-	미정
상남면	미정	고추	40~50	2003	120,000	-	미정

5) 저온저장고

- 총 63동, 5,630평, 2만톤 저장능력, 사업용 18동, 5116평, 개인용 45동, 514평

6) 농산물 직판장 및 직거래

- 농산물 직판장 : 밀양농협 농산물 직판장(내이동 소재, 1994.6월 개설, 정상 운영, 177일 운영, 6억6천만원 매출액)
- 농산물 직거래는 밀양농협 직판장, 백화점, 대형점에 판매코너 설치, 직거래장터(부산역 광장), 밀양문화제 행사 직판(4.26~29일간, 삼문동 고수부지), 재경향우회 직거래장터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2.2.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실태

- 밀양시 농산물은 연중 생산, 출하되는 시설채소가 중심이며, 또한 가을철 주로 수확되어 출하되는 과일과 쌀, 봄철에 집중 생산되어 포전판매되는 시설봄감자, 가을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시설채소와 과일은 유통시설을 통해 주로 선별, 출하되고 있고, 시설채소가 연중 출하되고 있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무안면, 청도면 부북면에서 주로 생산 출하되는 풋고추(청양, 파리)와 상동면의 갯잎은 연중 수확, 출하되어 단일 품목으로도 공동선별장과 간이집하장의 가동률이 높아 활용이 잘 되는 편임. 단장면, 초동면 등 일부 지역의 공동선별장에서는 풋고추와 대추, 풋고추와 단감이 릴레이로 선별, 출하되어 시설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딸기가 주산지인 삼랑진읍, 하남읍의 경우에는 공동선별장에서 12월~익년 5월까지 딸기를 선별, 출하하고, 가을철인 10월~익년 2월에는 단감이 선별 출하되고 있어 1년중 최소한 8개월을 가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사과가 주산지인 얼음골사과의 산지유통센터(APC)는 사과의 수확후 주출하기인 가을 및 겨울철에 집중 가동되나 저온저장으로 연중 선별, 출하할 수 있어 시설 가동률도 높은 편임.
- 이에 따라 100평 기준의 공동선별장으로는 시설농가 25~30호의 물량 정도나 처리할 수 있어 선별장이 협소하거나 추가적인 시설, 공간이 필요함.
 - 무안면의 경우, 무안면풋고추작목회에서 운영하는 100평의 공동선별장에서 35호 농가의 풋고추(청양고추)를 선별하고 있어, 생산량의 15% 밖에 취급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함.
- 밀양의 농산물 유통은 산지의 유통시설, 공동출하,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평가로 볼 때, ‘대량 생산에 의한 밀어내기식 출하’ 방식으로 상품화와 마케팅에 관심이 적어 개선점이 많음.
 - 갯잎, 풋고추 : 브랜드, 포장디자인, 공동선별규격화 미흡
 - 딸기는 다라출하, 유사시장, 지방시장 출하
 - 단감은 브랜드, 사과는 선별 미흡

- 시설채소 대산지로서 작목반 단위의 선별, 공동출하를 위해 시 자체에서 지원한 공동선별장은 성공적인 사업이나, 아직은 품목별로 선별, 포장, 공동계산제 실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소비지성이 미흡
- 특히 전국적으로 공동계산제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나 밀양시는 원예부문에 엄격한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조직이 없음. 이는 밀양의 원예작물 생산자조직이 대부분 지역별, 개인별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전국적으로 산지유통혁신을 위해 중대형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이 확산되고 있으나, 밀양시에서는 얼음골사과유통영농법인에서 소형 APC를 설치한 것에 불과
- 소비지시장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밀양시 농산물은 수확후 선별, 포장규격화, 예냉 등 상품화 수준이 낮고, 브랜드화 수준도 아주 낮음.

3. 농산물 유통개선 과제

- 밀양시 농산물 유통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수확후 상품화, 마케팅 중심적 대책 추진 필요(H/W : 예냉, 선별, 가공, S/W : 브랜드, 디자인, 규격화)
- 1) 핵심품목인 시설채소에 대해 지역 연합판매사업과, 공동계산제를 강화하여 마케팅 선도지역으로 육성
 - 시설채소(풋고추, 깻잎) 연합판매사업 추진 강화
 - 품목별 회원제 공동계산제, 점수제 도입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계산제 추진
 - 풋고추, 깻잎 등 대량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시단위 공동계산제 실시 검토(사례: 일본 규슈 미야자끼현의 현단위 피망 공동계산제)

2) 산지유통시설 확충

(1) 공동선별장

- 시 지원 공동선별장의 주산지 추가 설치 지원 확대
- 기존 선별장의 상품취급 수준을 평가해 시설 확대 지원

(2) 산지유통센터(APC)

- 정부의 산지유통센터(APC) 대규모화 사업 추세와 연계한 대규모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APC 설치 검토(얼음골사과, 청양고추 등 대상)
- 얼음골유통영농법인(사과) 이외에 삼랑진농협(딸기), 부북농협(파리고추), 무안농협(청양고추) 등 APC 추가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유치
- APC를 신설하는 것 외에도 기존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에 시설을 추가하여 산지유통센터로 발전시키는 시설보완 계획 추진

(3) 예냉시설, 선별포장시설 등 수확후 상품화시설 추가 설치 지원

- 시설채소 선도유지에 중요한 예냉, 선별포장시설을 공동선별장, 집하장, APC 등 기존의 시설원에 산지유통시설에 추가 설치

(4) RPC 추가 설치

- 현재 하남면 대사리 밀양제일영농, 산동농협(산외면 금곡리)에 설치되어 있으나, 상남면에 추가 설치 추진

3) 브랜드화

- 밀양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 도매시장 평가 결과 유명브랜드, 공동브랜드 개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
- 밀양시 공동브랜드, 공동로고 등 재검토 연구 추진
- 밀양시 대표 색깔, 로고, 브랜드 글자체 등 C.I.P 사업 추진
- 밀양시는 1980년대에 공동브랜드마크 “밀양 영남루”를 개발하여 1996.12.16 일에 상표등록을 하였으나, 현재 이 마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 2001년에는 밀양시 공동로고 “햇살과 물이 좋은 밀양”을 개발하여 2003.5.21에 상표등록을 하여 갯잎, 단감, 표고, 딸기, 풋고추 등에 사용

4) 밀양얼음골 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얼음골 사과에 대한 고품질 브랜드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역이 얼음골 주변지역으로 점점 넓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밀양 얼음골 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임.

(2) 사업의 효과

- 지리적표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신청한 생산물의 생산지역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얼음골 사과 생산지역을 한정하는 효과를 가짐.
-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일종의 단체상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어 타 지역에서 “밀양얼음골 사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재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2개(보성녹차, 하동녹차) 밖에 없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로 등록 자체가 “밀양얼음골 사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를 가짐.

(3) 출원·등록절차

- 밀양 얼음골 지역 생산자단체가 지역특산물을 “밀양얼음골 사과”로 표기하여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로 출원신청함.

(4) 소요자금과 재원조달

- 소요자금 : 200만원(등록출원 소요비 : 100만원, 업무추진비 : 100만원)
- 재원조달 : 시비(100만원), 자부담(100만원)

5) 지역내 판로 확보

- 지역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지역농산물 우선구매협약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농산물, 지역농업 사랑운동 추진

4. 주요 투융자사업

가. 시설채소 대형 산지유통센터(APC) 설립

- 생산자조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하고 생산자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공공소유-민간위탁’ 산지유통센터(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설치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개소당 15억원 수준
- 대상지역 : 시설채소 연합판매사업(농협연합)

- 현재 풋고추, 깻잎 등 시설채소가 각 작목반별로 소규모 선별장에서 출하되고 있으나, 밀양지역 연합판매사업을 추진을 주도하기 위해 주도적인 농협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각 선별장은 위성 선별장으로 하는 연합판매시스템 구축
- 후보지로는 상남면, 부북면 시설채소단지가 예상되며 중규모(시설비 20억원 수준)가 적합함. 삼랑진농협(딸기), 무안면(풋고추) 등도 APC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소규모 시설 설치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연합, 공동마케팅조직, 생산자단체 콘소시엄 사업 등에 적합한 20억원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을 권장하고 있음.

<표 6-6> 시설채소“공공소유-민간운영”산지유통센터 설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산지유통 센터 설치	2개소 (시설채소, 과일)	국비	1,000	1,000	2,000	-시설채소 연합 판매 (농협) -삼랑진, 무안 등
		지방비	도비 500 시비 500	도비 500 시비 500	도비 1,000 시비 1,000	
		자부담	-	-	-	
		계	2,000	2,000	4,000	

주 : 1) 재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도 25, 시 25)

2) 규모, 시설(20억원): 집하선별포장장, 예냉 또는 저온저장고, 선별기계, 냉장탑차, 운반상자, 수송차량 등 장비류

나. 공동선별장 추가 설치 및 시설 확장, 보완

○ 공동선별장 추가 설치 및 확대

- 2002년까지 8개 설치, 운영중에 있고, 2003년중에 2개소가 추가 설치되고 있으나, 작목반 단위의 공동선별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금후 신청에 의해 추가 설치 지원 필요
- 기존의 공동선별장 시설이 협소하여 선별포장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시설에 대한 추가 확대, 보완 지원
- 지금까지는 1읍면 1특품 육성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나, 향후에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추가 지원

○ 공동선별장 기능 다양화 추진

- 공동 선별장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순한 선별출하기능에 가공기능을 추가하거나 선별출하보다 가공에 관심이 많은 경우 가공시설 설치 등에 지원
- 풋고추, 깻잎 등은 선도 유지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수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예냉시설 설치 지원

<표 6-7> 공동선별장 추가 설치 및 시설보완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공동선별장 추가 설치	5개	국비	-	-	-	산외, 삼랑진 등
		지방비	200	300	500	
		자부담	0	0	0	
		계	200	300	500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 확대	예냉, 간이가공, 건축보완	국비	200	300	600	각 선별장
		지방비	200	300	600	
		자부담	400	400	800	
		계	800	1,000	1,800	

주 : 1) 공동선별장 신규 설치: 개소당 1억원 기준 (시비 100%)

2)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예냉시설, 간이가공시설, 건축 확대): 1단계 4개소, 2단계 5개소 기준, 개소당 2억 기준, 예냉시설 국고지원 포함.

다. RPC 또는 청결미 도정공장 설치

- 현재 신동농협(산외면), 밀양제일영농법인(하남읍)에 RPC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상남면 동산리, 평촌리 등에서 수요가 있으므로 상남면에 RPC(위성 건조·저장시설) 또는 청결미 도정공장 설치 검토 필요
- 밀양시는 벼 재배면적이 7,500ha에 달하고 있어 RPC 설치 적정면적(2,000~3,000ha)을 기준으로 할 경우 3.5~4개(18억원 설치비 기준)의 RPC가 요한 지역이나, 현재 2개로 추가 시설 수요가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방침(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신

규 RPC 설치 지원은 원칙적으로 RPC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RPC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위성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필요

<표 6-8> RPC 위성 건조·저장시설 설립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RPC 위성 건조·저장시설	1개소 (2005년)	국비	210	-	210	상남면
		지방비	70	-	70	
		자부담	420	-	420	
		계	700	-	700	

주 : 1) 보조, 융자 비율: 국고보조 30%, 지방비 10%, 자담 60%

라. 산지 직판장 설치 및 매체홍보 지원

- 관광농업과 연계를 위해 도로변 상설직판장, 관광지 계절직판장(원두막형), 농장직판 등에 대해 시에서 지정, 지원 필요(원두막 설치 지원)
 - 도로변 직판장 : 타 시군과 주요 연계도로인 24번, 25번 국도변 직판장 설치
 - 주변 경치가 좋은 지점에 휴게소 직판장 설치
 - 관광지 직판장 : 얼음골 등
 - 수확체험(PYO; Pick-Your-Own) : 얼음골 등 사과단지, 단장면 대추단지, 부북면 포도단지, 삼랑진 딸기단지 등 수확체험
- 대도시 소비지 특판 및 TV, 라디오, 홍보책자 등 매체 홍보 지원
 - 소비지 특판행사 지원
 - TV 홈쇼핑 등 매체광고 지원
 - 밀양 특산품 등 홍보책자, 전단 제작 배포

<표 6-9>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계절직판장 설치	40개	국비	-	-		관광도로변, 관광지
		지방비	30	30	60	
		자부담	30	30	60	
		계	60	60	120	
상설직판장 설치	10개	국비	-	-		산내, 산외, 무안, 상남, 부북, 청도 등
		지방비	56	56	112	
		자부담	24	24	48	
		계	80	80	160	

주 : 1) 재원: 계절(지방비 50%, 자부담 50%), 상설(지방비 70%, 자담 30%)

2) 개소당 규모: 계절(6평, 평당 50만원), 상설(10~30평, 평당 80만원)

<표 6-10> 소비지 판촉 및 매체광고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대도시 특관 홍보 지원	연간 5건	국비	-	-	-	대도시
		지방비	250	250	500	
		자부담	-	-	-	
		계	250	250	500	
광고매체 광고 지원	연간 5건	국비	-	-	-	
		지방비	100	100	200	
		자부담	-	-	-	
		계	100	100	200	
농특산물, 토속음식 등 홍보전단 제작 배포	연간 2건	국비	-	-	-	
		지방비	80	80	160	
		자부담	-	-	-	
		계	80	80	160	

제2절 농특산물 가공 개선

1.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립현황

- 밀양시에는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가공공장과 특산단지 2개소(단무지, 도토리묵)를 포함해 총 10개가 있으며, 특산단지를 제외한 산지일반 및 전통식품 가공공장의 시설 내용과 가공품목 내용은 다음 <표 6-11>과 같음.

<표 6-11> 밀양시 농산물 가공업체 설립현황

(2002.12월 현재)

구분	업체명	지정년도	위치	생산품목	생산능력 (톤/년)
산지일반	삼랑진농협 가공공장	1991 (1996 보완)	삼랑진읍	냉동 포도·딸기·복숭아, 딸기잼,	700
	산동농협 가공공장	1993	단장면	청결건대추, 대추주스 외 2개	2,875
	(주)명세당	1995	산외면	청결맥문동 외 9개	800
	예림농산물 가공공장	1995	상남면	고추, 갯잎절임, 산초분말	30
	소계	4개소	-	-	4,405
전통식품	원제식품	1995	상동면	두충고	3
	무안종합 전통식품	1995	무안면	고추장, 떡류, 식용류, 도토리묵 외 6개	40
	아랑농산	1996	청도면	흑염소증탕, 가시오가피	30
	얼음골 전통식품	1996	산내면	사과잼, 식초, 딸기잼	60
	소계	4개소	-	-	133
계		8개소	-	-	4,538

자료 : 밀양시

2.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실태

- 밀양시 농특산물은 시설채소, 과일 등에서 주로 신선농산물 상태로 출하되고 있고, 딸기, 단감, 잣잎 등 가공품 개발과 가공공장 운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아직은 자금부족과 판매 부진 등 미흡함.
- 밀양시의 농산물 가공공장은 일부 가공공장이 신장되는 등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운영이 양호하다고는 하나, 아직도 판로가 농협 하나로마트, 현지직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판매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농협 가공공장은 하나로마트 등 계통 판매점에 의존하는 기본적인 판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음료공장은 대기업 음료업체와 시장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계통판매점을 통한 판매 이외의 일반시장 판매는 극히 어려움.
- 민간 가공공장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판로 확대도 필요함.

<표 6-12> 밀양시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 실태

(2002.12월 현재)

구분	업체명	가동실적 (연간)	매출액 (백만원)	수출 (백만원)	원료수집 비율(%)	판매	사업 성장	애로 사항
산지 일반	삼랑진농협 가공공장	능력1,800톤, 생산 320톤, 가동률 18% 가동일 60일	374	-	수집상70, 농민 30	하나로마 트 100%	비슷	판매부진, 개보수 필요
	산동농협 가공공장	능력5,840톤, 생산2,600톤, 가동률 45% 가동일249일	2,894	82 (미국)	수집상50, 조합35, 농민10, 기타5	농수축협 85%, 도소매상 7%	크게 성장	판매부진
	명세당	능력2,372톤, 생산1,250톤, 가동률 53% 가동일120일	3,203	103 (미국)	농민 60, 수집상40	홈쇼핑등 97%, 우편판매 3%	크게 성장	자금부족
	예림농산물 가공공장	능력 10톤, 생산 10톤, 가동률100% 가동일120일	60	60	농민 80, 수집상20	대량소비 처 100%	크게 악화	자금부족, 판매부진 (운영중단)
	소계	-	6,531	245	-	-	-	자금부족, 판매부진
전통 식품	원제식품	능력 3톤, 생산 0.1톤, 가동률3.3% 가동일90일	20	-	자가 100	직판 100%	약간 성장	자금부족 (환 개발)
	무안종합 전통식품	능력 40톤, 생산 90톤, 가동률225% 가동일300일	250	-	농민 100	도소매상 50%, 직판40% 슈퍼10%	약간 성장	자금부족
	아랑농산	능력 60톤, 생산 14톤, 가동률 23% 가동일300일	60	-	도매시장 60, 자가 40	직거래 90%, 도소매상 10%	약간 성장	자금부족, 판매부진
	얼음골 전통식품	능력 40톤, 생산 2톤, 가동률 5% 가동일30일	11	-	자가 100	직판 100%	저조	판매부진
	소계	-	341	-	-	-	-	자금부족, 판매부진
계	8개소	-	6,872	245	-	-	-	자금부족, 판매부진

자료 : 밀양시

3. 개선과제

1) 밀양 특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필요

- 껏잎 절임, 고추 부각 등 밀양 주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집중 육성
- 반시감을 이용한 “밀양꽃감” 개발
- 단감 이용 가공품 개발, 시판 지원

2) 현재 선별장, 간이집하장 등을 비수기에 활용하기 위해 딸기잼 등 단순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밀양특산주 개발

- 현재 밀양에는 교동방문주, 유천소주, 국농연엽주, 솔잎동동주 등 민속주가 있으나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가 개발 또는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솔송주 등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 개발 프로젝트 수행 필요

4) 과실을 이용한 와인 개발 검토

- 밀양은 단감 주산지로서 과잉생산기조에 있는 단감의 수요 개발을 위해 단감 와인 등 개발 가능성 검토 필요

■ 단감와인 개발 사례(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이정복 과장)

- ◆ 단감은 사천시 정동면 일대에서 재배 생산되는 부유(Fuyu)를 구입하여 0℃ 저온창고에 저장하여 필요시 원심분리형 믹서기를 이용 과즙을 내어 착즙한 후 알코올 발효균을 이용 발효숙성 시켜서 만들었으며 제품의 알코올 농도는 12.8%와 35%의 종류로 개발함
- ◆ 색상은 옅은 황색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과 맛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제조 과정에 오미자를 소량 첨가하면 오미자 특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음
- ◆ 단감에는 비타민C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조직의 손상방지, 노화방지, 심혈관계질환 예방, 항암 효과가 있는 기능성 phenolics를 다량 함유하고 있음. 그 외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품임.

5) 판매부진에 대응한 지역상권 타겟마케팅 추진

- 농산물 가공품은 우선 부산, 마산, 진주 등 주변 시장(지역상권)을 타겟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음료가공공장의 대기업 하청공장(OEM) 또는 지역상품 특화마케팅 추진

- 음료가공공장은 전국단위 시장에서 대기업 음료업체와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역상권을 목표시장으로 삼고 마케팅을 하거나 대기업 음료업체의 하청업체(OEM방식 생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6-13>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가공공장 운영활성화 지원	매년 5건 (용자)	국비	-	-	-	가공공장
		지방비	500	500	1,000	
		자부담	-	-	-	
		계	500	500	1,000	
가공식품 연구개발	20건	국비	-	-	-	대학, 연구소
		지방비	500	500	1,000	
		자부담	-	-	-	
		계	500	500	1,000	

주 : 1) 가공공장 운영 지원: 건당 2,000만원, 지방비 용자

2) 가공식품 개발: 건당 5,000만원

제3절 수출 촉진

1. 밀양시 농식품 수출현황

- 밀양시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품목
 - 농축산물 : 딸기, 오이, 파리고추, 풋고추, 들깨잎, 수박, 배추, 단감, 화훼(국화, 난), 돈육, 관상조류, 축산 부산물
 - 가공품 : 대추캔류, 한방캔류, 김치류, 가공딸기 등
 - 기타 수산물은 한천이 수출되고 있으며, 임산물로 밤, 버섯, 산초류, 목

초액 등도 수출하고 있음.

- 오이, 파리고추, 딸기, 김치류 등은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단감(부유)은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음.
- 수출업체 : 오이((주)밀양, 경북무역), 파리고추(건오물산), 단감(청주무역, 창낙 등)
- 수출농업단지
 - 부북수출농단(채소종묘), 상동수출농단(화훼), 초동수출농단(오이, 고추), 청도수출농단(메론), 산내수출농단(오이, 고추, 밤호박, 가지), 하남수출농단(딸기) 등이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부북, 상동을 제외한 수출농단이 해제되었음.

<표 6-14> 주요 농식품 수출국 및 수출 현황

수출품목	주 수출국	동향	비고(수출업체)
딸기	일본	일본의 경기침체, 일본 국내가격 하락, 육보품종의 로얄티 지불 등으로 감소	-
오이	일본 (키타큐슈)	수출 감소	-
배추	일본, 대만	주로 4~5월 수출, 중국산 김치의 일본 수출 증가, 일본 가격 하락으로 수출 중단, 대만 수출 시도	-
채소종묘	일본	수박, 가지, 오이 등 종묘 수출	-
단감	동남아시아	-	청주무역, 창낙 농산
국화	일본(오다시장)	-	우현, 엘레강스
심비디움	중국	농가 개인이 중국 바이어에 직접 수출, 연간 10만달러 수출	-
돈육	러시아	-	진해, 대성식품, 부경양돈
밤	일본	-	(주)푸드엘 (구 협성농산)
한천	일본, 동남아	일본 수출량은 줄지 않으나 엔화 가치 저하로 수출액 감소	-
김치	일본	-	찬내식품(부도)
가공용 딸기	일본	일본 제과업체 공급	(주)푸드엘
가공캔류	미국	산동농협 가공공장 캔가공품(대추, 배, 식혜), 매실쥬스 등 수출	농협무역
소면	일본	삼락식품 직수출	삼락식품
한방캔류	일본, 미국, 동남아	-	(주)명세당

<표 6-15> 밀양시 농산물 수출농단 현황

('03.5.20일 현재)

수출농단	품목	단지 규모		비고
		하우스 동수	면적 (평)	
부북수출농단	채소종묘	94 (1)	8,988 (1,200)	() 유리온실
상동수출농단	화훼	142 (1)	27,353 (1,308)	() 유리온실
초동수출농단	오이, 고추	38	5,564	'03년 농단 해제
청도수출농단	메론	30	10,328	'03년 농단 해제
산내수출농단	오이, 고추, 밤호박, 가지	230 (3)	41,875 (3,228)	'97년 농단 해제
하남수출농단	딸기	29	6,208	'02년 농단 해제
계	-	563 (5)	100,316 (5,736)	() 유리온실

2. 수출농업의 문제점

- 금후 토마토, 딸기 등 시설과채류, 김치류, 화훼류, 밤,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대일본 수출의존도가 86%에 달하는데다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생산이력제, 원산지표기 등)가 예상되고, 중국산 김치, 냉동제품, 가공제품이 일본에 많이 수출되어 가격경쟁에서 열세임.
- 또한 저가의 중국산 김치, 밤과의 수출시장 경쟁 심화, 돈콜레라 발생에 따른 돈육 수출 재개 시기 불투명 등이 수출촉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수출 촉진 및 투융자계획

-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의 표적마케팅(Target Marketing)과 틈새시장 전략(Niche Market Strategy) 수립
- 목표 수출시장 전략
 - 밀양은 시설채소류, 화훼, 가공식품에 특화되어 수출하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의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제1목표로 선정하고, 제2목표는 13억

인구의 중국으로 삼아 고소득층을 겨냥한 가공식품, 화훼, 시설채소 등을 수출함. 또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 동남아를 제3, 제4의 목표수출국으로 삼음.

○ 수출 전략 품목 육성(10대 수출품목)

- 시설채소: 토마토, 딸기, 풋고추, 깻잎, 오이
- 과일: 단감
- 화훼
- 가공식품: 김치류, 한천, 대추캔류

○ 틈새시장 전략

- 밀양의 주산품인 깻잎, 풋고추 등을 대상으로 일본, 미국의 틈새시장 진출
- 이를 위해 수출용 시설채소에 대해 예냉시스템 구축

○ 농산물 수출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중국 등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내에 수출전담반을 설치하고 유능한 인력 배치

○ DDA 농업협상 등이 타결될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등이 감소될 전망이므로 지역 차원의 수출물류비 지원체계 구축

<표 6-16>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투융자계획				사업지구 (예정)
		재원별	1단계 (2004~08)	2단계 (2009~13)	계	
수출장려금 지원 (차액보조)	연간 5천만원	국비	-	-	-	수출단지, 농가
		지방비	250	250	500	
		자부담	-	-	-	
		계	250	250	500	
수출물류비 지원	연간 5천만원	국비	-	-	-	수출농가
		지방비	250	250	500	
		자부담	-	-	-	
		계	250	250	500	
수출전담팀 운영 및 시장개척	연간 5천만원	국비	-	-	-	수출전담팀
		지방비	250	250	500	
		자부담	-	-	-	
		계	250	250	500	

제 7 장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활성화

제1절 밀양 관광의 현황

□ 밀양은 잠재적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이 대단히 풍부함.

- 전통문화자원으로는 서원(표충서원, 예림서원 등), 고가, 정자·루(영남루, 천진궁 등), 석탑(소태리5층석탑, 만어사3층석탑, 표충사3층석탑 등), 비석(표충비, 변계량비각 등), 사찰(표충사, 백운사, 만어사 등), 유적(사명대사생가), 향교 등 다양한 유형(tangible)의 자원과 백중놀이, 용호놀이, 유·불제례, 아랑제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이 존재함.
- 천황산, 재약산, 화악산, 천태산, 만어산 등의 산과 계곡, 응천, 내진천 등과 같은 하천도 중요한 자연자원임.
 - 특히 남명리 얼음골, 시례 호박소, 가마불 협곡, 사자평 갈대, 기회 송림 등은 관광지로서의 지명도도 높음.

□ 여기에 덧붙여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밀양연극촌, 가인예술촌, 미리벌민속박물관 등과 같은 독특한 문화적 자원이 추가되어 있음.

- 밀양댐 주변지역 및 양수발전소와 그 주변지역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관광지로 부각

□ 또한 밀양문화제를 비롯하여 계절별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되고 있음.

- 봉수제(음력 1월 15일), 밀양문화제(음력 4월 15일), 밀양예술제(10월 중순)
- 밀양연극제(7~8월), 얼음골사과축제(11월) 등

□ 그 밖에 추가적 관광자원의 요소로서 농업 관련 자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크고 작은 저수지와 산림욕장,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농경지나 마을, 딸기·사과·단감·풋고추·깻잎·감자·대추 등 밀양의 농산물, 향토적 음식, 밀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특한 축제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밀양에는 농가나 마을 단위의 그린투어리즘 추진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임.

- 기존의 관광농원 4개소 중 1개소만이 계속 운영
- 산내면 삼양리 하양마을과 삼랑진읍 행곡리 안촌마을이 각각 2001년과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했고, 2003년에는 단장면 고례리 평리마을이 농림부의 정책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신청하여 2004년도 대상마을로 선정
- 초동면의 1개 마을이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등록하여 활동중이나 아직까지 큰 경영성과는 없는 상태

□ 풍부한 전통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과 직접 연결되지 못함.

- 연중 방문객은 꽤 많은 편이지만, 주로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집중되고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일회적 방문이 주인 형태라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97년 현재 1,671,732명(단, 주요 관광지 방문객 집계치)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1장 도표 참조)
 - 방문빈도가 높은 곳은 표충사, 얼음골, 사자평, 활성밤밭, 영남루, 기회송림 순

- 물론 주요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음식숙박업소가 일부 입지하고는 있으나, 밀양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농업·농촌체험관광으로의 연계, 농가소득원으로서의 구체화 등 지역 내에 직접 유발하는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음.
- 관광지 주변에 농업체험, 농특산물 제조·판매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지역의 길목에 소규모 가판대가 있을 뿐임.

제2절 밀양 관광의 문제점

□ 밀양이 가진 풍부한 전통문화자원과 자연자원 등이 직접적 관광소득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표충사, 얼음골, 사자평 등과 같이 밀양의 인지도 높은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일회적 이용으로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문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밀양문화제, 밀양연극제 등과 같은 각종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함.

- 농가 및 지역 주민의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미미
- 밀양을 마케팅할 수 있는 적극적 기회로서도 활용 부족

□ 민박이나 관광농원에 영농체험·자연체험·농촌생활체험 프로그램 등은 없이 단순 숙박과 음식물 판매에만 그침.

- 별도의 체험학습공간, 과수·화훼·농업공원이나 관광목장 등이 없어 농업·농촌이 관광자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관광이 농외소득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밀양의 관광코스로는 테마관광코스 7개를 비롯하여 등산코스과 일반관광코스 2개 등이 추천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농업·농촌에 관련되는 대상은 전무함.
- 관광제1코스: 밀양역-영남루-표충사-얼음골-만어사-작원관 또는 안태공원

- 관광제2코스: 밀양역-영남루-예림서원-추원제-표충비각-대법사-사명대사생가지-영산정사-성보박물관-어변당
-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에서는 음식판매·숙박제공 이외에 농사체험과 자연 체험 및 농촌생활체험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관광상품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대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부족한 편이며, 그린투어리즘의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거점시설도 없음.
- 관광상품으로서뿐만 아니라 밀양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지역브랜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농특산물과 향토음식, 혹은 거점시설 등을 개발·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제3절 여건 변화 추세 및 밀양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란 “녹색 자연환경이 풍부한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문화·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며, 축약하면 농촌에서 즐기는 여유 있는 휴가”로 정의됨.
- 그린투어리즘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나라별로 용어가 다른데, 영국에서는 그린투어리즘, 독일은 루럴투어리즘(Rural Tourism)이라고 하며, 프랑스의 경우 일반관광 분야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반면 농업기관은 에그리투어리즘(Agri-Tourism)이라고 하기도 함.
 - 프랑스에서는 산악지대 등 하얀 눈 속의 관광을 화이트(White) 투어리즘, 푸른 해안 관광을 블루(Blue) 투어리즘, 녹색 전원 관광을 그린(Green) 투어리즘, 조명이 밝은 도시관광을 라이트(Light) 투어리즘으로 구분함.
- 그린투어리즘은 대규모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농산어촌의 자연이나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보전육성하고,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 측면을 중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반 상업관광이나 리조트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외국에서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통일된 이미지로 마케팅하고, 지역 내에 산재하는 문화자원, 자연자원들과 농가·마을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함.

- 에코뮤지엄(Eco museum) 이론과 사례
- 꼬치(串團子) 이론과 사례
- 장소판촉(Place marketing) 이론과 사례

참고 1: 에코뮤지엄과 사례

-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생태, 역사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산 등을 네트워크화, 지역 주민은 안내자가 되어 마치 지역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의 박물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역을 마케팅
 - 프랑스 그랜드 란드 에코뮤지엄(Ecomusee de la Grande Lande), 알자스 에코뮤지엄(Ecomusee d'Alsace)
 - 이탈리아 투스카니 “와인 루트 마케팅”(지역 마케팅 효과와는 별도로 농가소득은 40% 증가)
 - 미국 칼스배드 “꽃 마케팅”(지역 마케팅 효과와는 별도로 입장료 수입만 연 5억원,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유발)



참고 2: 꼬치이론과 사례

- 꼬치이론(구시당고(串團子)이론)은 지역내의 몇몇 지구나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이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당고(우리나라의 경단처럼 조그마한 떡)는 본래 작기 때문에 1~2개 먹어서는 양이 차지 않음. 따라서 적어도 4~5개 정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당고를 먹기 쉽게 꼬챙이에 끼워서 감미료를 발라 파는데, 이를 꼬치라고 함.
 - 바로 이러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1개 마을이나 지구로는 별다른 매력이 없지만, 여러 마을이나 지구마다 어떤 거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엮어서 시너지를 키움으로써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를 누수시키고자 하는 개념임.
 - 일본의 미찌노에키 우키하



참고 3: 장소판촉이론과 사례

- 장소판촉은 제조업으로 번성을 누리던 서구 도시들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침체하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이미지로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지역성장 전략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산업도시에서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변모, 세계적인 백포도주의 상표 샤블리는 프랑스의 작은 농촌마을 이름에서 유래
 - 우리나라 태백, 부산 등이 나름의 장소판촉을 시도하고 있고, 보성과 하동은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녹차마케팅, 평창은 happy700의 건강마케팅, 함평은 나비마케팅 등을 전개



□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린투어리즘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는 추세임.

- 농업·농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부·행정자치부 등은 적극적으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표 7-1> 부처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일람

주관 부처	사업명칭		사업범위			사업 기간	근거법령 및 기타
			읍면	마을	주택		
행정 자치 부	농어 촌주 거환 경개 선사 업	지붕개량사업			○	'67-'75	'76년 이후 불량주택개량으로 확대
		불량주택개량사업			○	'76-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95.12.29)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불량화장실개량사업			○	'80-'96	'79년 부터 지자체별로 추진
		입식부엌개량사업			○	'91-'96	'83-'90까지 일부 지자체별로 추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97-'0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취락구조개선사업		○		'76-'94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95년 이후 종합적 마을개발사업으로 확대
		패키지마을조성사업		○		'95-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소도읍개발사업		○			'72-현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01.7.2)
	오지종합개발사업		○			'90-'04	오지개발촉진법('88.12.31) 1차 10개년 계획('90-'99) 2차 5개년 계획('00-'04)
	도서종합개발사업		○			'88-'07	도서개발촉진법('86.12.31) 1차 10개년 계획('88-'97) 2차 10개년 계획('98-'07)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		'01-'04	상향식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림 부	정주권개발사업		○			'90-현재	농어촌정비법('94.12.22)
	문화마을조성사업			○		'91-현재	농어촌정비법
	마을종합개발사업			○		'04-	(농어촌정비법)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		'01-현재	농업·농촌기본법 상향식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진 청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	'83-현재	농촌진흥법 '97년부터 행자부에서 농진청으로 이전하여 통합 추진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		'02-현재	농촌진흥법
산림 청	산촌종합개발사업		○			'95-'04	산림기본법
해수 부	어촌종합개발사업		○			'95-'06	농어촌정비법
건교 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			'96-현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특히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의 경우 2011년까지 1,000개의 그린투어리즘 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며, 3~4개의 마을을 묶어 소권역 단위로 추진하게 될 마을종합개발사업은 1개 지구당 70억원을 지원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도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지역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
 - 강원도는 자체 재원으로 친환경농업 생태·체험마을 조성, 우수농산물 특성화 마을 조성, 우수 가공식품 생산공장 체험 견학, 자연경관을 활용한 콘도형 민박시설 조성, 승마공원 조성, 농업 관련 축제의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전남 함평군은 나비축제와 환경농업 추진, 전북 전주시는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거점시설(한옥마을) 조성, 충남 서천군은 농촌다움의 어메니티(Amenity)를 내세운 장소마케팅, 충북 제천시는 충주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강원도 평창군은 해피 700을 로고로 한 건강마케팅, 경북 안동시는 안동간고등어의 산업화에 이어 헛제삿밥과 같은 생활문화의 관광상품화 등을 추진

□ 농협도 농가·마을 단위의 그린투어리즘이 실천되도록 지원

- 농협은 주말농장 임대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2001년부터 팜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2003년 90개 마을이 농협 지원 팜스테이 마을임.

□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체재형 관광 및 그린투어리즘 확대 전망

- 2002년 8월부터 금융기관을 필두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여 차츰 확대될 것인바, 이에 따라 1박2일 또는 2박3일의 가족 단위 체재형 관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그린투어리즘 시장은 국내관광 시장점유율 8~10%를 점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2011년 15~24%로 증가할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주말 관광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농가민박과 농업·농촌·자연 체험 등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한 그린투어리즘은 농업·농촌의 발전과는 관련 없는 일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농가 및 마을이 그린투어리즘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물적·인적 기반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됨.

□ 한편 밀양 주민들은 향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그린투어리즘이 중요한 농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적으로는 물레방앗간 복원사업,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사업을 관련 사업으로 추진

□ 더욱이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밀양은 접근성면에서 관광개발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 주변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 진주 등 인구 1,000만의 대도시는 안정된 관광시장 형성

제4절 밀양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전통문화자원 풍부, 자연자원 풍부 ○ 체험활동에 유리한 농특산물 풍부 -열음골사과, 딸기시배지, 고추와 깻잎, 단감, 대추 등	○ 핵심적인 거점시설 부재 ○ 그린투어리즘 추진 주체 및 선행 프로그램 모호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확대 ○ 밀양 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 ○ 부산, 대구 등과의 접근성 개선	○ 밀양 자체 시장수요 부족 ○ 타 지역의 유사한 경쟁 상대 속출 ○ 관광자원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이미지를 확실히 부각할 테마 부족

□ 밀양시의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 여건 변화 전망

-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도시민이 농촌마을과 농가에 체재하면서 그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즐기고 영농·생활을 체험하

거나 여유 있게 휴양하는 것이며,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농촌주민과 교류하는 것임.

- 밀양의 풍부한 문화자원, 자연자원, 농특산물 등은 유리한 여건을 형성
- 그러나 핵심 거점시설이 없고,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선도 농가와 마을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단점
-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영남권 도시민의 방문과 관광이 대폭 증대될 가능성이 큼. 이에 대비하여 도시민이 농촌마을과 농가에 체재·숙박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정비하고,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배울거리·할거리·놀거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영농·자연·생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친절교육 및 농업·농촌에 대한 긍지의식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영남권 이외에도 국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밀양 전체를 마케팅할 통일된 이미지 구축 작업이 병행

제5절 투자사업 제안

1. 밀양 그린투어리즘 추진 방향

□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이 농가의 소득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밀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우선은 관광자원으로서도 손색없는 대규모 농업공원과 같은 거점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민박과 농가레스토랑 등이 대표적이나 농가의 현금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업경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므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판매·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시설로서의 거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거점시설에는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집적하여 이용객을 증대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 및 관련 영역과의 연계 및 복합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이 밀양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사과·단감·대추·고추·갯잎 등 밀양시의 대표적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확대에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의 정비

□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이 밀양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잘 가꾸고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함.

- 환경농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 그린투어리즘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지향한다는 면에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주력해야 함.

<표 7-2> 그린투어리즘의 목적과 추진 방향

농촌 측에서의 목적	추진 방향
① 농가소득 향상	농업의 전개, 농산물·가공품 판매, 농가민박(복합경영)·농가레스토랑(공동경영) 개설
② 지역 활성화	특색 있는 농업 창출, 가공시설·판매소 홍보, 쾌적한 환경·경관 만들기, 휴경지 활용(체험농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 유·무형 지역자원 활용
③ 도농교류	사람의 교류, 체험교류의 장(농업·전통·문화) 만들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설치, 서바이벌게임 등
④ 생활환경 개선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
⑤ 지역문화의 유지 발전	전통문화(축제·향토예능·민화·전설·공예·향토요리 등) 발굴과 전승, 사적·명소·유적 보전

자료 : 大分縣農政部營農指導課, グリーン・ツーリズムQ&A, 1999, 9쪽

2. 밀양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안)

① 거점시설로서 농업공원(agricultural theme park)의 조성

□ 농업공원의 의의와 유형

- 농업공원의 의의: 농업·농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생산·가공·판매·체험·전시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도농교류를 극대화하는 시설

- 농업공원의 종류: 과일·화훼·약초·목장 등 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의해 과일공원·화훼공원·약초공원·목장공원 등으로 구분
- 농업공원 조성의 효과: 대표적 농업공원으로서 미에현 아야마정(三重縣阿山町)의 ‘모꾸모꾸’는 농업공원 조성을 계기로 방문객 증가(18만 명 → 30만 명) 및 판매액 증가(8.4억 엔 → 20억 엔), 지역 내 신규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과 계약·직판생산의 확대 등의 성과

□ 밀양 농업공원 조성의 목적

- 밀양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시설은 부족
-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과 관광시설을 병설하여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실현함으로써 농가소득과 고용 증대
 - 밀양시의 새로운 관광시설로서 역할도 수행

□ 밀양 농업공원의 구성

- 공원의 주요 주제: 농사 체험과 학습·관광을 겸하는 주제 공원
- 공원의 주요 구성요소:
 - 견학 시설: 식물원, 수목원, 화훼정원, 과수원, 동물원(petting zoo)
 - 체험 시설: 농사체험 농원, 승마체험 운동장, 과일따기체험 농원, 천연염색체험 공방 등
 - 가공 시설: 견학이 가능한 식품 가공공장(각종 병조림류, 과일잼 및 음료수류, 소시지와 햄 등 축산가공품, 양갱이)
 - 판매 시설: 농특산물 전시·직매장, 지역레스토랑 등
 - ※ 여기서 견학, 체험, 가공, 판매 장소는 편의상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가령 화훼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꽃을 이용하여 천연염색을 체험하고, 꽃이 들어간 음식을 사 먹고, 꽃을 사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일체화
 - ※ 또한 농업공원 내에서 생산, 체험, 가공, 판매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웃한 관련 농가들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현지체험을 시도하고, 민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

□ 추진 방식

- 조성 장소: 일단의 관리지역 농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을 구비한 지역. 단, 무엇보다 시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최우선 대상 장소로 검토
- 세계적으로 농업공원의 규모는 1만 평에서 100만 평까지 다양한 편이고 사업 항목의 가감에 따라 조정 가능

참고사례: 이타야나기정(板柳町の) 사과 농업공원

- 시설설치비: 약 30억엔(50%는 국가 보조, 50%는 정 지원 및 지방채 발행)
- 운영: 당초에는 제3섹터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현재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위탁운영
- 농업공원의 주요 시설(부지 면적: 5.8ha)
 - 사과 가공공장: 마을 농가로부터 사과를 구입해 주스와 잼 제조
 - 사과나무 숲가마: 사과나무 등으로 질 좋은 사과나무 목탄(백탄) 생산
 - 사과품종견본원: 67a의 면적에 옛날 품종, 외국 품종, 지금부터 유망한 품종 등 약 250종의 사과나무 약 800그루를 왜성재배, 품종명·원산지·수확기 등을 표시
 - 사과따기 과수원: 20a 면적에 10종의 사과를 식재하여 10월 초~11월 중순에 과수원 방문자들에게 사과를 따먹게 함.
 - 일반 과수견본원: 사과재배 농가의 복합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살구·매실·마르멜로·앵두·하스갑·블루베리 등의 과수 약 100그루 식재
 - 온실: 온천물을 활용한 3동의 온실로서, 멜론·토마토 등 과채류의 수경재배와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거베라의 실험재배 등 사계절 꽃 재배
 - 농산물 직판장: 사과·야채·과일·생화·산나물·직물·가공품 등 생산농가가 100여호가 협의회를 조직하고 직접 판매, 1인당 매출액 연 800만엔이며,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센터에 지불함.
 - 사과 가공·집출하·저장시설: 『Ringo Work』브랜드의 사과주스·잼 등의 원료용 사과의 확보를 위한 저온저장고겸 포장·배송작업장
 - 숙박시설: 6개동의 삼나무 목조 방갈로(냉난방 완비, 서양식 4동 일본식 2동)로, 응접실과 2개의 침실에 냉장고·TV와 개수대·세면대·화장실 설치
 - 레스토랑: 주메뉴인 불고기 외에 일식과 양식도 구비
 - 각종 공방: 도예·사과과자·사과나무목공예·사과나무염색공예 공방
- 생산제품: 사과주스, 사과잼, 사과드레싱 소스, 사과젤리, 사과쿠키, 사과염색실, 사과나무껍질로 만든 지갑



- 초기에는 1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
- 운영주체와 방식: 제3섹터 방식의 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원조달: 공공투자와 민간출자를 결합한 제3섹터 방식의 재원 조달
 - 농림사업의 휴양단지개발사업(융자 77%, 자부담 23%) 지원
 - 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분야의 농림사업 지원
 -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국비 일부 지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으로 국비 일부 지원 및 민자 유치
 - 농림부 마을종합개발사업 신청으로 국비 일부 지원

②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수면골프연습장 조성

□ 조성의 의의

- 농업용 저수지의 수면을 이용하여 퍼팅연습을 하는 골프연습장 및 주변 경사가 있거나 유휴화될 우려가 큰 농지를 활용한 9홀 규모의 골프연습장
 -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자의 다양한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도입
 - 저수지와 농지를 농업용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원적으로 활용하고, 향토수종 및 야생화 등으로 주변의 조경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기여

□ 도입 시설

- 수면골프연습장: 저수지
- 미니골프연습장: 완만한 경사지의 농지
- 레스토랑, 카페, 탈의실, 락카룸 등 편의시설
- 주변 산책로
- 오수처리시설
- 주차장

□ 추진 방식

- 조성 장소: 밀양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와 그 주변지역
 - 저수지의 경우, 350m의 퍼팅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량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주민 및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전에도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이 논의된 바 있는 신호저수지를 고려할 수 있음.
- ※ 다만, 조성 시기를 일반 골프장 조성 시기와 맞출 필요가 있음. 그 래야만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운영 주체 및 방식: 특정 저수지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자본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위탁운영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가능

참고사례: 왜관 수면골프장

- 저수지 35,000평(32레인), 9홀 미니골프장 6,000평(1라운딩 50분 소요) 등
- 초기투자비는 약 30억원
 - 매월 관리운영비 약 3,000만원, 연간 저수지 사용료 2,800만원
- 하루 평균 100명 이용, 하루 수입 300만원(1달 약 1억원)



- 단, 골프연습장 주변의 농가, 마을의 민박과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의 기반을 확충하여 골프연습장을 거점시설로 실질적인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재원 조달: 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유치 등

3] 밀양보리를 이용한 브랜드맥주 제조 및 맥주축제의 개최

□ 부가가치 높은 술 제조 필요

-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술,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지역들은 전통주 제조에 주력하는 추세이고 일부 지역에서 와인 등을 개발코자 하는 추세임.
- 와인의 경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주류로서 장기간의 기술축적이 요구되어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밀양 역시 전통주가 있으나, 후발주자로서 국내에서 상품화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에 충분한 지명도가 없음.

□ 축제에 어울리는 맥주, 국내에는 불모상태인 맥주축제

- 현재 밀양은 밀양문화제, 밀양연극제, 얼음골사과축제 등과 같은 행사는 있지만 밀양농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전국적 명성을 얻을만한 대중적 축제는 없음.
- 국내 지역축제 중에는 쌀을 비롯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가 많이 있으나 아직 보리를 이용한 축제는 없음.
- 따라서 밀양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농업선도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역동적인 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와 연결하여 축제를 개최하면 그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됨.

□ 국내 하우스맥주붐 등을 고려하면 높은 파급효과 기대

- 최근 국내에는 하우스맥주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맥주만들기, 맥주마시기 행사도 많고 맥주동호인모임 등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밀양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브랜드화하고, 맥주축제

등을 서둘러 개최한다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밀양을 마케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밀양이라는 지역명칭이 붙은 맥주보리품종이 여럿이고 밀양에 맥주보리 생산농가도 남아 있는 상태임.

□ 추진 방식 구상

○ 맥주보리의 생산

- 맥주보리 생산농가의 생산품을 전량 밀양시에서 구매

○ 다양한 맥주제조를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 브랜드 개발

- 주세법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로 농가 자체 가공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밀양 브랜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소수 개별 농가, 개인 사업체(영농법인 등도 포함) 내지 (주)밀양무역을 통해 개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시험 제조

○ 기존 맥주 제조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 대기업 맥주브랜드에 밀양이라는 이름을 사용케 해서 밀양이 맥주와 맥주보리 생산의 메카임을 홍보(예 일본의 삿포로맥주, 중국의 칭다오 맥주)

○ 맥주축제의 시기와 방법

- 보리수확기 내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밀양연극제 기간 중 연계해 실시
- 맥주뿐만 아니라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음. 가령, 보리떡만들기대회, 보리피리불기대회, 꺾다놓은 보릿자루 나르기대회 또는 보릿자루 꺾이기 대회, 가양맥주맛 콘테스트, 맥주마시기대회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맥주와 잘 어울리는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등) 개발도 촉진하고, 후식으로서 한천과 단호박을 재료로 한 양갱이와 같은 식품 개발도 추진

참고사례: 독일의 맥주축제, 옥토버 페스티벌(October Festival)

- 9월말에서 10월초에 열리는 세계 3대 축제의 하나
- 맥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뮌헨에서 개최되며, 약 100여 개의 민속행사가 동시에 치루어지고, 방문객만 600만 명에 이릅니다.
 - 500만 리터의 맥주, 65만 마리의 닭, 110만 톤의 소시지가 이 기간에 소요
- 호프브로이, 뢰벤브로이 등이 대형 텐트를 치고 자사의 맥주를 홍보, 판매하며 간이 스탠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가 홍보, 판매



4 소농원(Kleingarten) 및 펜션 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과 의의

- 소농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는 임대소득을 얻고, 도시민은 농사체험, 휴양 및 안전농산물 취득
 - 소농원과 펜션을 함께 임대하여 도시민의 장기체재를 유도

□ 시설 내용

- 소농원의 사업규모: 시범적으로 1천 평 규모로 시작하여 수요자 반응을 파악하여 차츰 확대
- 소농원 단지, 펜션, 부대시설: 도시민의 영농, 체재, 휴식 등에 필요한 시설
 - 소농원 단지 조성: 1구획당 약 5평 단위로 구획정리
 - 펜션 단지 조성: 1동당 20평 규모로 10동을 설치
 - 공동 이용 부대시설: 주차장, 정자, 어린이놀이터 등

□ 추진 방식

- 사업 주체: 도입 초기에는 밀양시 또는 농협 등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개별농가에서도 실시하도록 함.
- 펜션의 경우는 소농원과 분리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함.
- 운영 방식: 인근 老農을 영농기술 지도자로 위임하여 활용
- 농림사업의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주말농원개발사업)
- 시비 또는 농협 자금

5]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사업

□ 사업 목적

- 그린투어리즘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진청의 전통테마마을 사업 등과는 별도로 밀양시가 독자적으로 그린투어리즘 실천 마을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지원하여 육성함
- 일정 단계에 진입한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등으로 응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도 추가적으로 연계
- 해당 마을의 환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밀양을 방문한 도시민으로 하여금 체류하고 싶은 충동이 일도록 하고 타 마을에도 참여 의욕을 고취시킴.

□ 사업 내용

- 그린투어리즘 실행에 필요한 마을 공동시설 설치
- 마을 주변 산과 계곡, 하천 등의 정화와 정비
-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주변에 화초와 초목 식재, 꽃길 가꾸기, 생울타리로 담장 교체 등
- 그린투어리즘 참여 농가의 주택 리모델링 용자 지원

□ 사업 추진 방향

-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마을의 조사 선정
 - 읍·면별 1개 대표마을
- ‘(가칭)아름다운마을가꾸기경연대회’를 개최, 우수 마을을 포상함으로써 지역적 붐을 일으키고 마을간 경쟁을 유도
- 사업비는 시비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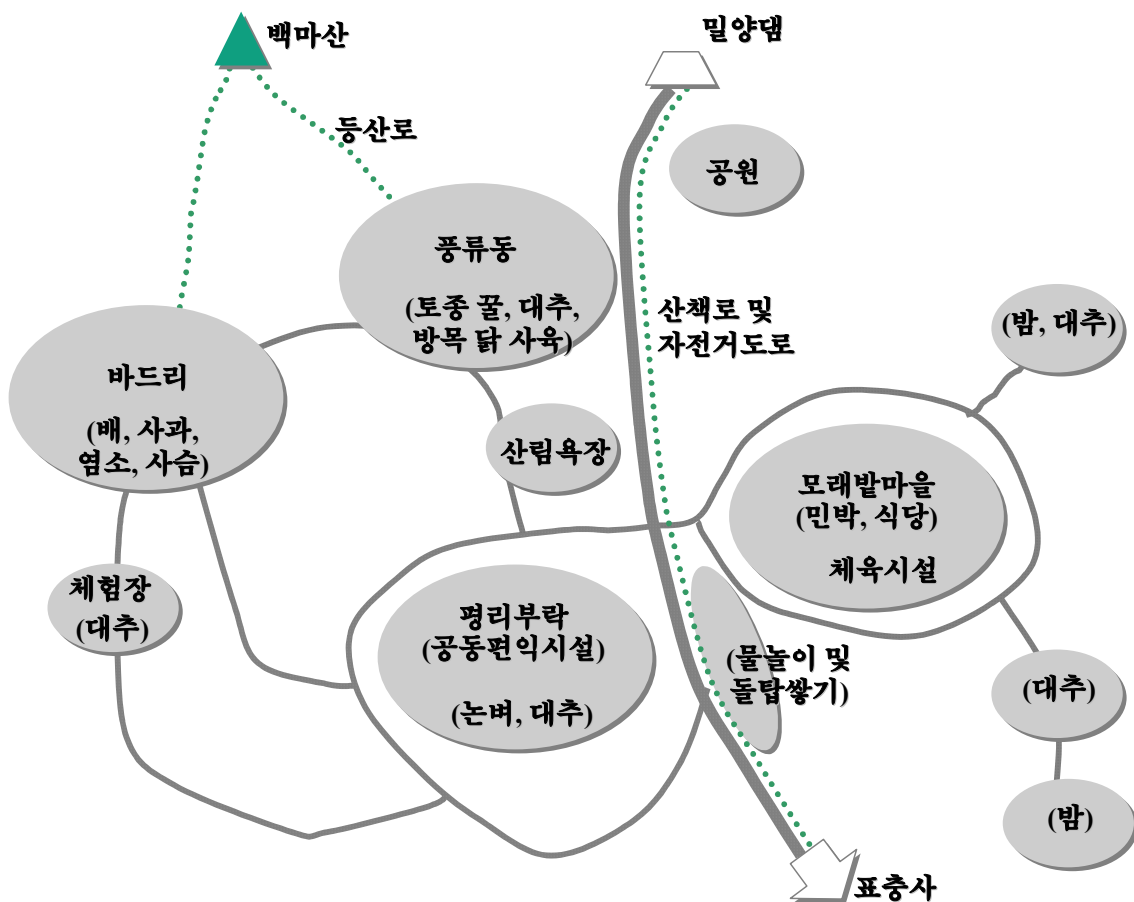
□ 2004년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대상지인 고례리의 사업 방안

- 마을 개요
 - 인구 및 가구: 208명, 83호
 - 4개 자연부락(평리, 풍류동, 바드리, 모래밭)
 - 주변 관광자원: 밀양댐, 표충사
 - 농특산물: 대추
- 개발 목표
 - 밀양 대표마을 브랜드 제1호
- 시설 정비
 - 마을~백마산 등산로, 밀양댐공원~마을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길
 - 대추밭 체험시설(대추 가공공장 및 원두막)
 - 소규모 산림욕장 및 간이 체육시설
 - 마을안내판 및 민박집, 식당집, 체험집 등의 안내판 정비 등
- 프로그램 개발
 - 달맞이축제(moon festival):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민속축제
 - 달집짓기, 소원빌기, 달집태우기, 굿과 길놀이, 산제와 의식, 연날리기와 윷놀이,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불꽃놀이, 달마시기 등
 - 산신제 함께 해요: 주민만이 참여하였던 산신제를 외부 사람들과도 함께 함으로써 그야말로 도농교류의 기회로 활용
 - 산신제 후, 음식을 도시락에 넣어 가지고 백마산에 오르는 등산행사

를 겸함. 또한 산 정상에는 흰색의 모자(구름 모자) 3개를 놓은 후, 모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시상함으로써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함.

- 계절별 농산물 관련 이벤트: 그 밖에도 산나물 채취행사, 대추따기 행사, 밤줍기 행사 등 마을 농산물의 수확과 관련된 체험 이벤트를 마련함.

<그림 7-1> 고례리 개발계획도



참고사례: 그린투어리즘마을의 제1브랜드 토고미마을

- 주로 쌀농사를 하는 농가가 모여 사는 평범한 농촌마을
 - 2001년 강원도 자체 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가꾸기를 시작하고 오리입식행사를 개최하면서 도농교류를 통한 마을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 7농가로 시작하여 현재 29가구가 참가하는 환경농업작목반은 농민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도시민에게는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 확보를, 자연에는 동식물과 아름다운 경관의 보호·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간 무농약오리쌀(104t), 감자(15t), 고추(1.5t), 메주(15가마), 토종꿀(25군) 등을 생산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국내 제1의 농촌관광마을로 부상
 - 도시민에게 별보기, 반딧불관찰 등의 자연체험, 소달구지타기, 새끼꼬기, 가마니치기, 썰매타기 등의 농촌체험, 팽이치기, 소꼬뚜레뽕기, 짚공예 등의 문화체험 등 다양하고 전통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농교류행사를 진행
 - 2002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농협의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의 대상,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제1의 농촌관광마을로 부상
- 다양한 시설의 재활용과 신규 조성
 - 마을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 내 폐가를 전통 초가집으로 개축하는 사업 추진
 - 마을 내 폐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농산물 판매장 겸 도시민 숙박시설을 조성
 - 농가를 이용한 숙박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을공동 펜션 건축
- 도시민회원을 구축하여 매달 영농일지 발송
 - 2001년부터 신대리에서는 매년 6월 초 오리입식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민 회원가구를 마을로 초대하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 가족뿐 아니라 학교, 종교단체,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도 운영
 - 마을에서는 신대리의 도시민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제공 등의 지속적인 교류 노력과 함께, 지치지 않는 마을 리더인 한상렬 이장을 비롯한 주민의 힘이 더해서 여타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



⑥ 주민 교육 프로그램((가칭)밀양포럼) 운영

- ☐ 그린투어리즘 및 도농교류 추진, 농업·농촌 활성화의 기반은 주민의 의식 변화와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달려있음.
- ☐ 단편적이고 일회적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설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함.

☐ 교육의 내용

- 우수 강사 초청 강의 프로그램 연 12회
 - 밀양에 초청된 우수 강사에게 역으로 밀양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
- aT센터 등에서의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에 수시 견학
 - 가령, 우수농산물브랜드전이나 환경농산물과 예술의 만남으로서 “행복한 식탁전” 등과 같은 행사를 경험함으로써 눈높이를 전환
-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우수마을 등의 현지 방문 등

참고사례: 장성 아카데미

- 장성에서는 매주 1회 고정된 시간에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교육 내용은 매년 책으로 묶어 출판
- 연간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주민 교육의 효과는 물론, 장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도 높이고 있음.

⑦ 특색 있는 농산물가판대 설치사업

☐ 특색 없는 농산물가판대

- 국내 국도변 곳곳에는 많은 가판대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판대 자체의 조형미나 가판대에서 팔리는 농산물의 질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임.

- 밀양에도 곳곳에 농산물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

□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통일된 이미지의 농산물가판대 설치

-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통일된 가판대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가판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역으로 활용
 - 밀양시에서는 아름다운 가판대 설치에 대한 지원(시비 부담과 자비 부담)
 - 지원된 가판대는 번호를 부착하여 밀양시에서 관리
-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밀양안에 들어오면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

□ 가판대에서 팔리는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관리

- 번호가 부착된 가판대에서 팔리는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을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
 - 시기별로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한의 범주를 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밀양의 가판대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은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줌.

참고사례: 무인농산물가판대

- 유럽이나 미국의 도로변에는 지역의 경관과 잘 조화되는 아름다운 가판대(roadside stand)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파는 경우가 많아 가판대임에도 불구하고 단골 손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강원도 화천군의 광덕리에서는 주민들이 나무를 재료로 가판시설을 만들고 무인 농산물판매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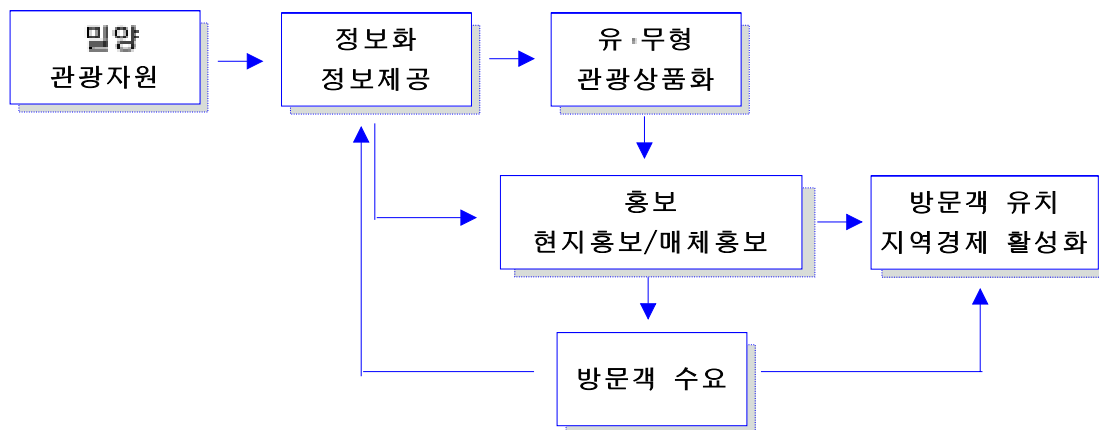


⑧ 밀양 비지터스센터 조성사업

□ 밀양의 방문객들에게 밀양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비지터스센터는 밀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밀양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살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정보 제공 창구
- 나아가 밀양의 여러 자원과 방문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유무형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는 창구로서 방문객을 유치하고 미래의 잠재적 방문객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

<그림 7-2> 비지터스센터의 역할



□ 방문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입지

- 비지터스센터는 통상 방문객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입지함.
- 일본의 비지터스센터들은 기차역 주변에 입지하여 있으며, 미국의 비지터스센터들은 해당 지역의 접근로 입구에 입지하고 있음.
- 밀양의 경우도 밀양 기차역을 입지점으로 상정할 수 있음.
- 기차역 주변은 유동 인구의 왕래가 많고 밀양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드르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보 제공 및 홍보 효과가 크다는 장점

□ 지역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

- 비지터스센터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밀양시의 흥

보 효과 및 재방문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매년 몇 번째로 밀양을 방문하여 비지터스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 등 추진
- 일년간 밀양의 명소들을 모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밀양시장상 등을 수여하고 준주민으로 인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Tour Stamp Trail)

참고사례: 미국 솔뱅(Solvang)시의 예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솔뱅은 덴마크 농촌마을의 전형을 조성, 유지함으로써 하루 5,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임.
- 관광객 대부분은 솔뱅 초입에 자리잡고 있는 비지터스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숙박 등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받음.
- 솔뱅의 비지터스센터는 솔뱅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조직 “Solvang Conference and Visitors Bureau”에서 운영하고 있음.



참고: 투어 스탬프 트레일 프로그램

- 투어 스탬프 트레일(Tour Stamp Trail)은 일정 지역의 관광 명소별 특성이나 이미지를 상징하는 기념도장을 마련하고, 방문자가 기념도장을 찍을 수 있는 책자에 확인을 받게 하여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일종의 관광이벤트 전략
- 항공회사, 커피점, 음식점 등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마일리지, 스탬프 시스템과 유사



3. 그린투어리즘 분야 단계별 소요예산 추정

<표 7-3> 그린투어리즘 단계별 소요예산 추정

		1단계(2004~2008)	1단계(2009~2013)	합계
농업 공원	사업량	1개소		1개소
	규모	10만 평(시유지)		10만 평(시유지)
	총투자비(억원)	18.0		18.0
	- 국고융자	12.0		12.0
	- 지방비부담	6.0		6.0
수면 골프 장	사업량		1개소	1개소
	규모		35m 이상 저수지	35m 이상 저수지
	총투자비(억원)		22.0	22.0
	- 지방비		2.0	2.0
	- 민간출자		20.0	20.0
맥주 축제	사업량	5회(년 1회)	5회(년 1회)	10회
	규모	방문자 5만 명	방문자 10만 명	방문자 75만 명
	총투자비(억원)	2.5	5.0	7.5
	- 국고	-	1.5	1.5
	- 지방비	1.5	1.5	3.0
	- 민간출자	1.0	2.0	3.0
소농 원 및 펜션 조성	사업량	1개소	1개소	4개소
	규모	1천 평	1천 평	2천 평
	총투자비(억원)	3.8	3.8	7.6
	- 국고융자	1.5	1.5	3.0
	- 지방비	1.5	1.5	3.0
	- 민간출자	0.8	0.8	1.6
그린 투어 리즘 마을 육성	사업량	3개소	3개소	6개소
	규모	3개 마을	3개 마을	6개 마을
	총투자비(억원)	18.0	18.0	36.0
	- 국고	13.2	13.2	16.4
	- 지방비	4.8	4.8	9.6
가 관 대	사업량	5개소	5개소	10개소
	규모	20평	20평	200평
	총투자비(억원)	2.0	2.0	4.0
	- 지방비	1.0	1.0	2.0
	- 자부담	1.0	1.0	2.0
비지 터스 센터	사업량	1개소	1개소	2개소
	규모	50평	50평	100평
	총투자비(억원)	0.5	0.5	1.0
	- 국고	0.25	0.25	0.5
	- 지방비	0.25	0.25	0.5

□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 소요자금: 18억원
 - 토지매입비: 시유지(10만 평) 활용
 - 단지조성비: 6억 6천만원(ha당 2,000만원×33ha)
 - 건축비: 9억원(평당 300만원×300평)
 - 자재구입비: 2억 4천만원
- 재원조달: 공공투자와 민간출자를 결합한 제3섹터 방식의 재원 조달
 - 농림사업의 휴양단지개발사업(용자 77%, 자부담 23%)
 - 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분야의 농림사업 지원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국비 일부 지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으로 국비 일부 지원 및 민자 유치

□ 수면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 소요자금: 22억원
 - 부지매입비: 농용저수지 임대 활용(농업기반공사에 사업자가 부담)
 - 수면골프연습장조성비: 7억원
 - 부대시설 건축비: 11억원
 - 오수처리장 설치비: 2억원
 - 주변지역 기반정비: 2억원
- 재원조달: 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부)의 예산 일부와 민간출자를 결합한 제3섹터 방식
 - 주변의 기반시설 정비를 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충당

□ 맥주축제 개최를 위한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 소요자금: 1단계-2.5억원(5천만원/회), 2단계-5억원(1억원/회)
- 재원조달: 시비로 재원 조달하며, 관련 기업 스폰서를 일부 유치함. 단, 2단계부터는 문화관광부의 지방축제 지원을 받음.
 - 국고: 2단계부터 회당 3천만원
 - 시비: 3천만원
 - 기업 스폰서: 1단계에 2천만원에서 2단계에는 4천만원 규모로 증가

□ 소농원 및 펜션 조성사업을 위한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 소요자금: 7억 6천만원(3억 8천만원×2개소)
 - 농지매입비: 5천만원(1천평×5만원)
 - 구획정리비: 1천만원
 - 시설설치비: 3억원(100평×300만원)
 - 분양홍보비: 2천만원
 - 단, 펜션의 경우는 농협을 포함한 민간출자에 의한 조성 시도
- 재원조달
 - 농림사업의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주말농원개발)
 - 시비 또는 농협 자금

□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사업

- 소요자금: 36억원
 -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농림부): 2개소, 4억원(시비 50%)
 - 전통테마마을(농진청): 2개소, 4억원(시비 50%)
 - 산촌종합개발(산림청): 2개소, 28억원(시비 20%)
- 재원조달: 국비 보조와 시비로 조달

□ 가판대 설치사업을 위한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 소요자금: 4억원(4천만원×10개소)
 - 시설설치비: 4천만원(20평 기준×200만원)
- 재원조달: 개인 혹은 영농조합, 마을 단위의 가판대 설치에 시비 50% 보조
 - 시비 50%, 자부담 50%
 - 농림사업의 농산물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농산물직거래시설지원) 활용도 가능

□ 비지터스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 소요자금: 1억원(5천만원×2개소)
 - 시설설치비: 5천만원
- 재원조달: 시에서 토지 제공,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활용
 - 문화관광부 관광안내소 설치 지원사업

제 8 장

농업인력 및 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인력 육성

1. 현황과 문제점

□ 농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 2000년 현재 밀양시의 농가호수는 13,887호로 1995년에 비해 5.5% 줄었음.
- 농가인구수는 1995년에 비해 13.7%가 줄어든 39,295명임.

<표 8-1> 밀양시의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단위: 호, 명

구분	농가호수	전업농	1종겸업농	2종겸업농	농가인구
1995년	14,702	10,432	2,028	2,242	45,519
2000년	13,887	10,674	1,871	1,342	39,295

자료 : 밀양시 농정과

-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2000년 현재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영농분야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남.

□ 현재 밀양시에서는 농업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신지식 농업인 육성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코자 함.
- 또한 농촌여성들에 대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높이고 생활기술의 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교육내용 : 천연염색, 전통음식 요리, 특산물 요리, 플라워 디자인, 건강관리 등

□ 그러나 추진사업들이 농업인력의 감소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들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추진방향

- 농업인의 부업 기회를 확대하여 농가구성에서 겸업농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감.
- 선도농업인을 육성하여 이들의 성공사례가 신규 취농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활용함.
- 귀농 및 신규취농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의 정년은퇴자들을 위한 “실버부업농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함.
- 영농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도화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센터의 평생교육을 통해 밀양 농업인의 자질과 전문지식을 함양시킴.

3. 추진방안

① 선도농업인 육성

□ 사업 목적

- 작목별로 농업기술·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선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지역농업 발달의 견인차 및 지역농업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게 함.
- 선도농업인의 영농 현장을 신규 취농·귀농자의 교육·연수 시설로 활용함.

□ 사업 내용

- 선정 방법 : 작목반과 읍면의 추천을 받아 실사 후 품목별로 2~3인씩 10년 동안 총 100명 선정
- 선도농업인 홍보
 -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소개하는 발표회를 가짐.
 - 밀양시 혹은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에 선도농업인 사례 창을 개설하여 이를 홍보
 - 특별히 우수한 사례는 농업관련 언론기관에서 이를 기사화함.
- 선도농업인이 새로운 농업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선도농업인의 영농 현장을 신규 취농·귀농자의 교육·연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비 등을 지원함.
- 선도농업인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해외 연수를 실시함.

□ 소요자금과 재원조달

- 소요자금 : 10년간 매년 3,000만원씩 총 3억원
 - 컴퓨터구입비 지원: 7천만원(1인당 70만원×100명)

- 컴퓨터교육비 지원: 3천만원(1인당 30만원×100명)
- 해외연수비 지원 : 매년 2천만원씩(200만원×10명) 10년 = 2억원
- 재원조달 (10개년)
 - 국비: 2억원
 - 농림사업의 농촌 PC 보내기사업비: 1억원
 - 농림사업의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비: 6천만원
 - 시비: 1억원

② 귀농 및 신규취농 유치

□ 사업 목적

- 유능한 젊은 인력을 농업 담당주체로 유치·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사업 내용

- 귀농 및 신규취농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관련 NGO인 『귀농운동본부』, 『우리농촌 살리기운동본부』 등과 교류하여 귀농희망자가 밀양으로 귀농할 수 있게 유치전략을 수립함.
- 귀농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림사업상의 귀농자 용자와 별도로 귀농자 및 신규취농자 지원을 추진함.
- 경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등을 알선함.

□ 소요자금과 재원조달

- 소요자금 : 29억원
 - 신규취농·귀농자금 용자 지원 : 20억원(2천만원×100인)
 - 직업훈련비 지원 : 3억원(월 50만원×6월×100인)
 - 정착자금 지원 : 6억원(50만원×12월×100인)

- 재원 조달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융자 : 20억원(2천만원×100인)
- 국비 보조 : 5억원
- 시비 보조 : 4억원

③ 실버 부업농 육성 프로그램

□ 사업 목적

- 인근 도시거주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텃밭 영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업농을 육성함.

□ 사업 내용

-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거주 은퇴자를 입주대상으로 유치하고 이들에게 부업 기회를 제공함.
 - 문화마을주택 분양시 텃밭분양사업을 같이 실시함.
- 농업관련 업종 중에서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부업으로 영농할 수 있는 분야를 분류하여 이를 소개하는 실버취업박람회를 연1회 개최함.
 - 부업대상은 농업생산 관련 업종 뿐 아니라 유통, 서비스업과 농촌관광 분야를 포함토록 함.
- 고령 귀농자에 대해 귀농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영농창업자금을 융자함.

□ 소요자금과 재원조달

- 소요자금 : 40억원
 - 취업박람회 비용 : 1억원(1천만원×10회)
 - 직업훈련비 지원 : 9억원(월 50만원×6월×300인)
 - 귀농자금 융자 지원 : 30억원(1천만원×300인)
- 재원 조달 : 40억원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융자 : 30억원(1천만원×300인)
- 국비 보조 : 5억원
- 시비 보조 : 5억원

□ 4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실시

□ 사업 목적

- 영농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도화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센터의 평생교육을 통해 밀양 농업인의 자질과 전문지식을 함양시킴.

□ 사업 내용

-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함.
 - 노동부에 취업훈련기관으로 등록
- 교육과정은 정규훈련과정과 수시훈련과정으로 이원화함.
- 귀농자 및 전직 희망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정규훈련과정은 1년 과정으로 1개의 일반학과와 1개의 특수학과를 이수토록 함.
 - 일반학과 : 경종농업, 원예, 축산 등
 - 특수학과 : 말사육, 양조(민속주, 포도주, 맥주) 등
 - 특수학과는 밀양시의 특화사업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로 구성
- 영농종사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수시과정은 단기간에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교육방식은 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의와 영농현장 및 실습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으로 구성함.
 - 선도농업인의 농장을 현장실습장으로, 선도농업인을 강사로 활용함.
- 직업훈련센터의 강사는 지도직 공무원을 자체 강사로, 선도농업인을 외부강사로 활용함.
 - 특수학과의 교육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특별강사로 초빙함.

- 직업훈련센터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 및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및 창업 인센티브를 제공함.
- 예를 들어 말사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밀양시가 추진하는 경주마 사육장예의 취업을 알선함.

□ 소요자금과 재원조달

- 소요자금 : 30억원
 - 건물 임차료 : 6억원(6천만원×10년)
 - 강사료(특별강사) : 12억원(3천만원×4명×10년)
 - 강사료(외부강사) : 6억원(6천만원×10년)
 - 운영비 : 6억원(6천만원×10년)
- 재원조달 : 노동부의 취업훈련지원 사업에서 조달
 - 국비 30억(3억×10년)

독일 직업훈련과정의 교육내용 (말사육 분야)

- 말에 대한 양육, 통솔, 운송 방법
- 말의 신체, 성장, 행동
- 가축 위생
- 말의 운동 및 활동
- 종자 번식 및 품종학
- 사료 조달 및 공급
- 마구간 형태
- 기구 및 부속물에 대한 것
- 경영 지식
- 법률 지식
- 근로기준 및 환경보호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1. 현황

□ 밀양의 경지면적은 2001년 현재 15,706ha로 논이 9,949ha, 밭이 5,757ha로 되어 있음.

- 이 중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10,503ha이고,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면적이 775ha임.
-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0,487ha로서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910ha를 제외한 나머지 9,577ha 중에서 이미 경지정리된 면적이 8,606ha로 2001년 현재 89.6%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런데 기존의 경지정리가 600~1,200평의 소규모 구획으로 정비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도입에 의한 영농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기존에 경지정리된 지역에도 대구획경지사업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촌용수개발에서는 대·중규모 농촌용수개발과 지표수보강 분야에 가장 많은 현지수요가 있음.

- 2001년에 작성된 밀양시의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현지조사표에 따르면, 향후 대·중규모 농촌용수개발 분야 9개 사업지구에 약 6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표수보강 분야 9개 사업지구에 약 3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배수개선 분야에도 많은 현지수요가 있는데, 이는 수해로 인한 재해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삼랑진 일부 지역은 상습침수지구로 영농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에는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 2003년의 경우, 농업구조조정(생산기반+생활환경+영농규모화) 관련 사업비의 17.2%가 생산기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고 있음<표8-2>.
- 현재 관내의 농업생산기반 유지관리는 밀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과 농업기반공사(밀양지사)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분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서비스가 체계적이 되지 못하고 용익의 차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 등이 있는데, 이 중 중점은 문화마을조성에 있음.
- 생산기반정비와 연계되는 생활환경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밀양시 관내에 영농규모화사업으로 1990~2002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약 357억원으로서 1,341 농가의 728ha가 수혜를 받음.
- 총 지원면적 중 논이 약 99.7%인 726ha로 거의 전부임.
 - 이는 밀양시 총 논면적의 5.8%에 해당함.

<표 8-2> 2003년도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밀 양 시			농업기반공사 (밀양)	합 계	비 율
	국(도)비	시비	소계			
경지정리	2,300	556	2,855	2,795	5,651	13.5
기계화경작로	1,610	262	1,872	1,040	2,912	7.0
농촌용수개발	3,480	2,320	5,800	4,000	9,800	23.4
배수개선	50	50	100	8,003	8,103	19.4
농촌생활환경	2,963	584	3,547	2,000	5,547	13.3
유지보수	834	641	1,475	5,743	7,218	17.2
영농규모화	-	-	-	2,592	2,592	6.2
합 계	11,237	4,413	15,650	26,173	41,823	100.0

자료 : 밀양시,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 2003

- 영농규모화사업이 쌀 전업농 육성으로 추진된 1995년부터 2002년 말까지 기간에는 밀양에서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576 농가가 약 228억원의 지원을 받음.
- 사업별로는 농지매매사업에 약 146억원(64%)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농지임대차사업에 지원됨.

□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에 배분된 2003년도 예산규모는 약 418억원이 됨.

- 이 중 62.6%에 해당하는 약 262억원이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의 사업책임.
- 세부항목별 사업 중에서는 농촌용수개발에 가장 많은 사업비(전체의 23.4%)가 투자되고 그 다음이 배수개선사업(19.4%)임.

2. 여건변화 전망

□ 쌀에 대한 무역 재협상과 쌀의 공급과잉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임.

- 농림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안(2002. 5)에 따르면 2011년 목표연도까지 주요 사업의 추진 목표를 농업진흥지역 위주로 대폭 축소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표 8-3>.
- 밭기반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여 사업물량을 33,000ha 늘리고, 농촌용수 수계연결사업을 200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며, 저수지준설·물관리자동화·농업용수수질개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협약, 농촌 어메니티와 같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 자연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표 8-3> 농업생산기반조성 중장기계획(2002~2011)

단위 : 천 ha, 억원

사업명		사업량 (천ha)	중장기 합 계	02(A)	03-'06					07-'11	예산증감 (B-A)
					03(B)	04	05	06	소계		
총계		227	239,722	22,278	23,633	24,989	25,230	24,459	98,311	119,133	1,355
대규모용수개발		100	39,883	3,747	4,226	4,150	4,360	4,580	17,316	18,820	479
소규모용수개발		8	2,583	143	230	270	270	270	1040	1400	87
지표수보강개발		20	8,436	432	560	728	764	802	2,854	5,150	128
대단위농업개발		65	33,067	3,236	3,388	3,690	3,690	3,350	14,118	15,713	152
서남해안간척(기금)		17	14,358	1,398	1,554	1,503	1,208	1,087	5,352	7,608	156
한발대비용수개발		10	2,750	275	275	275	275	275	1,100	1,375	0
생산기반종합정비		1	864	211	278	278	97		653	0	67
유희지개발(기금)		1	323	136	77	65	45		187	0	-59
공사관리 수리시설개보수		1,244	33,705	2,863	3,296	3,310	3,330	3,350	13,286	17,556	433
방조제개보수		1,108	9,042	774	845	1,000	1,000	1,000	3,845	4,423	71
공사관리저수지준설		803	2,293	120	140	160	180	200	680	1,493	20
시설물안전진단		2,055	630	40	40	50	53	55	198	392	0
농촌농업생활용수		4,649	8,160	816	816	816	816	816	3,264	4,080	0
농업용수관리자동화		185	1,408	53	100	110	121	133	464	891	47
물관리정보화			69	8	10	12	13	13	48	13	2
받기반정비		63	15,888	1,217	1,564	1,630	1,630	1,630	6,454	8,217	347
일반경지정리		16	6,586	1,877	991	1,295	1,522	901	4,709	0	-886
대구획경지정리		49	15,087	1,074	1,112	1,288	1,305	1,355	5,060	8,953	38
배수개선		99	24,662	2,252	2,400	2,500	2,500	2,500	9,900	12,510	148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63,50	17,564	1,514	1,587	1,680	1,750	1,830	6,847	9,203	73
농업용수수질개선		19	738	27	31	55	75	75	236	475	4
지하수개발조사		36	490	49	60	60	60	60	240	201	11
농지오염방지조사		1	30	5	15	10			25	0	10
시험연구사업		1	131	11	13	15	17	19	64	56	2
신규	농촌용수 수계연결	5	826		10	14	114	114	252	574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통계조사	9	18		2	2	2	2	8	10	2
	수리시설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설치		81		10	15	17	19	61	20	10
	저수지주변환경정비		50		3	8	16	23	50	0	3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2002. 5. 30)

□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물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건설에 의한 새로운 용수개발보다는 기존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2006년에 전체 수자원 수요량 347억톤에 비해 공급량은 1억톤이 부족하게 되고, 2011년에 369억톤 중 18억톤, 2020년에 377억톤 중 26억톤 정도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다<표 8-4>.

<표 8-4> 수자원 수급 전망, 2001~2011

구 분	2001	2006	2011	2020
용수수요 (백만톤)	33,741	34,665	36,998	37,700
용수공급 (백만톤)	33,801	34,563	35,162	34,100
부 족 량 (백만톤)	60	△102	△1,836	△2,600

자료 : 건설교통부

-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농업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농업과 비농업간, 상·하류간, 지역간에 물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심화될 것임.

3. 사업추진 방향

□ 앞으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농지재정비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경지정리 뿐 아니라 농촌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및 어메니티를 고려하는 농지 및 농촌 정비사업이 되도록 함.

□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투자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함.

□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의 유지관리를 일원화 함.

4. 추진 방안

4.1. 계속사업 개선 방안

① 경지정리사업

□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함.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개발유형을 다양화하고 효율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함.
- 재개발형 위주에서 집단화형과 시설개량형 위주로 변경함.

② 용배수개선사업

□ 지속적인 용수개발 및 배수개선으로 한해와 수해 등 재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함.

-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리권역별 종합개발을 추진토록 함.
- 수리권내 중소 수원공 및 용수로 등을 상호연계시키고 보강함.
- 양적 위주의 신규 용수개발에서 보강개발로 전환함.
- 배수개선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습침수지구의 배수개선에 우선 투자토록 함.
- 지표배수개선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역여건상 지하배수가 보다 유리한 지역에는 지하배수개선으로 사업을 추진함.
- 상습침수지구의 배수개선은 생산기반정비 차원 뿐 아니라 「수해방지종합대책」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③ 연계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촌생활환경개선의 통합적 추진

- 농촌의 공간은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정비는 이들 공간을 상호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공간별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생산기반정비와 생활환경개선이 연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막기 위해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사업을 추진함.
 - 마을인접 수로를 활용한 수변환경정비 등의 친환경정비기법을 도입함.

□ 단위사업들 간의 연계개발

- 개별 공간 내에서도 정비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개별 사업들이 각기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생산기반정비 내에서도 도로 및 농로의 확포장은 세부사업별로 각기 다르게 추진되어 재원 낭비와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사업들 간의 연계개발을 추진함.
 -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연계한 농지범용화 사업을 추진함.

④ 생산기반 유지관리의 일원화

□ 농업생산기반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하고 밀양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와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 간에 업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함.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목표 및 방법을 조율토록 함.

4.2. 확대 및 신규 사업

① 영농규모화사업

□ 기본방향

-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함.
 -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과 젊은 농업인을 집중 지원토록 함.
- 영농규모화 대상 농가를 쌀전업농 뿐 아니라, 시설채소, 과수, 축 산 농가로 확대하여 시행함.
 - 정부의 농림업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따라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 규모 재원이 투자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영농규모화사 업을 미작 뿐 아니라 규모화가 필요한 전 농림업 분야로 확대함.

□ 사업목표

- 계획기간인 2013년까지 3,000농가를 영농규모화 대상농가로 설정함.
 - 이 중 규모화 대상 쌀전업농을 1,500농가, 여타 농업의 규모화 대상을 1,500농가로 설정
-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는 대상농가의 10%가 10ha 이상, 50%가 5ha 이상 농지를 경영하도록 하고, 1ha 미만 농가는 없도록 함.

□ 추진방안

-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는 기존의 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농지임대차를 보다 더 육성하도록 함.
 - 이율과 상환조건 등에서 종전보다 더 현격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119조원 투융자사업 내용과 관련)
- 여타 농업의 경우에는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지원방식을 원용하 여 규모화에 대해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사업의 시행은 영농규모사업 대행기구인 농업기반공사가 맡도록 하지만, 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밀양시와 협의하여 수행토록 함.

2 실버 문화마을 조성

□ 사업 목적

- 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를 실버 부업농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부업 가능성을 제공하는 실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

□ 사업 내용

- 농업관련 부업과 결부된 문화마을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함.
 - 농업관련 부업 : 텃밭 분양, 그린 투어리즘, 농촌체험, 민박 등
- 문화마을 조성은 지역의 특성과 마을고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태로 추진함.
 - 입지여건에 따라 테마마을 조성을 고려함.
- 사업추진은 농업기반공사(밀양지사)에서 담당토록 함.
 - 기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확대된 규모로 추진하고,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을 이 사업에 결부시킴.

□ 소요자금과 재원조달

- 소요자금 : 420억원
 - 문화마을조성 : 350억원(사업량 : 10ha)
 - 농지매매 및 임대차 : 70억(사업량 : 100ha)
- 재원조달
 - 문화마을 조성 : 도비 280억원, 시비 70억원
 - 농지매매 및 임대차 : 융자 70억원

제 9 장

농촌 생활복지환경 개선

제1절 생활환경 현황

□ 생활권

- 지역 전체가 밀양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통합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
- 산내면은 도로 접근성 측면에서 울산 배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삼랑진읍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교통의 결절지로서 이웃한 밀양 이외 타 지역들과의 이동이 활발한 편임.

□ 개발수요

- 밀양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 이용으로 나타남.
- ① 병의원 등 의료시설 이용 불편
- ② 자녀교육 여건 불리
- ③ 찜질방 등 건강관련시설 이용 미흡
- ④ 노인 휴식공간 미흡
- ⑤ 목욕탕 이용 불편

<표 9-1>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1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용이 불편	168	46.3	24	6.9	53.2
2	반찬거리, 일상용품 등의 구입이 불편	21	5.8	27	7.8	13.6
3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이 불편	16	4.4	37	10.6	15.0
4	목욕탕 이용이 불편	42	11.6	37	10.6	22.2
5	찜질방 등 건강관리시설 이용이 불편	48	13.2	56	16.1	29.3
6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불편	45	12.4	99	28.4	40.8
7	노인들이 모여서 놀만한 곳이 없음	23	6.3	64	18.4	24.7
8	기타	-	-	4	1.2	1.2
계		363	100.0	348	100.0	200.0
무응답		27		42		
총계		390		390		

- 밀양시 주민은 가장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을 안길 재정비”를 들었음. 주민이 바라는 생활환경 정비사업들 대부분은 기초 기반시설 정비라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운동 및 건강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① 마을 안길 재정비
- ② 소규모 운동관련시설 정비
- ③ 상수도 개발
- ④ 하수처리시설 설치
- ⑤ 쓰레기처리장 설치

- 한편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에 필요한 운동 및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쓰레기 수집 및 수거 서비스에 대한 건의가 많았음.

<표 9-2> 마을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사업 두 가지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1	마을진입로 포장	44	11.9	4	1.1	13.0
2	마을 안길 재정비	63	17.0	43	12.0	29.0
3	상수도 개발	58	15.7	16	4.5	20.2
4	하수처리시설 설치	40	10.8	26	7.3	18.1
5	마을공동주차장	30	8.1	23	6.4	14.5
6	목욕탕	25	6.8	29	8.1	14.9
7	찜질방 설치	23	6.2	21	5.9	12.1
8	보건진료소 설치	11	3.0	12	3.4	6.4
9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25	6.8	49	13.7	20.5
10	마을공원 조성	19	5.1	35	9.8	14.9
11	보건진료소 설치	9	2.4	55	15.4	17.8
12	마을회관, 노인당 신축 또는 개축	16	4.3	43	12.0	16.3
13	기타	7	1.9	1	.3	2.2
계		370	100.0	357	100.0	200.0
무응답		20		33		
총계		390		390		

<표 9-3> 읍면별 생활환경 정비수요(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읍면	시설	서비스
삼랑진읍	노인 휴식시설	
하남읍	시민 휴식공간	
부북면	노인 휴식시설, 보건진료소 등	
상동면	도시민 전원주택단지	
산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 복지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수거
산외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서비스 질 향상
상남면	오폐수처리시설, 마을별 소규모 운동시설	
초동면	운동시설(게이트볼장 등)	쓰레기 수거,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공급 운영
무안면	복지시설	
청도면		쓰레기 수거,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

제2절 생활환경 정비의 방향

- ☐ 읍면별로 다목적 복지시설이 완비된 생활환경 정비,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 ☐ 공공사업의 투자 효과를 높이고, 마을별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 지역의 전통과 자연적 요소 등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중시하는 내용의 사업 추진
 - 생활환경 정비와 그린투어리즘 추진이 접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3절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① 소생활권 단위로 거점 마을에 건강 및 여가 관련 시설 확충

- 건강 및 여가 관련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 읍면별로 거점 마을을 중심으로 조성함.
 - 마을별 시설 설치에 예산 등의 제약으로 시설 자체가 조잡해지고, 장기적으로 관리운영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인구 규모가 작은 면들의 경우는 공동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면서, 면간의 순환버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처함.
- 찜질방, 목욕탕, 이·미용실, 소규모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잔디밭 등이 종합화된 다목적 시설로 조성함.
 - 자체 순환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이용편리성을 증대시킴.
- 중앙정부 예산으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관리시설치사업(농진청), 정보화마을조성사업(행자부), 경로회관설치사업(보건복지부) 등의 단위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농림부)과 오지 종합개발사업(행자부) 등을 거점 마을에 집중시키고 여기에 밀양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시설수준도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 대부분 공공투자에 의한 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만 설치되고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제대로 관리운영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시설 설치는 공공에서 하지만, 시설 운영의 경우는 주민대표운영기구의 신설 등을 통해 하고 농협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의 참여도 유도함. 예를 들어, 농협의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이러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투자비 산출

- 사업량 : 1단계 2개지구, 2단계 2개 지구
- 사업비 내역 : 밀양시 전체 총 4개 지구를 대상으로 1개 지구당 145,000원을 투자
 - 찜질방조성사업: 5천만원 (시비 2천5백만원)
 -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4억원 (시비 1억원)
 - 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일부): 10억원 (시비 1억원)

※ 안동시 임하면의 건강관리실 운영 우수사례

- 약 40평 규모의 시설로서 남녀 각각의 찜질방을 중심으로 대기실 겸 휴게실, 운동실, 샤워실, 탈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매달 급여를 받는 시설 관리인(지역주민)이 상주하면서 주6일동안 가동됨. 임하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료로 1,000원을 받고 있으며, 항상 만원을 이룸.

※ 2004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마을종합개발사업

-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 1개 또는 3~4개 마을을 단위로 한 지구에 대하여 종합적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70억원을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양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사업, 소득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을 망라할 수 있음. 대상 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테마, 생활권 등을 고려해 동질성이 있는 일단의 범역내 주민이 작성한 계획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 시·도에 제출하면 됨. 단, 2004년에 한해 사업 지구는 농림부에서 선정함.

② 밀양시 자체의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 읍면별로 1개 대표마을 육성, 중앙정부의 소규모 종합개발사업 및 단위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대상지로 선정함.
 - 매년 읍면별 1개 대표마을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평가, 선정하여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한 뒤 중앙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참여하게 함.
 - 1개 읍면별로 1개의 대표마을을 선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취 시킴. 특히 대표마을은 읍면별로 특화된 기준으로 선정함. 예를 들어, “지붕이 아름다운 마을”, “돌담이 남아 있는 전통적 마을”, “명인(名人)이 살고 있는 마을”, “명품(名品)을 갖고 있는 마을” 등과 같이 다양할 수 있음.
- 최근 중앙정부의 소규모 종합개발사업들은 컨테스트형 대상지 선정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생활환경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소도읍정비사업 및 정보화마을조성사업(행자부), 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농림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농림부),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농진청), 역사문화마을만들기사업(문화부) 등
 - 컨테스트형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주민의 자율성, 참여도, 역량 등임.
- 사업 추진 방식
 - 사업의 개요 설명
 - 참여 의지가 있는 마을 주민은 마을의 현황, 마을의 문제점과 잠재력,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 목록, 주민 스스로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제출
 - 밀양시에서는 관련 공무원, 지역 지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
 -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중앙정부 단위사업 및 시 자체사업을 우선 배정
 - 주민은 상사업비 등을 이용하여 마을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실천하고, 중앙정부의 타 사업 대상지 선정에도 응모

※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 농촌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역량과 의지가 높은 마을에 인센티브형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타 마을로의 시범효과도 높

이러는 의도로 추진됨.

- 마을 단위로 작성된 마을 발전계획과 자율적 마을개발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는 상사업비 5억원(도비 2억 5천만원, 시·군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활성화 사업을 유도함.

※ 진안군의 으뜸마을사업

- 읍면별로 1개 특화마을을 으뜸마을로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특화사업 내용에 맞도록 우선 배정함. 특화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

③ 아름다운 공원 조성사업

-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에 있어 깨끗하고 독특한 이미지, 경관 등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및 장소의 마케팅과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소득원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농촌다운 환경이나 경관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지구 지정도 고려

※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에도 대비하는 기회로 삼음.

- 저수지나 강가에 있는 주변의 경우는 수변공원, 다락논 주변의 경우는 다랭이공원, 오래되고 좋은 당산나무가 있는 주변의 경우는 나무공원 하는 식으로 밀양의 곳곳에 아름답고 다양한 공원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
- 밀양 시민들이나 노인들의 휴식공간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밀양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은 휴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 금산군의 “1,000개의 자연공원” 만들기 사업 사례

- 자연부락 단위로 앞산과 뒷산, 군내의 좋은 숲과 산, 강가 등의 명소를 포함하여 1,000개의 크고 작은 자연공원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주민 대상의 캠페인, 다양한 행사, 식재 등을 군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

음. 이를 통해 군 전체의 점, 선, 면적 바이오툼(생물서식공간)을 연계하는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주민의 인식도 제고하며, 지역을 마케팅하는 효과를 거둬.

④ 쓰레기 수집 및 수거 체계 구축

- 읍면소재지 중심의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일정 규모 마을까지로 확대하고, 마을의 마을회관 주변 등에 쓰레기 론롤박스, 콤포스트 용기 등을 설치하여 매주 1회씩 수집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콤포스트 용기에서 처리된 것을 재활용함.
- 인구가 많은 마을, 외지인 방문이 많은 마을을 위주로 함.
- 마을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론롤박스 관리 및 쓰레기 수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계곡 등이 발달하여 관광객 방문이 많은 마을의 경우는 주민들이 자체적인 환경지킴이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도록 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
- 투자비 산출
 - 사업량 : 1단계 10개마을, 2단계 10개마을
 - 사업비 내역 : 총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1개 마을당 론롤박스 및 콤포스트 용기 설치비 지원

□ 단계별 투자 계획

<표 9-4> 단계별 투자 계획 (생활복지환경)

단위 : 백만원

단계별 사업명	1단계(4~8)					2단계(9~13)					총 사업비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기타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기타	
건강및여가관련시설확충사업	2,900	2,450	450			2,900	2,450	450			5,800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200		200			200		200			400
아름다운 공원조성사업	25		25	노동력		25		25	노동력		50
쓰레기 수집 및 수거체계 구축사업	50		50			50		50			100

제 III 편

농림부문 투융자 계획



제10장 투융자 계획 수립

제 10 장

투융자 계획 수립

제1절 밀양시 재정분석 및 평가

1. 재정 현황

① 예산규모

- 2003년도 밀양시의 총예산 규모는 2,239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90.1%인 2,018억원임.
- 일반회계 중에서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 비중이 92.8%이고,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이 3.6%임.

<표 10-1> 2003년도 밀양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총예산	223,861	53,865	150,976	9,176	9,844
일반회계	201,812	50,692	136,596	7,334	7,190
특별회계	22,049	3,173	14,380	1,842	2,654

자료 : 밀양시

②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결산자료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밀양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1%임.

- 그런데 1998년 이후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표 10-2>.

<표 10-2> 밀양시의 재정자립도

단위 :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정자립도	37.2	41.5	43.7	38.7	34.1	35.0	29.3

자료 : 밀양시

- 현재(2003년) 전국의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46.8%이고, 군 평균은 18.8%임.
-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시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 있음.

③ 투자비 비중

- 투자비 비중 = 사업예산 / 일반회계 세출
- 밀양시의 세출액 중에서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은 (1996~2002년 기간) 평균 73.9%임.
- 2003년 현재 전국의 시 평균 투자비 비중이 64.9%이고, 군 평균이 66.5%임.
- 이는 밀양시가 생산적 활동에 보다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정운용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표 10-3> 투자비 비중

단위 :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투자비 비중	71.5	75.7	74.8	77.1	72.6	72.6	72.8

주 : 결산자료 사용

자료 : 밀양시

④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 (경상예산 + 채무상환) / 일반회계 세출
- 밀양시의 세출액 중에서 경상업무 수행과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기본경비의 비중은 (1996~2002년 기간) 평균 24.8%임.

- 2003년도 전국의 시 평균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은 27.4%이고, 군 평균은 27.8%임.
-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음.

<표 10-4>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단위 :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본적 세출소요	27.9	23.9	24.6	22.7	26.4	23.6	24.2

주 : 결산자료 사용

자료 : 밀양시

2. 재정 평가

- 밀양시는 주어진 예산하에서 재정운용을 잘 하고 있음.
- 사업예산에 배분되는 투자비의 비중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경상비의 비중이 낮음.
- 채무상환비의 비중이 적고, 2000년 이후부터 이월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흑자재정 유지).

<표 10-5> 일반회계 세출 구성

단위 : %

구 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1996~2002년 평균	22.8	73.9	2.0	1.3

주 : 결산자료 사용

자료 : 밀양시

<표 10-6>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잉 여
1996	179182	121042	58140
1997	206662	156087	50575
1998	193849	146706	47143
1999	201954	157895	44059
2000	206372	147609	58763
2001	252789	184469	68320
2002	344419	206455	137964

주 : 결산자료 사용

자료 : 밀양시

-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문제임.
 -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산업자본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농업·농촌 투융자 분석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 농림업 예산규모

- 2003년도 농림업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농림업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표 10-7> 밀양시 농림업예산 구성비율

단위: 천원

구 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림업 예산	구성비(%)	농림업 예산 증가율(%)
1999	164,315,165	17,413,494	10.6	-
2000	136,701,094	17,003,790	12.4	-2.4
2001	211,098,598	25,172,042	11.9	48.0
2002	197,527,039	25,635,995	13.0	1.8
2003	201,812,053	32,044,731	15.8	25.0

주 : 예산자료 사용

자료 : 밀양시

- 농림업 예산 중에는 농업생산기반과 관련된 농업건설분야 예산이 가장 많음.
- 2003년도에 농업건설분야 예산이 농림업 예산의 약 절반(49%)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을 농림업 예산에 포함하는 경우 농업건설분야의 비중은 71.9%가 됨.
-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2003년도 밀양시의 농림업 예산은 약 58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28.8%의 비중이 됨.

<표 10-8> 2003년도 농림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경상예산	사업예산	계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중(%)
농업 일반	947,848	8,963,228	9,911,076	4.9
농업 건설	53,296	15,650,141	15,703,437	7.8
산 림	934,555	5,495,663	6,430,218	3.1
(농업기반공사)			(26,183,000)	(13.0)
합 계	1,935,699	30,109,032	32,044,731 (58,227,731)	15.8 (28.8)

주 : 예산자료 사용

자료 : 밀양시,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

□ 투자비 비중

- 농림업 예산 중에서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은 1999~2003년 기간에 평균 85.6%로 밀양시 전체 예산의 투자비 비율 73.9%보다 월등히 높음.
- 이는 농업건설부문의 투자비 비중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임.
- 전반적으로 농림업 예산의 투자효율성이 높은 상태임.

<표 10-9> 농림업예산의 투자비 비중

단위 : %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투자비 비중	86.8	80.6	81.4	85.0	94.0

주 : 예산자료 사용

자료: 밀양시

□ 자체사업 비중

- 농림업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비중은 1999~2003년 기간에 평균 12.3%로 낮은 수준임.
-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최근 들어 자체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20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비중이 약 2배 증가하였음<표 10-10>.
- 자체사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밀양 특유의 농림업 투자사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10-10>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비중

단위: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자체사업비 비중	6.8	7.8	16.2	16.9	13.9

주 : 예산자료 사용

자료: 밀양시

□ 농림업 투융자 사업내역

- 농림업 사업항목 중에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배분된 예산이 농림업예산의 3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수산물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 예산으로 각각 16.1%, 11.1%를 차지하고 있음<표 10-11>.
- 사업분야별로 살펴볼 경우, 농업건설분야(농업생산기반+농촌생활환경+시설관리)에 농림업예산의 49%, 임업분야(산림관리+조림관리)에 예산의 20%가 배분됨.
- 농정일반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31%에 불과함.
- 농림업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의 구성도 유사한 분포를 보여줌.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수산물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각각 35.3%, 17.0%, 11.8%의 사업예산이 투자됨.

<표 10-11> 2003년도 사업별 농림업 예산

단위 : 천원, %

사 업 항 목	예 산 금 액	비 율
농정기획	921,966	2.9
농수산관리	5,151,654	16.1
농산물 유통	1,768,391	5.5
원예특작	136,300	0.4
농업지원	784,334	2.4
경영지도	320,209	1.0
기술보급	364,852	1.2
축산	463,370	1.5
농업생산기반	10,643,150	33.2
농촌생활환경	3,554,661	11.1
시설관리	1,505,626	4.7
산림관리	3,250,006	10.1
조림관리	3,180,212	9.9
합 계	32,044,731	100.0

자료 : 밀양시

2. 농업·농촌 투융자 평가

- 밀양시의 농업·농촌 투융자가 확대되고 있음.
 - 농림업 예산이 규모나 비중면에서 늘어나고 있고, 예산 구성에서 투자비 비중이 높음.
- 농림업 예산 중에는 생산기반과 관련이 있는 농업건설분야 예산 비중이 높음.
 - 농업기반공사의 예산까지 합산할 경우, 농업건설분야 예산이 농림업 예산의 약 72%를 차지함.
-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자체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자체예산에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사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밀양시는 농업·농촌 투융자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생산기반과 관련한 농업건설 투자에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음.
- 향후 밀양시 농업·농촌 투융자는 농업건설 위주에서 농정일반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밀양 특유의 농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밀양 특유의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동시에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실시에도 있어서도 자금 운용상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제3절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수립

1. 예산확보 계획

- 1999년~2003년 기간에 밀양시의 농림업 예산은 연 평균 13% 증가하였음.
-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기간이 2004년~2013년인 정부의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119조원)이 추진됨에 따라 농림업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게 됨.
-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따르면, 2004년~2008년 기간에 51조원, 2009년~2013년 기간에 나머지 68조원이 투자되는데, 보조가 88조원(74%), 융자가 31조원(26%)으로 구성됨.
- 51조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2004년~2008년 투융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재원은 예산 39조원(77%), 기금 12조원(23%)으로 구성되고, 지원방법은 투자 37조원(73%), 융자 14조원(27%)으로 되어 있음.¹⁾

1)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안)』, 2003년 12월.

-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2004년 8.4조원에서 2008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임<표 10-12>.
- 분야별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 농촌개발 분야에 투융자를 크게 확대하는 반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는 투융자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표 10-12>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단위 : 10억원, %

구분	2003	2008	2004~08	연평균 증감율
농업경쟁력 강화	2,439 (31.7)	4,248 (37.6)	18,453 (36.5)	11.4
소득 및 경영안정 (직접지불)	1,556 (20.2)	3,136 (27.5)	12,924 (25.6)	12.6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71 (8.7)	2,592 (22.8)	9,245 (18.3)	31.7
농산물 유통 개선	557 (7.2)	1,578 (13.9)	6,140 (12.2)	19.0
농업생산기반 정비	637 (8.3)	1,017 (8.9)	4,999 (9.9)	2.7
	2,515 (32.6)	1,376 (12.1)	7,998 (15.8)	△9.1
합 계	7,704 (100)	11,391 (100)	50,514 (100)	7.8

자료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안)』, 2003. 12.

- 정부의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근거하여 밀양시의 경우에도 2004년~2013년 계획기간에 연 평균 7.8% 증가의 농림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가정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함<표 10-13>.
- 밀양시 농림업 예산에는 국도비의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가정이 비현실적이 아니라 할 수 있음.

<표 10-13> 2004년~2013년 밀양시 농림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34,543	37,238	40,142	43,273	46,648	50,287	54,210	58,438	62,996	67,910

- 이 시나리오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농림업 예산을 추정해보면, 2003년도의 농림업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4~2008년의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 밀양시의 농림업예산은 83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2009~2013년의 제2차 계획기간에는 1,43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총 2,266억원이 농림업예산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음.

2. 투융자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의 비중

- 농림업의 분야별, 사업별 투융자 우선순위는 정부의 중장기 투융자계획과 밀양시의 여론수렴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예산배분의 비중 또한 정부의 투융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함.
- <표 10-12>에 나타난 정부의 투융자계획을 보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그 다음이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소득 및 경영 안정화’ 분야임.
 - ‘농촌의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도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 이 분야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에 해당함.
 - 반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는 투자되는 재원이 연평균 9.1%씩 크게 줄어듦.
- 밀양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로 시의 농정이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사업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①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 ② 기술농업의 실현
 - ③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정책
 - ④ 수출농업 육성
 - ⑤ 농업전문인력 양성
- 정부의 중장기 투융자계획과 지역의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농림업 분야별 예산을 <표 10-14>와 같은 비율로 배분함.
- 수립된 분야별 예산계획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배분하면, 분야별 예산규모는 <표 10-15>와 같이 도출됨.
- 계획기간 중 제1차 계획기간(’04~’08)의 분야별 예산 구성과 제2차 계획기간(’09~’13)의 분야별 예산 구성 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 가장 큰 변화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임.

<표 10-14> 2004년~2013년 농림업 분야별 예산비중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정기획	3.1	3.2	3.4	3.8	4.0	4.2	4.4	4.6	4.8	5.0
농수산물관리	16.9	17.8	18.8	19.9	21.0	21.4	21.8	22.2	22.6	23.0
농산물유통	5.9	6.3	6.8	7.4	8.0	8.2	8.4	8.6	8.8	9.0
원예특작	0.5	0.7	1.0	1.5	2.0	2.1	2.2	2.3	2.4	2.5
농업지원	3.0	3.3	3.9	4.5	5.0	5.1	5.2	5.3	5.4	5.5
경영지도	1.3	1.7	2.1	2.6	3.0	3.2	3.4	3.6	3.8	4.0
기술보급	1.5	1.8	2.4	2.9	3.5	3.7	3.9	4.1	4.3	4.5
축산	1.7	1.8	2.1	2.3	2.5	2.5	2.5	2.5	2.5	2.5
생산기반	29.8	27.6	23.8	19.8	16.0	14.8	13.6	12.4	11.2	10.0
생활환경	11.8	12.4	13.0	13.4	14.0	14.0	14.0	14.0	14.0	14.0
시설관리	4.7	4.8	5.0	5.1	5.2	5.3	5.3	5.4	5.4	5.5
산림관리	10.0	9.4	8.9	8.5	8.0	7.9	7.8	7.7	7.6	7.5
조림관리	9.8	9.2	8.8	8.3	7.8	7.6	7.5	7.3	7.2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0-15> 2004년~2013년 농림업 분야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4~2008	2009~2013
농정기획	8,067 (3.5)	13,605 (4.6)
농수산물관리	43,580 (18.6)	65,409 (22.3)
농산물 유통	15,810 (6.8)	25,358 (8.6)
원예특작	2,545 (1.1)	6,802 (2.3)
농업지원	8,880 (3.8)	15,618 (5.3)
경영지도	4,770 (2.0)	10,666 (3.6)
기술보급	5,424 (2.3)	12,136 (4.2)
축산	4,743 (2.0)	7,346 (2.5)
농업생산기반	56,796 (24.3)	35,908 (12.2)
농촌생활환경	29,798 (12.7)	41,138 (14.0)
시설관리	11,557 (5.0)	15,831 (5.4)
산림관리	21,174 (9.0)	22,582 (7.7)
조림관리	20,746 (8.9)	21,443 (7.3)
합 계	233,890 (100)	293,842 (100)

3. 농림사업 투융자계획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전략사업은 총 33개의 사업으로서 사업별 투융자 소요액 내역은 <표 10-16>과 같음.

- 계획기간 중 전략사업의 총 소요액은 887억인데, 제1단계 사업기간에 422억원, 제2단계 사업기간에 465억원이 소요됨.
-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50.8%로 제일 많고 시비가 25.5%임.
- 시비 부담액은 계획기간 중 227억원임.

<표 10-16> 사업별 투융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단계별	1단계(2004-2008)					2단계(2009-2013)					사업비 합 계
		소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소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시설원예박물관 건립		10,000	7,500	2,500			10,000	7,500	2,500			20,000
시설채소국제박람회		2,000	1,500	500			4,000	3,000	1,000			6,000
4명운동 추진		500		500			500		500			1,000
축산단지화 사업		2,000	500	500	1,000		3,000	500	1,000	1,500		5,000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600		300	300		600		300	300		1,200
축산농가 생산지원		1,200	300	300	600		1,200	300	300	600		2,400
경주마 사육 육성사업		4,000	800	800	800	1,600	2,000	400	400	400	800	6,000
경주마 공동육성장 설치							2,400	1,200			1,200	2,400
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		2		1	1							2
산지유통센터 설치		2,000	1,500	500			2,000	1,500	500			4,000
공동선별장 설치확대		1,000	200	400	400		1,300	300	600	400		2,300
RPC위성건조시설 설치		700	210	70	420							700
직관장 설치사업		140		86	54		140		86	54		280
소비자 관측지원사업		430		430			430		430			860
가공공장 운영지원		500				500	500				500	1,000
가공식품 연구개발		500	250	250			500	250	250			1,000
농산물수출촉진사업		750	250	500			750	250	500			1,500
농업공원 조성		1,800		600		1,200						1,800
수면골프연습장 조성							2,200		200	2,000		2,200
맥주축제 개최		250		150	100		500	150	150	200		750
소농원 및 펜션 조성		380	150	150	80		380	150	150	80		760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		1,800	1,320	480			1,800	1,320	480			3,600
가관대 설치사업		200		100	100		200		100	100		400
비지터스센터 조성사업		50	25	25			50	25	25			100
선도농업인 육성		1,500	1,000	500			1,500	1,000	500			3,000
실버 부업농 육성		2,000	250	250		1,500	2,000	250	250		1,500	4,000
신규취농귀농자 지원		1,450	250	200		1,000	1,450	250	200		1,000	2,900
직업훈련센터 운영		1,500	1,500				1,500	1,500				3,000
실버문화마을 조성사업		1,800	1,200	300		300	2,400	1,600	400		400	4,200
건강여가시설 확충사업		2,900	2,450	450			2,900	2,450	450			5,800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200		200			200		200			400
아름다운 공원 조성사업		25		25	노동		25		25	노동		50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50		50			50		50			100
계		42,227	21,155	11,117	3,855	6,100	46,475	23,895	11,546	5,634	5,400	88,702

제4절 계획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

-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실무단이 구성되어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농업인을 비롯한 일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가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
- 이처럼 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립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바람직함.

2. 추진 체계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는 본 계획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추진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특히 민관 간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토록 함.
 -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밀양농업·농촌비전21』로 제안함.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겸임하며,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림업 관련 조합대표 3인(농협조합장, 산림조합장 등), 농민대표 3인, 농업관련 유관기관 대표 3인(농업기반공사, 종자관리소 등), 주민대표 3인, 상공인 2인 등 총 20인 내외로 구성함.
- 추진위원회는 분기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상설화를 위해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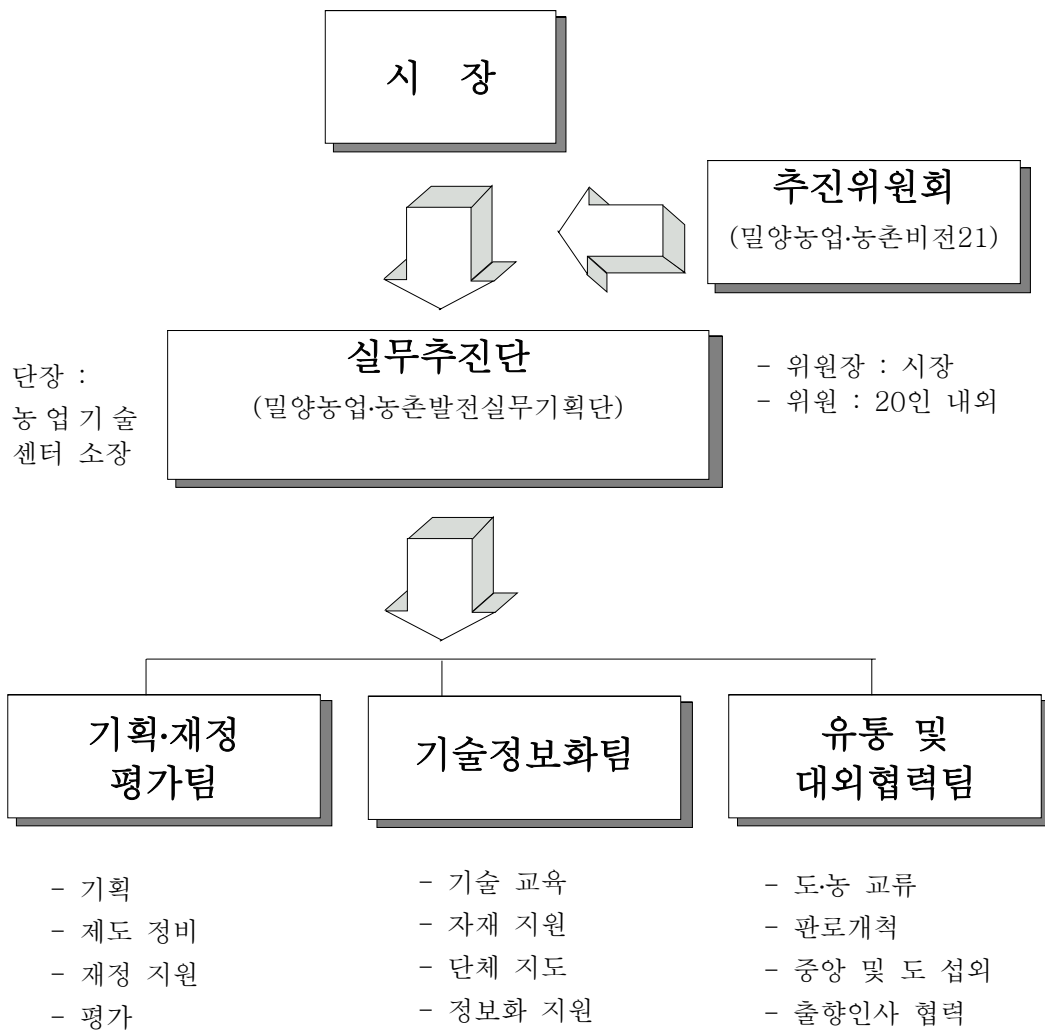
□ 실무추진단 (밀양 농업·농촌발전 실무기획단)

- 실무추진단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을 실무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함.
- 실무추진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겸임하며 조직은 <표 10-17>과 같은 3개 팀으로 구성함.

<표 10-17> 실무추진단 구성

팀 명	주요 업무	구 성
기획·재정 평가팀	추진업무 기획, 예산 반영, 관련 제도 정비,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평가	기획감사담당관(2) : 기획, 예산 농정과(1) : 농정기획
기술정보화팀	농업기술교육, 농업자재 지원, 관련단체 지원 및 지도, 정보화 지원	농업지원과(2) : 연수, 사업추진 기술보급과(1) : 기술보급
유통 및 대외협력팀	도·농교류사업 추진, 판로 개 척, 중앙 및 도와 교류 협력	농정과(1) : 대외협력 공보경영담당관(1) : 홍보 농산물유통과(1) : 유통

<그림 10-1>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추진 체계도



ABSTRACT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lan of the City of Miryang

Worldly changes in agricultural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have impacted on domestic and local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policy. Among the changes are the completion of UR negotiation in 1993, agricultural and marketing openness by the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 the completio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the China's participation in WTO, agricultural policy changes of many countries towards putting more emphases 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so on. Domestically, there emerge differentiations in the quality of life, competitive capacity of each products, and income level among farm households based on interests in regional agriculture and investment by the local government. So,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at the local government establish regional agricultural plans.

In particular, differentiation strategies which utilize local characteristics in agriculture are adopted by many local governments. Competitions among production regions become severer by branding of local products, promotion of C.I. businesses to create local image or the efforts of each local area to find export markets.

In such situation, this research set up a comprehensiv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lan of the city of Miryang, encompassing urban and rural areas,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environmental and social-economic features of both the city as a whole and each local area and the appraisal of SWOT and potential of regional agriculture. This especially focused on the planning for local development and th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a certain specialized products. In doing so, it provided the futur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of the City of Miryang, which was based on setting up the agricultural and rural vision of the city in 21C, determining the priorities of public investment and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y in detail.

This research established the Miryang development strategy, dividing it into four areas: i) Eastern mountainous area; ii) Central and Northern semi-mountainous area; iii) Western semi-mountainous area; and vi) Southern plain area.

Eastern mountainous area includes Sannae-Myon and Danjang-Myon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is area, it is planned that rural tourism areas, medical herbs areas nearby Jaeyak mountain are created, and that apple and date are selected and developed as specialized local products. Sannae-Myon would promote interchange with urban regions based on businesses about rural tourism and participating in harvesting and assist an apple festival to sustain the reputation of the region for the specialized apple. In Danjang-Myon, it planned that rural tourist facilities are improved and that amenity is valorized by the ownership on terraced farmland and a locust festival.

Central and Northern semi-mountainous area covers Sanyoe-Myon, Sangdong-Myon, Bubuk-Myon and the city center of Miryang. It will develop a garden city, create a horticulture area along Miryang river and assist the production of sesame leaves as a specialized product. In addition, it will establish a large scale equestrian area and use the existing Miryang Play Area for a cultural festival.

Western semi-mountainous area includes Cheongdo-Myon, Mooahan-Myon and Chodong-Myon. The development plan would promote several estates for equipped hort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nimal breedings, and some special types of chilli are development as local specific products. Buddhism tourist facilities are also enhanced.

Southern plain comprises of Samrangjin-Eup, Hanam-Eup and Sangnap-Myon and will be developed as a large scale rice farming area. It also develop a large scale distribution center. Strawberry and persimmon will be developed as specialised products of the regions. In addition, an area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will be created near Hanam-Eup and Namjeon-Ri. The locally produced hops are sold to a factory for beer production.

Researchers: Seung-Woo Ryu, Soo-Suk Kim, Byung-Yul Kim,
Mi-Ryung Song, Kyong-Cheol Park
E-mail Address: sewryu@krei.re.kr

참 고 자 료

《일반 문헌》

- 경상남도, 『농업·농촌발전계획(1999~2004)』, 2000
- 경상남도, 『농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 2002
- 김갑수, “경주마 생산을 위한 종빈마생산공동체 사업설명회 자료”, (주)이과인서비스월드와이드, 2002. 10
- 김병률 외, 「제천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 2002. 12
- 김수석·최민호·김성수, “독일의 영농인 양성제도”, 『農村社會』, 제5집, 韓國農村社會學會, 1995
-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2002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안)」, 2003
- 농업기반공사, 「밀양시 사업자료」, 2003
-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 2003년 밀양시 연합마케팅, 2003. 4
- 단장면, 「단장면 기본현황자료」, 2003
- 밀양시, 「축산현황 및 사업계획(경주마생산농가 육성 등)」, 밀양농업기술센터
- 밀양시, 『시정백서』, 2002
- 밀양시, 「통계자료」, 2002
- 밀양시, 『통계연보』, 1988-2001
- 밀양시, 『밀양문화재총람』, 1999
- 밀양시, 『밀양시 관광농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밀양시, 『밀양시 종합개발계획』, 1998.1
- 밀양시, 『밀양시 환경기본계획(2001~2005)』, 2001
- 밀양문화원, 『밀주지-지리편』, 2001
- 부북면, 부북면 기본현황자료, 2003
- 산내면, 산내향토지, 2002
- 송미령,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 시도”, 강원농수산포럼, 2003. 11
- 신승렬, “국내 경주마 생산 활성화 방안”, 「말(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밀양대학교, 2002. 12
- 영남농업시험장, 『들깨』, 2003
- 영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연보』,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2000.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2000. 5

Bundesanstalt für Arbeit, 『Beruf im Agrarbereich』, Bielefeld, 1988

《일반 세부 자료》

2002년 농산물 선별장 운영실적 파악보고

2003 농수산물 수출실적

농산물수출업체 현황(전국)

농업법인 현황

무안농협 지역농업 종합개발 계획도(2002~2005)

무안면 기본현황

밀양관내 농협현황

사명대사 유적지 성역화 순조, 2003. 5. 26, 밀양시보

삼랑진 염동지구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삼랑진읍 정책보고

수출농업단지 현황

영산정기-부처님 진신사리 백만과 봉안도량

작목반 및 영농법인단체 현황, 2003(내부공문형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시설 운영현황, 2001. 10, 유통현황

청도면 기본현황

《팜플렛》

2001년 제1회 밀양여름공연제 예술축제

2002년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밀양(밀양안내서), 밀양시청

밀양관광안내도, 밀양시

밀양시 농특산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밀양연극촌통신, 2000년 창간호

영남농업연구개요, 영남농업시험장

제46회 밀양문화제(2003. 4. 25~4. 28),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

제6회 2002년 밀양얼음골 사과축제

《도움을 주신 분들》 ☎ 연락처 (지역번호 055)

구본충,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장, 354-3924, 019-324-4310

김갑곤, 영산정사 총무, 356-0181, 017-559-5494

김광순, 청도농협 조합장, 352-9245, 016-835-2354
김명환, 상남면장, 354-0301
김상현, 농협밀양시지부 차장대우, 355-3140/7
김억기, 청도면 면장, 352-9301, 017-545-8249
도재호, 삼랑진 읍장, 353-9001/3, 011-9327-8646
박두규, 삼랑진 시의원, 355-4038, 011-878-6393
박영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 과장, 359-5400, 016-560-0628
박위규, 무안농협 상무, 352-0004/6, 011-833-3390
박윤곤, 상동농협 조합장, 352-6522/5, 011-838-1253
박충범, 영남시험장 연구관, 350-1232, 016-531-8445
백태중,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 359-5022, 017-581-9933
사득룡, 영남시험장 전작과장, 350-1210, 011-9527-1290
손영기, 산내면 시의원, 352-6000, 011-835-6111
예상원, 청도면 시의원, 353-4567, 011-591-6850
오윤석, 산동농협(산외+단장, 산외소재)조합장, 353-5855, 011-875-1626
유재철, 농협밀양시지부 차장, 355-3140/7, 011-9315-6650
이두배, 단장면 면장, 356-1313, 011-831-1189
이정곤, 밀양시농정과장 359-5370, 011-9511-3761
이종기, 밀양시청 농정계장, 359-5371
장종수, 밀양시 산림조합 조합장, 353-9986
정홍광, 버섯재배, 356-1919
조희윤, 무안농협 조합장, 352-0004, 019-583-0132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 355-2308, 017-362-8823
하진현, 무안면 면장, 352-0301, 011-599-1091

부록

1.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개발수요조사

2. 외국의 농업·농촌개발 우수사례 현지조사

3. 읍면동별 개발 수요 조사 및 최종보고회 결과

4. 품목별 소비지 평가 결과



1.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개발수요조사

□ 개발수요조사 개요

- 조사대상: 각 읍·면장, 시의원, 농협장, 농업경영인회장, 마을리장
- 장 소: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
- 설명회 및 조사기간: 2003. 5. 26~29
- 조사내용: 일반현황, 농업생산 및 유통현황,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 농촌생활환경현황 등
- 설명회 및 개발수요조사결과
 - 읍·면별 농업·농촌지도자 의견 수렴
 - 개발수요조사 완료

□ 개발수요조사 설문지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밀양시의 요청으로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농촌의 발전 잠재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밀양시의 발전 잠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목표와 실천 계획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밀양시 농업·농촌을 선도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문에 빠짐없이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문 후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연구팀에 가급적 빨리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며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연락처 : 연구책임자 유승우 02-3299-4350 sewryu@krei.re.kr

연구 간사 박경철 02-3299-4237 kcpark@krei.re.kr

<팩스> 02-960-016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소 :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 응답자 지역 : 밀양시 _____ 읍/면/동 _____ 리 _____ 부락

♣ 성명 : _____ 전화번호: 055- _____ , (휴대전화: _____)

♣ 읍·면, 단체 또는 마을에서 직책: ____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일반 현황

1.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의 주 소득원은 무슨 작목입니까? ()
2. 귀하 마을의 소득수준은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 ① 다른 마을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다른 마을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 ③ 다른 마을과 비슷하다. ④ 다른 마을보다 약간 낮다.
 - ⑤ 다른 마을보다 매우 낮다.
3. 귀하 마을의 최근 3년동안 농가인구는 어떻습니까?()
 - ①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증가하고 있다.
 - ② 농가인구는 감소하지만 비농가인구는 증가한다.
 - ③ 농가인구는 증가지만 비농가인구는 감소한다.
 - ④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감소한다.
 - ⑤ 별다른 변화 없는 상태이다.
 - ⑥ 기타 ()
4. 밀양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고르시오.(), ()

① 농촌관광 육성(민박, 체험농장, 농장직판 등)	② 소득작목 개발
③ 친환경농업 육성	④ 농산물 차별화 시책(브랜드화 등)
⑤ 생산기반정비(경지, 용수개발 등)	⑥ 공판장 등 산지시장 건설
⑦ 농산물직거래 확대	⑧ 농민 기술교육 확대
⑨ 유통, 가공시설 확충	⑩ 생활복지시설 확충
⑪ 수출농업 육성	⑫ 공동출하 확대
⑬ 기타 ()	

II. 농업생산 및 유통 현황

5. 귀하가 사시는 마을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품목을 3-4개 들어보시오.

보기: 쌀, 사과, 대추, 잣잎, 풋고추, 짙리고추, 건고추, 방울토마토, 밤, 복숭아,
화훼, 인삼, 인삼, 소, 돼지, 닭, 양어, 기타 시설채소

- ① () ② () ③ () ④ ()

11. 귀하 마을에서 **향후 가장 원하는 농산물 출하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② 농협 공동출하
 ③ 대형유통업체 ④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⑤ 소비자 직판매(농장직판, 택배) ⑥ 전자상거래
 ⑦ 기타 ()
12. 농산물판매시 필요한 **시장시세 등 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구합니까? (), ()
 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보도매체 ② PC를 통한 인터넷 정보
 ③ 수집상이 제공하는 정보 ④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시장상인에 직접판매
 ⑤ 농협이나 기술센터 등에 문의 ⑥ 기타()
13. 최근 3년간 마을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품목** 두 가지만 적어주세요. (), ()
- 13-1. 기후 및 토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의 마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농산물**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13-2.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있는 농산물**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14. 귀하의 마을에서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해당 품목의 발전을 위해 현재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입니까?

품목	애로사항 또는 필요한 정책 지원

15. 귀하의 마을에 시급히 **필요한 농산물 유통 또는 가공시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고르시오.(), ()
 ① 도정시설 ② 저온저장시설 ③ 집하시설
 ④ 선별시설 ⑤ 산지유통센터 ⑥ 가공시설(품목:)
 ⑦ 기타 _____

III.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

16. 귀하의 마을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생산자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가 또는 생산자조직명	대상품목	실시년수	면적	품질인증 여부	구체적인 농사방법 내지 농법

17. 귀하의 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 관심 없다 ④ 기타_____

17-1. 있다면 어떤 품목입니까? (품목: , 방법:)

18. 귀하의 마을내에 민박농가가 있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박명	영농여부 (영농/비영농)	시설 유무		
		숙박시설규모 및 종류 (향토방, 통나무 등)	식당	농사체험 등 부대시설 이름

18-1. 민박농가의 연중활용일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_____일

19. 귀하의 마을(읍·면 포함)에서 경관이 뛰어나거나 특별히 볼거리가 있어 향후 (농촌)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상품명	
개발 가능성 정도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가능성은 있다)
바람직한 개발 방향	

20. 귀하의 마을(읍·면 포함)에서 개발 가능성이 큰 향토음식이나 민속주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향토음식 및 민속주명	
개발 가능성 정도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가능성은 있다)
바람직한 개발 방향	

21. 귀하의 마을(읍·면 포함)에서 전통과 흥미가 뛰어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축제나 이벤트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축제 또는 이벤트명	
개발 가능성 정도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가능성은 있다)
바람직한 개발 방향	

IV. 농촌생활환경 현황

22. 다음 시설물 중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시는 마을에 있는 것에 모두 ○표를 하십시오.

- ① 마을회관 () ② 노인당 ()
③ 마을 공동 주차장 () ④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
⑤ 목욕탕 () ⑥ 찜질방 혹은 건강관리실 ()
⑦ 버스정류장 () ⑧ 마을공원 ()
⑨ 체육시설 (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
⑩ 기타시설 (시설명:)

23.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고르시오. (), ()

- ①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용이 불편하다
- ② 반찬거리, 일상용품 등의 구입이 불편하다
- ③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이 불편하다
- ④ 목욕탕 이용이 불편하다
- ⑤ 찜질방 등 건강관리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 ⑥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불편하다
- ⑦ 노인들이 모여서 놀만한 곳이 없다
- ⑧ 기타()

24. 마을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고르시오.(), ()

- ① 마을진입로 포장 ② 마을 안길 재정비 ③ 상수도 개발
④ 하수처리시설 설치 ⑤ 마을공동주차장 ⑥ 목욕탕
⑦ 찜질방 설치 ⑧ 보건진료소 설치 ⑨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⑩ 마을공원 조성 ⑪ 쓰레기처리장 설치 ⑫ 마을회관, 노인당 신축 또는 개축
⑬ 기타 ()

□ 개발수요조사 항목별 전체 결과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수요조사 결과(1)

1. 응답자 직업비율

번호	항목	빈도	비율
1	이장	192	49.2
2	영농선도가*	67	17.2
3	농민/주민	102	26.2
4	시의원	6	1.6
5	농정전문가(공무원 등)	23	5.9
계		390	100.0

*영농선도가는 작목반장,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장, 부녀회장 등 농업관련 조직의 지도자를 말함.

2. 각 마을에서의 주작목 10순위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순위
1	벼	125	32.1	1
2	사과	22	5.6	4
3	대추	22	5.6	4
4	깻잎	26	6.7	3
5	풋고추	76	19.5	2
6	파리고추	18	4.6	8
7	건고추	6	1.5	9
8	딸기	30	7.7	7
9	단감/반시감	31	7.9	6
계		383	98.2	
무응답		7	1.8	
총계		390	100.0	

3. 다른 마을과 비교한 각 마을의 소득수준 상황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다른 마을보다 매우 높은 편	12	3.1	3.1
2	다른 마을보다 약간 높은 편	55	14.1	14.3
3	다른 마을과 비슷함	193	49.5	50.3
4	다른 마을보다 약간 낮음	95	24.4	24.7
5	다른 마을보다 매우 낮음	29	7.4	7.6
계		384	98.5	100.0
무응답		6	1.5	
총계		390	100.0	

4. 마을의 최근 3년동안 농가인구 상황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증가	16	4.1	4.1
2	농가인구는 감소, 비농가인구는 증가	129	33.1	33.3
3	농가인구는 증가, 비농가인구는 감소	17	4.4	4.4
4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감소	156	40.0	40.3
5	별다른 변화 없음	67	17.2	17.3
6	기타	2	.5	.5
계		387	99.2	100.0
무응답		3	.8	
총계		390	100.0	

5.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분야 두 가지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 비율	빈도	유효 비율	
1	농촌관광육성(민박, 체험농장, 농장직판 등)	58	15.1	11	2.9	18.0
2	소득작목 개발	114	29.7	27	7.2	36.9
3	친환경농업 육성	58	15.1	30	8.0	23.1
4	농산물 차별화 시책(브랜드화 등)	36	9.4	49	13.0	22.4
5	생산기반정비(경지, 용수개발 등)	17	4.4	17	4.5	8.9
6	공판장 등 산지시장 건설	13	3.4	23	6.1	9.5
7	농산물직거래 확대	56	14.6	71	18.8	33.4
8	농민기술교육 확대	4	1.0	30	8.0	9.0
9	유통, 가공시설 확충	18	4.7	40	10.6	15.3
10	생활복지시설 확충	6	1.6	48	12.7	14.3
11	수출농업 육성	3	.8	20	5.3	6.1
12	공동출하 확대	1	.3	11	2.9	3.2
계		384	100.0	377	100.0	200.0
무응답		6		13		
총계		390		390		

6. 생산액 기준으로 비중은 높은 품목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쌀	142	36.4	37.0
2	사과	24	6.2	6.3
3	대추	26	6.7	6.8
4	깻잎	41	10.5	10.7
5	풋고추	71	18.2	18.5
6	파리고추	28	7.2	7.3
7	건고추	4	1.0	1.0
8	딸기	13	3.3	3.4
9	수박	1	.3	.3
10	밤	2	.5	.5
11	복숭아	3	.8	.8
12	포도	3	.8	.8
13	배	2	.5	.5
14	단감	13	3.3	3.4
15	화훼	3	.8	.8
16	소	5	1.3	1.3
17	기타시설채소	3	.8	.8
계		384	98.5	100.0
무응답		6	1.5	
총계		390	100.0	

7. 농산물 생산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 두 가지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 비율	
1	유통문제와 가격불안정	233	61.0	24	6.3	67.3
2	전문기술 부족	23	6.0	29	7.6	13.6
3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 의 상승	33	8.6	38	9.9	18.5
4	노임상승과 노동력 부족	59	15.4	131	34.3	49.7
5	행정기관의 정책부족	10	2.6	10	2.6	5.2
6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부족	4	1.0	18	4.7	5.7
7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안감	18	4.8	103	27.0	31.8
8	농민들의 결속력 부족	1	.3	25	6.5	6.8
9	기타	1	.3	4	1.0	1.3
계		382	100.0	382	100.0	200.0
무응답		8		8		
총계		390		390		

8. 농업생산에 있어 행정 및 기술지원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농자재가격 하락	70	17.9	18.6
2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	94	24.1	24.9
3	대체작목의 개발	105	26.9	27.9
4	친환경기술의 보급	36	9.2	9.5
5	내실있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9	2.3	2.4
6	선진지 견학추진	12	3.1	3.2
7	생산단지화 추진	18	4.6	4.8
8	관배수로 관리 및 수리시설 정비	26	6.7	6.9
9	기타	7	1.8	1.9
계		377	96.7	100.0
무응답		13	3.3	
총계		390	100.0	

9. 마을에서 요망하는 생산기반정비 사업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경지정리	33	8.5	27.5
2	배수개선	40	10.3	33.3
3	농업용수 개발	22	5.6	18.3
4	간이정비 및 도로 개선	24	6.2	20.0
5	기타	1	.3	.8
계		120	30.8	100.0
무응답		270	69.2	
총계		390	100.0	

10. 마을의 생산기반 정비사업 신청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38	9.7	37.6
2	없음	63	16.2	62.4
계		101	25.9	100.0
무응답		289	74.1	
총계		390	100.0	

11. 마을의 농산물 출하방법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 출하	119	30.5	31.2
2	농협 공동출하	153	39.2	40.1
3	대형유통업체	9	2.3	2.4
4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68	17.4	17.8
5	소비자 직판매(농장직판, 택배)	19	4.9	5.0
6	전자상거래	3	.8	.8
7	기타	11	2.8	2.9
계		382	97.9	100.0
무응답		8	2.1	
총계		390	100.0	

12. 생산된 농산물 출하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점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선별, 등급이 잘 안됨	71	18.2	18.7
2	가격, 판로 등 정보가 부족	147	37.7	38.8
3	공동출하가 잘 안됨	43	11.0	11.3
4	도매시장 등 출하처가 한군데 집중됨	58	14.9	15.3
5	출하비용이 많이 듦	54	13.8	14.2
6	기타	6	1.6	1.6
계		379	97.2	100.0
무응답		11	2.8	
총계		390	100.0	

13. 향후 마을에서 가장 원하는 농산물 출하방법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93	23.8	24.3
2	농협 공동출하	120	30.8	31.4
3	대형유통업체	51	13.1	13.4
4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45	11.5	11.8
5	소비자 직판매(농장직판, 택배)	56	14.4	14.7
6	전자상거래	13	3.3	3.4
7	기타	4	1.0	1.0
계		382	97.9	100.0
무응답		8	2.1	
총계		390	100.0	

14. 농산물판매시 필요한 시장시세 등에 관한 정보 획득 방법 두 가지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1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보도매체	91	23.8	21	6.3	30.1
2	PC를 통한 인터넷 정보	68	17.8	25	7.6	25.4
3	수집상이 제공하는 정보	106	27.7	71	21.5	49.2
4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시장상인에 직접판매	56	14.7	83	25.1	39.8
5	농협이나 기술센터 등의 문의	59	15.4	121	36.6	52.0
6	기타	2	.5	10	3.0	3.5
계		382	100.0	331	100.0	200.0
무응답		8		59		
총계		390		390		

15. 최근 3년간 마을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품목 두 가지

번호	항목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합계
		빈도	유효 비율	빈도	유효 비율	
1	쌀	13	4.3	13	5.5	9.8
2	감자	3	1.0	5	2.1	3.1
3	사과	25	8.2	4	1.7	9.9
4	대추	20	6.6	16	6.7	13.3
5	깻잎	34	11.1	37	15.5	26.6
6	풋고추	85	27.9	47	19.7	47.6
7	파리고추	15	4.9	10	4.2	9.1
8	건고추	8	2.6	13	5.5	8.1
9	방울토마토	2	.7	20	8.4	9.1
10	딸기	40	13.1	9	3.8	21.9
11	수박	4	1.3	2	.8	2.1
12	오이	1	.3	2	.8	1.1
13	포도	3	1.0	3	1.3	2.3
14	배	4	1.3	1	.4	1.7
15	단감	19	6.2	23	9.7	15.9
16	화훼	5	1.6	1	.4	2.0
17	소	9	3.0	18	7.6	10.6
18	버섯	3	1.0	1	.4	1.4
19	쪽파	1	.3	1	.4	0.7
20	기타시설채소	2	.7	2	.8	1.7
21	미나리	2	.7	1	.4	1.1
22	약초	1	.3	3	1.3	1.6
23	매실	5	1.6	5	2.1	3.7
24	산나물	1	.3	1	.4	0.7
계		305	100.0	238	100.0	200.0
무응답		85		152		
총계		390		390		

16. 마을의 기후 및 토지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농산물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쌀	9	2.3	3.4
2	보리	2	.5	.8
3	감자	5	1.3	1.9
4	사과	27	6.9	10.3
5	대추	21	5.4	8.0
6	갯잎	16	4.1	6.1
7	풋고추	72	18.5	27.5
8	파리고추	16	4.1	6.1
9	건고추	7	1.8	2.7
10	방울토마토	1	.3	.4
11	딸기	25	6.4	9.5
12	수박	4	1.0	1.5
13	오이	1	.3	.4
14	밤	1	.3	.4
15	복숭아	1	.3	.4
16	포도	5	1.3	1.9
17	배	1	.3	.4
18	단감	14	3.6	5.3
19	화훼	9	2.3	3.4
20	소	6	1.5	2.3
21	쪽파	1	.3	.4
22	기타시설채소	6	1.5	2.3
23	미나리	2	.5	.8
24	차	1	.3	.4
25	약초	3	.8	1.1
26	매실	3	.8	1.1
27	산나물	2	.5	.8
28	흑염소	1	.3	.4
계		262	67.2	100.0
무응답		128	32.8	
총계		390	100.0	

17.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있다고 생각되는 농산물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쌀	6	1.5	2.8
2	보리	1	.3	.5
3	감자	1	.3	.5
4	사과	19	4.9	9.0
5	대추	11	2.8	5.2
6	깻잎	11	2.8	5.2
7	풋고추	42	10.8	19.9
8	파리고추	6	1.5	2.8
9	건고추	1	.3	.5
10	딸기	19	4.9	9.0
11	수박	2	.5	.9
12	오이	1	.3	.5
13	무	1	.3	.5
14	밤	3	.8	1.4
15	복숭아	2	.5	.9
16	포도	2	.5	.9
17	배	3	.8	1.4
18	단감	14	3.6	6.6
19	화훼	13	3.3	6.2
20	소	11	2.8	5.2
21	돼지	1	.3	.5
22	버섯	4	1.0	1.9
23	기타시설채소	12	3.1	5.7
24	미나리	2	.5	.9
25	차	2	.5	.9
26	약초	10	2.6	4.7
27	매실	4	1.0	1.9
28	자두	2	.5	.9
29	산나물	2	.5	.9
30	양란	2	.5	.9
31	흑염소	1	.3	.5
계		211	54.1	100.0
무응답		179	45.9	
총계		390	100.0	

18. 마을에 시급히 필요한 농산물 유통 또는 가공시설 두 가지

번호	항목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합계
		빈도	유효 비율	빈도	유효 비율	
1	도정시설	22	6.1	0	0	6.1
2	저온저장시설	168	46.7	28	8.8	55.5
3	집하시설	48	13.3	44	13.8	27.1
4	선별시설	61	16.9	75	23.5	40.4
5	산지유통센터	48	13.3	110	34.5	47.8
6	가공시설	9	2.5	61	19.1	21.4
7	기타	4	1.1	1	.3	1.4
계		360	100.0	319	100.0	200.0
무응답		30		71		
총계		390		390		

19. 마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생산자 조직의 대상 품목

번호	항목	빈도	유효 비율
1	쌀	12	15.8
2	보리	4	5.3
3	감자	3	3.9
4	사과	9	11.8
5	대추	1	1.3
6	갯잎	8	10.5
7	풋고추	9	11.8
8	파리고추	6	7.9
9	건고추	2	2.6
10	딸기	9	11.8
11	포도	2	2.6
12	단감	6	7.9
13	화훼	1	1.3
14	기타시설채소	1	1.3
15	미나리	1	1.3
16	매실	2	2.6
계		76	100.0
무응답		314	
총계		390	

20. 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생산자조직의 품질인증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인증있음	18	4.7	48.6
2	인증없음	18	4.7	48.6
계		37	9.5	100.0
무응답		353	90.5	
총계		390	100.0	

21. 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생산자 조직의 환경농업 실천방법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저농약	13	3.3	29.5
2	유기농업	11	2.8	25.0
3	양액재배	1	.3	2.3
4	무농약	7	1.8	15.9
5	기타	12	3.1	27.3
계		44	11.3	100.0
무응답		346	88.7	
		390	100.0	

22. 마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향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아주 많음	51	13.1	15.8
2	약간 있음	191	49.0	59.1
3	별 관심 없음	80	20.5	24.8
4	기타	1	.3	.3
계		323	82.8	100.0
무응답		67	17.2	
총계		390	100.0	

23. 환경농업 실천 의향이 있을 시 그 대상품목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쌀	30	7.7	20.7
2	사과	9	2.3	6.2
3	대추	10	2.6	6.9
4	갯잎	18	4.6	12.4
5	풋고추	18	4.6	12.4
6	파리고추	4	1.0	2.8
7	건고추	2	.5	1.4
8	방울토마토	1	.3	.7
9	딸기	14	3.6	9.7
10	수박	1	.3	.7
11	오이	1	.3	.7
12	밤	1	.3	.7
13	포도	3	.8	2.1
14	배	1	.3	.7
15	단감	20	5.1	13.8
16	화훼	1	.3	.7
17	버섯	1	.3	.7
18	기타시설채소	4	1.0	2.8
19	미나리	3	.8	2.1
20	차	1	.3	.7
21	매실	1	.3	.7
22	산나물	1	.3	.7
계		145	37.2	100.0
무응답		245	62.8	
총계		390	100.0	

24. 환경농업을 실천할 시 그 구체적인 방법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오리농법	6	1.5	6.3
2	유기농법	21	5.4	21.9
3	무농약	29	7.4	30.2
4	저농약	33	8.5	34.4
5	기타	7	1.8	7.3
계		96	24.6	100.0
무응답		294	75.4	
총계		390	100.0	

25. 마을내 민박농가의 영농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영농	4	1.0	80.0
2	비영농	1	.3	20.0
계		5	1.3	100.0
무응답		385	98.7	
총계		390	100.0	

26. 마을내 민박농가의 숙박시설 형태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황토방	2	.5	25.0
2	통나무	2	.5	25.0
3	일반건물	4	1.0	50.0
계		8	2.1	100.0
무응답		382	97.9	
총계		390	100.0	

27. 마을내 경관이 뛰어나거나 특별히 볼거리가 있어 농촌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110	28.2	82.7
2	없음	23	5.9	17.3
계		133	34.1	100.0
무응답		257	65.9	
총계		390	100.0	

28. 위의 개발 가능성 정도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매우 큼	46	11.8	41.8
2	큼	34	8.7	30.9
3	가능성은 있음	30	7.7	27.3
계		110	28.2	100.0
무응답		280	71.8	
총계		390	100.0	

29. 마을에서 개발 가능성이 큰 향토음식이나 민속주가 있는지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53	13.6	68.8
2	없음	24	6.2	31.2
계		77	19.7	100.0
무응답		313	80.3	
총계		390	100.0	

30. 위의 개발 가능성 정도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매우 큼	15	3.8	27.8
2	큼	26	6.7	48.1
3	가능성은 있음	13	3.3	24.1
계		54	13.8	100.0
무응답		336	86.2	
		390	100.0	

31. 마을에 전통과 흥미가 뛰어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축제나 이벤트가 있는지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70	18.0	73.7
2	없음	25	6.5	26.4
계		95	24.4	100.0
무응답		295	75.6	
		390	100.0	

32. 위의 개발 가능성 정도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매우 큼	26	6.7	40.6
2	큼	25	6.4	39.1
3	가능성은 있음	13	3.3	20.3
계		64	16.4	100.0
무응답		326	83.6	
		390	100.0	

33. 마을내 마을회관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348	89.2	94.1
2	없음	22	5.6	5.9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총계		390	100.0	

34. 노인당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245	62.8	66.2
2	없음	125	32.1	33.8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390	100.0	

35. 마을 공동 주차장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91	23.3	24.6
2	없음	279	71.6	75.4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총계		390	100.0	

36.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46	11.8	12.4
2	없음	324	83.1	87.6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총계		390	100.0	

37. 목욕탕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39	10.0	10.6
2	없음	330	84.6	89.4
계		369	94.6	100.0
무응답		21	5.4	
총계		390	100.0	

38. 찜질방 혹은 건강관리실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43	11.0	11.6
2	없음	327	83.8	88.4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총계		390	100.0	

39. 마을내 버스정류장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127	32.6	34.3
2	없음	243	62.3	65.7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총계		390	100.0	

40. 마을공원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00	있음	38	9.7	10.3
2.00	없음	332	85.2	89.7
계		370	94.9	100.0
무응답		20	5.1	
총계		390	100.0	

41. 체육시설(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존재 여부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있음	43	11.0	11.7
2	없음	326	83.6	88.3
계		369	94.6	100.0
무응답		21	5.4	
총계		390	100.0	

42.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1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용이 불편	168	46.3	24	6.9	53.2
2	반찬거리, 일상용품 등의 구입이 불편	21	5.8	27	7.8	13.6
3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이 불편	16	4.4	37	10.6	15.0
4	목욕탕 이용이 불편	42	11.6	37	10.6	22.2
5	찜질방 등 건강관리시설 이용이 불편	48	13.2	56	16.1	29.3
6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불편	45	12.4	99	28.4	40.8
7	노인들이 모여서 놀만한 곳이 없음	23	6.3	64	18.4	24.7
8	기타	-	-	4	1.2	1.2
계		363	100.0	348	100.0	200.0
무응답		27		42		
총계		390		390		

43. 마을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사업 두 가지

번호	항목	첫번째		두번째		합계
		빈도	유효 비율	빈도	유효 비율	
1	마을진입로 포장	44	11.9	4	1.1	13.0
2	마을 안길 재정비	63	17.0	43	12.0	29.0
3	상수도 개발	58	15.7	16	4.5	20.2
4	하수처리시설 설치	40	10.8	26	7.3	18.1
5	마을공동주차장	30	8.1	23	6.4	14.5
6	목욕탕	25	6.8	29	8.1	14.9
7	찜질방 설치	23	6.2	21	5.9	12.1
8	보건진료소 설치	11	3.0	12	3.4	6.4
9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25	6.8	49	13.7	20.5
10	마을공원 조성	19	5.1	35	9.8	14.9
11	보건진료소 설치	9	2.4	55	15.4	17.8
12	마을회관, 노인당 신축 또는 개축	16	4.3	43	12.0	16.3
13	기타	7	1.9	1	.3	2.2
계		370	100.0	357	100.0	200.0
무응답		20		33		
총계		390		390		

44.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번호	항목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현상태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만 추가	203	52.1	55.8
2	기본적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되 상당한 정도의 구획정리가 필요	70	17.9	19.2
3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	37	9.5	10.2
4	현재 마을과 별도로 주택단지를 조성 하여 계획적 마을조성이 필요	50	12.8	13.7
5	기타	4	1.1	1.1
계		364	93.3	100.0
무응답		26	6.7	
총계		390	100.0	

□ 각 읍면의 항목별 조사 결과

*각읍면별 주요 항목 빈도를 분석함.

*비율은 빈도수가 작고 복잡해 생략함(간단한 비율은 직접 계산하시기 바람)

*설문답변이 두 개인 경우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로함.

(필요에 따라 두 개 합쳐 계산하기 바람)

1. 각 마을에서의 주작목

	쌀	보리	감자	사과	대추	갯잎	꽃고추	파리고추	건고추	딸기	수박	복숭아	포도	배	단감	화훼	소	기타	설문 응답 수
삼양면	11						1			12		2			5		1		32
하남읍	7		5				2			8	2				1		1	1	27
부북면	21	1					2	2	1	1			4	1					33
상동면	3					2	6			2					13	2		2	30
산외면	17			1	2	10	5		2										37
산내면	7			21			1	1											30
단장면	8				14		2	1						1					26
상남면	16					2	4		1	7					1				31
초동면	11		1				11				1				6				30
무안면	8						22										1		31
청도면	5						6	14							5				30
내일동	5				5	4	4		2								1		21
교동	6				1	5	5												17
농정 전문가						3	5												8
총수	125	1	6	22	22	26	76	18	6	30	3	2	4	2	31	2	4	3	383

2. 다른 마을과 비교한 각 마을의 소득수준 상황

	1	2	3	4	5	설문응답수
	다른 마을보다 매우 높은 편	다른 마을보다 약간 높은 편	다른 마을과 비슷함	다른 마을보다 약간 낮음	다른 마을보다 매우 낮음	
삼랑진읍		3	16	7	7	33
하남읍		3	16	7	4	30
부북면		4	13	14	1	32
상동면	1	1	13	11	3	29
산외면		5	20	10	1	36
산내면		6	19	3	2	30
단장면		5	11	7	2	25
상남면	1	6	19	3	3	32
초동면		7	16	7		30
무안면	1	7	13	9	1	31
청도면	3	4	16	5	2	30
내일동	3	2	7	7	2	21
교동	1		10	5	1	17
농정전문가	2	2	4			8
총수	12	55	193	95	29	384

3. 마을의 최근 3년동안 농가인구 상황

	1	2	3	4	5	6	설문 응답수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증가	농가인구는 감소, 비농가인구 는 증가	농가인구는 증가, 비농가인구 는 감소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모두 감소	별다른 변화 없음	기타	
삼랑진읍	2	8	2	13	8		33
하남읍	1	12		12	5		30
부북면	2	16		8	6		32
상동면	2	10	1	16		1	30
산외면	3	10	5	17	2		37
산내면	1	18		3	7	1	30
단장면		8	3	10	5		26
상남면	1	9		13	9		32
초동면		7	1	18	4		30
무안면		6	2	14	9		31
청도면	2	12	1	12	3		30
내일동	1	4	2	10	4		21
교동		6		7	4		17
농정전문가	1	3		3	1		8
총수	16	129	17	156	67	2	387

4.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분야 두 가지(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문 응답 수
	농촌관광 육성(민박, 체험농장, 농장직판 등)	소득 작목 개발	친환 경농 업 육성	농산물 차별화 시책(브 랜드화 등)	생산기 반정비 (경지, 용수개 발 등)	공판 장등 산지 시장 건설	농산 물직 거래 확대	농민 기술 교육 확대	유통, 가공 시설 확충	생활 복지 시설 확충	수출 농업 육성	공동 출하 확대	
삼랑진읍	5	12	5	5	3	1	1		1				33
하남읍	2	6	9	1	3		7		1			1	30
부북면	3	11	4	1	3	1	5		2	2			32
상동면	3	5	4	3			5		6	2	1		29
산외면	4	17	4	3	1	2	5		1				37
산내면	8	5	4	4	2	1	5	1					30
단장면	6	6	3	1	2	2	5		1				26
상남면	3	9	5	1	1		7	1	2	1			30
초동면	9	6	3	5			3		2		2		30
무안면	3	13	6	3		1	5						31
청도면	2	10	5	4	2	4	2		1				30
내일동	4	10	1	2			2	1	1				21
교동	3	2	4	1		1	4	1					16
농정 전문가	3	2	1	2						1			9
총수	58	114	58	36	17	13	56	4	18	6	3	1	384

5. 밀양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분야 두 가지(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문 응답 수
	농촌관광 육성 (민박, 체험농장, 농장직판 등)	소득 작목 개발	친환 경농 업 육성	농산물 차별화 시책(브 랜드화 등)	생산기 반정비 (경지, 용수개 발 등)	공판 장등 산지 시장 건설	농산 물직 거래 확대	농민 기술 교육 확대	유통, 가공 시설 확충	생활 복지 시설 확충	수출 농업 육성	공동 출하 확대	
삼랑진읍		3	3	2	3	6	6	1	3	5			32
하남읍		1	2	6	2	2	5	2	1	5	2	1	29
부북면	1	2	1	1	3	2	11	2	2	5		1	31
상동면	2		2	5		1	4		6	2	2	4	28
산외면		3	5	8	1	1	5	2	5	4	2		36
산내면	1	2	2	4	3	2	6	3	3	2	1	1	30
단장면	1	2	3	1		5	5	1	3	4	1		26
상남면	2	2	1	2		2	6	1	3	5	3	2	29
초동면	3	2	3	4	1	1	7		2	5	2		30
무안면		5	2	4			7	4	4	2	2		30
청도면	1	2	2	8	2		4	5	3	1	1	1	30
내일동		2	2	1	1		3	2	5	3	1	1	21
교동		1	1	1			2	6		3	2		16
농정 전문가			1	2	1	1		1		2	1		9
총수	11	27	30	49	17	23	71	30	40	48	20	11	377

6. 농산물 생산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 두 가지(1)

	1	2	3	4	5	6	7	8	9	설문 응답 수
	유통문제와 가격불안정	전문기술 부족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	노임 상승과 노동력 부족	행정 기관의 정책 부족	농협이나 농업기술 센터의 지원 부족	농산물 시장 개방으 로 인한 불안감	농민들의 결손력 부족	기 타	
삼랑진읍	13	5	3	8	2		1	1		33
하남읍	20			3	1	2	3			29
부북면	17		5	7	2	1	1			33
상동면	21		5	2	1		1			30
산외면	23	5	5	3			1			37
산내면	18	3	3	4	1	1				30
단장면	15	2		5			2		1	25
상남면	26		1	4						31
초동면	21		3	5			1			30
무안면	18		2	6	1		2			29
청도면	13	4	5	4	2		1			29
내일동	15	2		3			1			21
교동	10	2		3			2			17
농정 전문가	3		1	2			2			8
총수	233	23	33	59	10	4	18	1	1	382

7. 농산물 생산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 두 가지(2)

	1	2	3	4	5	6	7	8	9	설문 응답 수
	유통문제와 가격불안정	전문기술 부족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	노임 상승과 노동력 부족	행정 기관의 정책 부족	농협이나 농업기술 센터의 지원 부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안감	농민들의 결손력 부족	기 타	
삼랑진읍	3	4	4	11		2	6	3		33
하남읍	1	4	1	8		2	12	1		29
부북면	2	3	1	10	1	2	11	2		32
상동면	3	3	2	7	5	1	8	1		30
산외면		3	5	13	1		7	6	2	37
산내면	4	1	7	9		4	5			30
단장면	3	1	4	6		2	6	3		25
상남면	1	2	4	16			7	1		31
초동면	1	1	1	11			16			30
무안면	1	3	2	14			7	2		29
청도면	3		1	9		3	10	4		30
내일동		1	2	11	1	1	4		1	21
교동		3	3	2	2	1	4	2		17
농정 전문가	2		1	4					1	8
총수	24	29	38	131	10	18	103	25	4	382

8. 농업생산에 있어 행정 및 기술지원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1	2	3	4	5	6	7	8	9	설문 응답수
	농자재 가격 하락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추진	대체 작목의 개발	친환경 기술의 보급	내실있는 영농조합 법인 설립	선진지 견학 추진	생산 단지화 추진	관배수로 관리 및 수리시설 정비	기 타	
삼랑진읍	4	9	7	3	2	3		3		31
하남읍	5	5	8	4	1		3	2	1	29
부북면	7	4	11	4	1	1		4	1	33
상동면	3	10	11	1		2	2		1	30
산외면	5	8	15	7	1		1			37
산내면	4	7	7	2	1	1	3	4		29
단장면	6	10	2	1			1	4	1	25
상남면	9	6	10	2	1		1	1		30
초동면	7	6	8	4		1	1	1	1	29
무안면	5	6	9	4			1	4	1	30
청도면	5	9	7	1	1	3	4			30
내일동	5	8	4				1	1	1	20
교동	3	4	3	3	1	1		2		17
농정 전문가	2	2	3							7
총수	70	94	105	36	9	12	18	26	7	377

9. 마을에서 요망하는 생산기반정비 사업

	1	2	3	4	5	설문응답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 개발	간이정비 및 도로 개선	기타	
삼랑진읍	5	4	1	1		11
하남읍		4	3	1		8
부북면	2	4	4	4		14
상동면	2	5	1	2		10
산외면	2	3	2	1		8
산내면	8	3	2			13
단장면	3	3	2			8
상남면	1		1	1		3
초동면	3	1	2	5		11
무안면	1	6	2	4		13
청도면	3	4	2	3		12
내일동	2	2	1			5
교동	1			1		2
농정 전문가		1			1	2
총수	33	40	23	23	1	120

10. 마을의 농산물 출하방법

	1	2	3	4	5	6	7	설문 응답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농협 공동 출하	대형유 통업체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소비자 직판매(농장 직판, 택배)	전자상 거래	기타	
삼랑진읍	6	8	3	14		1		32
하남읍	11	10		4	1		4	30
부북면	5	15		10	1		2	33
상동면	7	14	2	5	1			29
산외면	30	4	2		1			37
산내면	2	9		10	8	1		30
단장면	7	7	1	8	2		1	26
상남면	18	8		3	1			30
초동면	10	14		3	1		2	30
무안면	6	22					2	30
청도면	6	23		1				30
내일동	7	4	1	6	1	1		20
교동	3	10		2	2			17
농정 전문가	1	5		2				8
총수	119	153	9	68	19	3	11	382

11. 생산된 농산물 출하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점

	1	2	3	4	5	6	설문 응답수
	선별, 등급이 잘 안됨	가격, 판로 등 정보가 부족	공동출하가 잘 안됨	도매시장 등 출하처가 한군데 집중됨	출하비용이 많이 듦	기타	
삼랑진읍	4	15	6	3	3		31
하남읍	9	12	1	5	3		30
부북면	3	10	6	4	10		33
상동면	4	9	1	5	8		27
산외면	4	17	3	4	9		37
산내면	10	8	5	5	2		30
단장면	3	13	4	2	2	1	25
상남면	3	10	3	8	6		30
초동면	6	12		8	3	1	30
무안면	12	10	2	4	1	1	30
청도면	6	13	5	4	2		30
내일동	2	10	2	2	3	2	21
교동	2	6	3	5	1		17
농정 전문가	3	2	2		1		8
총수	71	147	43	59	54	5	379

12. 향후 마을에서 가장 원하는 농산물 출하방법

	1	2	3	4	5	6	7	설문 응답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출하	농협 공동 출하	대형유 통업체	농가가 직접 도매시장 등에 출하	소비자 직판매(농장 직판, 택배)	전자상 거래	기타	
삼랑진읍	7	10	6	4	4			31
하남읍	10	7	6	2	4	1		30
부북면	9	13	5	2	3	1		33
상동면	6	15	3	4		1		29
산외면	11	3	3	10	8	1	1	37
산내면	9	7	4	1	6	1	2	30
단장면	5	6	2	3	7	2		25
상남면	10	7	2	5	6			30
초동면	6	11	4	3	4	2		30
무안면	8	10	6	3	1	3		31
청도면	4	20	3		3			30
내일동	3		5	6	5	1	1	21
교동	4	7		1	5			17
농정 전문가	1	4	2	1				8
총수	93	120	51	45	56	13	4	382

13. 마을의 기후 및 토지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농산물

	쌀	감자	사과	대추	갯잎	꽃고추	파리고추	건고추	딸기	수박	밤	복숭아	포도	배	단감	화훼	소	돼지	옥수수	기타시설채소	미나리	약초	매실	산나물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1				1	6		1	2			2	1		1				1						16
하남읍	1	4				1		1	5	6							1	1		1					21
부북면	1		1	1	3	3	2	2					2	1			1								17
상동면	2			5		6			1						2		1								17
산외면	3				10	6		1	3		1						1							1	26
산내면			3	2		3	2	1	1						1		1			1		2	1		18
단장면				6	6	3	1	2			1						1								20
상남면		1			3	3		5	2						2									1	17
초동면						3			1	3					8		3				1		2		21
무안면				1	2		1								4		4								12
청도면	5					4	4								5		4					1			23
내일동					3	3			2								1						1		10
교동					7	4			3																14
농정전문가				1	2	2										1									6
총수	13	5	4	16	37	47	10	13	20	9	2	2	3	1	23	1	18	1	1	2	1	3	5	1	238

14. 환경농업을 실천할 시 그 구체적인 방법

	1	2	3	4	5	설문 응답자수
	오리농법	유기농법	무농약	저농약	기타	
하남읍	1	1				2
부북면	1	1	9	1		12
상동면		2	2			4
산외면		3	7	12	1	23
산내면			2	5	1	8
단장면		2	1	1	2	6
상남면			1	1	1	3
초동면		9	3	8		20
무안면	4	1		1	1	7
청도면		1	1	1	1	4
내일동			1	1		2
교동			1	1		2
농정전문가		1	1	1		3
총수	6	21	29	33	7	96

15. 마을내 경관이 뛰어나거나 특별히 볼거리가 있어 농촌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7	26	33
하남읍	7	23	30
부북면	5	28	33
상동면	7	23	30
산외면	22	15	37
산내면	13	17	30
단장면	7	19	26
상남면	2	31	33
초동면	14	16	30
무안면	11	20	31
청도면	6	24	30
내일동	3	18	21
교동	1	16	17
농정전문가	5	4	9
총수	110	280	390

16. 마을에서 개발 가능성이 큰 향토음식이나 민속주가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총수
삼랑진읍	4	29	33
하남읍	5	25	30
부북면	1	32	33
상동면	4	26	30
산외면	12	25	37
산내면	4	26	30
단장면	2	24	26
상남면	2	31	33
초동면	3	27	30
무안면	7	24	31
청도면	4	26	30
내일동		21	21
교동	1	16	17
농정전문가	4	5	9
총수	53	337	390

17. 마을에 전통과 흥미가 뛰어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축제나 이벤트가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4	29	33
하남읍	5	25	30
부북면	3	30	33
상동면		30	30
산외면	1	36	37
산내면	14	16	30
단장면	3	23	26
상남면	3	30	33
초동면	16	14	30
무안면	14	17	31
청도면	1	29	30
내일동	1	20	21
교동	1	16	17
농정전문가	4	5	9
총수	70	320	390

18. 마을내 마을회관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28	2	30
하남읍	28	2	30
부북면	27	3	30
상동면	25	3	28
산외면	36		36
산내면	28		28
단장면	22	2	24
상남면	31		31
초동면	28	1	29
무안면	28	1	29
청도면	30		30
내일동	17	4	21
교동	13	3	16
농정전문가	7	1	8
총수	348	22	370

19. 노인당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17	13	30
하남읍	23	7	30
부북면	24	6	30
상동면	15	13	28
산외면	11	25	36
산내면	11	17	28
단장면	15	9	24
상남면	26	5	31
초동면	18	11	29
무안면	22	7	29
청도면	30		30
내일동	13	8	21
교동	14	2	16
농정전문가	6	2	8
총수	245	125	370

20. 마을 공동 주차장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11	19	30
하남읍	8	22	30
부북면	5	25	30
상동면	5	23	28
산외면	3	33	36
산내면	3	25	28
단장면	2	22	24
상남면	10	21	31
초동면	8	21	29
무안면	13	16	29
청도면	11	19	30
내일동	10	11	21
교동		16	16
농정전문가	2	6	8
총수	91	279	370

21.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2	28	30
하남읍	4	26	30
부북면		30	30
상동면	1	27	28
산외면	2	34	36
산내면	5	23	28
단장면	8	16	24
상남면	2	29	31
초동면	6	23	29
무안면	8	21	29
청도면	4	26	30
내일동	2	19	21
교동		16	16
농정전문가	2	6	8
총수	46	324	370

22. 목욕탕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2	28	30
하남읍	7	23	30
부북면		30	30
상동면	3	25	28
산외면		36	36
산내면		28	28
단장면	1	23	24
상남면	3	28	31
초동면		29	29
무안면	6	23	29
청도면		30	30
내일동	5	16	21
교동	9	6	15
농정전문가	3	5	8
총수	39	330	369

23. 찜질방 혹은 건강관리실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5	25	30
하남읍	4	26	30
부북면	4	26	30
상동면	3	25	28
산외면		36	36
산내면	1	27	28
단장면	1	23	24
상남면	4	27	31
초동면	2	27	29
무안면	4	25	29
청도면	5	25	30
내일동	2	19	21
교동	6	10	16
농정전문가	2	6	8
총수	43	327	370

24. 마을내 버스정류장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8	22	30
하남읍	11	19	30
부북면	11	19	30
상동면	9	19	28
산외면	9	27	36
산내면	6	22	28
단장면	14	10	24
상남면	12	19	31
초동면	6	23	29
무안면	14	15	29
청도면	7	23	30
내일동	10	11	21
교동	4	12	16
농정전문가	6	2	8
총수	127	243	370

25. 마을공원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7	23	30
하남읍	5	25	30
부북면	2	28	30
상동면		28	28
산외면	1	35	36
산내면	2	26	28
단장면	1	23	24
상남면	4	27	31
초동면		29	29
무안면	7	22	29
청도면	1	29	30
내일동	4	17	21
교동	2	14	16
농정전문가	2	6	8
총수	38	332	370

26. 체육시설(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설문응답수
삼랑진읍	5	25	30
하남읍	4	25	29
부북면	3	27	30
상동면	2	26	28
산외면	2	34	36
산내면		28	28
단장면	2	22	24
상남면	4	27	31
초동면		29	29
무안면	5	24	29
청도면	3	27	30
내일동	4	17	21
교동	6	10	16
농정전문가	3	5	8
총수	43	326	369

27.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1)

	1	2	3	4	5	6	7	설문 응답수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용이 불편	반찬거리, 일상용품 등의 구입이 불편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이 불편	목욕탕 이용이 불편	찜질방 등 건강관리시 설 이용이 불편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불편	노인들이 모여서 놀만한 곳이 없음	
삼랑진읍	9	5	1	3	6	3	3	30
하남읍	10		1	2	4	4	2	23
부북면	12			3	8	6	3	32
상동면	13	1	6	2	4	2	1	29
산외면	17	1	4	3	4	4	3	36
산내면	16		1	8	1	2	1	29
단장면	10	1	1	5	4	4		25
상남면	16	1	1	6		6	1	31
초동면	15	3		5	3	4		30
무안면	12	2		3	6	3	2	28
청도면	15	4	1	2	2	4	2	30
내일동	13	1			2	2	1	19
교동	9	1			1	1	1	13
농정 전문가	1	1			3		3	8
총수	168	21	16	42	48	45	23	363

28.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2)

	1 병의원 등 의료시 설이용 이 불편	2 반찬거리, 일상용품 등의 구입이 불편	3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이 불편	4 목욕탕 이용이 불편	5 찜질방 등 건강 관리시설 이용이 불편	6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불편	7 노인들이 모여서 놀만한 곳이 없음	8 기타	설문 응답수
삼랑진읍	1	1	3	2	9	7	5	1	29
하남읍	2		2	1	3	9	5		22
부북면	3	4	1	4	10	2	7		31
상동면	3	1	9	6	2	3	5		29
산외면	3	7	9	4	2	5	5		35
산내면	4	1	2	6	5	9	2		29
단장면	2	1	1	3	2	5	7	2	23
상남면	2	3	1	3	8	7	6		30
초동면	1	3	2	1	7	9	7		30
무안면	1	1	1	1	7	8	5	1	25
청도면	2	1	1	3		20	3		30
내일동		1	1	1		12	2		17
교동		3	4	1		1	2		11
농정 전문가				1	1	2	3		7
총수	24	27	37	37	56	99	64	4	348

29. 마을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사업 두 가지(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설문응답수
	마을 진입 로 포장	마을 안길 재정 비	상수 도 개발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마을 공동 주차 장	목 욕 탕	점 질 방 설 치	보건 진료 소 설치	소규모 운동 시설 설치	마을 공원 조성	보건 진료 소 설치	마을 회관, 노인당 신축 또는 개축	기 타	
삼랑진읍	5	12	1	4	2	1	2		2			1		30
하남읍	6	4	3	4	1	1	4	1		1		2	1	28
부북면	3	8	2	3	3	3	4		2		2	1		31
상동면	6	4	1	2	6	5	1			1		2		28
산외면	3	2	4	10	2	1	2	1	6	5				36
산내면	2	6	5	4	3	4					1	3	2	30
단장면	5	3	4	1	3	2	2	2		1			2	25
상남면	1	3	9		3	2	1	2	4	2	1	3		31
초동면	2	2	10		2	2			6	3	2			29
무안면	2	7	11		1	1	2	2	1		1	2	1	31
청도면	6	6	4	4	1	1	2	3	1	2				30
내일동	1	3	3	5			1			3	2	2	1	21
교동	2	2			3	2	1		3					13
농정 전문가		1	1	3			1			1				7
총수	44	63	58	40	30	25	23	11	25	19	9	16	7	370

30. 마을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사업 두 가지(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설문 응답 수
	마을 진입 로 포장	마을 안길 재정 비	상수 도 개발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마을 공동 주차 장	목 욕 탕	점 질 방 설 치	보건 진료 소 설치	소규모 운동 시설 설치	마을 공원 조성	보건 진료 소 설치	마을회관, 노인당 신축 또는 개축	기 타	
삼랑진읍		4	1	3	7	1		1	4	2	2	5		30
하남읍		2		1	2	2	3	2	2	1	7	2		24
부북면		3	1		3	1	4	4	7	2	4	3		32
상동면		2	2	3		8	3	2	2	1	4	1		28
산외면		1	3	2	2	4	1		8	8	4	3		36
산내면	1	4	2	5	2	1	1		3	2	3	3		27
단장면	1	4			1	4	2		4	2	2	4		24
상남면	1	4	3	1	1	5	3	1	1	5	5	1		31
초동면		2	2		1		1	1	10	2	4	6		29
무안면	1	7	1	4	2	1	1			1	3	7		28
청도면		5	1	2		1	1		4	7	5	3		29
내일동		2		3	1				1		9	3	1	20
교동		2		1		1	1	1	2	2	2			12
농정 전문가		1		1	1				1		1	2		7
총수	4	43	16	26	23	29	21	12	49	35	55	43	1	357

31.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1	2	3	4	5	설문 응답수
	현상태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 각종 생활편익 시설만 추가	기본적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되 상당한 정도의 구획정리가 필요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	현재 마을과 별도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계획적 마을조성이 필요	기 타	
삼랑진읍	8	7	7	5		27
하남읍	18	2	3	4	1	28
부북면	15	4	4	8	1	32
상동면	13	9	2	2		26
산외면	20	6		10	1	37
산내면	19	6		2	1	28
단장면	16	7	2	1		26
상남면	17	3	2	5		27
초동면	17	6	4	2		29
무안면	22	5	2			29
청도면	10	7	10	3		30
내일동	15	4		2		21
교동	10	3	1	3		17
농정 전문가	3	1		3		7
총수	203	70	37	50	4	364

2. 외국의 농업·농촌개발 우수사례 현지조사(일본)

Ⅰ 前原市(마에바루시)농업공원 『팜 랜드 伊都國(이토구니)』

1) 설치 목적

- 마에바루시 농업은 도시근교 산지로써 새로운 농업의 전개를 꾀하고 있음.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이 좋은 파트너로써 더불어 손을 맞잡고 발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내 각지에 있어서 농산물의 직매장(朝市, 夕市), 임대농원, 감귤오너園 등의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마에바루시 농업공원 『팜 랜드 伊都國(이토구니)』는 인접한 伊都歴史資料館이나 伊都民俗資料館이 일체로 되어 마에바루시가 가진 역사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참여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거점시설로써 설치되었음.

2) 시설개요: 총 면적: 8,000m²

가) 니기와이 館 : 면적 585m² 팜파크 이토구니의 중심시설

- ① 교류실: 수용인원 72명, 사용료 1,000엔/1일

교류회나 연수회, 강좌 등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

- ② 연수실 : 수용인원 36명, 사용료 1,000엔/1일

다다미 10조짜리 2개가 있고, 연수회나 좌담회 등으로 이용 가능

- ③ 조리실 : 농산가공품의 연수나 개발, 향토요리의 제공 등에 이용

- ④ 직매소 : 마에바루시의 농산물을 전시, 직매함

- ⑤ 옥내광장 : 평일에는 휴식장소, 일요일에는 교류시장이 개최되고 있음.

- ⑥ 관리실 : 시설의 관리운영과 더불어 이용신청 등의 접수를 담당

나) 돈카치(쇠망치) 館: 239m²(목공예실, 연수실)

- ① 목공예실 : 간벌재료를 이용해 목공품의 제작이나 개발, 체험강좌 등의 재료 등을 만들고 있음.

- ② 연수실 : 수용인원 16명, 사용료 210엔/일·인(재료비 별도).

목공체험이 가능한 시설. 매주토요일은 前原市林業研究院
클럽의 지도로 오리지널 목공품 등을 만들 수 있음.

- 다) 유리온실: 225m² - 꽃 가득운동을 위해 꽃의 육묘를 하고 있음.
- 라) 와이와이(들썩들썩) 광장: 축제나 교류 이벤트 광장으로 이용
- 마) 후루사토(고향) 농원: 제철의 꽃이나 진귀한 채소 등을 심어 방문장의
눈을 즐겁게 해줌
- 바) 작은 도자기가마: 토기·도예강좌의 작품을 燒成시킴.
- 사) 竪穴式住居흔적: 고대 이토구니의 역사로망을 느낄 수 있도록 복원했음.
- 아) 東屋, 자전거 거치장, 연락교

3) 사업개요

- 가) 총 사업비 : 약 4억7천만엔
- 나) 니기wai 館(농림어업체험실습관) : 농업농촌활성화구조개선사업 連
絡橋 (連絡道)
- 다) 돈카치 館 (DIY 시설) : 임업산촌활성화임업구조개선사업
- 라) 기타(공원, 온실 등) : 지역종합정비사업債

4) 운영 주체: 관리운영은 마에바루시 농정과

다만 직매소, 돈카치관은 농업자, 임업자의 조직에 대여함.

5) 운영체제

市職員(농정과) 1명, 촉탁직원 3명

6) 휴관일, 개관시간

휴관일 : 매주 월요일(국경일의 경우는 다음날)

개관 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예외 규정 오전8시~오후10시)

7) 하루 이용자수

평일 : 평일 300명, 주말: 약 1,000명

8) 돈카치관

市는 前原市林業研究클럽에 돈카치관을 대여하고 있음

가) 운영주체

前原市林業研究클럽(농림업자 12명) 체험지도자 2명

나) 활동내용

평일은 목공예실에서 간벌재료 등을 이용한 목공품의 제작이나 개발,

체험강좌용의 재료 등을 만들고 있음. 또한 이벤트 때나 토요일에는 연수실에서 목공체험을 하고 있음.

9) 伊都임대농원

가) 운영주체: 伊都임대농원실행조합(농업자 3戶)

나) 규모

제1농원 : 5,000m² 130구획 (1구획30m²)

제2농원 : 5,000m² 112구획 (1구획30m²)

제3농원 : 3,000m² 97구획 (1구획30m²)

합계 13,000m² 339구획

다) 연간 행사

3월, 8월 : 채소재배강습회

8월 하순 : 계약회

10월 하순 : 家庭菜園 공쿨대회

라) 기간 및 요금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계약료 7,000엔/년

마) 특징

계약자의 대부분은 후쿠오카 시민

<계약서>

伊都임대농원이용계약서

(목적)

제1조 : 이 계약서는 伊都貸農園實行組合(이하 갑)이 개설한 임대농원에 있어서 임대계약자(이하 을)가 수행하는 경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대상농지)

제2조 :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농지(이하 대상농지)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福岡縣 前原市大字高祖743番地 구획번호 ()

(농작업의 실시)

제3조 : 을은 대상농지에서 수행하는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을은 농작업 실시에 관해 갑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대상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고 수확물은 을에 귀속된다.

(요금의 지불)

제4조 : 을은 요금 7,000엔(1구획)을 계약시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계약기간)

제5조 :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다음 해 8월31일까지 한다.

(계약의 해제)

제6조 : 을이 계약해제를 신청 할 경우 또는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요금의 불환불)

제7조 :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을이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경작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갑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갑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금지사항)

제8조 :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한 일정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준수사항)

제9조 : 을은 伊都貸農園의 사용에 있어서 본 계약서 이면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기타)

제10조 : 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준수사항

伊都貸農園의 계약자는 다음의 것을 준수해야만 한다.

1. 계약자는 인접도로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2. 계약자는 대상농지를 인접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도로에 농기구나 자재 등을 놓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계약자는 대상농지를 반환 할 때는 작물, 풀, 자재 등을 처분 또는 철거해야 한다.

② 前原 一番田舎(이치방덴샤)

1) 이치방덴샤 발차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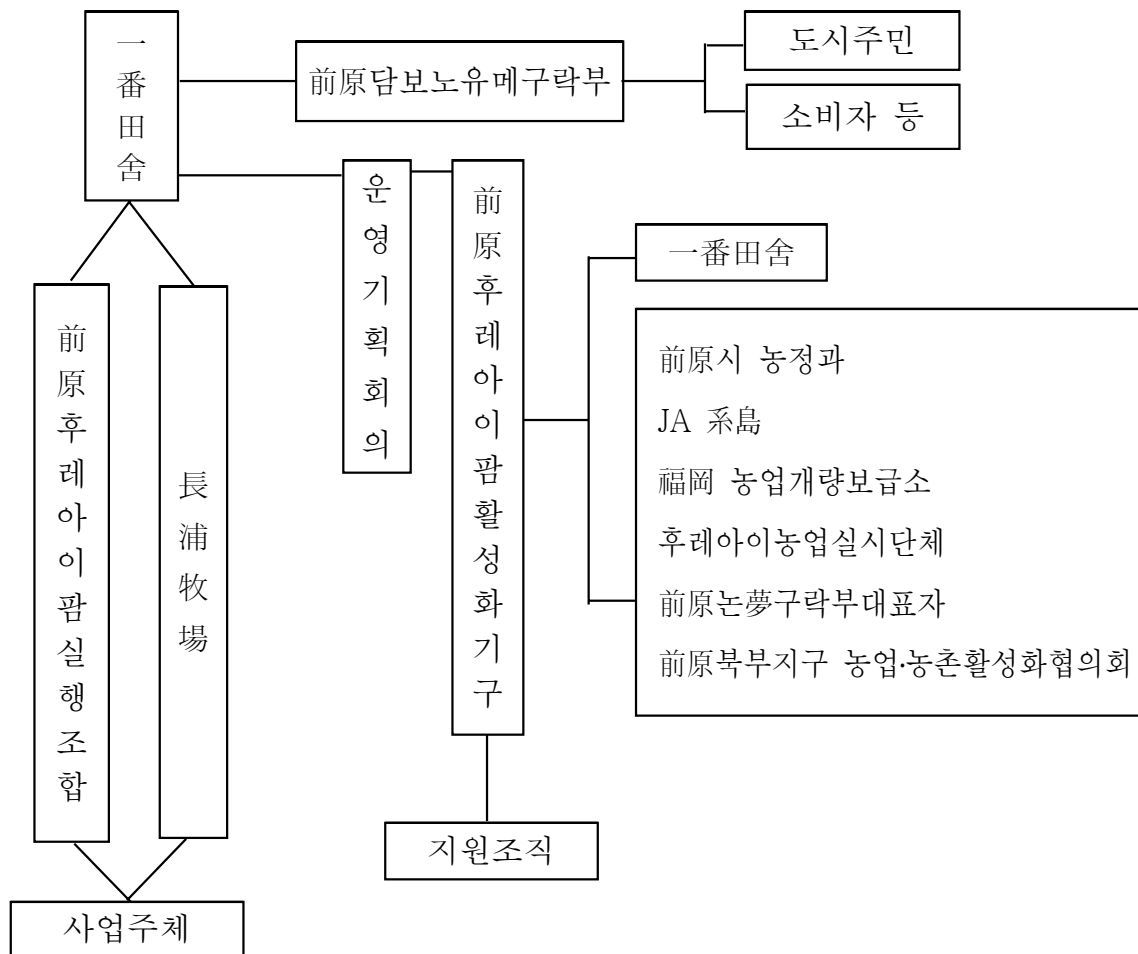
- 우리들 농업·농촌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녹음이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당신에게 건강의 한 가운데에 심신의 리후레쉬의 장, 또는 糸島 신선농축산물을 보내드리기 위해 一番田舎(이치방덴샤)를 건설하고 반짝이는 땀을 흘리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도모해 갈 것을 선언함.

<표 부록-1> 一番田舎(이치방덴샤) 개요

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시설은 후레아이 팜(농장)과 糸島농축산물직매소로 구성되어 있고, 명칭을 一番田舎(이치방덴샤)라고 한다.

	후레아이 팜	糸島농축산물직매소
사업주체	前原 후레아이팜실행조합	長浦牧場
캐치플레이스	후레아이팜에서 건강의 재발견	자연이 키운 여러 가지의 맛 糸島농축산물을 당신의 식탁에
목적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하기 위해 후레아이 팜을 설치하고 농업체험이나 토지나 자연과 친숙해 짐에 의해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역할 등의 이해와 계몽을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농가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심벌 시설로 함.	오늘날 농업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의 불투명이나 소비자요망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糸島농축산물직매소를 설치하여 특정한 농산물·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함.
시설정비내용	시민농원, 체험농원, 교류연수실, 후레아이광장, 홀라원농장, 편의 시설	직매소, 식재가공실, 관리실
사업명칭	후쿠오카현 후레아이팜 만들기사업	농림어업금융 公庫자금사업
사업비	총사업비 : 42,082,809엔 현 보조금 : 20,719,000엔 융자금 : 16,509,000엔 자기자금 4,719,809엔	총사업비 : 약 70,000,000엔 융자금 : 55,000,000엔 자기자금 : 15,000,000엔
기타	임대농원, 농업체험, 교류연수실 등의 이용모집	농산물 출하자 632명

<그림 부록> 一番田舎(이치방덴사) 조직체계도



③ 후루사토 체험관 「노조미(희망)」의 시스템에 대해서

◆ 소재지 : 福岡縣 前原市大字 瑞梅寺 668番地

◆ 사업명 : 물과 녹음의 교류 팜 사업

◆ 사업주체 : 노조미 會

◆ 사업목적 ;

1. 농가 여성의 전통적인 농산가공기술을 살려서 특징있는 농산가공품을 생산 판매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2. 농산물의 수확, 가공체험에 의해 도시-농촌교류를 추진함.
3. 소비자에게 농업, 농촌의 역할과 다면적 기능을 이해시키는 장소로 함.

◆ 설치 시설

1. 농산가공실
2. 교류연수실
3. 직판 코너
4. 수확체험농장

◆ 설치 경과

당 지구는 중산간 지역으로 입지조건으로부터 과소화가 진행되었고 지역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직접 판매활동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함.

1. 井原山감농약쌀연구회
모내기, 논 풀뽑기, 수확제로 소비자에게 농작업을 체험시켜서 농업에 대해 이해를 구함. 30戶가 계약함.
2. 井原山교류시장
매월 제1, 3 일요일에 개최. 사계절마다 산의 먹거리, 무농약·감농약 채소가 중심. 내방객수 평균 300명/일
이처럼 활동의 중심이 된 생활개선그룹 「노조미會」가 더욱더 여성이 갖는 생활기술 활동을 하고자 「후루사토(고향)체험관」을 발족했음.

★ 후루사토체험관 「노조미」

회장 : 井上야스코 회원 : 10명

1. 개최일 : 제2, 4 일요일 10:00~13:00 수확, 가공 체험
- 수확, 가공 체험은 매회 바뀜.
2. 체험료 : 300엔
3. 연락처 : 「노조미」 (092) 323-8390

④ 前原市大字瑞梅寺지구 『노조미會』의 발자취

- 1987년 · 생활개선그룹 『노조미會』의 발족(2명)
 - 죽세공그룹 발족
- 1988년 · 『노조미會』 4명이 됨
 - 井原山감농약쌀연구회 발족
 - 마에바루마치유기농법연구회에 소속
- 1989년 · 감농약 쌀연구회
 - 특별재배쌀 제도연구에 돌입
 - 소비자와의 교류회 실시(년 2회)
 - 『노조미會』- 직매소 건설을 검토
 - 죽세공그룹
 - 長糸地区죽세공 동우회와 교류
- 1990년 · 교류 市場 실행위원회 발족
 - 교류 市場 4월 개장
 - 『노조미會』 15명이 됨
 - 도비우메 国体에서 특산품 판매
- 1991년 · 교류 市場 1주년
 - 『노조미會』 16명이 됨
- 1992년 · 감농약쌀연구회에서 오리농법 手稻同時作에 도전
- 1993년 · 농업체험시설의 검토
- 1996년 · 수확, 가공체험관 『노조미』 개관

Ⅴ 오이타현(大分縣)의 一村一品

1) 일촌일품운동

- 일촌일품운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단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촌일품』임.

2) 전국브랜드로 육성된 일촌일품

- 일촌일품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 동안 많은 일촌일품이 전국브랜드로 육성됨.
 - 1980년: 특산품의 판매액은 143품목으로 359억엔,
이 중 10억엔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린 특산품은 4품목
 - 1998년: 특산품의 판매액은 312품목으로 1,363억엔,
이 중 10억엔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린 특산품은 18품목

3) 지역을 활성화시킨 행사·문화활동

- 특산품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의 얼굴이 되는 관광과 행사, 문화활동 등을 만들어 갈고 닦고, 그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통용하는 『물건』으로 키워내는 것도 일촌일품임.

일촌일품의 3원칙

● 지방적이면서 세계적

지역의 문화와 향기를 지니면서 전국, 세계에 통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 자주자립·창의고안

무엇을 일촌일품으로 정해 육성해 나갈 것인가는 지역주민이 결정한다. 한 마을에 3가지 품목이 있는가 하면, 두 마을에 한 가지 품목인 경우도 있다. 행정은 기술지원이나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지원한다.

● 인재육성

일촌일품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재육성이다.
선견성 있는 지역리더가 없으면 일촌일품운동은 성공하지 못한다.
어떠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창조력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6〕 가야부키²⁾ 민가보전의 지역가꾸기 효과(우키하町)

1) 2000년 전국 다락 논 서미트개최로 발전한 주민발전형 마을가꾸기

- 평성 7년(1995년)은 (재)21세기 마을 가꾸기 모임(현 (재)도시농어촌교류활성화기구)이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모델 육성지역을 선택한 이래, 큐슈에서 유일하게 선발된 곳이 우키하정임. 그 이후, 마을을 대상으로 그린 투어리즘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자원의 조사와 활성화 방향성을 연구·실천하여 옴.

2) 가야부키 민가보전에 의한 구체적인 지역진흥의 효과

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가꾸기와 『주민의 자신과 보람의 재생』

- 다락 논 관람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야부키 민가보전에 있어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여 이벤트 발생이나 소규모 사업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됨.

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류인구의 증대

- 가야부키 민가보전에 의해 개성적인 경관이 지켜지고, 여기에 사는 주민이 생동력있는 삶(산촌의 나무, 대나무를 이용한 예전부터의 공예품 제조나 자연의 초야를 이용한 목초 염색 등)의 정보를 발신함에 의해 경관 감상과 동시에 지적 체험형 지향의 만족이 교류인구 증대에 기여함.

다. 『지역주민 발안형』의 역사적 건조물 재이용과 개성적인 문화의 창출

- 가야부키 민가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행정, 지역내외의 주민, 도시주민도 그 귀중한 가치를 재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가야부키 민가의 재이용(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존성이 높아짐)을 추진하고, 역사적 건조물을 보존하고 있음.

2) 갈대로 엮어 이음새를 한 일본식 지붕

7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마을 사례

1) 후쿠오카현 우키하마을

가. 우키하의 위치 및 개요



우키하의 개요

인구 6,976명
세대수 4,842세대
89.26km²

나. 우키하 마을의 모심기와 꽃무릇(彼岸花 : 상사화) 축제의 사례

- 꽃무릇 축제는 1996년부터 이어져와 제 9회째를 맞이한 교류이벤트임.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친절함. 초가을이 되면 다락논의 논둑을 빨강게 물들이는 꽃무릇과 황금색 벼와의 절묘한 조화로 아름다운 일본의 풍경을 즐김.

2003년 꽃무릇축제의 홍보

일 자: 9월 19일(금) ~23일(화·휴일)

장 소: 신가와 지구의 다락논

안 내 소: 댐상류 「카와세미 광장」



우키하의 다락논



모심기

	치쿠고가와 온천 —온천과 사람의 연결 치쿠고가와 온천은 1955년 개장이래로 40년이 지났음. 현재 여관이 8채로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각 여관이 각각 다른 형태임.
	이치노세이 도자기 도예와 사람의 연결 풍신수길의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온 한국도공이 시작한 것이 『이치노세이 도자기』임. 현재의 도예는, 1949년에 마을유지의 도움으로 현재 5채의 도자기 가마가 있음.
	과일관광 과일과 사람의 연결 『포도따기』를 비롯해 딸기, 복숭아, 배, 감, 포도로 5월초순부터 11월사이에 실시함.
	사계절의 집 나가이와 교류시설과 사람의 연결 『사계절의 집 (しきのもり) 나가이와』는 후쿠오카현 삼림욕의 나가이와공원에 있는 산촌교류시설임. 이곳에서는 향토요리나 체험공방, 산속온천, 기암괴석을 보는 산책길이 있음.
	휴게소 『우키하』 현대 식생활과 사람의 연결 우키하는 마을의 니시모리농원에 있는 『전통 형태의 민가만들기』를 주제로 한 목조건축으로 우키하 마을의 정보역으로서 관광협회나 생산관, 식사처, 가정요리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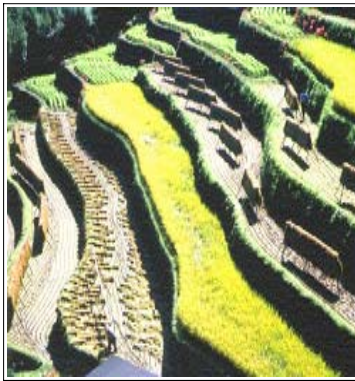
2) 호시노마을

가. 호시노마을의 위치와 2003년 벼베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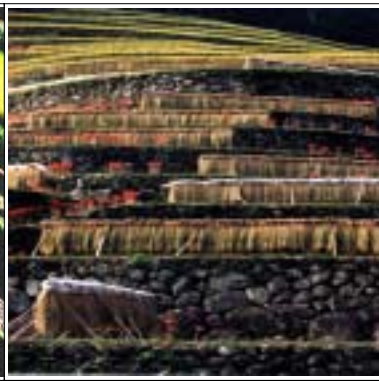


일 자: 2003년9월 12일 우천시 결행
 집합장소: 호시노마을 초등학교
 참 가 비: 어른 (중학생이상) 1,000엔 어린이 500엔
 당일의 일정
 9 : 3 0 ~ 접수
 1 0 : 0 0 개회식 (일정설명)
 1 0 : 1 0 다락논으로 이동, 벼베기 시작
 1 1 : 4 5 벼베기 완료
 1 2 : 0 0 점심 (다락논 쌀로 점심식사)

- 호시노무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돌로 쌓은 다락논의 보전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봄의 다락논



가을의 다락논



겨울의 다락논

돌로 쌓은 다락논—전통농업방식과 사람의 연결

호시노 마을을 대표하는 경관의 하나로 다락논이 있음. 다락논이 보여주는 풍경은 사계절을 통해 참으로 아름다움. 다락논은 긴 시간을 통해 산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것으로 호시노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산촌특유의 농업방식임.

또한 용수의 확보를 위해 산속의 물을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바위를 흙담으로 쌓아 이를 모아 산에 논을 만들어 용수로 만든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곳임.



별문화관 — 별과 사람의 연결

큐슈지역 최대규모인 구경65cm의 망원경을 갖춘 별문화관. 최신식 컴퓨터 제어 시스템으로 보고 싶은 별을 망원경이 잡아줌.

맑은 날은 낮에도 강한 빛을 내는 베카를 볼 수 있고 가을에는 토성, 겨울이면 오리온 대성운 등을 보며 우주의 신비스러움에 마음을 빼앗김. 병설시설로는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음.



차문화관 — 지역산차와 사람의 연결

호시노마을의 차는 풍부한 자연의 은혜를 입고 자라 맛과 향이 전국에서 유명함. 차문화관에서는 이러한 호시노의 옥로(이슬)로 재배한 차를 맛볼 수 있음.

여유있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차의 역사나 종류, 제조과정이나 호시노의 다기, 다기전시코너, 직접 차를 따는 체험코너가 있음.



호시노 도예전시관 — 전통문화와 사람의 연결

호시노 도예전시관은 호시노씨가 에도의 도공을 부르면서 시작되었음.

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차도예로 시작하여 18세기에 구루메의 아리우마씨가 생산하였음. 다기류가 많은 것이 특징임.



호시노온천 — 『연못산장』별의 온천장 『키라라』

현대인의 생활문화와 사람의 연결

산과 어울어진 조용한 호시노무라에 어울리는 온천임. 일체의 피로를 씻어주는 건강온천임.

3. 읍면동별 개발 수요 조사 및 최종보고회 결과

3.1. 읍면동별 개발수요 조사 결과

□ 조사일자

- 2003년 5월 26일~9일(3박4일)
- 읍·면별 설명회 및 현지조사 지역

일자	팀별	오전(10:00~12:30)	오후(14:00~18:30)
5. 26(월)	A팀	산외면	산내면
	B팀	청도면	무안면
5. 27(화)	A팀	상동면	단장면
	B팀	하남읍	초동면
5. 28(수)	A팀	부북면	상남면
	B팀	삼랑진읍	농협밀양시지부

※ A팀: 유승우, 박경철

B팀: 김수석, 김병률, 송미령

※ 참석대상자: 읍·면장, 시의원, 농협장, 농업경영인회장, 마을리장

□ 조사 내용

① 산외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 의원, 산동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장단(19명, 여1)

■ 토론회 내용

○ 시의원

- 발전계획연구 밀양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밀양고례대추 상동농협에서 제일 먼저 시작, 대추 연구 필요

- 밀양갯잎, 풋고추 물류센터 아닌 유통센터 설립 필요
- 소류지를 더 건설해 갈수기에 대비
- 산외지역에는 차와 관련한 지명이 여럿(다차리, 다촌)있고 현재 차나무 조성중. 소득작물로 도입 추진 중
- 산동지역인 단장, 상동이 단일한 계획을 세워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강구

○ 농협조합장

- 산외와 단장농협을 산동농협으로 통합
- 밀양갯잎 가락시장에서 80% 점유
- 관광과 연계해서 계획 수립 ← 청정하천, 자원자원 풍부
- 생산기술은 농민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판매 유통이 관건. 생산과 소비의 가격차가 3~4배. 밀양농협의 무안 청도공판장은 규모가 작음. 좀더 대형화된 판매시설 필요. 밀양농산물직판 전문매장 건립 필요
- 민박, 주말농장 활성화 필요
- 시설작물 연작피해 많아 객토사업 필요.
→ 금곡지역은 시 요청으로 15ha 객토사업(시와 농협이 지원)
- 관광농업이 실패한 이유는 개인지원과 시설거대화 때문 → 그래서 마을 단위 지원과 지도자리더십 중요
- 산외면 지역 개발이 거의 묶여 있고 법적 규제 심함 → 규제완화 절실함
- 현재 대형유통시장에서 선별 안하면 반입이 안됨 → 밀양도 고속도로 근처 운송이 편한 곳에 대형공판장 설립 필요
- 산동농협 매출순: 대추 > 갯잎 > 풋고추

○ 농업경영인 회장

- 갯잎 고추 가공공장 필요
- 산동농협은 RPC공장과 대추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음. 대추가공공장은 이전 150~200만 캔 생산에서 지금은 2~30만 캔 생산
- 산동농협 대추원료는 국산이지만 대기업 위탁시는 외국산. 현재 판매의 어려움. 대추가공은 2~3년 전 적자를 많이 봤으나 지금은 약간 흑자
- 건대추 15kg 한상자 가격이 8~9만원 이상이면 수입함
- 단감 배는 과잉생산
- 최근 3년 매실을 많이 심어 이후 과잉 예상

- 쌀값이 하락하면 다른 작목을 많이 심어 가격이 동반 하락 → 딱히 대안이 없음

○ 농어민후계자 대표

- 깻잎, 풋고추 가공 및 브랜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필요 → 일본 벤치마킹 필요
- 고레담(밀양담) 담수로 하천 고갈. 소류지 건설로 저수지 및 유원지 개발

② 산내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 의원, 산내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장단(21명, 여1)

■ 토론회 내용

○ 면장

- 얼음골사과의 장기적 비전 제시 필요
- 농장 및 마을관광의 어려움
- 외부인 유입시 토지가만 상승하여 이후 계속적인 유입 어려움
- 건물 허가나도 인구유입 불투명
- 다른 품목은 대부분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얼음골사과는 이전보다 가격이 10% 상승했는데도 잘 팔림 ← 대구 경남에서 이미지가 잘 알려졌기 때문
- 구정 때 수요조사 해보니 다 팔림. 현재까지 판매의 문제는 거의 없음
- 현 전체 면적은 570ha이며 매해 10% 증가. 작년 한해 27ha 증가
- 현재 사과나무 베고 버나 채소하는 사람 없음. 산내면 일대 얼음골사과는 다 괜찮은 편임(밀병현상) → 면내에서 품질이 다르다고 하면 안됨
- 수령 10년산이 맛 좋음
- 4개 작목회 통합 요망. 가격차 별로 없음
- 가격추진위원회에서 작년 단감가격을 1/3로 줄임. 사과는 10% 인상
- 얼음골사과축제를 위해 박스당 50원을 기금으로 적금
- 얼음골사과로 연간 1억원 소득농가가 35가구 됨. 1.5~2천명이면 5000만원 소득
- 현재는 대체작목, 산촌마을, 관광마을사업을 할 겨를이 없고 얼음골사과를 지키는 일이 중요

○ 시의원

- 산내면과 울산을 잇는 도로 건설을 계기로 외부인 유입정책 필요. 환경 조성으로 주거단지 조성 가능성 많음
- 청송얼음골사과와 마찰 우려됨
- 면내 사과품질은 다 비슷하다고 면주민들은 인정. 얼음골사과 논쟁은 무의미. 기술차가 없음
- 밀양얼음골사과는 생산자가 가격 결정
- 산내면 안쪽은 시배지 언급하겠지만 생산량 한계
- 얼음골사과가 벼의 6배 소득 올림
- 농약해 심각

○ 농업경영인 회장

- 얼음골에 케이블카 건설 추진 중 포기. 농촌관광의 어려움 많음
- 얼음골사과는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음. 베드타운화 되어서는 안됨
- 표충사, 얼음골, 호박소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에 무조건 도로만 건설해 자연을 파괴하면 안됨. 규모있고 체계적인 관광개발 필요. 인근 다른 지역은 음식점 등 특화된 지역이 많으나 산내면은 그렇지 않음. 용적률 제한으로 2층 건물도 짓기 힘들
- 발전계획이 정말 필요한가? → 전에는 통계자료만 분석했지만(주로 농진공) 지금은 필요함(면장)
- 재원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 발전계획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임
- 상표등록할 때 산내산 사과 전체를 밀양얼음골사과로 표시함. 9-10월 기온차로 종자주위로 영양성분 밀집 → 밀병 현상

○ 농협조합장

- 중국 산동성 사과 수입으로 얼음골사과 수명은 5년 예상 → 도로개통 후 신선채소(상후, 곰취, 취나물 등등)쪽으로 나가는 게 타당
- 현재 사과는 브랜드화, 포장문제, 디자인 통일 노력 중. 현재 6개 작목반이 디자인을 통일 시켰지만 여전히 문제 있음. 사과 판매는 주로 개인유통망이나 도로에서 이루어짐
- 작년 판매액 180억원 중 농협을 통한 판매는 5억 정도밖에 안됨 → 농협을 통한 판매 대책 강구
- 작년과 같은 판매방식이 진행된다면 무주산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

③ 상동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 의원, 산동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장단(18명), 시 농정과장

■ 토론회 내용

○ 면장

- 원래 청도반시 유명. 신곡, 매화리가 반시 많이 재배. 그러나 반시는 유통이 잘 안되지만 말린 것은 만3천원/kg로 없어서 못팔
- 감 가공공장, 저장창고, 선별장 필요
- 상동면사무소 앞 몇 만평 → 체육시설, 골프장, 경마연습장으로 개발 예정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상동-얼음골간 도로개통으로 전원주택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필요
- 농산물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지규제 심각 → 농지규제 완화 적극 요청

○ 시의원

- 밀양은 상대적으로 농지가 많은데 규제가 심함. 예를 들면, 새로 이전하는 밀양대학 앞 농지규제 심해 지역 개발 저해
- 현재 밀양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돼도 인구유입은 회의 → 20, 30대 정착 시 정책자금 지원 방안 강구해야 함.

○ 조합장

- 상동은 반시와 단감 중간지역임
- 농업회생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
- 뽕은감 출하 시 저장시설 필요. 청도는 감 말랭이사업을 하는데 상자 당 2만5천원
- 고추는 이전 연간 7-80억 소득을 올렸으나 지금은 30억 정도 → 점점 깻잎과 딸기로 전환
- 고추 상품은 개별출하로 일반시장에 나가면 손해
- 농기계 사용은 고작 1개월 정도인데 고급승용차보다 가격이 더 비쌈

○ 이장의견

- 감 홍수출하 대비를 위해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필요
- 쌀값 10년 전이나 별반 차이 없음 → 이중곡가제 필요
- 유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음. 농가부채탕감이 제일 시급함
- 농기계센터에서는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함

<현지 견학>

- 안인리에 체육공원 조성계획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지원은 미비
- 가곡리 중성들을 화훼단지로 조성할 계획. 현재 이곳에서는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안개꽃 등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음
- 상농영농조합법인은 부도. 풋고추 시배지

4 단장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산동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장단(19명), 시 농정과장

■ 토론회 내용

○ 이장 의견

- 토지관리 위해 생력효소제 필요. 특히 수출작물 토양개량 필요. 파리고추는 대부분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데 산지직판장이 있기를 희망
-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데 규모가 적어 예냉시설 지원이 안됨
- 전에 시설원예작물 재배하다가 지금은 벼를 심었는데 직불제 지원 안됨
- 대추재배시 대추농약 지정 없음. 농약상이 다른 농약을 강권해 손해를 봄
- 단장이 대추는 전국에서 원조격인데 체계적인 유통체계가 없음. 유통과 브랜드화 연구 요망. 단장대추 경산대추보다 품질 앞섬
- 상인이 가격 결정해 손해를 봄
- 대추작목반 구성 필요
- 판매장 건설 추진하고 있음(조합장)
- 농가소득이 다른 부분으로 많이 빠져나감.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유통개선으로 믿을 수 있는 상품생산. 대추는 반드시 브랜드화 해야함

- 축산허가로 땅값 하락 → 다른 농민 피해 있음
- 다른 지역 송아지 경매제 실시 → 밀양도 송아지 경매로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내에서는 사과나무 밑에 산나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고 있음. 단장도 대추나무 아래 산나물을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 ← 단장 면에는 載藥山이 있는데 전에는 산나물이 많이 나 밀양시에서 버스로와 산나물을 채취해감
- 하황산은 갈대 때문에 산나물 생장이 어려움
- 파리고추 발전가능성 많음 ← 환경농업기술교육도 받음

<현장 견학>

- 대추 수확하기가 가장 어려움
- 표충사 봄, 가을 관광객 많음. 사자평 억새поля를 체류형관광으로 전환 필요
- 표고버섯재배 증가 추세
- 구천리 산촌개발 중

⑤ 부북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의원, 부북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장단(22명), 시 농정과장

■ 토론회 내용

○ 이장 의견

- 전사포 : 포도,배 재배시 영구적인 비닐하우스시설(보조)
- 동 암 : 우기시 침수농지 - 신흥~마암산까지 배수로시설 및 배수장건립요망
- 후사포 : 소규모 저장시설 지원(배, 포도 등), 배봉지,박스 보조, 배, 포도 엑기스 제조시설 설치 지원
- 제 대 : 목골마을 중앙도로(1080호선) 확장 건의, 목골소류지 낚시로 인해 쓰레기발생, 유료낚시터 건의
- 신흥 : 딸기, 고추, 수도작(복합영농) - 예냉시설 건립지원(수확~수송) 감내장 뒤 상감마을쪽 제방공사로 도로가 많이 굽어 직선도로요망

- 상 감 : 농로 협소 확장 및 용제과수원길 개설, 중감배수문 - 배수장설치 건의
- 오 례 : 오례 앞 경지정리 지역내 암거설치, 오례소류지~용제고개 소하천 제방농로보수
- 덕 곡 : 못안마을 안길협소 - 소하천복개요망
- 가 산 : 가산저수지 물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계산교 밑 보와도로포장
- 청 운 : 마을입구 청운가든 앞 교통사고 방지사설 요망
- 대항1 : 농약 환경오염 심각 - 액비제조, 자연퇴비생산시설 건의
- 대항2 : 임도개설로 표고버섯재배 단지조성
- 퇴 로 : 가산지 주변 농로확장 및 개설 - 관광지조성과 농산물 현지판매장 설치
- 위 양 : 진씨골 포장공사 노후 재포장, 소류지 누수현상(크랑우팅) 요망, 진씨골소류지 폐지요망
- 무 연 : 대방골 소류지 보수
- 춘 기 : 매년 까치로 인하여 피해가 많음 - 배(과수)재배지 영구적인 그물망 설치지원
- 화 산 : 소류지 및 용수로 보수 - 500M
- 용 포 : 대추 건조장설치, 소류지보수, 관정설치 요망
- 지 동 : 한국화이바 뒤 소하천 보수
- 대 전 : 마을주변 농지 도시계획구역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완화
- 신 전 : 하우스사용 면세유 가격인하로 농가소득증대, 풋고추조림가공공장설치

○ 시의원

- 농지에 대한 제한행위가 많음, 농림지역의 보호차원문제, 특히 마을부근
- 농업정책을 농민이 믿을 수 없음 - 앞으로 개선요망
- 농산물수출, 유통 문제 등 개선

○ 농협장

-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선별장 설치필요(20호정도)

⑥ 상남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의원, 부북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이장단(22명), 시 농정과장

■ 토론회 내용

○ 면장

- 상남면은 밀양시인구의 10.3%와 가장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음
- 신 국도25호선에서 마을쪽으로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하고 국도에서 들쪽으로는 농지로 보전
- 상남면 외산지역에는 감자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감자가공공장 설치건의
-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므로 산물수매(벼, 보리) 확대 건의

○ 이장 의견

- 평리리장: 종남산 아래는 청정지역이므로 무공해 봄미나리를 확대재배할 수 있도록 지하수(용수) 개발 건의
- 남산리장: 무공해 봄미나리 재배권장(조장) ⇒ 지원사업 건의
- 조서리장: 조서마을은 겨울철 딸기재배가 주 작목임.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막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용수개발 건의
- 조동리장: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막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용수개발 건의
- 오산리장: 마을내 도로가 비포장이므로 마을내 도로 포장건의
- 외산리장: 국산 딸기품종개발 보급확대, 국산품종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바람
- 세천리장: 고추재배 등 농산물생산에 사용되는 난방용연료에 대해 면세유 공급확대
- 동산리장: 상남면내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건의
- 인산리장: 당곡마을에 식수개발 건의
- 무량원리장: 무량원저수지에 토사가 적치되어 담수유역이 적으므로 정비하여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마을입구의 수문 정비건의
- 대흥리장: 고추, 수박 등 농산물의 가격등락이 너무 심하여 농민이 작목선택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농업관측을 통한 농작물 품목별재배 통제 등 건의

- **평촌3리장:** 대구획정리 후 용수관리에 문제, 농기계창고 등 건립지원건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건의
 - **평촌2리장:** 논농업직불제 제외 필지 재조사 지원건의
 - **평촌1리장:** 평촌마을내 도로경사가 심한 곳 완화조치(3곳)
 - **내금리장:** 상남면에는 보리가 농업소득의 중요부문이므로 수매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보리수매 확대 건의(금년부터 계약물량만 수매 시 농가소득은 계속 감소전망 : 정부의 계약물량 매년 20~30% 감소방침) 북성수로 주변에 양수장설치 건의(승수로 물로 인한 침수예방)
 - **이연리장:** 국도 25호선에서 마을쪽에 진흥지역 해제 건의(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 광역상수 관로가 없다,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물을 먹기를 원함. 소규모(10,000m²이하)라도 공장건립이 가능하도록 건의
 - **기산리장:** 지력증진사업 비료공급에 문제가 있음. 한 가지 비료만 공급 바람. 딸기의 신선도유지를 위해 예냉시설 확대설치 건의
 - **고노실리장:** 중국산 한약제 수입으로 맥문동재배농가의 피해 큼. 묘종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니 홍보하여 묘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건의
 - **대성리장:** 농산물의 생산수급에 문제가 많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건의. 농산물값의 상승에 비해 농가재값의 상승률이 높아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적자가 남
 - **동촌리장:** 농촌에는 희망이 없음.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업 선정 지원
 - **당촌리장:** 당촌입구 신호등 설치건의
 - **양림간리장:** 농촌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 농업으로 인부를 사역할 수 없는 실정임
 - **예림2리장:** 농외소득 증대방안개발 보급
 - **예림1리장:** 도시내 농촌마을로 농외소득 증대방안 개발 보급
- **시의원**
- 상남들 중 보전해야할 농지외에는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국토 계획변경건의
 - 농업인의 부채감면 대책

- 농사용 승수로 및 배수로 증설
- 농약빈병, 비닐수거체계 확충
- 농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조치(하천변의 우량한 토양 성토)
- 기계를 이용한 수박재배 확대보급(무안면 마홀리 수박재배용 농기계 개발보급 등)
- 수박, 참외의 수분을 쉽게 구입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포장개선 자기상품개발 등에 투자(자기상품 브랜드화)

7 청도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의원, 청도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전리장

■ 토론회 내용

○ 면장

- 반시감은 일년에 5~6번 약을 침. 따라서 노약자는 반시감 관리를 포기하는 실정. 면 여건은 인구가 적고, 해발이 높고, 건천임. 오지지역이나 수리시설은 좋음. 청정지역으로 하우스 재배가 적음. 특화작목으로는 반시감, 파리고추, 청양고추, 축산일부

○ 시의원

- 젊은층 사람이 없음. 청도면은 과수, 하우스, 축산만이 살길. 가구당 소득은 타지역보다 적지 않음. 경남도내 진주시에서는 파리재배 신기술을 도입 → 우리도 노동집약 탈피하여 신기술을 도입해야 함
- 임야가 많은데 임야를 개발토록 해야 함
- 농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지방자치에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함.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유통분야 등에 보조사업을 해야 함. 융자사업은 농가부채만 증가시킴

○ 농협장

- 가축을 1~2마리 사육농가는 거의 없음. 한우 축산농가 10호 정도가 20내지 30두씩 사육하고 있음 → 축산브랜드화 필요
- 퇴비공장 비료를 농가가 사용하면 토양과 농사를 망치므로 농가에서 퇴비를 만들어 쓰는 게 나음

- 축산브랜드가 가장 어려움. 반시는 브랜드화하여 규격출하를 하고 있음 (밀양청도반시)
- 파리, 청양고추는 연 110억 정도 출하. 농산물은 생산원가가 많이 듦. 파리고추 1개 품목만 마트 등에 납품하려면 코드 얻기가 어려움

○ 이장 의견

- 반시감 → 꽃감 생산으로 고가품생산, 꽃감 깎는 기계 구입지원
- 요고 저수지 뒤에 가시오가피나무 집단단지 조성 지원
 - 묘목대 : 주당 1,500원 정도
 - 장기적으로 가시오가피나무 가공식품 개발

⑧ 무안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의원, 무안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전리장

■ 토론회 내용

○ 농협장

- 83년부터 청양고추 재배 시작(20년). 단감 120농가, 150ha, 한우, 돼지, 양계, 축산농가 일부
- 청양고추는 650농가에 200ha에 7,000톤 생산하여(전국 500ha정도) 연간 315억 정도 수입. 청양고추가 농가소득의 30~40% 차지
- 단감농가 3년째 소득이 없음
- 저온저장고 시설은 무안면에는 더 확충 할 필요 없음. 영농법인 1개, 개인 2개 있는데 다 활용 못함
- 삼태에 있는 공동선별장이 작음. 현재 이용농가는 35호 정도이고 청양고추 15%정도 선별. 젊은 선별인력이 없어 어려움. 1~2개 공동선별장을 대형으로 건립 지원 희망

○ 전 시의원

- 파리고추 재배는 인력이 많이 듦. 청양고추를 품질개선하고, 유통관리 개선해야 함. 청양고추의 대체작목은 현재로서 없음. 청양고추 재배비용 중 기름값이 많이 듦. 면세유값 인하 및 공급량을 늘려야 함

- 사명대사 생가지, 불교박물관, 땀나는비 등과 연계하여 관광농업을 육성해야 함. 불교박물관 부근에 계곡 등 물이 없음. 인공적 계곡 또는 소류지(호수) 개발 필요
- 무안면은 농업기반공사와 시에서 관리하는 물리지역이 반반임. 무안면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물리 구역내 농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포장됨. 농로 포장 시 농로폭은 5M인데 포장은 3M만으로도 가능. 설계시 농기계가 원만히 교행토록 농로폭 확대 희망

○ 이장 의견

- 서가정: 관광농업,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개발
- 정곡리장: 관정, 지하수 개발

9 하남읍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읍장, 시의원, 하남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전리장

■ 토론회 내용

○ 의견

- 농작물 계약재배 가격을 예시하여 농민이 믿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바람
- 옛 농지개발조합과 농업기반공사가 통합되고 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 정비를 농지개량조합 때보다 소홀히 함. 민원 제기하면 예산 타령만 함
- 농업기반공사 물리구역내에는 농로포장이 상대적으로 적음
- 단감 재배농가 창고 건립지원 요망
- 농업 행정 전반적으로 행정이 농민을 못 따라옴
- 추곡수매 : 상인들이 가격을 단합함(수매를 다 안받아 주는줄 알고). 시에서 벼 물량을 확보 상인과 협상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 요망

10 초동면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면장, 시의원, 농협지소장, 농업경영인 회장, 전리장

■ 토론회 내용

○ 시의원

- 와지에서 전사포 도로 개설되어 통학생이 300명 정도 됨. 면 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도움 됨
- 단감 수지타산 안 맞아 단감가공산업 또는 대체작목개발 고려. 단감 작은 것 정부에서 수매 폐기처분 건의. 단감 폐원처리 보상금 지급 - 지급 방법은 면적에 따라 초동저수지 및 낙동강변에 하천법 때문에 규제가 심하여 축사 건축 어려움 → 환경도 좋지만 농민의 불편사항 이해해 줬으면 함.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500M이내도 허가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어 불편 많음. 기존농가 구제 방법 건의

○ 경영인회장

- 곡강교 확장, 새교량 건설 건의

○ 이장 의견

- 신호저수지에 낚시하러 많이 옴. 저수지 제방포장 필요(낚시객용 차량이용)
- 성북도로 침수 : 길이 500M 1M정도 숭상
- 지방도 무안에서 인교방면으로 오는 길 도로표지판에 초동면 이정표가 한 군데도 없음
- 종남산 아랫마을 와지저수지에서 밀양쪽 임도포장. 와지저수지 - 유로낚시터 또는 가두리양식장
- 우리지역 풋고추 축제에 외지인이 많이 옴. 250농가에 65ha년간 110억 정도 수입 올림. 홈페이지 개설 및 서울지역 홍보 지원
- 기반정리, 농로포장: 기반공사관리구역/자치단체관리구역 중 기반공사관리구역은 매우 취약, 읍면의 넓은 농지면적 지역이 취약
- 생활용수관 매립 및 포장 시도하였으나 폐용수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밀양시가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은 부당
- 신호저수지 관광개발계획: 웨딩파크, 주말농장 등, 그러나 토지는 기반공사 소유여서 농업진흥지역-거리제한(국토법) 등으로 유야무야된 상태
- 폐교활용 미리벌 민속박물관: 7-8년 전부터 개인이 교육청에서 임대하여 운영 중
- 변계량비석: 이조 초기 대제학까지 지낸 학자, 도지정 문화재, 1946년 경 지정리시 발견

- 덕산 관광마을, 아랑골 장수촌 관광농원
- 와지부락과 밀양 도심 연결 도로 개설: 685m 종남산을 넘으면 밀양역전까지 임도 8km, 마을 가운데를 통하면 더욱 단축 가능
- 곡강교 위험, 정비 필요
- 금산-반월초등학교 간 농로 포장
- 무안부터 초동까지의 도로표지판에 초동 지명은 없고 민속박물관 명칭만 있음.
- 각종 토지이용규제
 - 도지정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개발규제
 - 하천변 토지이용규제
 - 농업진흥지역 과다 지정, 기준 불명확
- 직접지불제 정비: 밀, 보리 하천부지에도 보상 필요, 약 6천평 정도

11 삼랑진읍 설명회 및 토론회

■ 참석자

읍장, 시의원, 농협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전리장

○ 삼랑진읍 개요

- 밀양시 제1읍이며 인구 2만 명 이상에서 현재는 약 1만 명으로 감소
- 철도교통의 발달지로 낙동역, 삼랑진역, 미전역 있음
- 농지면적 작고, 홍수 시 침수피해 등 농업환경 좋지 않음
- 부산, 양산, 김해 등으로부터 관광객 상당수가 찾고 있음
 - 삼랑진 8경, 벚꽃축제, 딸기축제(딸기시배지)
- 잠재력 있는 지역으로 우곡리 염동은 계단식 논을 형성하고 있으며 질 좋은 pumping water를 보유하여 청정미나리 재배지역으로 적합. 또 주변에 만원사까지 2차선 임도구간이 1km이여지고 있어 관광여건도 좋음.
- 행곡리 안촌-안테리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역시 계단식 논을 형성하고 있으며 벚꽃놀이 축제도 개최하는 등 상당히 관광지향적 지역임. 도 지정 민박마을도 있으며 가관대 정비수요가 높음
- 특히 내수면 어업하는 어촌계가 있는 것이 특이 함
- 작원관, 낙동나루터 주변 장어구이

■ 토론회 내용

- 임천리: 1958년 경지정리사업 시작, 90ha, 350m 좁은 농로, 용배수로 부족
- 검세리와 송원리: 물 부족, 상습수해지구, 시설하우스 20여 호는 배수로, 농로, 지하수개발 불량
- 안촌리
 - 산촌마을로 농림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에 응모하였으나 탈락한 바 있음.
 - 양수발전소로 인해 개발되기 이전에는 오지
 - 현재 75호 거주하는데,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 등 외지로부터의 개발수요가 항상 있음.
 - 제3회 벚꽃, 딸기 축제도 개최
- 금곡리: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창출

※ 밀양지역 농민 공통여론※

- '92년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10년이 지났으므로 현재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 작업요망 → 농림부 건의
 벼는 심지 못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농지를 너무 묶어서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도시자금이 농촌에 유치가 안 된다는 여론이며, 농민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여론임
- 농어민 지원 시 융자 사업은 농가부채만 가중시킴
 기존 사업 또는 신규 사업 시 정부보조사업을 알리는 정책건의

□ 주민 공청회 모습



그림 1 단장면 설명회



그림 2 부북면 설명회



그림 3 상동면 설명회



그림 4 상남면 설명회

3.2. 최종보고회 결과

①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2004. 2. 6(금) 14:00 ~ 16:30

□ 장 소: 밀양시청 소회의실

□ 참석인원: 약 60명

□ 참 석 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승우, 김수석, 김병률, 송미령, 박경철(5명)
- 시 청: 시장,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산물 유통과장,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7명),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13명)
- 의 회: 손지현, 박희덕, 석용백, 예상원, 손영기 의원
- 학 계: 송병구, 류호경(밀양대)
- 농 협: 농협밀양시지부장, 산동농협장, 삼랑진농협장
- 축 협: 축협조합장
- 농업기반: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장
- 임 협: 밀양시산림조합장
- 농업관련단체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4-H 회장, 여성농업경영인회장, 농촌지도자회장
- 농정심의회위원: 12명
- 작목반장: 고추(3명), 딸기(2명), 갯잎(2명), 사과(2명), 친환경(1명), 유통(4명)

② 주요 발표 내용

- ① 연구추진 경과 및 일정 소개(유승우 박사)
- ② 밀양시 농업, 농촌 발전 기본 구상(김수석 박사)
- ③ 부문별 농업, 농촌 발전계획(김수석 박사)
- ④ 농림 부문 투융자 계획 수립(김수석 박사)
- ⑤ 그린투어리즘 사업 아이템 및 투융자 규모(송미령 박사)

③ 주요 논의 사항 및 건의사항

<밀양시장>

- 단감, 딸기와인 생산가능성 검토
 - 밀양의 주 농산물인 단감과 딸기의 와인생산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함. 와인생산 가능성을 타진해 가능하다면 밀양시에서 시범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밀양 지역 전체를 와인단지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 * 딸기, 단감와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미생물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임.
 - 농산물 가공은 공동브랜드와 기능성 강화 쪽으로 추진해야 함.
 - * 예: 포도와인-심장병에 좋음.
- 얼음골사과의 명품화
 - 얼음골사과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정량, 정품, 정가를 명확히 해야 함.
- 밀양맥주 생산
 - 지역축제와 연계한 밀양 농특산물 개발차원에서 밀양맥주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람.
 - 그래서 밀양시에 단감와인촌과 맥주촌 개발도 검토하겠음.
- 부산의 경마장 개장 대비 경쟁력 있는 경주마 생산 검토
- 농업발전 기금 확보하여 저리융자 검토
- (주)밀양무역을 통해 밀양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음.
- 새로운 발상을 구상 바람
 - 밀양농업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서에 적극 제시하기를 바람.
 - * 예: 꽃감와인, 아이스단감와인
- 폐축사의 말사육장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축산이 소에서 말로 전환할 수 있길 기대함.
- 매년 사업 아이템이 좋은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음.

<신용덕 축산업협동조합장>

- 축산단지화(무안, 초동, 청도) 추진 계획에 있어 장소 선정 등에 관한 문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장종수 산림조합장>

- 임산물유통에 관해 보완 요망
 - 특히, 밀양지역의 대표 임산물인 대추를 비롯하여 최근 많이 재배되고 있는 표고버섯, 밤, 송이 등에 대해서도 유통 방안 제시 요망.

<전병순 옥산농산 대표>

- 식품위생법, 농지법, 국토법 등 식품가공과 농지 활용에 관계되는 법령과 영농조합 조합원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해 주기 바람.
- 특히, 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 많음.

<김민구 밀양무역 임원>

- 깻잎, 청양고추, 파리고추, 얼음골사과 등 산지유통조직(센터)을 만들어 활성화시켜야 함.

<김창한 삼랑진농협장>

- 상주 수련농협에서 밀양 깻잎을 30원에 매입해 100원에 수출하고 있음.
- (주)밀양무역 등을 통해 이 지역 농산물은 이 지역에서 적극 수출하기 바람.

<박수곤 밀양깻잎작목반장>

- 밀양지역 깻잎 생산농가는 700~1000호에 이름. 판매를 위해 가락동까지 갈 필요 없이 밀양에서 직접 경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바람.
- 밀양깻잎은 향기와 향료가 뛰어남. 화장품 원료 등 가공생산 적극 검토 바람.

<유병호 경성대 교수>

- 밀양은 청정지역으로 환경이 매우 좋아 본인도 몇 해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게 됨.
- 그러나 토양을 조사해 본 결과 미생물 상태가 많이 악화돼 토양을 살리는 작업을 우선 시 해야 함.

- 맥류, 단감, 딸기, 껌잎을 이용한 와인, 맥주, 화장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향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 적극 지원하겠음.

<손지현 밀양시의회 의원>

- 밀양지역 농산물의 수집과 유통, 홍보를 통괄하는 밀양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함.

<예상원 밀양시의회 의원>

- 농업에 예산투자 증가 건의
- 실제적인 농민교육 건의

<손병구 밀양대 교수>

- 밀양농업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자주 갖길 제의

<설병천 농업경영인회장>

- 후계농업인력 육성 방안 제시 요망
- 인근 지역의 사례에도 있듯 좋은 아이템이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금을 확보해 지원할 것을 건의함.
- 폐축사 활용 방안 강구, FTA이후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밀양시 농정 방향 제시 건의함.

4] 최종보고회 모습



그림 5. 최종보고회의 장면



그림 6. 최종보고회 발표(송미령 박사)

4. 품목별 소비지 평가 결과

□ 조사 개황

- 대상품목: 깻잎, 청양고추, 파리고추, 딸기, 단감, 얼음골사과, 배
- 조사내용: 품질, 가격, 브랜드파워, 선별포장상태, 종합적 경쟁력
- 조사기간: 2003. 10. 27~11. 5일
- 조사기관 및 대상: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서울청과(딸기, 단감, 얼음골사과, 배), 중앙청과(딸기), 동화청과(파리고추, 청양고추, 깻잎), 농협공판장 등 도매법인의 품목담당 이사,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1 깻잎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깻잎은 전국적으로 크게 3개 지역으로 출하처를 구분할 수 있으며 물량은 밀양, 금산, 대구지역 순으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음 ○ 품위는 계절적 즉 집중출하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동절기에는 최고의 시세를 형성하고 하절기에는 금산 최고 시세의 60%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동절기 최고 시세: 밀양산동농협 ○ 하절기 최고시세: 금산지역
	○ 시장 내 반입되는 지역 중 중하위 그룹형성. 가격은 최상위 수준의 60~70%(50% 미만도 나옴)	○ 시장 내 상위그룹 -충남 금산군 관내 -추부깻잎 -인삼골깻잎
브랜드	○ 밀양지역의 브랜드개발은 금산지역보다 다소 뒤지는 경향이 있음	
	○ 상품의 질과 수준이 개인별, 출하작목반별 차이가 많음 ○ 시장 내 모든 지역이 출하되면 브랜드에 포함되지 못함	
선별, 포장	○ 3kg포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끔 4kg포장도 출하되고 있는 상황임 ○ 밀양 지역은 거의 3kg으로 출하되고 있음 ○ 하절기에는 박스규격이 금산지역과 비교되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포장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바라깻잎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비표준규격 박스사용	○ 충남지역 바라깻잎은 8kg, 4kg 구분. 규격박스 사용
종합적 경쟁력	○ 하절기에는 금산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동절기에는 밀양지역에서 많은 양이 출하되는 관계로 전체적인 비교가 안 되지만 최고의 품질만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동절기 밀양지역에서 출하되는 깻잎의 품질은 지역별로 심한 차이가 있음 ○ 지역별로 품질의 차이가 심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밀양 깻잎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밀양지역 이외의 지역이 출하되지 않은 겨울철에는 경쟁력이 있으나 모든 지역이 출하되면 경쟁력이 떨어짐 ○ 주 출하시기인 겨울철에도 개인별, 작목반별 작업차이가 현저히 많이 남	

2 청양고추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현재 밀양지역 3개면에서 출하중이며 가격은 최상위 수준임 -1그룹: 밀양 남부 초동지소(한국, 동화, 중앙, 농협, 서울) -2그룹: 상남농협(한국, 동화, 서울) -3그룹: 무안농협(농협, 동화, 중앙, 한국)	○ 전라도 지역의 담양봉산농협과 비교할 때 품질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시즌 중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역시 품질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시장 내 5개 그룹 중 첫 번째 상위 수준 ○ 가격은 최상위의 80% 수준임 ○ 시장 내 한국, 동화, 중앙, 서울청과에 출하되며 선별, 중량 등의 상품성이 뛰어나 상위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음	○ 시장 내 2그룹 산지 -밀양 무안농협 -전체 물량은 1그룹이나 전국소비를 하고 있으며 가락시장 내 반입량은 2그룹임
브랜드	○ 2, 3그룹은 상품의 질면에서 남밀양 초동지소와 차이는 없으나 브랜드 및 홍보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상품의 질과 수준이 뛰어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브랜드가 많이 알려짐	
선별, 포장	○ 10kg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2, 3그룹은 중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 포장디자인은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요구됨.	
	○ 박스의 재질이 튼튼하며 규격포장출하를 하고 있음(10kg 포장)	
종합적 경쟁력	○ 브랜드파워의 강화를 위하여 선별에 신경을 써야하며 종합적인 경쟁력은 최상위로 판단됨. ○ 시장 내 지배력과 시즌 중 지속적인 출하를 통한 지지도 제고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 브랜드 파워가 강하며 시장 내 경쟁력이 있음. 종합경쟁력은 상위정도임	

3 파리고추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밀양지역 5개 면에서 파리고추를 주로 출하하고 있음 1그룹: 산동농협 단장지소(중앙), 청도농협(한국) 2그룹: 산동농협 안법지소(동화, 한국) 3그룹: 산동농협(동화), 부북농협(농협, 서울) ○ 첫 출하시는 가격이 비슷하나 점차 가격폭이 커짐	○ 전라도 지역보다는 품질 면에서 우수하여 가락시장 겨울철 시세를 좌우하고 있음
	○ 시장 내 3개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으로 상위 수준임 ○ 가격은 최상위의 80% 수준임 ○ 품질이 뛰어나며 공동선별장 운영으로 선별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음	○ 시장 내 1그룹 산지 -청도농협 -부북농협 -산동농협(본소, 안법지소, 단장지소)
브랜드	○ 상품의 질은 우수하며 각 지역의 특색이 없음 - 밀양지역 파리고추 브랜드 통합이 요구됨	
	○ 상품의 질과 수준은 높고 브랜드 개발은 보통임	
선별, 포장	○ 4kg 소포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므로 시장 가격 경쟁에서 우수함 ○ 밀양 4kg 박스로 통합이 요구되며 시장상황에 맞게 대과 선별에 주의 필요로 함	
	○ 규격포장 출하되며 4kg 출하를 하고 있음. 디자인은 뛰어난 편임	
종합적 경쟁력	○ 브랜드 개발로 인하여 시장 대응력 강화가 요구됨 ○ 종합적인 경쟁력은 상위 수준 ○ 시장 물량 점유율은 집중 출하시기인(11월~4월) 높음 ○ 시즌중에도 지속적인 출하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지 요망	○ 4월~8월(충청도지역) 면천, 고덕, 봉산 ○ 8월~11월(전라도지역) 대촌, 평동, 삼도 ○ 틈새: 경기지역 지제, 양동
	○ 브랜드 파워가 강하며 종합경쟁력은 상위권임	○ 출하시기가 밀양 타 지역보다 늦게 출하되어 품질이 우수한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음

4 밀양딸기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전국 딸기 재배 면적 중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재배면적이 많으나, 가락시장 출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근래에 소량으로 출하되고 있으나 품위 정도는 “하”수준이라고 평가됨. ○ 또한 가격도 중, 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됨.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음. ○ 가락시장에서 알려진 브랜드는 없음.	○ 딸기는 시기별로 “상급” 수준의 차익이 다름. *장회: 경남 산청(12월~2월) *육보: 부여 구룡, 진남 남양(11월~1월)
	○ 품질은 중상위 수준이나 포장 및 선별불량에 따라 시장에서 중하위 수준 가격	○ 상남농협 오산지소(외산 작목반)
브랜드	○ “육보”품종이 상품으로서 괜찮다는 평판이 있음. ○ 선별수준 아직 미흡(속박이 등)	○ 도매시장의 대표적인 가락시장 출하를 늘려야 할 것임.
	○ 상품의 질과 수준은 높는데 반해 계통출하 비율이 매우 낮고 위탁판매 성행으로 브랜드개발 의욕 저조	○ 다라이(20kg) 위주 위탁 판매
선별, 포장	○ 포장도 규격포장을 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	○ 선별이 우수한 작목반으로의 견학 필수(가락시장 견학 필요)
	○ 다라이(20kg) 작업에 익숙한 지역이라 종이상자 작업 시 과수 크기 및 선택 등 일률적인 정렬작업이 뒤떨어지고 포장지 디자인도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짐.	○ 외산작업반 등은 계통출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다라이 작업에서 종이상자 작업으로 전환 노력 중임.
종합적 경쟁력	○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도매시장으로의 출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시장 내 물량지배력을 갖추어야 함. ○ 가락시장 내 종합적 경쟁력은 중, 하 정도임	○ 과거 논산지역의 경우 가락시장 출하가 미비하여 가격 수준은 중, 하였으나 현재 가락시장 출하량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가격 또한 중, 상으로 상승하였음.
	○ 다라이(20kg) 위탁판매를 줄이고 도매시장 위주의 계통출하 확대가 요구됨. ○ 고품질 지역인 담양 및 산청지역 견학 등으로 작업방법 및 포장 개선 요구됨.	

5 밀양단감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시장 내 5개 그룹 중 상위 수준. ○ 밀양 산내지소 출하 단감은 재배 관리, 상품관리가 뛰어나 시장에서 상위수준 가격 받음(밀양 용전 작목반)	
	○ 품질은 중상위 수준이나 포장 및 선별문제에 따라 중상위 시세	밀양상남농협
브랜드	○ 상품의 질적 수준은 높으나 그에 상응한 브랜드 개발이 미흡함	
	○ 일부 “저농약 및 품질인증품”이 출하가 되고 있으나 당도 및 색상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지속적인 출하보다는 시세에 따른 출하로 중도매인 선호도가 약함	
선별, 포장	○ 타 지역에 비해 깨끗이 작업함	
	○ 서촌조생: 모양은 양호하나 수정이 되지 않는 단감이 많고 또한 미숙과 많음 ○ 부유: 선별포장은 양호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포장상자 보완이 필요	
종합적 경쟁력	○ 타 지역보다 시세가 좋음 ○ 종합적 경쟁력은 상, 중 정도 수준	
	○ 계통출하에 따른 지속적인 출하 ○ 위탁상의 위수거래를 탈피 ○ 도매시장의 잦은 방문에 따른 타 지역 포장재 및 선별, 비교 분석 필요	

6 밀양얼음골사과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타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향이 좋아 소비자 호응도가 좋음 ○ 타 지역에 비해 5kg 포장시 2~3천원 높은 가격을 받음	
브랜드	○ 밀양 얼음골사과는 브랜드는 가지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빈도가 낮아 시장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품성화될 여지가 큰 지역임.	
선별, 포장	○ 선별은 다른 포진 거래 및 지방 출하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짐. ○ 포장은 타 지역에 비해 도매시장 출하는 5kg 포장으로 비교적 규격화 포장을 하고 있음.	
종합적 경쟁력	○ 얼음골 사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 선별 및 포장에 신경 쓰고 도매시장에 꾸준한 출하가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에서 타 지역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큼.	

7 밀양 배

항목	평가	비고
품위 및 가격	○ 시장 내 소량 출하되고 있으나 포장 및 선별 경쟁력에서 많이 뒤쳐져 있음	
브랜드	○ 가락시장에서 출하되는 밀양 배의 브랜드는 없음.	○ 품질 보상(품종 개량 및 생산기법 차별화로 상품성 제고), 가격 경쟁력, 소비자 접근성의 제고(포장 단위, 디자인 등)를 통해 브랜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요함
선별, 포장		<선별> * 등급: 특, 상, 중 선별 철저 - 기형과, 색태, 결집과, 크기, 등급 등 <포장> * 다양화, 고급화(디자인 등) * 소포장화(운반이 편리하고 숙박이 근절 및 압상 피해 방지) * 포장 내용물과 표전 표식 실시 시장 출하시 철저한 선별과 지속적인 정보 입수로 물동량을 공급하고 이미지를 쇄신하여 인지도 제고 필요
종합적 경쟁력	-	-